



해적解的 노략국어

[다] 음달에[모] 의고서[또] 본다

**다모또**

07월 인천

2011

95

90

84

73

2012

95

90

84

76

2013

A96 B95

A93 B90

A88 B85

A80 B75

2014

A94 B95

A89 B93

A83 B87

A73 B78

2015

A98 B98

A94 B94

A88 B89

A77 B76

2016

98

94

82

84

제 1 교시

언어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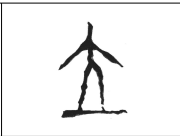

성명		수험번호						3			
----	--	------	--	--	--	--	--	---	--	--	--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써 넣으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써 넣고, 또 수험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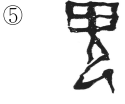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강사의 물음에 해당하는 글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자료 1 >

		
大	立	兄

< 자료 2 >

① 	② 	③ 
④ 	⑤ 	

2. (물음) 수업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 ① 차를 마시는 'cafe'는 '까페'가 아닌 '카페'로 표기해야 한다.
  - ② 화장품 'lip stick'은 '립스틱'이 아닌 '립스틱'으로 표기해야 한다.
  - ③ 달콤한 'chocolate'은 '초콜릿'이 아닌 '초콜릿'으로 표기해야 한다.
  - ④ 일본의 수도인 'Tokyo'는 '도오쿄오'가 아닌 '도쿄'로 표기해야 한다.
  - ⑤ 응원할 때 외치는 'fighting'은 '화이팅'이 아닌 '파이팅'으로 표기해야 한다.

3. (물음) 이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배려하는 작은 실천이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
- ② 소망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한다.
- ③ 자신의 직업에 소명 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④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을 중시해야 한다.
- ⑤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은 자신과 타인에게 해가 될 수 있다.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4. (물음) 의견에 대한 근거 제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발언자	의견	근거 제시 방법
여교수	칭찬은 자존감과 성취도를 높인다.	개념을 밝히며 의견을 제시함.....①
남교수	칭찬은 과정을 무시하게 할 수도 있다.	사례를 들어 상대의 의견을 반박함.....②
여교수	칭찬받으면 더 능동적인 아이가 된다.	상대의 사례를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여 다시 의견을 제시함.....③
남교수	칭찬은 아이들을 평가하는 것이다.	권위자의 말을 인용해 상대의 의견을 재반박함.....④
여교수	칭찬을 많이 해주자.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며 각자의 의견을 마무리함.....⑤
남교수	과정을 돌아보고 정리하게 하는 칭찬이 필요하다.	

5. (물음) 발언자들이 '칭찬'에 대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 ① 칭찬의 빈도를 조절해야 한다.
- ② 칭찬의 역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 ③ 칭찬은 일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 ④ 과정을 중시하는 칭찬이 더 바람직하다.
- ⑤ 아이들과의 대화는 칭찬으로 시작해야 한다.

이제 듣기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어떤 대상에서 추출한 의미를 바탕으로 ‘학생회장 선거를 위한 전략’에 관한 글을 쓰고자 한다. 추출한 의미로부터 연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작상의 대상>		<추출한 의미>	<연상한 내용>
	열쇠	잠긴 곳을 열어준다.	자신의 역량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알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①
	건전지	에너지를 제공한다.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힘을 보태주어 도움이 될 수 있는 후보임을 강조한다. ②
	확성기	소리를 확대한다.	학생들의 요구 사항이 학교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③
	부채	바람으로 더위를 식힌다.	학교 생활에서 느끼는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공약을 발표한다. ④
	블록	쌓아서 완성해 간다.	학생 개개인의 힘을 모아 발전하는 학교를 만들어가자고 제안한다. ⑤

7. ‘어린이 아토피 치료제’의 광고 문구를 제작하려 한다. <보기>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것은?

—<보 기>—

- 제품의 사용 방법과 효능이 잘 드러날 것
- 비유를 사용하고 어린이들에게 친근감을 드러낼 것

- ① 천연 오일을 사용했어요. 유의 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시고 먹었을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하세요.
- ② 밤이 되면 더 힘들었죠? 자기 전에 아픈 부위에 잘 발라 봐요. 비단결 같은 새살이 돌아와 줄 거예요.
- ③ 당당하게 웃음을 지어보아요. 더운 여름 아기의 찡그림은 싫어요! 보석처럼 고귀한 아름다움을 지켜줄게요.
- ④ 신개념 아토피 개선 치료제가 왔습니다. 매일 저녁 가려운 곳에 발라주십시오. 피부를 곱게 해줍니다.
- ⑤ 고통에 힘겨웠던 시간을 돌려드립니다. 깨끗이 씻고 아픈 곳에 발라 볼까요. 촉촉하고 부드러운 피부가 될 거예요.

8. <보기>는 ‘우리 학교 수학여행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하여 작성한 개요이다. 개요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I. 수학여행 활동의 특징 .....㉠

1. 수학여행 장소가 많은 학생들이 이미 다녀온 적이 있는 곳임.
2. 관람을 할 때에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몰려들어서 혼란스러움. ....㉡
3. 식사 시간에 학생들이 많아서 복잡하였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 ....㉢
4. 대부분의 활동이 별다른 즐거움 없이 따분함.

II. 문제점의 원인

1. 학생들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수학여행 장소가 결정됨.
2. 학년 전체가 같은 장소로 수학여행을 감으로써 행사 참여 인원이 대규모임.
3. 대부분의 활동이 단순한 관광 위주의 활동으로 치우쳐 있음.

III.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

1.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학여행 장소를 결정함.
2. 학급별로 수학여행 장소를 다양화하여 행사 참여 인원이 소규모가 될 수 있도록 분산함.
3.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지루하고 따분함. ....㉤

IV. 수학여행 문제점의 개선 촉구 .....㉥

- ① ㉠은 하위 항목을 잘 포괄할 수 있도록 ‘수학여행 활동의 문제점’으로 고쳐야겠어.
- ② ㉡과 ㉢은 유사한 상황이므로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야겠어.
- ③ ㉣에는 ‘II-3’을 고려하여, 직접 체험해 보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겠어.
- ④ ㉤은 상위항목과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해야겠어.
- ⑤ ㉥은 글 전체의 내용을 감안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수학여행 장소의 선정’으로 수정해야겠어.

9. '도시철도의 제반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 방안'에 관한 글을 쓰고자 할 때, <보기>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 신문 보도 자료

정부는 도시철도공사의 운영 적자로 인한 재정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예정되었던 신규 도시철도 노선 건설이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시철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신문-

(나) 인터뷰 자료

1.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지하철이 아닌, 지옥철을 타는 것 같아요. 목적지까지 자리에 앉아서 간다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죠. 도시철도 노선이 새로 더 만들어진다면 보다 편한 출근길이 될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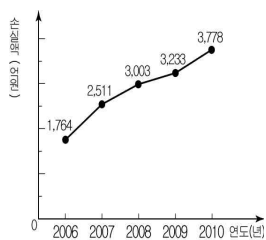
-30대 직장 여성-

2. 저희 △△도시철도는 역사(驛舍)를 어린이 체험학습장, 청소년 음악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정난을 극복하였습니다. 또한 철도역을 테마파크로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했던 외국의 모범 사례를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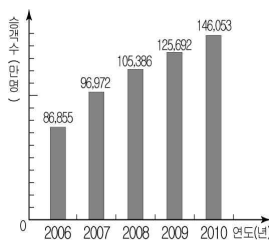
-△△도시철도공사 직원-

(다) 통계 자료

1. 연도별 ○○도시철도 손실액



2. 연도별 ○○도시철도 승객수



- ① (가)를 활용하여, 도시철도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 ② (나)-2를 활용하여, 도시철도 재정난 극복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고, 이것이 수익 창출의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③ (가)와 (나)-1을 활용하여, 도시철도공사의 수익 증대를 통해 발생한 이익이 신규 노선 증설로 이어져야 함을 주장한다.
- ④ (나)-1과 (다)-1을 활용하여, 도시철도 재정 악화의 원인이 이용객의 불편 건수가 늘어남에 있음을 제시한다.
- ⑤ (가)와 (다)-1, (다)-2를 활용하여, 도시철도 이용자 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손실액이 증가하여 도시철도공사의 재정난이 심화되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10. 다음은 '불법 다운로드 근절을 위한 캠페인'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글의 초고이다.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영화를 비롯한 모든 문화 콘텐츠는 제작자가 흘린 수많은 땀방울의 결정체이다. 그런데도 이처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다운로드하는 것은 ㉠제작자의 창작 의지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제작자와 이용자의 불신을 ㉡조장하는 일이 된다. 그래서 일부 네티즌들의 발의로 불법 다운로드를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번 캠페인은 올바른 다운로드로 당당하게 문화 콘텐츠를 즐기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화를 비롯한 문학, 사진, 음악 등 문화 콘텐츠의 저작권이 보호되어야 마땅하다.

인터넷상에서 영화나 음악 등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아무리 정부 당국자가 불법 다운로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여도 여전히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네티즌들의 수는 줄지 않고 있다.

문화 콘텐츠의 불법 다운로드를 근절한다면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산업의 수익성 악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청소년들이 불법 다운로드 근절을 위한 이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문화 예술 산업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① 글의 흐름을 살피 첫째 문단과 둘째 문단의 순서를 바꿔야겠어.
- ② ㉠은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제작자의 창작 의지를 꺾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로 고쳐야겠어.
- ③ ㉡은 어휘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조성하는'으로 바꾸어야겠어.
- ④ ㉢은 문단의 통일성에 어긋나므로 삭제해야겠어.
- ⑤ ㉤은 문맥을 감안하여 ㉣로 옮겨야겠어.

11.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1 >

**<관형사형 어미>**  
한 문장이 또 하나의 문장을 안고 있을 때, 관형사형 어미는 안겨 있는 문장의 서술어에 붙어 그 문장이 관형어의 역할을 하도록 만든다. 관형사형 어미는 용언의 어간과 결합하여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나타내거나 추측, 의지 등의 의미를 포함하기도 한다. 관형사형 어미에는 ‘-은’, ‘-는’, ‘-을’ 등이 있다.

< 보기 2 >

ㄱ. 내가 지금 읽는 책은 준향전이다.  
 ㄴ. 이 사진 어제 찍은 거냐?  
 ㄷ. 머리가 짧은 소녀가 수미야.  
 ㄹ. 학교에 남아 있을 사람은 학습실로 가렴.

- ① ㄱ의 ‘-는’은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나타내는구나.
- ② ㄴ과 ㄷ을 보니 ‘-은’은 과거 시제뿐 아니라 현재 상태도 나타내는구나.
- ③ ㄱ~ㄷ을 보니 ‘-는’, ‘-은’은 동사 어간에는 모두 결합할 수 있지만, 형용사의 어간에는 ‘-는’이 결합하는 데 제약이 있구나.
- ④ ㄹ의 ‘-을’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추측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구나.
- ⑤ ㄹ의 ‘-을’은 ‘학교에 남아 있다’가 ‘사람’을 꾸미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구나.

12. <보기>의 ‘걸다’를 피동으로 바꾼 예문으로 알맞은 것은?

< 보 기 >

걸다[동사] ① 벽이나 못 따위에 어떤 물체를 떨어지지 않도록 매달아 올려놓다.  
 ② 자물쇠, 문고리를 채우거나 빗장을 지르다.  
 ③ 기계 따위가 작동하도록 준비하여 놓다.  
 ④ 어느 단체에 속한다고 이름을 내세우다.  
 ⑤ 어떤 상태에 빠지도록 하다.

- ① ‘걸다①’: 그는 문단에 이름이 걸린 작가다.
- ② ‘걸다②’: 그는 걸려 있지 않은 문을 활짝 열었다.
- ③ ‘걸다③’: 나의 그림이 드디어 미술실 벽에 걸렸다.
- ④ ‘걸다④’: 그는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멍하게 서 있었다.
- ⑤ ‘걸다⑤’: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기까지 시간이 꽤 흘렀다.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제야(除夜)\* 김영랑

제운\*밤 촛불이 찌르르 녹아버린다  
 못 견디게 무거운 어느 별이 떨어지는가

[A]

어둑한 골목골목에 수심은 떴다 갈앉았다  
 제운맘 이 한밤이 모질기도 하온가

희부안 종이등불 수줍은 걸음걸이  
 샘물 정히 떠붓는 안쓰러운 마음걸

한 해라 그리운 정을 뭉고\* 쌓아 흰 그릇에  
 그대는 이 밤이라 맑으라 비사이다.

\* 제야(除夜) : 음력 설날 그믐날 밤  
 \* 제운 : ‘겨운’의 방언으로 ‘참거나 견디기 힘들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조어(造語)이다.  
 \* 뭉고 : ‘모으고’의 고어(古語)이다.

(나) 신부(新婦) 서정주

신부는 ①초록 저고리 다홍치마로 겨우 귀밑머리만 풀리운 채 신랑하고 첫날밤을 아직 앉아 있었는데, 신랑이 그만 오줌이 급해져서 냉큼 일어나 달려가는 바람에 옷자락이 문 돌쩌귀에 걸렸습니니다. 그것을 신랑은 생각이 또 급해서 제 신부가 음탕해서 그 새를 못 참아서 뒤에서 손으로 잡아다니는 거라고, 그렇게만 알곤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 버렸습니니다. 문 돌쩌귀에 걸린 옷자락이 찢어진 채로 오줌 누곤 못 쓰겠다며 달아나 버렸습니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인가 50년이 지나간 뒤에 뜻밖에 ②땀 불일이 생겨 이 신부네 집 옆을 지나가다가 그래도 잠시 궁금해서 신부방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신부는 귀밑머리만 풀린 첫날밤 모양 그대로 초록 저고리 다홍치마로 아직도 고스란히 앉아 있었습니니다.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 그 어깨를 가서 어루만지니 그때서야 매운 재가 되어 폭삭 내려앉아 버렸습니니다. 초록 재와 다홍 재로 내려앉아 버렸습니니다.

(다) 10월 오세영

무언가 잃어 간다는 것은  
 하나씩 성숙해 간다는 것이다.  
 지금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때,  
 돌아보면 문득  
 나 홀로 남아 있다.  
 그리움에 목마르던 봄날 저녁  
 불분히 지던 ㉠꽃잎은 얼마나 슬펐던가.

욕정으로 타오르던 여름 한낮  
 화상 입은 ㉠일새들은 또 얼마나 아팠던가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앓을 것이 없는 때,  
 이 지상에는  
 외로운 목숨 하나 걸려 있을 뿐이다.  
 낙과(落果)여,  
 네 마지막의 투신을 슬퍼하지 말라.  
 마지막의 이별이란 이미 이별이 아닌 것  
 빛과 향이 어울린 또 한번의 만남인 것을, [B]  
 우리는  
 하나의 아름다운 이별을 갖기 위해서  
 오늘도  
 ㉡있어 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감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정서를 드러낸다.
  - ② 자연의 변화를 표현하여 화자의 미래를 암시한다.
  - ③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자아낸다.
  - ④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애상적 분위기를 고조한다.
  - ⑤ 구도적인 자세를 통해 사물이 지닌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다.

14.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제야」는 현실에 대한 상실감과 이에서 벗어나고 싶은 바람을 기원 행위를 통해 드러낸 작품이다. 그리고 이 시는 불의 고독, 광명, 구원 등의 상징성과 물의 맑음, 위안, 정화 등의 상징성을 사용해 제야를 보내며 새해를 맞는 전통적인 여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① 제1연에서 ‘촛불’이 ‘녹아버린다’는 여인의 고독을 하강 이미지를 통해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② 제2연에서 ‘어둑한 골목’, ‘수심’ 등으로 보아, ‘제운맘’은 현실에서 비롯된 근심과 상실감을 나타낸 것이겠군.
- ③ 제3연에서 ‘안쓰러운 마음결’은 ‘등불’, ‘샘물’과 결합하여 구원과 정화를 소망하는 여인의 간절함을 나타내는 것이겠군.
- ④ 제4연 첫 행에서 ‘흰 그릇’에 쌓인 ‘정’은 천지신명에 대한 감사와 새해를 맞는 기쁨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⑤ 제4연 둘째 행에서 ‘맑으라 비사이다’에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기원이 담겨 있겠군.

15.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B]와 달리 대상을 의인화하여 친근감을 드러낸다.
- ② [A]는 [B]와 달리 동일한 종류의 종결어미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드러낸다.
- ③ [B]는 [A]와 달리 대상의 감각을 전이시켜 입체감을 드러낸다.
- ④ [A]와 [B] 모두 역설법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낸다.
- ⑤ [A]와 [B] 모두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의지를 드러낸다.

16.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신부」는 버림받은 신부의 한(恨)을 다룬 ‘일월산 황씨 부인당 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신부」는 달아난 신랑과 버림받은 신부, 이 두 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는 서사적인 성격을 지닌 작품이다.

- ① 신랑이 달아난 이유는 어처구니없게도 신부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군.
- ② 신부방 안과 밖의 대비를 통해 진실과 위선의 대립적인 구도를 드러내고 있군.
- ③ 신랑과 신부가 헤어져 있던 기간은 버림받은 신부의 한이 심화된 시간이었겠군.
- ④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는 신부의 모습을 보고, 신랑의 심경이 변화했겠군.
- ⑤ 신랑의 손길이 닿자 채로 내려앉은 신부의 모습에서, 신부의 한과 비극적인 삶의 깊이가 느껴지는군.

1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전형적인 신부의 복장을 통해 전통적인 여인의 모습을 환기시킨다.
- ② ㉡: 재회의 계기로, ‘잠시 궁금해서’와 연관 지어 볼 때 신랑의 무심한 태도가 드러난다.
- ③ ㉢: 계절적 이미지로, 새로운 희망을 품고 의지를 다짐하는 존재를 상징한다.
- ④ ㉣: 뜨거운 햇살을 견디며 열매를 맺기 위해 고통을 겪은 존재임을 드러낸다.
- ⑤ ㉤: 삶의 고뇌와 변민을 수용하는 성숙된 자세를 나타낸다.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비판적 존재론으로 유명한 독일 철학자 니콜라이 하르트만(Nicolai Hartmann)은 예술 작품의 존재 방식을 층이론(層理論)으로 설명하였다. 하르트만은 그의 저작 『미학』에서 예술 작품은 지각되는 실재적 재료인 ‘전경(前景)’과 비실재적이며 정신적 내포(內包)라고 할 수 있는 ‘후경(後景)’의 두 가지 구성 요소로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술 작품의 전경은 감각적이며 실재적인 ‘형상’의 층이지만, 후경은 비실재적 ‘이념’의 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예술 작품의 존재 방식은 전경과 후경의 이층적(二層的)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전경과는 달리 후경은 내용면에서 1층에서 4층으로 세분화되는 다층적 구조로 되어 있다. 후경의 여러 층은 유기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층 서열에 따라 앞 층에 의하여 다음 층이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감각적인 전경을 통해 이념적이고 정신적인 후경이 나타나는 것이다.

[A] 초상화를 구체적인 예로 든다면, 전경은 화면이라는 2차원 공간에 칠해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선과 색의 배치이다. 후경의 제1층은 묘사된 인물의 ‘외면적·물적’ 계층이고, 제2층은 앞의 물적 계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인물의 동작, 표정 등을 보여주는 ‘생명’ 계층이다. 제3층은 앞의 생명 계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인물의 성격, 내적 운명 등을 보여주는 ‘심적’ 계층이고, 마지막 제4층은 심적 계층을 바탕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인물의 본질, 이념, 작품의 의의 등을 보여주는 ‘정신적’ 계층이다.

하르트만은 예술 작품의 존재 방식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예술가와 감상자의 관계를 정립한다. 즉 예술가가 작품을 통해 전달하려는 정신 세계인 후경은 전경으로 형상화되고, 감상자는 전경을 통하여 예술가가 표현하고자 한 후경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술 작품을 감상한다는 것은 작품의 감각적, 현상적 층인 전경을 통하여 정신적 층인 후경에 깊숙하게 들어가 예술가와 만나고 그와 정신적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하르트만에 따르면, 예술 작품의 감상은 감상자가 주체적으로 예술가의 정신적 세계와 만나서 대화하고 교감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추체험\*을 넘어서 ③새로운 제2의 작품을 창조하는 것이다. 예술 작품의 감상이 단지 감각적인 쾌감만을 맛보고, 예술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논하는 데만 주안점을 둔다면 무슨 의의를 찾을 수 있겠는가. 감상은 감상자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의 정신을 살찌우는 것이어야 한다.

\* 추체험(追體驗) : 다른 사람의 체험을 자기의 체험처럼 느낌, 또는 이전 체험을 다시 체험하는 것처럼 느낌.

18. 위 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예술 작품의 감상 절차
  - 하르트만의 비판적 존재론을 바탕으로
- ② 예술 작품의 소재와 기법
  - 하르트만의 미학을 중심으로
- ③ 예술 작품의 존재 방식과 감상
  - 하르트만의 층이론을 중심으로
- ④ 예술 작품의 의의와 효용 가치
  - 하르트만의 예술 세계를 바탕으로
- ⑤ 예술 작품에 담긴 예술가의 정신 세계
  - 하르트만의 예술사를 중심으로

19. [A]를 이해한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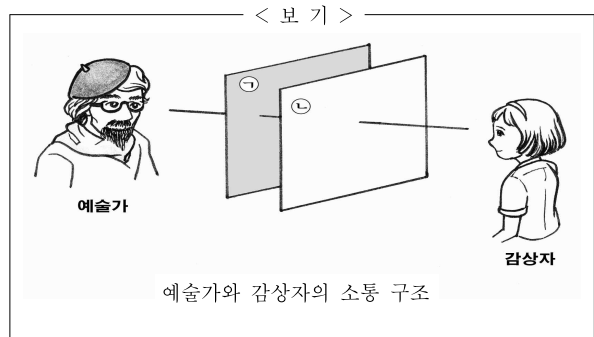
- 재용신, <황현 초상> -

황현(1855~1910)은 조선 후기의 유학자로, 나라가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기자 이에 항거하기 위해 ‘절명시’ 4수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초상화는 인물의 형형한 눈빛과 가는 수염,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있는 모습에서 선비 황현의 강한 의지와 기개 등이 그대로 전해지는 작품이다.

- ① 굵고 가는 선과 회고 검은 색이 보이는 것은 전경과 관련 있겠군.
- ② 인물의 얼굴이 점잖고 엄숙하게 느껴지는 것은 후경의 제1층과 관련 있겠군.
- ③ 허리를 곧게 펴고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인물의 모습은 후경의 제2층과 관련 있겠군.
- ④ 인물이 굳은 성품을 지닌 사람으로 느껴지는 것은 후경의 제3층과 관련 있겠군.
- ⑤ 조선 시대 유학자들이 추구하던 선비의 본성이 느껴지는 것은 후경의 제4층과 관련 있겠군.

20.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술가의 이념과 정신 세계는 ㉠에 있다.
- ② 선과 색으로 이루어진 실제적인 층은 ㉠이다.
- ③ 예술 작품의 ㉠은 하나의 층으로, ㉠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④ 예술가의 의도는 ㉠에서 비롯되어 ㉠을 통해 감상자에게 전 달된다.
- ⑤ 감상자는 ㉠을 통해 ㉠에서 예술가와 교감할 수 있다.

21. ㉠의 문맥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주관적인 정서를 객관화하는 것이다.
- ② 예술가의 뜻을 자신의 체험처럼 느끼는 것이다.
- ③ 정신적 가치를 발견하여 자신을 새롭게 형성하는 것이다.
- ④ 감각적인 면보다 기법적인 면에서 작품을 이해하는 것이다.
- ⑤ 기존의 예술 세계에서 벗어난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는 것이다.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동물들은 번식과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경쟁한다. 풀이나 나무라고 해서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 식물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뿌리나 잎, 줄기 등에서 특정한 화학 물질을 분비하여, 이웃하는 다른 식물의 발생이나 성장·번식을 억제하기도 한다. 이를 **알레로파시(allelopathy)**, 또는 타감 작용(他感作用)이라 한다. 그리고 이들이 내놓는 화학 물질을 타감 물질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알려진 몇 가지 알레로파시를 보자. 소나무 뿌리는 갈로탄닌이라는 타감 물질을 분비한다. 그리하여 그 거목 아래에는 다른 식물은 물론이고 제 새끼인 예술도 거의 살지 못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서식하는 관목의 일종인 살비아는 휘발성 터펜스를, 유칼립투스는 유카립톨을 줄기나 낙엽, 뿌리에서 뿜어내어 다른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잔디밭 한구석의 클로버가 잔디와 끈질기게 싸우면서 샤프터를 넓혀가는 것도 클로버가 분비한 타감 물질인 화약(火藥)의 역할 때문이다.

흔히 집에서 많이 키우는 허브나 제라늄 같은 식물은 그냥 가만히 두면 아무런 향기가 나지 않지만 쉰 바람이 불거나 슬쩍 건드리기만 해도 별안간 짙은 향기가 난다. 이는 재빠르게 침입자를 쫓는 그들만의 방식이다. 사람들은 그 향기가 좋다고 하지만 실은 외부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이다. 감자 싹눈에 들어 있는 솔라닌의 독성이나 마늘의 매운 냄새 성분인 알리신 역시 모두 제 몸을 보호하는 타감 물질이다.

병원균에 대한 식물의 방어 과정도 알레로파시 현상의 하나이다. 병원균이 식물의 세포벽에 납작 달라붙어 해로운 물질을 끼워 넣으면, 빠른 속도로 체관을 통해 비상 신호 물질을 온 세포에 흘려보낸다. 상처 부위는 단백질 분해 효소 억제 물질을 이끌어 세포벽 단백질의 용해를 막으면서 세포벽에 딱딱한 리그닌 물질을 층층이 쌓게끔 하고, 파이토알렉신과 같은 항생 물질까지 생성해 낸다.

식물은 화학 물질로 말을 한다. 주지하다시피 송충이는 솔잎을, 배추벌레는 배춧잎을 갉아먹으며 산다. 그런데 송충이와 배추벌레가 달려들 때 솔잎과 배춧잎 역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 그들은 서둘러 솔잎과 배춧잎의 상처 부위에서 테르펜이나 세키테르펜 같은 휘발성 화학 물질을 풍긴다. 그러면 말벌들이 그 냄새를 맡고 쏘살같이 달려온다.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 드는 천적을 어서 잡아라 달라고 말벌에게 신호를 보내는 그것들이 신기하지 않은가? 정말 만만찮은 창조물들이다.

22. 알레로파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다른 종의 힘을 이용해 자신을 보호하기도 한다.
- ② 같은 종이나 다른 종의 성장을 억제하기도 한다.
- ③ 기존 세력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 ④ 침입한 병원균에 대항하기 위해 항상 물질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 ⑤ 동식물 모두에게 나타나며 화학 물질을 활용해 자신을 지키 내기도 한다.

23. 위 글에 제시된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1점]

< 보 기 >

ㄱ. 알레로파시의 실험 방법  
 ㄴ. 알레로파시가 발생하는 과정  
 ㄷ. 알레로파시가 일어나는 목적  
 ㄹ. 알레로파시를 보이는 식물의 진화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24. 위 글과 <보기>를 함께 읽은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본래 매운맛을 내는 고추의 캡사이신이나 후추의 피페린은 타감 물질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음식을 만들 때 고추나 후춧가루를 사용하여 매운맛을 내기도 하고, 세균 증식을 억제시켜 음식의 부패를 막는 방부제로 쓰기도 한다. 특히, 북쪽 지방보다 남쪽 지방의 음식의 경우 캡사이신이 많이 함유된 방아풀의 잎이나 산초나무 열매가루를 김치나 곁절이 등에 더 많이 넣는다.

- ① 타감 물질은 인간의 삶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군.
- ② 산초나무 열매나 방아풀의 잎에 타감 물질이 들어있었군.
- ③ 타감 물질인 캡사이신이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방부제 역할을 했겠군.
- ④ 더운 지방의 식물일수록 알레로파시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군.
- ⑤ 고추나 후추가 지니고 있는 매운 성질은 자기를 지키려는 방어 기제라고 할 수도 있겠군.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옛 역사는 보고 싶지가 않아  
 볼 때마다 눈물이 흐르는 걸.  
 군자들은 반드시 곤역을 당하고  
 소인들은 득세한 자들이 많으니.  
 성공할 즈음이면 문득 패망 싹트고  
 안정될 듯하면 이미 위태함 따르네.  
 삼대시대 이후로는 오늘날까지  
 하루도 제대로 다스려진 적 없었도.  
 [백정]들이 무슨 잘못이 있는가.  
 저 푸른 하늘의 뜻 알 수가 없네.  
 지난 일도 오히려 이러하거늘  
 하물며 ㉠오늘날의 일이겠는가.

古史不欲觀  
 觀之每迸淚  
 君子必困厄  
 小人多得志  
 垂成敗忽萌  
 欲安危已至  
 從來三代下  
 不見一日治  
 生民亦何罪  
 冥漠蒼天意  
 既往尙如此  
 而況當時事

- 김육, 「관사유감(觀史有感)」 -

(나) 우리 맥 종의 버릇 보노라면 이상하다  
 ㉠소 먹이는 아이들이 상(上)마름을 능욕(凌辱)하고  
 오고 가는 어린 손을 큰 양반을 기롱(譏弄)한다  
 ㉡그릇된 재산 모아 다른 피로 제 일하니  
 한 집의 많은 일을 누라서 힘써 할까  
 곡식창고 비었거든 고직(庫直)인들 어이 하며  
 세간이 흩어지니 옹기인들 어이 할까  
 내 원 줄 내 몰라도 남 원 줄 모를런가  
 ㉢풀치거니 땀허거니 헐뜯거니 뉘거니  
 하루 열두 때 어수선 핀 것인가  
 밤별감 많이 있어야 외방마름 도달화도  
 ㉣제 소일 다 버리고 몸 꺼릴 뿐이로다  
 비 새어 썩은 집을 누라서 고쳐 이며  
 옷 벗어 무너진 담 누라서 고쳐 쌓을까  
 불한당 구멍 도적 아니 멀리 다니거든  
 화살 찬 수하상직(誰何上直) 누라서 힘써 할까  
 크나큰 기운 집에 [상진]님 혼자 앉아  
 명령을 뉘 들으며 논의를 누와 할까  
 낮 시름 밤 근심 혼자 말아 계시거니  
 옥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이리  
 이 집 이리 되기 누 탓이라 할 것인가  
 험 없는 종의 일은 문도 아니 하려니와  
 도리어 생각하니 상진님 탓이로다  
 내 상진 그르다 하기 종의 죄 많건마는  
 그렇다 세상 보며 민망하여 여쭙니다  
 새끼꼬기 멈추시고 내 말씀 들으소서  
 ㉤집 일을 고치거든 종들을 휘어잡고  
 종들을 휘오거든 상벌을 밝히시고  
 상벌을 밝히거든 어른 종을 믿으소서  
 진실로 이리 하시면 가도(家道) 절로 일겁니다

- 이원익, 「고공답주인가(雇工答主人歌)」 -

(다) 나무가 있다.  
 그는 나의 오랜 이웃이요, 벗이다. 그렇다고 그와 내가 성격  
 이나 환경이나 생활이 공통한 데 있어서가 아니다. 말하자면  
 극단과 극단 사이에도 애정이 관통할 수 있다는 기적적인 교본

의 한 표본에 지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처음 그를 께 불행한 존재로 가소롭게 여겼다. 그의 앞  
 에 설 때 슬퍼지고 측은한 마음이 앞을 가리곤 하였다. 마는  
 오늘 돌이켜 생각건대 나무처럼 행복한 생물은 다시없을 듯하  
 다. 군에는 이루 비길 데 없는 바위에도 그리 탐탐치는 못할  
 망정 자양분이 있다 하거늘 어디로 간들 생의 뿌리를 박지 못  
 하며 어디로 간들 생활의 불평이 있을소냐. 칙칙하면 솔솔 솔  
 바람이 불어오고, 심심하면 새가 와서 노래를 부르다 가고, 출  
 출하면 한 줄기 비가 오고, 밤이면 수많은 별들과 오순도순 이  
 야기할 수 있고—보다 나무는 행동의 방향이란 거주장스런 과  
 제에 봉착하지 않고 인위적으로든 우연으로써든 탄생시켜준 자  
 리를 지켜 무진무궁한 영양소를 흡취하고 영롱한 햇빛을 받아  
 들어 손쉽게 생활을 영위하고 오로지 하늘만 바라고 뻗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행복스럽지 않느냐.

이 밤도 과제를 풀지 못하여 안타까운 나의 마음에 나무  
 의 마음이 점점 육아오는 듯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랑을  
 자랑치 못함에 빠져리는 듯하다.  
 마는 나의 젊은 선배의 웅변이 왈 선배도 믿지 못할 것이  
 라니 그러면 영리한 나무에게 나의 방향을 물어야 할 것인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동이 어디냐, 서가 어디냐, 남이 어  
 디냐, 북이 어디냐. 아라! 저 별이 번쩍 흐른다. 별똥 떨어진  
 데가 내가 갈 곳인가 보다. 하면 별똥아! 꼭 떨어져야 할 곳  
 에 떨어져야 한다.

- 윤동주, 「별똥 떨어진 데」 -

25.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의문형 진술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시  
 키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인간의 유한성을 드  
 러내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밝음과 어둠의 이미지를 대비하여 작품의 흐름  
 을 주도하고 있다.
  - ④ (가)~(다)는 차분하고 담담한 어조를 바탕으로 하여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 ⑤ (가)~(다)는 시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작품의 분  
 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26. ㉠~㉤ 중, ㉢와 거리가 먼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27. (가)의 [백정]과 (나)의 [상진]에 대한 화자의 공통적인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처지에 안타까워하며 현실을 탄식하고 있다.
  - ② 대상과 자신을 비교하며 삶에 회의를 느끼고 있다.
  - ③ 대상을 관조하며 인생의 의미를 반추하고 있다.
  - ④ 대상을 예찬하며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대상의 심정에 공감하며 격려하고 있다.

28. <보기>를 참고하여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운동주 작품 세계의 근간은 자아에 대한 성찰에서 오는 부끄러움의 정서이다. 그의 고뇌는 외부의 부정적 현실을 인식한 뒤에 느끼게 되는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와의 괴리에서 비롯되었다. 즉, 현실과 이상 속에서 늘 이상을 지향하지만 직접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지식인의 고뇌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① ‘이 밤’은 외부의 부정적 현실을 상징하겠군.
- ② ‘과제’는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의 괴리를 극복하는 것이겠군.
- ③ ‘나의 마음에 나무의 마음’이 ‘올아오는’ 것은 직접적으로 행동하겠다는 다짐의 표현이겠군.
- ④ ‘자랑을 자랑치 못함’에는 소극적인 지식인의 고뇌가 드러나 있겠군.
- ⑤ ‘꼭 떨어져야 할 곳’은 작가가 지향하는 이상을 나타내겠군.

[29~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업이 자본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이 주식이다. 기업은 주식의 발행을 통해 기업 운영의 자본금을 마련하고, 이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 즉 주주들은 기업 운영을 통해 거둔 수익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게 된다. 그리고 이 주식은 금융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것으로 사람들은 ㉠해당 기업의 과거 실적에 근거하여 그 기업의 주식을 선택하거나, 기업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견해에 따라 그 기업의 주식을 선택하기도 한다.

사람들이 주식거래를 할 때 살펴보는 기본적인 자료에는 주식거래표와 주식 차트가 있다. 주식거래표에는 현재가, 시가, 증가, 고가, 저가, 전일비, 액면가 등이 표시되어 있어 해당 기업의 주식거래 현황 및 가치와 정보 등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현재가’는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의 가격을 말하고, ‘시가’는 주식 시장이 열리는 시각의 가격, ‘증가’는 시장 마감 시각의 가격이며 주식 시장이 마감한 후에는 ‘현재가’를 ‘증가’로 본다. ‘고가’는 하루 중 해당 주식의 가격이 가장 높았을 때, ‘저가’는 가장 낮았을 때의 가격을 말한다. ‘전일비’는 어제의 증가에 비해 오늘의 현재가가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를 금액으로 보여주고 ‘등락률’은 그것을 비율로 보여준다. ‘액면가’는 주식 시장에 처음 상장되었을 때의 주식 증권에 표시되어 있던 가격을 말한다.

또한 상장주식수, 시가총액, PER 등도 표시되어 있는데 상장주식수는 증권 시장에 상장된 해당 기업의 총 주식 수를 의미하며 이 상장주식수와 현재가를 곱한 금액이 ‘시가총액’이 된다. ‘PER’(Price Earning Ratio, 주가 수익 비율)는 시장에서 평가받는 해당 주식의 가격 수준을 알려주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PER가 낮다면 해당 주식이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PER가 높다면 고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주식 차트는 일정기간 주식 가격의 흐름을 한눈에 보여준다. 차트에는 이동평균선, 거래량 등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주식 차트는 하루나 5일, 60일 등 다양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만

들어진다. 주식 차트의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 동안의 주식 가격을 평균화해서 만든 선으로, 주식 가격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또한 주식 차트에 표시되는 ‘거래량’은 주식이 거래된 양을 보여준다. 주식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래량의 변화로 주가의 움직임을 예측하기도 한다.

주식거래표나 주식 차트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도움을 준다. 하지만 상승하리라 믿었던 주식의 가격이 예기치 못한 변수들로 인해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식의 매매는 신중해야 한다.

29.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 ① 거래량으로 해당 주식의 가격 동향을 예측할 수 없다.
- ② 어제의 증가와 오늘의 현재가의 차가 크면, 등락률도 크다.
- ③ 상장주식수를 통하여 당일 주식의 총 거래량을 알 수 있다.
- ④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 동안에 변화된 시가와 증가의 합이다.
- ⑤ 저가에서는 주식이 적게 거래되고, 고가에서는 주식이 많이 거래된다.

30. 다음은 ○○전자의 주식거래표를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다. 표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자	2011년 7월 13일(수) 시장 마감 이후		
현재가(원)	50,000	시가(원)	49,000
전일비(원)	▲1,000	고가(원)	55,000
등락률(%)	2.04	저가(원)	48,000
거래량(주)	50	액면가(원)	5,000
상장주식수(주)	100	PER(배)	2.5

(단, ▲는 상승을 의미함.)

- ① ‘○○전자’의 전일 증가는 49,000원이군.
- ② ‘○○전자’의 시장 마감 이후 주식의 가격은 50,000원이군.
- ③ ‘○○전자’가 시장에 처음 상장되었을 때의 주식 가격은 5,000원이었군.
- ④ ‘○○전자’의 일주일 전 시장 마감 직후의 PER가 2라면, 지금의 주식은 그때에 비해 고평가되어 있군.
- ⑤ ‘○○전자’의 액면가 5천원에 상장주식수 100주를 곱한 가격인 50만원이 이 기업의 현재 시가총액이군.

31. ㉠과 유사한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유명 연예인이 광고하는 회사의 제품을 추천하였다.
- ② 의사의 조언에 따라 건강관리를 위해 수영을 시작하였다.
- ③ 다소 비싸지만 다양한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구매하였다.
- ④ 최근 5년간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학에 진학하였다.
- ⑤ 화려한 디자인의 옷보다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선물하였다.

[32~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우애(philia)’란 선의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필수적인 것이라고 했다. 우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무생물이어서는 안 되고, 또한 상대가 자신의 선의에 응답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무생물은 생명이 없기에 선의 또한 있을 수 없으며, 주기만 하는 사랑은 주는 사람의 일방적 선의로만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애의 형태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득을 위한 우애, 둘째는 쾌락을 위한 우애, 셋째는 선의에 의한 즉, 상대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바탕을 둔 우애가 그것이다. 그런데 이득이나 쾌락을 위한 우애는 완전한 우애가 될 수 없다. 이득을 위해서 친구를 사귀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얻으려하기 때문이다. 쾌락을 위한 우애도 이와 유사하다. 예를 들어 유머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그의 성품 때문이라기보다는 그와 함께 있으면 자신이 유쾌해지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상대방의 성품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얻을 것이 있거나 유쾌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우애는 상대방이 전과 달라지면 쉽게 없어지므로 완전한 우애로는 볼 수가 없다.

완전한 우애란 선한 사람들 사이의 우애이다. 자신의 친구를 위해서 좋은 것을 바라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의미의 친구라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성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완전한 우애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양자 모두가 선의를 유지해야만 한다.

동등한 관계에서의 우애와 달리 동등하지 않은 관계에서도 완전한 우애는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아들의 우애, 우월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우애가 그것이다. 이럴 경우 우애는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거나 배려함으로써 그 우애를 유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족적인 사람에게도 우애가 필요할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혼자만 느끼는 행복보다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더 큰 행복을 느끼기 때문이다.

32. 위 글의 집필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우애의 다양한 양상을 살펴보고, 완전한 우애에 대하여 소개하기 위해
- ② 우애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를 완전한 우애와 그렇지 않은 우애의 차이에서 찾기 위해
- ③ 완전한 우애의 필요성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해보고, 그것을 특정한 기준으로 나누어 정리하기 위해
- ④ 완전한 우애가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을 분석해보고 각 조건의 타당성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해
- ⑤ 동등한 관계의 우애와 그렇지 않은 관계의 우애에서 드러나는 차이점을 바탕으로 완전한 우애의 지속성에 대하여 탐구하기 위해

33. 위 글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쾌락이 이득보다 우선한다고 했는데, 때로는 이득이 쾌락보다 더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봐.
- ② 우애는 선의와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애는 선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이 있다고 봐.
- ③ 주기만 하는 사랑은 선의가 아니라고 했는데, 어찌하였든 사랑은 선한 마음이므로 선의라고 볼 수 있어.
- ④ 집단 간의 우애는 성립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집단을 구성하는 것은 개인이므로 집단 간의 우애도 성립할 수 있다고 봐.
- ⑤ 유머 있는 사람을 단순히 유쾌해서 좋아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의 여유롭고 긍정적인 성품을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어.

34.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선진국 A는 빈곤국 B의 높은 질병 발생률을 우려해서 B를 위한 마음으로 약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 이로 인해 B의 질병 발생률은 크게 줄었으며, A는 국제 사회로부터 그 선의를 인정받았다. 게다가 약의 효과가 높다는 것이 알려져 그 판매율이 크게 늘어나 예상치 못한 이득을 얻기도 했다. 이에 자극을 받은 C국은 수익 창출을 위해 B국에 무상으로 약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 ① A국이 B국에게 약을 공급한 이유는 B국이 잘되기를 바라는 선한 마음 때문이다.
- ② B국 역시 A국에게 선의를 보여주어야 완전한 우애라고 할 수 있다.
- ③ A국은 B국의 질병 발생률이 낮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약을 무상으로 공급했으므로 이득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
- ④ A국과 B국의 관계가 동등하지 않으므로 A국의 선의가 B국에 수용되기 위해서는 B국에 대한 지원을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한다.
- ⑤ C국은 A국과 달리 이익을 위해 B국을 대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이익을 충분히 실현한 뒤에는 B국에 대한 지원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다.

35. <보기>는 ‘-되다’에 대한 설명이다. ㉠과 유사한 것은?

< 보 기 >

‘-되다’는 일부 명사나 어근, 부사 뒤에 붙어 형용사를 만들기도 하고,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피동’의 뜻을 더하는 동사를 만들기도 한다.

- ① 영광되다                      ② 발견되다                      ③ 사용되다
- ④ 형성되다                      ⑤ 처리되다

[36~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전쟁이 나던 해 아버지가 행방불명되자 '나'는 가족과 떨어져 고향 진영에서 어렵사리 지낸다. 대구로 간 가족들은 장관 등의 '마당깊은 집'에 사글세살이를 시작하고 '나'는 3년 만에 가족들과 합치게 된다. '마당깊은 집'의 위체에는 주인집이 살고, 아래채에는 네 가구의 피난민들이 세를 들어 살고 있다. 어느 날 위체의 주인은 아들을 미국에 유학보내기 위해 관리들과 미군을 초대하여 파티를 연다.

나는 경기택네 ㉠쪽마루에 경기택과 나란히 앉아 추위로 오들오들 떨며, 상들리에 전등을 대낮같이 환하게 밝힌 ㉡위채 대청 유리문 안쪽의 온성한 파티를 먼발치에서 지켜다보며 구경했다. 담요를 둘러쓴 경기택은 초조하게 담배를 피우며 잘 차려입은 여러 사람 사이에 섞인 ㉢자기 딸을, 마치 이리떼 놀이터에 풀어놓은 양을 지키듯 감시하고 있었다. 대청에는 대형 툇밥난로가 별칭계 달아 있었고, 전촉에서는 미국 대중 가요가 흘러나왔다. 대청 한쪽에는 흰 보를 씌운 다리 긴 식탁이 있었고, 그 식탁 위에는 여러 종류의 음식과 술병이 즐비했다. 손님들은 쟁반을 들고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대로 골라 쟁반에 담았다. 자기 몫 음식이 따로 있지 않고 동등산갈게 쟈 음식을 저런 방법으로 양껏 먹을 수 있다니, 참으로 부러운 광경이 아닐 수 없었다. 연미복에 나비넥타이를 맨 군방각에서 온 젊은이가 손님들 시중을 들고 있었다.

“음식두 지랄같이 쳐먹네. 서서 깔깔거리며 먹는 저 서양식 깃거리가 대체 무슨 꼴이람. 음식 맛두 제대로 모르겠군.” 경기택의 빈정거림이었다.

“서양식 식사는 역시 통이 큼더. 음식 접시 앞을 돌아맹기미지 묵고 싶은 거마 골라 배 터지게 묵을 수 있으이까에.”

㉣“신문 배달하는 너는 어느 세월에 저렇게 차려놓구 서서 다니며 먹어보겠니. 길남이 너, 자신 있어?”

분명 비꼬는 말인데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추위 탓만도 아닌, 나는 평생 저런 방법으로 음식을 먹어볼 수는 없을 것 같은 절망에 몸을 떨었다.

< 중략 >

“아뿌지, 모른다. 나 모른다…….”

누워 있던 길수가 기침 끝에 헛소리같이 중얼거렸다. 길수는 열이 높아 이틀 동안 헛소리를 내질렀고, 목이 부었는지 죽이 외는 아무것도 입 안에 넘기지 못했다. 사팔뜨기 짝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쉰 목소리로 헛소리를 내지를 때는 애처로워 차마 마주볼 수 없었다. 약 한 알 먹지 않았는데 아침에는 열이 내렸으나 기침은 쉬 가라앉지 않았다. 며칠 사이 길수는 얼굴이 더욱 핏색해져 머리통만 큰 기형아로 보였다.

“우리 길수가 어서 일어나야 할 깐데. 어이구, 저 불쌍한 내 새끼…….”

어머니는 길수가 덮은 이불깃을 다독거리주며 혀를 찼다.

㉤어머니가 대구에 터를 잡았던 이듬해 이야기다. 어머니는 자주 그 이야기를 꺼내었고 당시 나는 진영에 있었기에 그 정황을 머릿속에 그려볼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가 세 자식에게 하루 두 끼니는 근근이 입에 풀칠을 시키다, ㉥어느 날 하루를 꼬박 굶긴 적이 있었다 했다. 이튿날 아침, 어머니가 이모님댁에서 보리밥 한 그릇을 얻어와 그 밥을 불려 먹는다고 죽을 쑤어, 당신은 먹지 않고 세 자식에게 나누어주었다. 그런데 빈 배속에 뜨거운 죽을 너무 급하게 먹었던지 길중이가 먹은 죽을 죄 토해내고 말았다. 길중이는 방바닥에 위액과 더불어 토

해놓은 죽을 끓여 다시 먹었음은 물론인데, 걸레로 방바닥을 훑치는 어머니를 길수가 눈여겨보았던지, 길수가 나중에 그 걸레를 빨아먹고 있더라 했다. “세 살밖에 안 된 것이 그때만은 머리가 잘 돌아갔는지 그 걸레에 죽이 묻었다꼬 빨아먹고 안 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고, 나 역시 그 말을 사실로 믿었다. 그러나 그뒤 어느 때부터인가 나는 어머니 말을 나름대로 고쳐 해석하게 되었다. 길수는 걸레에 묻은 죽 찌꺼기를 빨아 먹기 위해서라기보다, 배가 고프면 시골 아이들이 부드러운 흙을 집어먹듯, 빈 배속을 채우려 무심히 걸레를 빨아먹었으리라. 그러나 내 해석이야 어쨌든, 길수의 그런 일화를 회상할 때마다 그가 지금 이 지상에 살아 있지 않음으로써, 그를 향한 연민의 정이 내 마음을 늘 아프게 울린다.

밤마다 따뜻한 짐승 새끼이듯 내게 화로 구실을 해주던 길수는 그 길긴 독감으로부터 살아났으나, 그로부터 겨우 삼년을 더 채우고, 우리 집안에 가난의 그림자가 견히기 전 ‘더러운 세월’과 함께 죽었다. 그 아둔한 걸음과 어눌한 발음 탓으로 다른 아이들이 다 가는 초등학교 입학조차 거절당한 채 병원 신세 한번 지지 못하고 ㉦어느 추운 겨울날 뇌막염으로 숨을 단았으니, 그의 나이 만 여덟 살 때였다.

- 김원일, 「마당깊은 집」 -

36.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짧은 문장을 활용하여 인물 간의 관계를 치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 ②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여 인물의 내적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인물들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 ④ 방언과 구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풀어가고 있다.
- ⑤ 서술자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갈등 상황을 극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37. 위 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황Ⅰ에서 가정 형편으로 인해 '나'와 '어머니'는 '길수'에 대해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 ② 상황Ⅱ의 '길수'의 행동에 대한 '어머니'와 '나'의 견해 차가 갈등을 유발했다.
- ③ 상황Ⅰ은 '나'가 실제 본 것이고, 상황Ⅱ는 '나'가 전해들은 것이다.
- ④ 상황Ⅰ,Ⅱ를 겪은 '길수'에 대해 '나'는 연민을 느끼고 있다.
- ⑤ 상황Ⅰ,Ⅱ에서 가족은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고통이 더 컸을 것이다.

38. <보기>를 바탕으로 ㉠과 ㉡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은 '마당깊은 집'에 모여 살게 된 주인집 식구들과 피난민들을 통해 전후 한국 사회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당시 피난민들은 끼니를 잊지 못할 정도로 물질적 빈곤 상태에 있었던 데 반해, 가진 자들은 소외 계층을 외면하는 정신적 빈곤 상태에 있었다. 작가는 두 계층을 마당 깊은 집이라는 공간에 제시하여 소외 계층에 대한 연민을 보여주고 인간성 회복이라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 ① ㉠의 어둡고 좁은 공간과 ㉡의 밝고 큰 공간은 계층적 차이를 보여준다.
- ② ㉠으로부터 ㉡까지의 공간적 거리는 서로 융화되기 어려운 관계임을 보여준다.
- ③ ㉠에 있는 사람들이 ㉡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은 인간성 회복에 대한 염원 때문이다.
- ④ ㉡에서 파티를 여는 사람들은 ㉠의 사람들을 외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의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며 ㉠의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39. 위 글을 영화로 제작하고자 한다. ㉠~㉡에 대해 감독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딸'과 '경기택'의 모습을 한 화면에 담아 딸을 바라보는 '경기택'의 불안한 심리를 강조해야겠어.
- ② ㉡: '경기택'으로 하여금 자조적인 표정을 짓게 하여 '경기택'의 자기 비하 감정이 드러나도록 요구해야겠어.
- ③ ㉢: 오버랩(O.L)을 사용하여 장면을 교차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시간을 전환시켜야겠어.
- ④ ㉣: 애잔한 배경 음악으로 인물들이 처한 비참한 분위기를 조성해야겠어.
- ⑤ ㉤: '나'의 서글픔과 쓸쓸함이 담긴 목소리를 내레이션(Nar)으로 처리해야겠어.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름철에는 열대야가 길어지고, 겨울철에는 한파가 이어지거나 폭설 등의 기상 이변이 발생하면서 지구 환경 생태계에 변화를 주고 있다. 우리의 삶에 위협을 ㉠주는 이러한 이상 기온 현상의 주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에너지 남용으로 인한 과도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지적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블루 이코노미(blue economy)'이다.

블루 이코노미란 단순히 친환경적인 소재나 기술의 개발이 아닌 보다 능동적으로 자연 생태계의 순환 시스템을 모방한 방식이다. 이에 따라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거두는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있다. 유럽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블루 이코노미'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지만, 사실 이러한 시스템은 오래 전부터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

이란의 '야즈'라는 도시에 가면 연기가 나오지 않는 오래된 굴뚝들이 많이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굴뚝들은 집 안을 시원하게 하거나, 얼음을 보관하는 창고의 냉각 장치로도 이용되는 것으로 '바람탑'이라 불린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바람탑'의 입구를 내면 외부의 시원한 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집 안의 뜨거운 공기는 위로 상승하여 '바람탑'의 출구를 통해 외부로 배출되는 것이다. 이는 건물 내부와 외부 공기의 온도차와 관련된 대류현상을 이용한 것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차가운 공기가 집 안을 시원하게 유지시켜 주어 다른 에너지의 소비 없이 냉방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또한 '바람탑'은 ㉡지하 수로와 연계한 천연냉장고의 냉각 장치로도 사용되었다. 이는 공기의 속력과 압력은 반비례한다는 원리와 공기의 흐름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는 원리가 적용된 것이다. '바람탑'의 입구로 들어온 바람은 입구의 좁은 통로를 지나면서 속력이 빨라지게 되어 창고 내부에 저압 구역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지면에서 부는 뜨거운 바람이 지하 수로와 연결된 좁은 통로를 만나게 되면, 공기의 속력이 빨라져 지면보다 상대적으로 압력이 낮아지게 된다. 압력 차로 인해 수로에 유입된 공기는 차가운 지하수와 접촉하면서 열을 빼앗긴 상태로 창고 내부의 저압 구역으로 공급된다. 그렇게 되면 창고 내부의 뜨거운 공기가 대류현상에 의해 상승하여 배출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이란에서는 오래전부터 시원한 냉장고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생태계의 균형을 깬 대가를 치르고 있는 요즘,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선인(先人)들의 지혜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40. 위 글에 적용된 서술 방식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짚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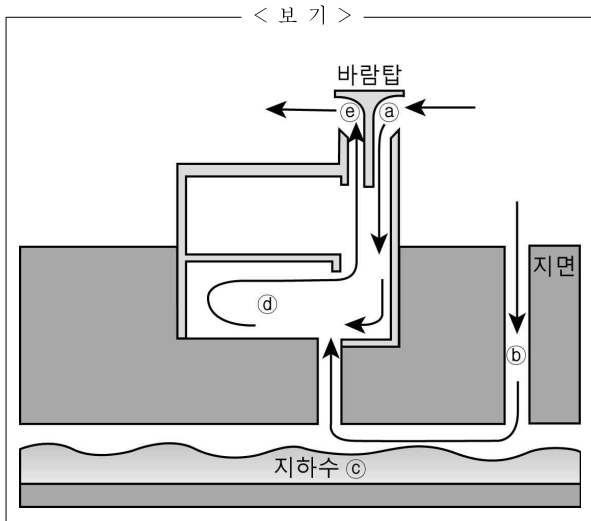
< 보 기 >

- ㄱ. 대상에 적용된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 ㄴ. 대상의 개념을 정의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 ㄷ. 대상의 변모 과정을 통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 ㄹ. 대상의 유용성과 한계를 지적하여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41. [블루 이코노미]의 구체적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학 성분 대신 야자유 지방산을 넣은 친환경 세제를 개발하였다.
  - ② 열에 약해 수명이 짧았던 기존 조명등의 문제를 내열 처리 기술을 사용해 해결하였다.
  - ③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다양한 식물로 이루어진 벽에 통과시켜 맑은 공기로 정화하였다.
  - ④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석유 연료와 전기 에너지를 동시에 사용하였다.
  - ⑤ 불필요한 난방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도록,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홈시스템을 구축하였다.

42. <보기>는 ㉠와 관련된 시설의 단면도이다. 위 글을 참고하였을 때, 학생들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입구 ㉠을 내어 바람이 잘 들어오게 했겠군.
- ② 지면의 공기가 온도차에 의해 ㉡로 유입되었겠군.
- ③ ㉢는 유입된 공기의 열을 빼앗는 역할을 하겠군.
- ④ ㉣는 공기의 빠른 흐름에 의해 압력이 낮겠군.
- ⑤ 대류현상에 의해 상승한 공기가 ㉤로 배출되었겠군.

43. 밑줄 친 단어의 문맥적 의미가 ㉠과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 ① 뚜껑을 열기 위해 손에 힘을 주었다.
- ② 착한 일을 한 아이에게 용돈을 주었다.
- ③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친구를 우연히 만났다.
- ④ 그는 친구들에게도 좀처럼 정을 주지 않는다.
- ⑤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을 주자고 제안을 하였다.

[44~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개성 부호가의 아들 홍생(洪生)은 팔월 한가위를 맞아 평양에 왔다가 친구 이생(李生)이 벌인 잔치에 와서 술이 취한 뒤, 잠이 오지 않아 부벽정(浮碧亭)에 올라 시를 읊었다.

오늘이 한가위라 저 달빛은 곱구나.  
외로운 ㉠ 정터를 바라볼수록 슬프도다.  
기자묘(箕子廟) 뜰 앞에는 늙은 숲이 우거지고  
단군사(檀君祠) 벽 위에도 담쟁이가 얽히었네.  
영웅은 자취 없어 어디로 돌아갔노.  
초목만 의희(依稀)\*한데 몇 해나 되었더냐.  
옛날이 더욱 그림구나 둥근 달만 의구하도다.  
맑은 빛이 흘러흘러 객의 옷에 비치네.

어느덧 밤이 깊어 돌아오려 할 때에 서쪽에서 갑자기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홍생은 속으로 생각했다.

‘아마 시 읊는 소리를 듣고 절에 있는 중이 찾아오는 것이겠지?’

그러고는 앉아서 기다리니 뜻밖에도 아름다운 한 여인이 나타났다. 그 여인을 두 아이가 좌우에서 모시고 따르는데, 한 아이는 옥 파리채\*를 들었고 다른 아이는 비단 부채를 들고 있었다. 여인의 위의(威儀)는 정제하고 그 몸가짐이 귀족집 처녀 같았다.

그녀가 말했다.

“아까 그대가 읊는 시는 무엇을 의미한 것입니까? 의아하게 생각지 말고 나에게 다시 들려주세요.”

홍생은 그 시를 빠짐없이 다시 들려주었다. 여인은 웃으면서 말했다.

“그대와는 시를 논할 만하구려.”

<중략>

홍생이 그 음식을 먹는 동안 그 여인은 홍생의 시에 화답하는 시를 계전\*(桂箋)에 써서 시녀를 시켜 홍생에게 건넸다.

홍생은 그 시를 읽고 매우 기뻐, 그녀가 빨리 돌아갈까봐 좋은 이야기로 만류하려고 이렇게 물었다.

“미안하지만 당신의 성씨와 보계\*(譜系)를 듣고자 하옵니다.”

“예, 이 몸은 옛날 은왕(殷王)의 후예요 기씨(箕氏)의 딸입니다. 나의 선조 기자(箕子)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예법과 정치를 한결같이 탕(湯)왕의 유훈을 따라 팔조(八條)의 금법(禁法)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오래도록 문화가 빛났는데 갑자기 국가와 민족이 비운에 빠져, 나의 선고(先考) 준왕(準王)께서는 필부의 손에 패하여 드디어 국가를 잃으시고, 위만(衛滿)이 틈을 타서 보위(寶位)를 도적하니 나 같은 약질은 이때를 당하여 스스로 절개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죽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거룩한 선인이 나타나셔서 나를 어른만지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본디 이 나라의 시조(始祖)로서 부귀를 누린 뒤에 바닷섬에 들어가 선인이 된 지 벌써 수천 년이 되었느니라. 그대는 나와 함께 상계(上界)에 올라가 즐겁게 노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시기에 곧 응낙하였더니, 그분은 나를 데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이르러 별당을 지어 나를 접대하고, 또 나에게 삼신산의 불사약을 주셨습니다. 이 약을 먹고 나니 갑자기 몸이 가벼

위지고 기분이 상쾌해져서, 공중에 높이 떠서 우주를 굽어보며 세계의 명승지를 빠짐없이 유람하였는데, 어느 날 가을 하늘이 맑고 유난히 밝은지라 별안간 멀리 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달나라에 올라 광한청하지전(廣寒淸虛之殿)을 구경한 후 수정궁(水晶宮) 안으로 가 향아(姮娥)를 방문하였더니, 향아는 내 절개가 곧고 글월에 능통하므로 피어 이르기를 ‘인간 세상에도 명승지가 없지 않으나 모두 풍진이 소란하니, 어찌 청천에 한 번 솟아 흰 난조를 타고 맑은 향내를 계수에 뿜으며 옥경(玉京)에 설령이고 은하에 목욕하는 것과 같겠느냐?’ 하고는 즉시 나를 향안(香案)의 시녀로 하여금 양쪽에서 모시게 하니 그 기쁨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갑자기 고국 생각이 간절하여 하계의 인생을 내려다보니, 산천은 의구하나 인물은 간데없고 명월은 내를 덮고 백로는 티끌을 씻은지라, 옥경을 하직하고 슬며시 내려와 조상님 무덤을 배알한 후 부벽정에 올라 시름을 달래려 하였는데 마침 당신을 만나 한없이 기쁘기도 하고 또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더구나 노둔(駕鈍)한 붓을 들어 아름다운 시에 화답했으나, 시라고 하기엔 부끄럽지만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대충 말한 것입니다.”

[뒷부분의 줄거리] 여인이 신선 세계로 돌아간 후, 꿈속에 시녀가 나타나 여인이 홍생의 문재(文才)를 아껴 선계의 벼슬을 명령하였음을 알린다. 홍생은 잠에서 깨어 깨끗하게 목욕을 한 뒤에 향을 태우며 잠만 누웠다가 세상을 떠난다. 시간이 지나도 시인의 얼굴빛이 변하지 않자 사람들은 홍생이 신선이 되었다고 추측했다.

- 의희(依希): 거의 비슷하다.
- 옥 파리채: 선종(禪宗)의 종이 번뇌와 어리석음을 물리치는 표지
- 계전(桂筵): 계수나무 잎
- 보계(鑿系): 혈통 관계

- 김시습, 「취유부벽정기(醉遊浮碧亭記)」 -

44.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주제 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 ② 인물이 추리 과정을 통해 특정 사건의 의미를 탐색하고 있다.
- ③ 시간의 입체적 구성으로 사건의 새로운 국면을 암시하고 있다.
- ④ 공간적 배경의 이동으로 갈등의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 ⑤ 인물의 진술을 통해 과거의 사건들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45. <보기>는 ‘여인’이 홍생의 시에 화답한 시의 일부분이다.

㉠~㉣ 중, **옛 정려**의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보 기>

옛성을 바라보니 ㉠대동강이 여기로구나.  
 푸른 물결 맑은 모래 울어 예는 저 ㉡기러기  
 ㉢기린은 오지 않고 고운 님을 여인 뒤에  
 ㉣통소 소리 끊어지고 ㉤높은 무덤뿐이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46. 위 글을 <보기>와 관련지어 감상했을 때, 이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견해 1] 작가와 홍생을 동일시하는 경우**

▷ 홍생의 처지와 심리를 작가 의식으로 본다. 작품 속에서 홍생은 선계와 교류하고, 결국 선계로 들어간다. 현실에서 자신의 뜻을 펼 수 없었던 작가는 이러한 홍생의 모습을 통해 삶의 고뇌와 회의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자신의 바람을 형상화하고 있다.

**[견해 2] 작가와 여인을 동일시하는 경우**

▷ 여인의 말에 나타난 역사 의식을 작가 의식으로 본다. 조상에 대한 자긍심을 통해 역사에 대한 작가의 애정을 드러냈고, 나라가 패망했을 때 절개를 지키기로 맹세한 것은 세조의 왕위 찬탈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 ① [견해 1]로 볼 때, 홍생의 시에 드러난 무상감은 작가의 현실에 대한 회외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견해 1]로 볼 때, 홍생이 뛰어난 문재(文才)로 선계의 벼슬을 받은 것은 작가 자신의 소망을 투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견해 2]로 볼 때, 절개를 지키기 위해 죽기를 기다렸다는 여인의 말에서 세조 정권에 항거하는 작가의 의식으로 볼 수 있다.
- ④ [견해 2]로 볼 때, 여인의 답변 중에서 기자의 예법 정치를 강조한 부분은 작가의 문화적 자긍심을 담아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견해 2]로 볼 때, 여인이 선계(仙界)에 있다가 부벽정을 찾은 것은 현실을 초월하고 싶은 작가의 욕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7. ㉠에 가장 어울리는 한자성어는?

- ① 천우신조(天佑神助)
- ② 금과옥조(金科玉條)
- ③ 학수고대(鶴首苦待)
- ④ 흥진비래(興盡悲來)
- ⑤ 간담상조(肝膽相照)



[48~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문장을 부정문이라고 한다. 국어의 부정 표현은 부정 부사 ‘안’, ‘못’과 부정 용언 ‘아니하다’, ‘못하다’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부정 부사를 통한 부정문을 짧은 부정문, 부정 용언을 통한 부정문을 긴 부정문이라고 한다. ‘안, 아니하다’의 부정은 어떠한 상태를 단순하게 부정하는 상태 부정을 나타내거나, 어떤 동작이 주어의 의지에 의해 일어나지 않은 의지 부정을 나타낸다. ‘못, 못하다’의 부정은 일반적으로 주어의 능력이나 다른 원인 때문에 그 행위가 일어나지 못함을 나타낸다.

그런데 국어의 부정 표현에는 몇 가지 예외적인 현상이 보인다. 우선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인 문장에서는 의지 부정 표현, 능력 부정 표현이 사용되지 않음을 (1)을 통해 알 수 있다. (1)의 ㄴ,ㄷ에서 ‘안, 않다’가 사용되었는데, 이들 표현은 의지 부정 표현이 아니라 상태 부정 표현으로 사용된 것이다.

(1) ㄱ. 영화는 예쁘다.  
       ㄴ. 영화는 안 / \*못 예쁘다.  
       ㄷ. 영화는 예쁘지 않다. / \*못하다.

한편 부정 표현이지만 실제 의미로는 부정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문장의 형식은 물음을 나타내나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강한 긍정 진술을 내포하고 있는 ㉠수사 의문문이 여기에 해당한다. (2)의 ㄱ은 “예, 안 잤어요.”와 “아니요, 잤어요.”의 두 가지 대답이 가능한 부정 의문문이나, (2)의 ㄴ은 수사 의문문으로 쓰인 것이어서 부정 표현이 쓰였다고 하더라도 부정의 의미가 없다.

(2) ㄱ. 영화 아직 안 잤니?  
       ㄴ. (책 한 권은 충분히 사 줄 수 있다는 뜻으로)영화한테 책 한 권 못 사 줄까?

국어의 부정 표현 논의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부정의 범위에 대한 것이다. 이는 부정 표현을 통해서 부정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나 하는 문제이다. 짧은 부정문이든 긴 부정문이든 의지 부정이든 능력 부정이든 간에 부정 표현에 있어서 부정의 범위는 모두 중의성을 가진다. 예를 들어 (3)에서 ‘안’이 부정하는 내용은 (3)-a처럼 ‘철수’가 될 수도 있고, (3)-b처럼 ‘그 책’이 될 수도 있으며, (3)-c처럼 ‘읽다’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이들 세 가지가 동시에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부정된다.

(3) 철수가 그 책을 안 읽었다.  
     a. 그 책을 안 읽은 것은 철수였다.  
     b. 철수가 안 읽은 것은 그 책이었다.  
     c. 철수가 그 책에 대해 하지 않은 것은 읽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부정 범위의 중의성을 해소하는 방안에는 ‘철수, 그 책, 읽다’의 어느 하나에 강세를 주어 읽거나, ‘철수가 그 책은 안 읽었다.’처럼 부정하고자 하는 단어에 보조사 ‘은/는, 만, 도’ 등을 덧붙이거나, 문맥을 통해서 중의성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다.

48. 위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것은?  
 ① 의지 부정과 능력 부정 모두 중의성을 갖는다.  
 ② 짧은 부정문은 부정 부사를 활용해서 나타낸다.  
 ③ 문맥을 통해 부정 범위의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  
 ④ 서술어의 품사에 따라 부정 표현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  
 ⑤ 상태 부정과 의지 부정은 주어의 능력 정도에 따라 구분된다.

49.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 1>을 분석할 때, <보기 2>에서 찾을 수 있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보기 1 > —  
 나는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 분명히 나는 어چه 도서관에서는 영희를 만나지 않았거든. 왜 아이들은 내 말을 못 믿는 걸까. 나는 늘 진실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에겐 내가 미덥지 않았나 봐.

— < 보기 2 > —  
 ㄱ. 보조사를 덧붙여 중의성을 해소한 문장  
 ㄴ.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인 문장에서의 상태 부정 표현  
 ㄷ. 상태 부정이나 의지 부정이 모두 가능한 짧은 부정문  
 ㄹ. 주어의 능력이나 다른 원인 때문에 그 행위가 일어나지 못함을 나타내는 긴 부정문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50. <보기>의 ㉠~㉣ 중, ㉠에 해당하는 것은?

— < 보 기 > —  
 영희: ㉠너 요즘 시간 없지?  
 철수: ㉡내가 너한테 시간을 못 내겠니? ㉢무슨 일 있니?  
 영희: 우리 반 합창 대회 반주자가 필요해서……. ㉣안 될까?  
 철수: 그런데 내가 피아노를 연습한 지가 너무 오래 되었어.  
       ㉤괜찮겠니?  
 영희: 그럼, 괜찮아.

-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언어 영역

## 정답

1	①	2	⑤	3	①	4	④	5	③
6	①	7	②	8	⑤	9	④	10	③
11	④	12	②	13	①	14	④	15	②
16	②	17	③	18	③	19	②	20	③
21	③	22	⑤	23	③	24	②	25	①
26	⑤	27	①	28	③	29	②	30	⑤
31	④	32	①	33	⑤	34	④	35	①
36	④	37	②	38	③	39	②	40	①
41	③	42	②	43	③	44	⑤	45	⑤
46	⑤	47	①	48	⑤	49	①	50	②

## 듣기대본 및 해설

\*\* 듣기 \*\*

### 1. 이제 교양 강좌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갑골문자의 이해’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람의 형상에서 파생된 글자들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들을 이해할 때는 신체의 형태와 위치를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기본 글자로 <자료 1>의 맨 왼쪽에 있는 ‘큰 대(大)’를 볼까요? 족장이나 왕이 두 팔과 두 다리를 벌리고 서있는 형상이죠? (사이) 이는 그 족장이나 왕의 위엄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설 립(立)’입니다. 큰 대(大) 아래 부분에 땅을 나타내는 가로획을 하나 그어서 왕 앞에 서서 명령을 기다리는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그 다음은 ‘형 형(兄)’입니다. 앞의 두 글자와는 다르게 무릎을 꿇고 있고 머리를 크게 표현했네요. 아무래도 나이 어린 동생들보다는 형이 머리가 컸겠죠. 자, 그럼 나뉘드린 <자료 2>를 보시고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하늘 천(天)’자를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겠습니까? (사이) 자, 여러분 머릿속에 하늘을 한번 그려봅시다.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았을 때 하늘은 네모 모양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사람이 서 있는 형상 위에 네모난 하늘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것이 하늘입니다.

#### 1. [출제의도] 문자 형성 원리 이해하기

사람이 서 있는 형상 위, 머리 부분에 하늘의 네모 형태를 올린 모양의 글자를 찾아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 2. 이번에는 수업의 한 장면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학생(남) : 선생님, 타고 다니는 bus를 ‘빠스’라고 발음하면서 표기할 때는 ‘버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생님(여) : 아, 그건 외래어 표기법 때문에 그렇단다.

학생(남) : 외래어 표기법이요?

선생님(여) : 그래, 외래어를 한국어로 적는 방법에 관한 규정이야.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지.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실제 언어 생활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거의 우리말이 됐다고 봐야지.

학생(남) : 그럼, 선생님. 외래어가 이전 국어의 일부라는 말씀이신가요?

선생님(여) : 그렇지. 그래서 외래어를 외국어라고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표기하면 안 되는 거야.

학생(남) : 아, 그렇군요. 그럼 외래어를 우리 한글로 표기하는 데 꼭 지켜야 할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생님(여) : 그래, 설명해줄 테니 잘 들어보렴. 우선 ‘남’의 소리는 적지 않는다는 게 있단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차피 소리가 똑같다면 간편하게 적자는 거지. 예를 들어 발음이 같다면 굳이 복잡한 이중모음 대신 간편한 단모음을 쓰자는 거야.

학생(남) : 그럼, 선생님. 마시는 ‘juice’의 경우에 ‘ㅈ’아래에 이중모음 ‘ㅍ’이 아닌 단모음 ‘ㅌ’를 써야 하는군요.

선생님(여) : 그렇지. (사이) 둘째로, 외래어를 표기할 때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단다. 아까 네가 말한 ‘bus’의 경우가 그래. 된소리인 ‘ㅃ’을 쓰지 않고 ‘ㅈ’을 쓰는 게 이 이유 때문이야.

학생(남) : 아, 그렇군요. 선생님. 이제 왜 ‘bus’를 ‘버스’라고 표기해야 하는지 알았어요.

선생님(여) : 셋째로, 중·장모음을 인정하지 않는단다. 설령 모음이 길게 소리가 나더라도 한글로 표기할 때는 줄여서 적어야 해. 배를 나타내는 ‘boat’의 경우 ‘보우트’라고 길게 발음하지만 표기할 때는 ‘보트’라고 짧게 표기해야 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받침에 ‘ㄱ, ㄷ, ㄹ’을 쓰지 않는단다. ‘coffee shop’의 경우 ‘표’받침이 아닌 ‘ㅂ’받침을 써야 하는 거지.

학생(남) : 아 그렇군요. 선생님,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선생님(여) : 그래, 이상의 네 가지 규칙만 잘 지켜도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단다

### 2. [출제의도] 외래어 표기법 적용하기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할 때, 된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①에, 받침에 ‘ㅍ’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②에, 이중모음 대신 단모음을 사용한다는 것은 ③에, 장음을 단음으로 표기한다는 것은 ④에 잘 드러나 있다. 외래어의 ‘ㅌ’를 한글로 적을 때 ‘ㅌ’으로 한다는 규정은 대화에 드러나 있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 3. 이번에는 이야기 한 편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 지금으로부터 3년 전, 대구 수성구의 한 쌀 가게에 요술 쌀단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음껏 퍼내도 바닥을 드러내지 않는 이상한 쌀단지였지요.

10년째 쌀장사를 하던 이 가게 주인은, 어느 날 신문 기사를 통해 한 어린이가 굶어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마침 그 쌀집은 영세민 임대 아파트 상가에 자리 잡았던 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었거든요. 혹시 자신이 사는 동네에도 그렇게 굶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는 쌀을 가득 담은 단지를 가게 모퉁이에 내

다 뒀어요. 그리고 단지엔 이렇게 써놓았죠.

(남) “다들 어려우시죠? 이 쌀로 뜨거운 밥 지어 드시고 힘내세요. 절대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 혹시라도 사람들 이목 때문에 쌀을 가져가고 싶어도 그러지 못할 수도 있겠다 싶어, 그는 일부러 쌀단지를 가게 모퉁이에 내놓는 마음 씀씀이도 잊지 않았어요. 쌀단지를 내놓은 후 단지는 한 사발, 두 사발 비어갔죠. 그렇게 누군가 쌀을 퍼가면 쌀가게 주인은, 행여 가져가는 사람의 마음이 무겁지 않도록, 얼른 쌀단지를 다시 채워놓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인은 더 이상 쌀을 채워 넣지 않아도 됐어요. 쌀을 사러온 손님들이 구입한 쌀의 일부를 단지에 붓고 갔기 때문이죠. (사이) 이 아름다운 이야기인 입소문을 타고, 대구에 있는 다른 곳에서도 이 같은 요술 쌀단지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여러온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쌀을 기증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 3. [출제의도] 이야기를 통해 교훈 이끌어내기

타인의 이목 때문에 쌀을 가져가지 못할 사람을 위해 쌀 단지를 가게 모퉁이 옆에 세워 두는 배려의 마음, 이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시켜 그 사람들이 너나없이 동참하게끔 하는 공감의 의미를 이끌어낼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 4~5. 이번에는 ‘칭찬’에 관한 대담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여1) :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의 열풍 이후에 칭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오늘은 칭찬의 방법에 대해 두 분 교수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여2), 박(남)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여1) : 네, 두 분 교수님 반갑습니다. 그럼, 김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김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칭찬법은 무엇입니까?

김(여2) : 네, 다 아시겠지만 칭찬이란 아이가 이루어 낸 좋은 성과나 결과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 결과 칭찬을 받지 못한 아이들에 비해 높은 성취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칭찬은 일의 효율을 높이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사회자(여1) :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박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남) : 네, 물론, 칭찬은 그 순간 일의 효율을 높이는 데에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즉, 즉각적인 효과를 보는 데에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하지만, 결과에 치중한 칭찬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100점을 받은 아이가 그 결과에 대해 어머니께 칭찬을 받았다고 가졌해 봅시다. 그럼 이 아이는 다음에도 100점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과 의무감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지만 다음 시험에서 또 100점을 받기 위해 무리한 방법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에 치중한 칭찬은 좋은 칭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자(여1) : 김 교수님, 박 교수님의 의견에 대해

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여2): 글썄요. (사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까요? 그 100점을 받은 아이가 결과에 대해 어머니나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면 학교 수업과 공부에 더 집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더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아이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결과를 칭찬하든 과정을 칭찬하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박(남): 그렇지만 결과 중심으로 아이들을 칭찬하는 것은 곧 아이들을 평가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칭찬이 아이들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과 아이들을 평가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닐까요?

사회자(여1): 네, 두 분은 칭찬의 방법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다르시네요. 그렇다면, 좀 더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구체적인 칭찬의 예에는 뭐가 있을까요? 의견을 정리하시면서 말씀해주세요.

김(여2):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워야 하고, 또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칭찬이야말로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특히 노력하여 얻은 결과에 대해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드디어 해냈구나.”, “100점을 받다니 대단한 걸”과 같은 칭찬의 말을 많이 해 주세요.

박(남):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수학 점수가 향상된 아이에게 “수학 과목의 성적이 많이 향상되었구나. 어떤 방법으로 공부했니?”와 같이 자신이 노력한 과정을 스스로 돌아보고 정리하여 표현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럼 그 아이는 노력한 과정과 자신의 태도에 대해 자긍심을 느끼게 되고, 그 결과 주도적으로 노력하는 아이로 성장할 겁니다.

사회자(여1): 두 분,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칭찬의 방법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다소 달랐지만, 칭찬을 통해 아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두 분과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출제의도] 근거 제시 방법 파악하기

남자 교수는 칭찬이 아이들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칭찬의 과정적 측면을 제시했을 뿐 권위자의 말을 인용한 근거 제시는 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5. [출제의도] 의견의 공통점 파악하기

여자 교수의 ‘칭찬이 일의 효율을 높인다.’는 의견에 남자 교수도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 쓰기 \*\*

6. [출제의도] 연상하기

자신의 역량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알리지 않는 것은 투명성과 진정성의 문제이므로, 닫힌 곳을 여는 열쇠의 의미와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7. [출제의도] 조건에 맞는 글쓰기

‘자기 전에 바른다.’에서 사용 방법이, ‘새살이 돋는다.’에서 효능이 드러나며, ‘비단결 같은’에서는 비유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요’, ‘-예요’ 등의 어미를 통해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8. [출제의도] 개요 수정·보완하기

결론은 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㉘를 ‘수확여행 장소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하면 글 전체의 내용을 포괄하기 어

렵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9. [출제의도] 자료 활용하기

(나)-1은 도시철도 이용의 불편함음, (다)-1은 연도별 도시철도 손실액이다. 이를 통해 도시철도 재정 악화의 원인이 이용자의 불편 건수의 증가를 이끌어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10. [출제의도] 고쳐 쓰기의 적절성 판단하기

‘조성(造成)하다’는 ‘무엇을 만들어서 이루다.’는 뜻이고, ‘조장(助長)하다’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더 심해지도록 부추기다.’는 뜻이다. 목적이인 ‘불신음’에 호응되는 서술어는 부정적인 상황이나 방향에 쓸 수 있는 ‘조장(助長)하다’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11. [출제의도] 관형사형 어미의 역할

ㄹ의 ‘을’은 미래 시제와 의지를 나타낼 뿐 추측의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12. [출제의도] 다의어의 의미 파악하기

①의 ‘결린’은 ‘결다④’, ③의 ‘결렸다’는 ‘결다①’, ④의 ‘결린’은 ‘결다⑤’, ⑤의 ‘결리기’는 ‘결다③’의 피동적 의미가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 현대시 \*\*

□ 작품: (가) 김영랑, 제야 (나) 서정주, 신부 (다) 오세영, 10월

13.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에서는 제야를 맞아 기원을 하는 여인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드러냈고, (나)에서는 버림받은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며 한이 심화되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드러냈다. (다)에서는 열매로 익어가는 과정에서 발견한 인생의 의미가 감각적 이미지로 드러났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14.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감상하기

제4연 1행에서 흰 그릇에 담긴 여인의 마음은 소망을 담은 것이다. 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천지신명에 대해 감사와 새해를 맞는 기쁨을 드러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15. [출제의도] 표현 특징 파악하기

[A]부분의 제1연의 1행과 제2연 1행은 평서형 종결어미를 사용했고, 제1연의 2행과 제2연의 2행은 의문·감탄형 종결어미를 사용해 운율미를 드러냈다 [B]에는 역설법, 의인법 등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16.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참고하여 감상하기

‘신부망’ 안은 영문도 모른 채 버림받은 신부의 한이 심화되는 공간이고, 밝은 신부에 대해 오해하고 달아난 신랑이 머무르는 공간이다. 신랑이 신중하지 못해 달아난 막의 공간을 위선의 공간으로 파악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17. [출제의도] 시구의 함축적 의미 파악하기

‘꽃잎을 통해 계절적 이미지는 파악할 수 있으나 ‘분분히 지던’과 ‘얼마나 슬펐던가’로 볼 때 희망을 품고 의지를 다짐하는 존재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 예술 \*\*

□ 출전: 박취락, <미술감상과 미술비평교육>

18. [출제의도] 제목의 적절성 파악하기

이 글은 철학자 하르트만의 충이론을 바탕으로 예술 작품의 존재 방식을 설명하고, 바람직한 예술작품의 감상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19. [출제의도] 관점에 따른 감상의 적절성 판단하기

[A]에서 후경의 제1층은 묘사된 인물의 외면적·물적 계층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㉚는 인물의

표정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후경의 제2층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20.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4문단에서 예술가는 자신의 정신 세계를 담은 후경을 전경으로 형상화하고, 감상자는 전경을 통해 예술가가 표현하고자 한 후경을 알 수 있다고 했으므로 ㉠이 후경, ㉡이 전경이다. 그리고 2·3문단을 보면 전경이 하나의 층이고, 후경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21. [출제의도]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5문단에서 예술 작품의 감상은 감상자가 예술 작품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정신을 살찌게 하는 것이라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 과학 \*\*

□ 출전: 강정환, <알레로파시에 대한 진화론적 설명>

22.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말벌의 힘을 이용해 천적을 퇴치하는 것이 ①, 소나무의 ‘갈로탄닌’이 ②, 잔디와 클로버가 ③, 병원균에 대한 식물의 방어 과정이 ④에 각각 드러나 있다. 이 알레로파시는 식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동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23. [출제의도] 핵심 내용 파악하기

알레로파시의 설명 방법과 알레로파시를 보이는 식물의 진화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알레로파시가 일어나는 과정은 2, 3, 4, 5문단에 드러나며 알레로파시가 일어나는 목적은 1문단에 드러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24. [출제의도] 주어진 현상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타감물질을 음식물이나 방부제로 사용하는 것이 ①, ③, ⑤에, 산초나무 열매나 방어풀에 있는 캡사이신이 타감물질이라는 것이 ②에 드러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 갈래 복합 \*\*

□ 작품: (가) 김유, 관사유감 (나) 이원익, 고종답주인가 (다) 윤동주, 별동대 떨어진 데

25.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가)는 ‘-는가’의 의문형 진술 사용하여 현실의 문제점을 한탄하고 있으며, (나)도 ‘-할까’, ‘-런가’ 등의 의문형 진술을 사용하여 세태를 걱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26.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 파악하기

㉚는 제대로 다스리지 않는 오늘날의 아픈 현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은 현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말한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27. [출제의도] 화자의 공통적인 태도 파악하기

(가)의 화자는 세태가 어지러워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안타까워하며 탄식하고 있다. (나)의 화자 역시 의논할 상대도 없이 혼자 근심하고 있는 ‘상전’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탄식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28. [출제의도] 구절의 함축적 의미 파악하기

‘나무는 ‘행동의 방향’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고 편안하고 손쉽게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나무의 마음이 옮겨오는 것’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다짐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 사회 \*\*

□ 출전: 정남구, <한국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

29. [출제의도] 세부 정보의 내용 이해하기

2문단에서 어제의 증가와 오늘의 현재가의 차이의 값이 '전일비'이며, 이 전일비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 '등락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제의 증가와 오늘의 현재가의 차이가 크면 등락률은 크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30.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전자'의 시가총액은 기업의 총 주식수(상장주식수)인 100에 현재가인 50,000을 곱한 500만원이 된다는 것을 3문단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31. [출제의도] 관련 사례의 적절성 파악하기**  
①은 과거의 실적을 바탕으로 대상을 선택하는 경우이다. 최근 5년간의 취업률은 대학의 과거 실적으로 볼 수 있으므로 ①과 유사한 사례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 인문 \*\***

□ 출전: 아리스토텔레스, <우에>

**32. [출제의도] 집필 의도 파악하기**  
이 글은 이득, 쾌락, 선의 등 우에의 다양한 양상을 살펴보고, '그러부터 완전한 우에의 의미에 대하여 소개하는 글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33. [출제의도] 비판의 적절성 파악하기**  
2문단에서 유머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유머가 유쾌하기 때문이며, 유쾌함을 좋아하는 것은 단순한 쾌락을 위한 것이지 그 사람의 성품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유머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여유롭고 긍정적인 성품을 좋아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①, ②, ③, ④의 내용은 이 글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34.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A국과 B국의 관계는 동등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A국의 선의가 B국에 수용되기 위해서 지원의 정도를 늘려야 한다는 것은 위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35. [출제의도] 접사의 쓰임 파악하기**  
'되다'는 어근과 결합해 동사와 형용사로 파생시킨다. ①의 경우는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이다. '영광되다'의 경우 명사 '영광'에 '되다'가 붙어 형용사가 된 예로 ①의 경우와 동일하다. ②, ③, ④, ⑤는 모두 피동을 뜻하는 동사로 쓰인 경우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 현대소설 \*\***

□ 작품: 김원일, <마당깊은 집>

**36.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 이해하기**  
'꿈더', '묵을 수 있으니까' 등과 같은 구절을 통해 특정 지역의 방언이 잘 드러나 있으며, 서술자의 서술이 전반적으로 구어적 표현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37. [출제의도] 서사의 구조 이해하기**  
'길수가 걸레를 빨아먹는 행동'의 원인을 추측함에 있어 '어머니'와 '나'의 견해는 차이가 있으나, 그 견해 차가 갈등을 유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38. [출제의도] 공간의 의미 이해하기**  
'쪽마루'에 있는 사람들이 '대청 마루'의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은 동경과 질시의 표현일 뿐, 인간성 회복을 염원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39. [출제의도] 영상 표현의 방법 및 의도 파악하기**  
⑥는 '경기택'이 '나'를 비꼬는 말이다. 그러므로 '경기택'의 자기 비하의 감정을 표현하려는 감독의 의도는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 기술 \*\***

□ 출전: 이재인, <건축 속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40. [출제의도] 설명 방법 파악하기**

3, 4문단에서는 '바람탑'과 '천연냉장고'에 적용된 원리를 설명하고 있으며, 2문단에서는 '블루 이코노미'의 개념을 정의하여 대상의 이해를 돕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41. [출제의도] 관련 사례의 적절성 파악하기**  
'블루 이코노미'는 단순히 친환경적인 소재를 이용하거나 그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서 보다 능동적으로 자연 생태계의 순환 시스템을 모방하는 방식이다. 이와 달리 ①은 단순한 친환경적인 소재의 사용 ②, ④, ⑤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술 개발의 예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42. [출제의도] 세부 정보 확인하기**  
4문단에서 공기의 흐름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고 하였고 지면의 공기가 지하 수로에 연결된 통로로 유입되는 이유는 '온도차'가 아니라 '압력차' 때문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43. [출제의도]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①의 '주다'는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게 하다'의 의미이다. ①은 '속력이나 힘을 가하다', ②는 '물건을 남에게 건네다', ④는 '다른 사람에게 정을 베풀거나 터놓다', ⑤는 '남에게 어떤 자격이나 권리, 점수 따위를 가지게 하다'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 고전소설 \*\***

□ 작품: 김시습, <취유부벽경기>

**44.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 이해하기**  
지문에서 '여인'은 성씨와 보계를 묻는 홍생의 질문에 자신의 과거 내력을 요약하여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45. [출제의도] 시어의 상징적 의미 이해하기**  
'옛 성터'는 과거의 영화로운 시절을 잃어버린 후에 느끼는 무상감이 드러나는 배경으로, 여인의 시에서는 '높은 무덤'의 의미와 동일하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46. [출제의도] 견해에 따른 작품 해석하기**  
[견해2]로 볼 때, 여인이 선계에서 부벽정을 찾아 온 것은 고국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다. 작가의 현실 초월 욕구는 [견해1]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47. [출제의도] 상황에 맞는 한자성어 찾기**  
①천우신조(天佑神助):하늘과 신령의 도움, ②금과옥조(金科玉條):금이나 옥처럼 귀중히 여기어 꼭 지켜야 하는 법칙이나 규정, ③학수고대(鶴首苦待):몹시 에타게 기다림, ④흥진비래(興盡悲來):즐거움 일이 다하면 슬픈 일이 닥쳐온다는 뜻으로, 세상일이 돌고 돌아 순환됨을 가리키는 말, ⑤간담상조(肝膽相照):서로 속마음을 터놓고 친하게 사림.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 언어 \*\***

□ 출전: 이관규, <국어의 부정 표현>

**48.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상태 부정과 의지 부정은 주어의 능력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상태 부정은 어떤 상태를 단순히 부정하는 것이며, 의지 부정은 주어의 의지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49.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의 적용하기**  
'어제 도서관에서는'은 보조사 '는'을 덧붙여 중의성을 해소(장소인 도서관을 부정)하였고, '미덥지 않으나 봐'는 형용사 '미덥다'를 서술어로 쓴 문장으로, 미더운 상태를 부정한 것이다. '못 믿는 걸까'의 경우는 다른 원인 때문에 그 행위가 일어나지 못하는 맞다고 할 수 있으나 긴 배경문이 아니

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50. [출제의도] 핵심 정보 파악하기**

⑥는 부정 표현이지만 실제로 부정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또한 의문 형식이지만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수사 의문문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제 1 교시

언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3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십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마지막 말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별한 날을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 ② 상대와의 소통으로 자신이 위로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 ③ 미래를 위한 특별한 가르침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 ④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 ⑤ 가치 있는 경험을 통해 자기의 역할을 연습하게 하는 것입니다.

2. (물음) 이 방송을 들은 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듀이십진분류법	분류 기호	한국십진분류법
총류	000	총류
철학	100	철학
종교	200	종교
사회과학	300	사회과학
언어	400	자연과학
자연과학	500	기술과학
기술과학	600	예술
예술	700	언어
문학	800	문학
역사	900	역사

- ① 분류표를 이용하면 책을 쉽게 찾을 수 있겠군.
- ② '백과사전'은 두 분류법에서 모두 '총류'에 속하겠군.
- ③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 도서관에서는 '언어'와 관련된 책을 400번대로 분류하겠군.
- ④ 한국 소설인 김유정의 『봄·봄』은 한국십진분류법으로 824번대로 분류할 수 있겠군.
- ⑤ 한국 문학을 한국십진분류법에 맞게 서가에 정리한다면 '시' 다음에 '희곡'을 꽂아야겠군.

3. (물음) 이 강의를 들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원추세포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착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군.
  - ② 푸른색 수술복은 의사들의 집중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겠군.
  - ③ 간상세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보색 잔상 현상이 나타나는군.
  - ④ 만약 피가 푸른색이라면 의사들의 수술복은 붉은색 계열이 좋겠군.
  - ⑤ 사물의 객관적인 성질과 눈으로 인지한 성질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군.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4. (물음) 여학생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사한 사례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 ② 권위자의 이론에 기대어 자신의 관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③ 상대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 ④ 자신의 경험을 통해 상대방의 논리적 결함을 지적하고 있다.
  - ⑤ 상대방 주장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면서 견해 차이를 좁혀가고 있다.

5. (물음) '모듬 활동'에 대해 두 학생이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 ①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 ② 모듬 활동의 과제는 개별 활동에 비해 쉽다.
  - ③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개인이 희생해야 한다.
  - ④ 모듬원 하나하나가 모듬 전체에 영향을 준다.
  - ⑤ 모듬 활동을 할 때에는 모듬장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운동 종목에서 추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삶의 태도'에 관한 글을 쓰려고 할 때, 연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종목	추출한 내용	연상한 내용
양궁	과녁에 정신을 집중해야 명중 확률이 높아진다.	목표에 대한 집념이 있어야 원하는 일을 성취할 수 있다. .... ①
승마	말과 호흡이 잘 맞아야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다.	여유로운 삶의 태도를 지녀야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 ②
요트	바람의 방향과 세기에 따라 돛을 조절한다.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③
마라톤	장거리 완주를 위해서는 초반에 무리하게 달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인생의 목표를 성취하려면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 ④
체조	균형 잡힌 자세를 유지해야 좋은 점수를 받는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삶의 태도를 유지해야 성공할 수 있다. ... ⑤

7. <보기>는 '고교생의 금융이해력 향상'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 활용의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신문 기사

한국 고교생들의 금융이해력 수준이 미국 고교생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 고교생들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48.2점으로 미국 고교생(61.2점)보다 낮았다. 또한 현재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융교육이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고교생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

(나) 설문 조사 (대상: 전국 고교생)

1. 현재의 금융교육은?      2. 금융정보를 얻는 경로는?

생활에 도움이 됨  
10%

기타 21%

용어·개념에 치우침 69%

기타 18%

TV와 신문 39%

인터넷 27%

학교 16%

(다) 연구 자료

서울 등 대도시에 비해 금융환경이 열악한 읍면 지역 학교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교육을 우선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 속에서 금융이해력이 개인의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금융지식을 모르는 금융문맹이 새로운 21세기형 문맹의 개념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교 정○○ 교수-

- ① (가)를 활용하여 학교에서의 금융교육이 금융이해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했음을 문제로 제기한다.
- ② (가)와 (나)-1을 활용하여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해서는 금융교육이 용어와 개념 위주에서 벗어나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 위주로 재편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 ③ (가)와 (다)를 활용하여 한국 고교생의 금융이해력 부족이 개인의 경쟁력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한다.
- ④ (나)-2와 (다)를 활용하여 읍면 지역의 학생들에게 언론과 인터넷 매체 등을 활용한 금융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 ⑤ (가), (나), (다)를 활용하여 금융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의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8. <보기>는 ‘청소년의 바람직한 진로 선택’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개요이다. 개요의 수정·보완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I. 서론  
진로 선택의 현황 ..... ㉠

II. 본론  
1. 진로 선택 시의 문제점  
가. 진로 선택에 있어서 적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나. 학교에서의 다양한 직업에 대한 안내 및 직업 체험 활동의 기회 제공 ..... ㉡  
다. 외형적 가치 중심으로 직업을 바라보는 사회 풍조라. 진로 선택에 대한 부모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요구

2. 바람직한 진로 선택을 위한 방안 ..... ㉢  
가. 적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나. 학교에서의 직업에 대한 안내 및 직업 체험 활동 기회 부족  
다.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 ㉣

III. 결론  
편견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인식의 중요성 ..... ㉤

- ① ㉠에 특정 직업에 편중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선호 직업 통계 자료를 제시한다.
- ② ㉡은 상위 항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II-2-나’와 위치를 맞바꾼다.
- ③ ㉢에 글의 완결성을 고려하여, ‘자녀의 적성에 대한 부모의 이해와 대화를 통한 진로 선택’ 항목을 추가한다.
- ④ ㉣은 내용이 막연하므로, ‘직업 관련 사회의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 전개’로 수정한다.
- ⑤ ㉤은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므로, ‘미래 유망 직업의 탐색과 선택의 중요성’으로 고친다.

[9~10] 다음은 문학관 기행문을 쓰기 위해 <보기>의 계획에 따라 작성한 초고이다. 9번과 10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보 기>

- ‘지훈문학관을 선정한 이유와 답사 일정 → 문학관이 있는 마을 소개 → 문학관 관람 내용 → 시 공원에서의 감상’의 순서로 전개
- [A]에는 시 공원에서의 감상을 쓰되, 대조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삶과 연결할 것

이번 문학관 답사 장소는 작가의 삶을 만나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 유적지와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인 ‘지훈문학관’으로 정했다. ㉡‘지훈문학관’이 있는 경북 영양은 문화재가 많고 전통 한옥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 우리의 이런 기대를 만족시켜 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단층의 목조 건물인 ‘지훈문학관’에는 시인 조지훈의 삶의 발자취와 작품이 잘 정리되어 있었다. 시인에 대한 자료와 유품들을 보면서 시인이 멋과 지조의 시인으로 불리는 이유를 어렵잖게나마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문학관을 관리하는 분으로부터 시집을 선물로 받았다.

‘지훈문학관’이 있는 마을 앞에는 많은 인재를 배출한 곳임을 자랑하듯 문필봉과 연적봉이 솟아 있었으며, 마을에는 유서 깊은 고장임을 알려주는 여러 고택과 서당이 있었다.

㉣마을 뒤편에 조촐하게 꾸며진 시 공원에는 여러 시비와 동상이 있었다. ‘승무’의 시비와 그 옆에서 승무를 추는 동상의 모습은 특히 인상적이었다. ( [A] )

9. 글쓰기 계획에 따라 위 글을 고쳐 쓴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어법에 맞게 ‘문화 유적지를 관람할 수 있고 특별한 체험도 가능한’으로 고친다.
- ② 첫째 문단에 ‘답사 일정’을 추가한다.
- ③ 둘째 문단과 셋째 문단의 순서를 바꾼다.
- ④ ㉢은 글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삭제한다.
- ⑤ ㉣은 전개 순서를 고려하여 ㉡ 부분으로 옮긴다.

10. 글쓰기 계획에 따라 [A]에 들어갈 내용을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무용수는 하늘을 응시한 채, 한 쪽 팔은 위로 들어 올리고 다른 쪽은 땅으로 늘어뜨리며 춤추는 모습이였다.
- ② 승무를 추는 동상의 모습은 정적인 가을 분위기와 잘 어울렸다. 역동적인 춤사위와 자연의 조화가 아름다웠다.
- ③ 동상은 장삼을 펼치고 버선발을 들어 올린 형상이었다. 몸은 현실에 매어 있지만 마음만은 자유를 꿈꾸는 나와 같았다.
- ④ 고깔을 쓰고 있는 무용수를 보며 예술가는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고민하는 존재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 ⑤ 별빛이 내리는 고요한 밤의 승무 공연을 상상했다. 고깔을 쓴 무용수의 춤을 보며 번뇌에서 벗어난 내 모습을 그려 보았다.

11. <보기>의 '선어말어미'에 대해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국어의 '선어말어미'는 용언의 어간과 어말어미 사이에 놓이는 어미로 시제와 높임 등의 의미를 부가하는 기능을 한다.

- ㄱ. 나는 지금 소설을 읽는다. / 나는 어제 소설을 읽었다.  
 ㄴ. 철수는 내일 소설을 읽겠구나.  
 ㄷ. 나는 올해 안에 반드시 그 소설을 읽겠다.  
 ㄹ. 어제 보니, 철수는 소설을 읽더라.  
 ㅁ. 선생님께서는 소설을 읽으셨다.

- ① ㄱ의 '-는-'은 현재임을, '-었-'은 과거임을 나타내는군.  
 ② ㄴ과 ㄷ의 '-겠-'은 미래임을 나타내는데, ㄴ에서는 추측, ㄷ에서는 의지의 의미를 지니는군.  
 ③ ㄹ의 '-더-'는 과거의 사실을 회상함을 나타내는군.  
 ④ ㅁ을 보니, '-(으)시-'는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군.  
 ⑤ ㅁ을 보니,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가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보다 앞에 나오는군.

12. <보기>의 용례를 ㉠과 ㉡로 나누었을 때, 그 결과로 적절한 것은? [1점]

<보 기>

'수줍다'와 '부끄럽다'는 의미가 비슷한 단어로,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있다. 주체가 지니는 특성을 가리킬 때는 ㉠ 두 단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어 자신의 잘못이나 과거에 대한 태도를 가리킬 때는 ㉡ '부끄럽다'만 가능하다는 것을 안다면 쉽게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ㄱ. 나는 (수줍음을 /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다.  
 ㄴ. 그는 거짓말을 하고도 (수줍은 /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ㄷ. 아이는 처음 만난 친구 앞에서 몹시 (수줍어했다 / 부끄러워했다).  
 ㄹ. (수줍은 / 부끄러운)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살고 있다.

- |   | ㉠       | ㉡       |
|---|---------|---------|
| ① | ㄱ       | ㄴ, ㄷ, ㄹ |
| ② | ㄱ, ㄷ    | ㄴ, ㄹ    |
| ③ | ㄱ, ㄹ    | ㄴ, ㄷ    |
| ④ | ㄴ, ㄷ    | ㄱ, ㄹ    |
| ⑤ | ㄱ, ㄷ, ㄹ | ㄴ       |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튿날은 **신문사** 주최인 축구대회 기사로 야근을 했고, 다음날은 부득이한 회합이 있어 역시 거기서 다시 이차, 삼차를 거듭해서 집에 돌아온 것은 새벽 세 시였다.

'㉠도대체 나는 뭇 때문에 사는 꼴까. 누구를 위해서 사는 꼴까. 문화사업? 흥!'

이러한 반문을 해본다는 것은 벌써 한 전설이 되어 있었다. 이러한 수택은 또 한 가지 위대한 발견을 했다. 그것은 적어도 자기는 신문기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과거나 현재 아닐 뿐만 아니라 영원히 신문기자로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이다. 아니 신문기자로서의 성공이 곧 문학적으로 그를 파멸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했던 것이었다. 그것은 ㉡희극-아니 비극이었다.

수택이가 하루 이틀 쉬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그는 하는 일 없이 **교외**를 빈들빈들 돌아다니었다. 하루는 S라는 동료로 유인해가지고 청량리로 나갔다. 전부는 아니나 그만 둘 계획만을 이야기하고 생계로 이야기가 읊어졌을 때다. 그도 처음에는 그것이 무슨 냄새인지 몰랐었다. 매캐한 냄새가 코를 콕 찌른다. ㉢그 냄새는 코를 통해서 심장으로 깊이깊이 기어들어가는 것 같았다. -흠내였다.

그것이 흠내라는 것을 인식한 순간, 일찍이 그가 어렸을 때 들던 아버지의 음성이 바로 귓전에서 울리는 것을 느꼈었다.

'사람은 흠내를 맡아야 산다. 너도 공불 하고 나선 아비와 같이 와서 농사를 짓자.-학문? 학문도 좋긴 하다. 허지만 학문이 짐이 될 때도 있으리라.'

그때 그는 아버지를 비웃었다. 흠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면 서도 흠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아버지가 가엾기까지 했었다. 그러나 조소하던 그 말이 지금 그의 마음을 꼭하니 사로잡는 것이다.

'집으로 가자. 흠을 만지자.'

(중략)

아버지의 늘 말하던 소위 '흠냄새'와 '된장내'란 결국 이런 애정을 의미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해본다. '대처 사람'들에게서는 흠냄새가 안 난다는 그 말은 곧 이 이해를 초월한 애정이 없다는 말이 아닐까.

언젠가 집 안에 도적이 들었을 때 도적을 잡았다고 자기 아버지는 그를 때렸다. 도적질은 분명히 악이다. 악을 제지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은 선이다. 이것은 사람이 가진, 그리고 가져야 할 위대한 정신인 동시에 본능이다. 이 선, 이 본능에 대해서 그의 아버지는 지렛대끼로써 예물했다. 그러면 그의 아버지는 도적질을 악으로서 인정치 않는 것일까 하면 그렇지 않다. 흠 속에서 나서 흠과 같이 자라고 흠과 더불어 살아온 그에게는 포근포근한 흠의 감정과 김가고 이가고 정가고 간에 씨만 뿌려주면 길러주는 그러한 흠의 애정 속에서만 살아온 그는 없어서 남의 것을 훔치는 도적놈보다도 흠의 냄새를 맡을 줄 모르고 흠의 애정을 유린한 철두철미 '대처 사람'인 아들에게 보다 더 증오를 느꼈기 때문이었으리라.

수택은 무서운 정열로 자기의 농작물을 사랑했다. 그것은



자기의 작품을 사랑하던 그 정열이었다. 문득 꺼칠해진 벼포기를 발견하고는 인쇄된 자기 작품에서 전부 뒤바뀐 구절을 발견할 때와 똑같이 놀랐다. 그것은 그지없이 불쾌한 순간이었다. 수택은 그대로 **눈**으로 뛰어 들었다. 아랫동아리부터 벼포기가 노랗게 말라든다. 이삭은 알맹이 한 개 안 든 빈 쪽정이었다. 격한 나머지 그는 벼포기를 잡고 낚았다. 강충이\*란 놈이 밭 대궁에 진을 치고 보기 좋게 까먹은 것이었다.

그는 삼십여 년의 반생 동안 이처럼 격한 일이 없었다. 이만큼 어떤 물건이나 생물에 대해서 증오를 느껴본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또 자기 혈관 속에 이토록이나 잔인한 피가 흐르고 있었다는 것도 오늘서야 처음 발견했던 것이었다. 그는 벼포기를 발기고 일일이 강충이를 잡아냈다. **㉔**그래서는 돌 위에다 놓고 짓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그는 일생 처음으로 미움다운 미움을 경험했다고 생각하였다.

수택은 처음 **고향**에 돌아와서 동리 사람들의 시선에서 차디찬 것을 느끼었다. 말만 고향이지 눈에 익은 얼굴도 거의 없었다. 파도에 밀린 뱃조각처럼 이리 밀리고 저리 쫓기어 태반은 타곳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다. 그때 그 차디찬 시선에 그는 일종의 반감까지 일으킨 일이 있었으나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 그래도 **㉕**자기 아버지가 아들에게 품고 있던 그 증오보다는 오히려 나은 것이었다 싶었다.

‘그렇다. 하루바삐 나도 대처 사람의 탈을 벗고 흙과 친하자. 그래서 흙의 냄새를 맡을 줄 아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타이러 때 누군지 귀에다 대고 소리를 짹 지른다.  
 ‘그것은 퇴화다!’  
 그것은 대처 사람인 또 한 다른 수택이었다. 물방울 한 개만 튀어도 시비를 가리고, 파리 한 마리에 상을 쪼고 그리고 디파트\*에서 한 시간씩이나 넥타이를 고르던 도회인의 반역이었다.  
 ‘퇴화? 퇴화 좋다!’  
 ‘아니 패배이다! 패배자의 역변\*이다. 도시 생활— 문명사회에서 생활 경쟁에 진 패배자의 자위 수단이다. 그것은—’  
 ‘아무것이든 좋다!’  
 그는 이렇게 발악을 했다.

— 이무영, 「제일과 제일장(第一課 第一章)」 —

\* 강충이: 농작물의 진을 빨아 먹는 곤충.  
 \* 디파트: 백화점.  
 \* 역변: 역설(逆說).

13. 위 글의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신문사’는 주인공이 도시에서의 삶에 대해 만족을 느끼는 공간이다.
- ② ‘교외’는 주인공이 현실과 타협하는 공간이다.
- ③ ‘집’은 주인공이 작가로서의 꿈을 실현하는 공간이다.
- ④ ‘논’은 주인공이 농작물에 대해 애착을 느끼는 공간이다.
- ⑤ ‘고향’은 주인공이 마을 사람들과 화해함으로써 갈등이 해소되는 공간이다.

14.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립되는 인물을 등장시켜 내적 갈등을 심화한다.
- ② 극적 반전을 통해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를 드러낸다.
- ③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치하여 사건을 지연시킨다.
- ④ 회상을 통해 아버지의 생각에 대한 이해를 구체화한다.
- ⑤ 현재 상황과 대비되는 장면을 통해 상황의 심각성을 부각한다.

15. <보기>를 참고할 때, [B]에 나타난 인물의 심리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제일과 제일장」은 도시에서 벗어나 귀농한 지식인이 농민으로서 적응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주인공이 기존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 가는 과정이 작품의 중심 내용이다.

- ① 도시의 화려한 삶을 포기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
- ② 부조리한 농촌 현실과 타협하려는 태도를 반성하고 있다.
- ③ 물질적 빈곤으로 인한 고통을 이겨내지 못해 고뇌하고 있다.
- ④ 작가로서 농촌의 비참한 현실을 그려내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 ⑤ 도시적 삶에 대한 욕망을 누르면서 현실을 견뎌내려 하고 있다.

16. ㉑~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의문 형식을 사용하여 삶의 의미에 대해 스스로에게 묻고 있다.
- ② ㉒: 상반된 의미를 지닌 단어를 통해 주인공의 내적 고뇌를 드러내고 있다.
- ③ ㉓: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 주인공의 의식이 전환되는 계기를 보여주고 있다.
- ④ ㉔: 주인공이 거리를 두고 자신의 행동을 바라보게 하여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⑤ ㉕: 비교를 통해 주인공이 지닌 아버지와의 대결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어떤 지역이 언어적으로 분화하여 그 지역 안에 각각 다른 언어 특징을 지닌 소지역들이 있다면 그 지역을 몇 갈래의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이처럼 어떤 지역을 언어 차에 의해 나누는 것을 방언구획이라고 하며, 이러한 방언구획에 의해 나누어진 각 지역을 방언권이라 한다. 그리고 방언권들 사이의 경계를 방언경계라고 한다.

방언경계 지역에는 무지개에 색깔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두 방언권의 언어 특징들이 뒤섞여 나타나는 접촉지대가 있는데, 이를 전이지대(轉移地帶) 또는 전이지역(轉移地域)이라고 한다. 가령 벼를 한 방언권에서는 ‘베’라 하고 그 이웃 방언권에서는 ‘나락’이라고 할 때, 전이지대에서는 ‘베’와 ‘나락’이 거의 같은 세력으로 뒤섞여 쓰인다. 그곳에서 한 쪽으로 가면 점차 ‘베’의 세력이 커지다가 드디어 ‘베’만 쓰이는 지역이 나오고, 그 반대쪽으로 가면 ‘나락’의 세력이 커지다가 마찬가지로 ‘나락’만 쓰는 지역이 나온다.

그런데 전이지대에서는 독특한 의미 분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베’와 ‘나락’이 다 쓰일 때 ‘베’는 논에 있을 때의 벼를 가리킴에 반해 ‘나락’은 밭단에서 텃 다음의 벼만을 가리키는 따위의 의미 분화가 그것이다. 이것은 ‘베’와 ‘나락’이 비록 형태는 달라도 그 의미는 같던 것과는 다른 현상으로, 전이지대에서 생기는 특이한 현상이다.

한편 지금까지 없던 새 언어 특징이 생기는 현상을 개신(改新)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어느 지역에서나 ‘춥다, 춥어서, 춥으면’이라고 하였는데 어느 한 지역에서 ‘춥다, 추워서, 추우면’과 같이 말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개신이 차츰 세력이 커지면 ‘춥어서[추워서]’ 대신 ‘추워서’라고 말하는 지역이 점차 넓어진다. 이때 개신의 확장이 마치 물결의 퍼짐과 비슷하다고 하여 개신파(改新波)라고 하며, 세력의 크기에 따라 개신파의 크기가 달라진다. 그리고 개신이 시작된 곳을 방사(放射)의 중심지, 이 중심지 주변을 초점지역이라 한다. 이때의 전이지대는 개신파의 끝쪽과 이것을 저지하는 저항선이 뒤엉킨 지대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언어는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 개신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므로, 개신파가 서로 충돌하는 전이지대가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험준한 산이나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과 같이 지리적 요인에 의해 두 세력의 싸움에 휩쓸리지 않는 지역이 생기는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개신파의 침해를 받지 않는 지역을 잔재지역(殘滓地域)이라 한다. 잔재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고어형(古語形)을 많이 간직하고 있으므로 방언 연구 및 고어 연구에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17. 위 글이 전제하고 있는 언어에 대한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언어는 세계를 인식하는 창이다.
- ② 언어는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물이다.
- ③ 언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유기체이다.
- ④ 인간은 언어를 통해 비분절적인 세계를 분절적으로 표현한다.
- ⑤ 인간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선천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18. ㉠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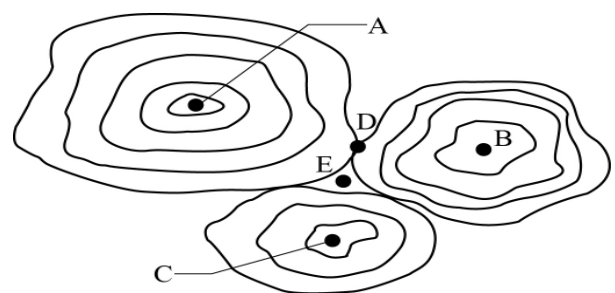
<보기>

- ㄱ. 중세국어 모음 ‘·’를 ‘ㅏ’와 구별하여 발음하는 제주도
- ㄴ. ‘가위’ 대신 옛말인 ‘가새’를 사용하는 태백산맥의 어느 마을
- ㄷ. ‘아버지’의 방언인 ‘아배’와 ‘아방이’를 둘 다 사용하는 경상도 마을
- ㄹ. ‘볶음밥’ 대신 ‘기름밥’이라는 북한말을 사용하는 실향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휴전선 근처의 도시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19. <보기>는 서로 다른 가상의 개신파를 그림으로 그려본 것이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과거에는 모든 지역에서 2인칭 호칭어 ‘네’를 사용했는데, A지역에서는 ‘니’로, B지역에서는 ‘너’로, C지역에서는 ‘느’를 사용하게 되었다.

- ① A보다는 D에서 ‘니’의 세력이 약하겠군.
- ② A, B, C는 모두 방사의 중심지에 해당하겠군.
- ③ ‘니’는 ‘너’나 ‘느’에 비해 개신의 세력이 크겠군.
- ④ D에서는 ‘니’와 ‘너’의 의미 분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군.
- ⑤ E에서는 ‘느’와 ‘네’를 혼용하는 사람들이 많겠군.

[20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주의력결핍증이나 불면증은 현대인들의 심각한 정신질환이다. 이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뇌파는 정상인들과 차이가 있는데, 그들의 뇌파를 조절하면 해당 질환을 고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 ㉠쓰는 뇌파 조절 기술을 뉴로피드백(Neurofeedback)이라고 한다. 뉴로피드백에 의한 질병의 진단 및 치료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진단을 위해 환자의 두피에 전극을 붙이고 생체 전기신호의 일종인 뇌파를 수집한다. 뇌파는 그 신호가 매우 약하므로 증폭 회로를 통해, 입력된 뇌파에 강한 전압을 가하여 신호를 증폭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뇌파는 [A]는 깜박임과 같은 미세한 움직임에도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필터 회로를 통해 주된 뇌파만 걸러내어, 주된 주파수 대역을 찾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날로그 형태인 뇌파를 A/D 컨버터를 통해 디지털 형태로 ㉡바꾸어 주어야 컴퓨터 화면으로 쉽게 뇌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으로 질병을 진단한 결과, 주의력결핍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정상인에 비해 델타파나 세타파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며, 우울증 환자의 경우는 좌뇌보다 우뇌가 뇌파의 진동이 유독 빠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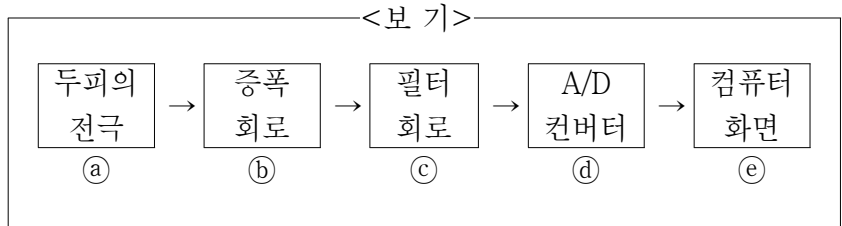
그렇다면 이러한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그 원리는 간단하다. 예를 들어 주의력결핍증 환자의 경우 자신이 집중한 상태 자체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집중 상태의 뇌파를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여줌으로써, 스스로 그 상태로 잘 들어가도록 반복 훈련을 하게 한다. 즉 다양한 사고를 하게 하면서 집중력과 관련된 베타파가 나올 때가 어떤 때인지를 스스로 점검하게 하고,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피드백을 ㉢이끄는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파블로프 박사가 발견한 조건반사와 같은 것이다. 즉 특정 뇌파가 나오는 상황을 환자에게 알려주면, 환자들은 그 상황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러면 뇌에서는 해당 뇌파의 발생 회로가 발달되고 훈련을 계속하면 그 회로가 강화되어 특정 뇌파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1971년 루바 박사는 베타파를 이용한 뉴로피드백으로 주의력결핍증 치료에 성공하였으며, 1995년에 로젠펠트 박사는 좌뇌와 우뇌의 뇌파 속도의 균형을 맞춰주는 뉴로피드백 훈련을 통해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 뉴로피드백은 자폐증, 불면증 등 다양한 질환을 ㉤고치는 데 이용되고 있다.

20.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뇌파는 신체의 미세한 움직임에도 변화가 생긴다.
- ② 집중력이 높을수록 다양한 종류의 뇌파가 나온다.
- ③ 다양한 사고를 많이 할수록 특정 뇌파가 강화된다.
- ④ 특정 뇌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좌뇌를 발달시켜야 한다.
- ⑤ 정신질환자의 뇌파 신호는 정상인에 비해 감지하기 어렵다.

21. <보기>는 [A]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를 통해서 전기 신호의 일종인 뇌파가 수집될 것이다.
- ② ㉡를 통과하면 환자의 뇌파의 양이 늘어날 것이다.
- ③ ㉢를 통해 주된 주파수 대역의 뇌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④ ㉣를 통과한 뇌파의 신호 형태는 이전과 다를 것이다.
- ⑤ ㉤를 통해서 시각화된 뇌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2. <보기>의 증세를 '뉴로피드백'으로 치료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증세: 잠을 잘 자지 못함.

※참고: 뇌파의 종류

구 분	내 용
델타파	깊은 수면 상태에서 발생하는 뇌파
세타파	일반적 수면 상태에서 발생하는 뇌파
알파파	쉬고 있을 때 나오는 뇌파
베타파	학습과 같은 정신 작업을 할 때 나오는 뇌파

[진단 결과]

○ 베타파가 주로 나타나고, 알파파·세타파·델타파는 잘 나타나지 않음 ..... ①

[치료]

○ 다양한 사고를 하게 하여 특정 뇌파가 어떤 때 나오는지 를 환자 스스로 알게 함 ..... ②

○ 실시간으로 특정 뇌파가 나오는 상황을 화면으로 보며 그러한 뇌파가 나오도록 훈련함 ..... ③

[치료 후]

○ 알파파·세타파·델타파 발생 회로가 반응하는 시간이 오래 걸림 ..... ④

○ 알파파·세타파·델타파 등의 수면과 관련한 뇌파 회로 가 강화되어 수면에 들게 하는 뇌파가 늘어남 ..... ⑤

23. ㉠~㉤을 바꾸어 쓴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이용(利用)하는                      ② ㉡: 교체(交替)하여
- ③ ㉢: 유도(誘導)하는                      ④ ㉣: 증가(增加)하게
- ⑤ ㉤: 치료(治療)하는

[24 ~ 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내 언제고 지나치는 길가에 한 그루 남아 선 노송(老松) 있어, 바람 있음을 조금도 깨달을 수 없는 날씨에도, 아무렇게나 뻗어 높이 치어든 그 검은 가지는 추추(啾啾)히\* 탄식하듯 울고 있어, 내 항상 그 아래 한때를 머물러 아득히 생각을 그 소리 따라 천애(天涯)\*에 노닐기를 즐겨하였거니, 하룻날 다시 와서 그 나무 무참히도 베어 넘겨졌음을 보았나니.

진실로 현실은 한 그루 나무 그늘을 길가에 세워 바람에 울리느니보다 빠르게 육신의 더움을 취함에 미치지 못하겠거늘, 내 애석하여 그가 섰던 자리에 서서 팔을 높이 허공에 올려 보았으나, 그러나 어찌 나의 손바닥에 그 유현(幽玄)\*한 슬바람소리 생길 리 있으랴.

그러나 나의 머리 위, 저 묘막(渺漠)\*한 천공(天空)\*에 시방도 오고 가는 신운(神韻)\*이 없음이 아닐지니, 오직 그를 증거할 선(善)한 나무 없음이 안타까울 따름이로다.

- 유치환, 「선한 나무」 -

\* 추추(啾啾)히: 구슬프게.      \* 천애(天涯): 하늘의 끝.  
\* 유현(幽玄): 깊고 그윽함.      \* 묘막(渺漠): 아득하게 넓은.  
\* 천공(天空): 하늘.              \* 신운(神韻): 고상하고 신비로운 운치.

(나)

나는 매일 밤 수색으로 가는데 수색은 보이지 않는다  
모래내를 지나 '수색' 표지판 밑으로 들어가지만  
여기가 수색 같지는 않다  
수색은 이곳이 아닐 것이다 수색이란 말만 있을 뿐이지

불어 있을 뿐이지 수색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곳을 수색이라 하여도  
안개가 낄 때 눈이 내릴 때  
내가 매일 밤 수색으로 가면서  
왜 내가 수색으로 다다르지 못할까?  
날이 갈수록 낮선 이곳 행정과 기사들이 수색이라 하지만  
결코 수색이라고 수궁하지는 않는다  
그렇다 수색은 이런 곳이 아니다 수색은  
이렇게 화려하지 않은 곳이다  
거기는 적어도 태백 같은 산이 있고 석탄이 캐지고 삶 천지요  
그리고 몇 개 상점에  
철사로 걸린 남포동이 어둠을 먹어야 한다  
그러나 이곳은 서울의 일부  
아무런 꿈도 무서움도 없는 천박하고 저 더러운 식민의  
부스럼이다  
나는 매일 밤 수색으로 가면서  
여하튼 수색으로 가지 않는다  
수색은 지금 어느 어둠 속에서  
가명으로 누명으로 앓고 있을 것이다.

- 고희렬, 「수색(水色)으로 가며」 -

(다)

청풍(淸風)을 종이 여겨 창을 아니 닫았노라.  
명월(明月)을 종이 여겨 잠을 아니 들었노라.  
옛사람 이 두 가지 두고 어디 혼자 갔노.

<제1수>

내라서 누구라 하여 작록(爵祿)\*을 맘에 들꼬.  
조그만 띠집을 시내 위에 이룬바  
어젯밤 손수 닫은 문을 늦도록 닫치었소.

<제2수>

상 위에 책을 놓고 아래 신을 내어라.  
이봐 아해야, 날 불 이 그 뉘고.  
알게라, 어제 맞춘 므지술\* 맛보러 왔나보다.

<제3수>

두고 또 두고 저 욕심 그지없다.  
나는 내 집에 내 세간을 살펴보니  
우습다 낚싯대 하나 외에 거칠 것이 전혀 없어라.

<제4수>

산아 너는 어이 한결같이 높았으며  
물아 너는 어찌 날날이 흐르느냐.  
처간(處間)\*에 인지(仁智)한 군자는 못내 즐겨 하노니라.

<제5수>

오두미(五斗米)\* 위하여 홍진(紅塵)의 나지 마라.  
바람 비 어지러워 칼 톱이 무서워라.  
니중에 실컷 뉘우치나 기구하다 기로다단(岐路多端)\* 하여라.

<제6수>

- 이정, 「풍계육가(楓溪六歌)」 -

\* 작록(爵祿): 벼슬과 녹봉.  
\* 므지술: 불분명하나 맥락상 '묻어둔 술'로 보임.  
\* 처간(處間): 초야. 궁벽한 시골.  
\* 오두미(五斗米): 닷 말의 쌀, 얼마 되지 않는 녹봉을 일컫음.  
\* 기로다단(岐路多端): 갈림길의 갈래나 가닥이 많음.

24.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대상의 부재로 방황하고 있다.
- ②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지나온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다.
- ④ 갈등을 극복하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다.
- ⑤ 자연으로부터 인생의 깨달음을 발견하고 있다.

25. (가)~(다)에 나타난 시어의 의미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길가'와 (나)의 '수색'은 화자의 의지에 따라 변화 가능한 공간이다.
- ② (가)의 '바람'과 (다)의 '청풍'은 화자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③ (나)의 '행정과 기사'와 (다)의 '옛사람'은 화자가 연민을 느끼는 대상이다.
- ④ (나)의 '태백 같은 산'과 (다)의 '띠집'은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공간이다.
- ⑤ (나)의 '서울'과 (다)의 '홍진'은 화자가 자신을 단련하는 공간이다.

26. (가)와 (나)의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와 (나)는 상징적 시어를 통해 시적 함축성을 높이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겹표를 통해 호흡의 길이를 조절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예스러운 표현을 사용하여 점잖고 무게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상에 대한 친근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⑤ (나)는 (가)와 달리 역설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고뇌를 효과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27.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 시에서 자연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다. 그것은 물질성을 초월한 존재이며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삶의 정신적 가치를 드러낸다. 그렇기에 화자는 자연을 파괴하여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사람들의 행동을 애석해 한다. 자연과의 교감이 가능했던, 그런 순수한 삶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운 것이다.

- ① ‘노송(老松)’은 물질성을 초월한 존재로 화자에게 자연과의 교감을 가능하게 하는 대상이겠군.
- ② ‘내 항상 그 아래 한때를 머물러’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화자의 행동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그 나무 무참히도 베어 넘겨졌음을 보았나니’는 순수한 삶에 대한 화자의 기대가 꺾였음을 의미하겠군.
- ④ ‘육신의 더움을 취함’은 자연을 파괴하여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선(善)한 나무 없음이 안타까울 따름’에는 정신적 가치로부터 멀어진 현대적 삶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암시되어 있군.

28. 다음을 (나)의 화자가 쓴 일기라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늘도 나는 수색으로 향한다. ①매일 밤 수색으로 가지만 내가 생각하는 수색은 아니다. 지금 수색은 내운사인이 명멸하고 있다. ②내가 찾는 모습과 달리 이곳은 지나치게 화려한 곳으로 변했다. 깊은 지하의 석탄을 캐는 인간들의 삶이 있는 곳, 몇 개 상점에 남포등이 걸려 있는 곳, 그런 소박하면서도 순수한 곳이 내가 가고 싶은 수색이다. 그런데 ③지금의 수색은 아무런 꿈도, 무서움조차도 없는 곳이다. ④나는 이런 수색에 조금씩 익숙해져 간다.

오늘도 나는 수색으로 간다. 수색을 드나들지만 ⑤여전히 나는 수색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다.

29.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수의 ‘청풍’, ‘명월’과 제5수의 ‘산’, ‘물’은 화자가 즐기는 대상이라 볼 수 있다.
- ② 제1수의 ‘창’은 제2수의 ‘문’과 달리 화자로 하여금 자연과 소통하게 하는 열린 통로라 할 수 있다.
- ③ 제2수의 ‘작독’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은 제6수의 ‘바람 비’에 대한 염려 때문이라 할 수 있다.
- ④ 제4수의 ‘남짓대’는 제5수의 ‘처간’에 있는 화자의 삶의 태도와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 ⑤ 제4수의 끝이 없는 ‘저 욕심’은 제6수의 ‘홍진’과의 거리를 좁히려는 화자의 심리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30 ~ 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예를 예술로 볼 수 있을까? 공예품은 미적 대상일까? 18세기 후반에 발달한 근대 예술철학은 아름다움을, 외적인 목적 없이 대상에 내재해 있는 의미라고 보았다. 이러한 시각은 예술과 비예술, 특히 순수미술과 공예를 구분하여 공예를 예술로 볼 수 없게 만들었으며, 기능과 미를 대립적으로 바라보는 잣대가 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순수미술은 대상이 주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작가와 관람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미적인 의사소통이다. 이는 작가가 대상에 담은 의미를 관람자가 관람을 통해 재구성해 내는 행위로 실현된다. 이때 작가가 대상에 담은 의미는 대상의 외적 목적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이에 비해 공예는 생활의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외적 목적을 지닌 것으로, 실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물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예품이 가진 기능이라는 목적 때문에 공예가는 미적 의도를 드러낼 수 없는 것일까? 공예품은 관람자에게 미적 경험을 불러일으킬 수 없는 것일까?

전통적인 도제, 길드 제도 하의 ㉠‘공방 공예’는 공방의 이름이 공예가의 이름보다 앞서 있었다. 공예가들은 공방의 이름과 스타일 아래 종속되어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었을 뿐 자신만의 창조적인 개성을 펼칠 수가 없었다. 그런데 현대 공예의 한 흐름인 ㉡‘스튜디오 공예’는 공예의 개념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스튜디오 공예는 공예품으로부터 기능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제거하여, 기능을 부차적인 혹은 임의적인 속성으로 변화시켰다. 오른쪽 그림은 ㉢‘콘기 라키의 ‘뭇(Spike)’이라는 작품으로, 바구니의 외형을 띠고 있지만 나뭇가지들이 뭇으로 연결되어 위험할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결국 실용적 사물인 바구니를 사용하기 불편하고 불친절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기능의 파괴를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은 바구니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질문을 던짐으로써 대상에 작가의 의도를 담게 된다.





스튜디오 공예는 공예품이 실제 기능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기능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지만 실제 기능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에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공예품에 있어 미적 표현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공예가에게도 작품 속에 자신의 미적 의도를 담을 수 있음을 뜻하는 매우 극적인 변화였다. 하지만 스튜디오 공예가 의미하는 바를 단순히 공예와 순수미술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예를 대하는 생각의 틀이 그 미적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제한하는 편견에 갇혀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30. 위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예 개념의 확장 - 형태 중심에서 이미지 중심으로
- ② 순수미술의 상징성 - 시각적 이미지의 재구성
- ③ 공예에 대한 새로운 시각 - 스튜디오 공예가 보여주는 가능성
- ④ 순수미술과 공예의 차이점 - 대상을 다루는 방식을 중심으로
- ⑤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 시대와 공간에 따라

31. ㉠과 ㉡에 대해 추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는 공예가들이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을 것이다.
- ② ㉡은 예술로 인정받기 위하여 대상의 외적 목적에서 의미를 찾으려 했을 것이다.
- ③ ㉠은 ㉡과 달리 기능과 예술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 ④ ㉡은 ㉠과 달리 공예의 전통에서 벗어남으로써 관람자와의 미적인 소통이 가능할 것이다.
- ⑤ ㉠과 ㉡은 모두 작가의 미적 의도를 관람자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32. <보기>의 '다다익선'과 ㉢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백남준은 장치 브라운관이 캔버스를 대신할 것이라고 하면서 TV 모니터로 구성된 「다다익선」이라는 비디오아트 작품을 창작했다. 이 작품은 하나의 송신자에 다수의 수신자가 대응되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구성 원리를 은유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 ① 기성 제품을 재활용하여 익숙한 주제를 드러냈다.
- ② 관람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예술의 대중화에 기여했다.
- ③ 실험적인 시도를 통해 대중 매체의 특징을 부각하고 있다.
- ④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여 관람자에게 친근함을 주고 있다.
- ⑤ 대상의 기능에 새롭게 접근하여 예술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천상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김원은 대명국 김승상의 아들로 태어난다. 수박 형상이었던 김원은 천상에서 내려온 신선이 허물을 벗겨 주자 장부가 된다. 김원은 아귀에게 납치된 공주를 지하 동굴에서 구출하나 부하들은 김원을 가두고 공을 가로챈다. 지하 동굴에 갇힌 김원은 길을 헤매다 나무에 묶여 있는 소년을 구해주었다.

“소생은 동해 용자로 삼신산의 금강초를 캐어 가지고 돌아옵더니, 이동 중에 아귀가 몹시 사나워 용궁에 들어가서 크게 장난치며 소생의 누이를 빼앗으려 하거늘, 부왕이 서남북 삼해용왕을 청하여 아귀를 크게 쳐 파하니, 아귀가 패하여 돌아오다가 여기에 와서 생이 용자인 줄 알고 나무에 매달은 지 여러 날이 되었삽더니, ㉠선생의 구하심을 천만의외에 입었사오니 그 은혜 죽어도 잊지 못할 것이라. 감히 청할 수 없사오나 높으신 성명을 들어지이다.”

원수가 답하여 가로되,

“나는 대명국 도원수 김원일러니, 황명을 받자와 이곳에 들어와 아귀를 소멸하고 공주를 먼저 보낸 후 나가려 하였는데, ㉡천만의외에도 사슬이 끊어지고 땅굴이 메이기로 나가지 못하여 헤매 다니다가 그대를 만나니 이 또한 일시 연분이로다.”

소년이 다시 절하고 가로되,

“일이 이리하면 비단 재생지은(再生之恩)뿐만이 아니라 원수까지 갚아 주시었으니 감격함을 이길 수 없사오며, 이제 인간 세상으로 나가려 하오면 잠깐 수궁에 다녀가심이 좋을까 하나이다.”

원수 웃으며 가로되,

“이곳은 비록 굴이라도 천지일월이 세상과 같으니 혹은 나갈 길이 있으려니와, 수부(水府)는 세상 이치가 다르니 진세(塵世) 사람이 갈 곳이 아니라. 그대가 초창하는 일은 감격하나 가히 행치 못하리로다.”

용자가 크게 웃으며 가로되,

“㉢용의 변화와 수궁의 재미를 듣지 못하셨습니다. 생을 따라 가시면 자연 인간 세상으로 나가실 것이니 조금도 의심하지 마소서.”

원수 그럴 듯하게 여겨 용자를 따라 100여 리를 가니 이곳은 동쪽의 큰 바다라. 용자가 원수를 청하여 등에 엮드리라 하거늘, 원수가 용자의 등에 오르니 용자가 몸을 뒤집어 물결을 헤치며 순식간에 용궁에 다다르니 해와 달이 명량하고 기이한 꽃과 이상한 풀, 금은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궁궐은 구름 낀 하늘에 넓고도 끝이 없어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인간의 다섯 가지 복을 응하였으니, 연못 속의 천지요 물나라의 용궁이라. 용자가 먼저 들어가 용왕께 뵈옵고 아귀에게 잡혔던 일과 원수를 만나 구함을 받던 일이며, 원수와 한가지로 들어온 연유를 고하니 왕이 크게 놀라 가로되,

“그런 줄 알았으면 내 친히 기병(起兵)하여 너를 아니 구하였으랴. 그러나 은인이 왔다 하니 바빠 청하라.”

용자가 명을 받들어 원수를 청하거늘 원수가 용자를 따라 금낙전에 들어가니 용왕이 올려 예를 마치고 사례하여 가로되, “몹쓸 아귀를 소멸하고 돈아(豚兒)\*의 성명을 구하시니 은혜 감사하고 천고에 유전하리로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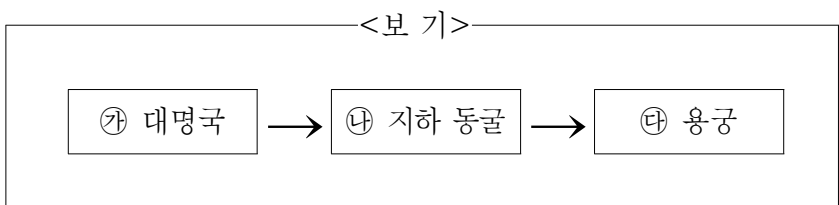
원수 답하여 가로되,  
 “이는 수궁의 복이요, 용왕의 성덕이라. 어찌 소생의 공이  
 리요.”  
 원수의 겸손한 말을 더욱 애중히 여겨 큰 잔치를 열어 즐기니  
 풍악은 반공에 솟았고 술이 두어 순배 지나매, 용왕이 원수의  
 겪은 일과 용자를 구하여 돌아온 수말을 다 전해 듣고,  
 “㉔장군이 아니면 살아 돌아오기 어렵고 수궁의 화근을  
 덜지 못하리니 이 은혜는 태산이 가벼웁고 하해 알을지  
 라. 과인의 딸과 이성지합을 맺어 은혜를 갚고 의를 맺  
 고자 하나니, 그대의 맑은 의논이 어떠하뇨.”  
 원수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땅에 엎드려 가로되,  
 “㉕소생은 인간의 천한 몸이요, 공주는 용궁대인이시니  
 성의를 받들어 행하지 못하리로소이다.”  
 좌중이 격동하여 가로되,  
 “혼인은 이성지합이요, 온갖 행실의 근원이어늘 장군이 동  
 방화축을 굳이 사양하니 도리어 장군을 위하여 취하지 아  
 니하노라.”  
 원수가 좌중의 공론과 왕의 관대함을 인하여 허락하니,  
 왕이 크게 기뻐하여 길일을 택하여 혼례를 행하였다.  
 - 작자 미상, 「김원전」 -

\* 돈아(豚兒): 남에게 자기의 아들을 낮추어 이르는 말.

3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배경을 묘사하여 새로운 갈등을 암시하고 있다.
- ② 인물의 말을 통해 사건의 전후 과정이 드러나고 있다.
- ③ 현재의 사건과 과거의 사건을 교차하며 전개하고 있다.
- ④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하고 있다.
- ⑤ 장면이 빠르게 전환되면서 인물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34. 위 글에 나타난 공간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㉔~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㉕에서 주인공이 아귀를 물리침으로써 인물의 영웅적인 면모가 드러난다.
- ② 곤경에 처한 주인공은 ㉕에서 만난 용자의 도움으로 임무를 완수하게 된다.
- ③ ㉕에서 주인공과 용자의 만남은 주인공이 ㉖에서 배필을 얻는 계기가 된다.
- ④ ㉔로부터 ㉕, ㉖로의 이동은 이야기에 모험적인 성격을 부여한다.
- ⑤ 주인공이 ㉕에서 ㉖로 이동함으로써 ㉔로의 복귀가 가능해질 것이다.

35.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김원전」은 아래와 같은 ‘지하국대적퇴치설화’의 줄거리를 기본 서사로 활용하여 창작된 고전 소설이다. 설화와 달리 소설은 좀 더 복잡한 서사적 줄거리를 지니고 있으며 소설이 창작된 시대와도 밀접한 관련을 지니게 된다. 또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여 독자의 흥미를 끌고 있다.

- 옛날 어느 곳에 사는 무사가 아귀에게 납치된 여인을 구출한다.
- 동반자의 배신으로 혼자 지하국에 갇히나 원조자를 만나 탈출한다.
- 배신자를 응징하고 여인과 결혼한다.

- ① 배경을 ‘대명국’으로 설정하여 역사적 사건과의 관련성을 강조하려 했군.
- ② 재미를 위해 ‘동반자의 배신’이라는 모티프는 소설에서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군.
- ③ ‘지하국’ 이야기에 ‘용궁’ 장면이 추가된 것은 작품에 흥미를 더하려는 의도였겠군.
- ④ ‘무사’와 달리 ‘김원’을 천상계와 관련된 인물로 그려 기본 서사를 좀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군.
- ⑤ ‘여인’을 ‘공주’로 바꾼 것은 ‘김원’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인물임을 부각하여 ‘충’의 시대적 이념을 드러내려 한 것이군.

36. ㉑~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김원의 은혜에 대해 용자는 백골난망(白骨難忘)이겠군.
- ② ㉒: 김원에게 닥친 상황은 청천벽력(靑天霹靂)과도 같겠군.
- ③ ㉓: 용자는 김원에게 동병상련(同病相憐)을 느끼고 있군.
- ④ ㉔: 용왕은 김원에게 결초보은(結草報恩)하고 싶겠군.
- ⑤ ㉕: 김원은 용왕에게 겸양지덕(謙讓之德)의 태도를 보이는군.

[37 ~ 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방물장수와 함께 뜰막을 떠났던 돌이가 나그네가 되어 뜰막에 돌아와 똥손이를 만나 지난 삶을 이야기한다.

81. 눈에 덮인 고갯길(황혼)

나그네. 고갯마루에 서서 저 아래 눈 속에 묻힌 뜰막을 바라보고 섰다.

나그네(E)\* 아버지의 뼈가 묻혀 있고 어머니가 떠나구 제가 태어난 이곳에서 저두 아버지처럼 살구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저절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DIS)\*

82. 가마(현재 밤)

조용한 말문을 닫는 나그네.

똥손이 (차분히) 자네 아버님의 혼이 자네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일세. 아마 그게 또 사람의 분시부터 타고 난 길인지 모르네만…….

나그네 영감님을 여기서 만나게 된 것두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똥손이 암! 그렇구 말구. 더욱이 자네 아버님의 죽음을 보게 된 나로선 그분을 잊을래야 잊을 수 없구. 따라서 여기서 떠날래야 떠날 수도 없었다네. 나에겐 그만큼 사무친 것이지. 자네 아버지의 죽음이…….

나그네 네. 내일은 꼭 아버지 뼈가 묻힌 데를 찾구 싶습니다.

똥손이 음!……(가만히 그를 보더니) 찾아갈 필요도 없다네…….

나그네 (자못 놀란다) 네?! 무슨 말씀입니까?

똥손이 내 그 사연을 자네에게 얘기하지…….

나그네 ……(본다)

똥손이 자네가 아버지를 마지막 봤을 때 실은 그분은 아직 돌아가시진 않았었지…….

나그네 네?!

똥손이 자네 어머니가 떠난 다음날이었다네……. (DIS)

83. 작업장(회상 낮)

물레를 돌리는 송 영감. 전을 잡은 손길이 후들후들 떨린다. 간신히 의자에 의지해 작업하고 있는 송 영감.

똥손이(E) 그분은 그때 자네의 양육문제와 겨우살이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가마 독을 굶지 않을 수 없었다네. 그래서 독짓기에 온갖 힘을 기울이셨지. 그건 몹시 고달프고 초조한 작업이었다오…….

84. 건조장(낮)

송 영감 비틀거리며 온다. 그리고 쪽 늘어선 독들을 초조하게 운반하기 시작한다. 금세 비지땀이 솟은 송 영감. 똥손이 안타깝기만 하다. 같이 독을 운반한다.

똥손이(E) 그러나 송 영감이 그렇게 일을 서둔 건 단지 언제 다시 눈이 쏟아질지 모르는 겨울 날씨가 몹이 불편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네. 오히려 도망간 제자 놈이 만든 독하구 자기 독을 겨누어 보자는 그야말로 호주다운 기백 탓이었다네…….

(중략)

88. 뜰막 안

움짤하니 보는 돌이. 이때였다. 송 영감의 꼭 감겨진 눈엔 눈물. 그 가득히 고인 눈물이 한줄기 강물처럼 흘러내린다. 가늘게 아주

가늘게 경련을 일으키는 영감의 눈시울. 돌이 그래도 확인해보려는 듯 조심스럽게 송 영감의 얼굴을 쓸어 본다.

방물장수 (겉주듯) 저것 봐라! 벌써 눈에서 저렇게 썩은 물이 줄줄 나오지 않니!

돌이 움찔하니 뒷걸음치기 시작한다.

방물장수 자! 아줌마하고 가자!

돌이 손을 끌고 나간다. 송 영감의 눈이 가늘게 열린다. 그리고 나가는 돌이의 뒷모습을 사무치게 본다.

미처나갈 것 같은 송 영감의 심정-. 돌이 나가다 뒤돌아본다. 언뜻 다시 눈을 감는 송 영감. 문이 삐걱하며 닫힌다.

송 영감 이제 한사코 눈을 뜨지 않으려고 애쓴다. 그 눈에선 다시 썩은 물 같은 뜨거운 새 눈물이 자꾸만 흘러내린다. 아무도 없는 방안.

백자기에 석양빛이 탄다. 아니 석양빛은 방안을 태우고 눈 감은 채 꼼짝 않고 누운 영감의 얼굴에도 그의 줄줄이 흘러내리는 눈물줄기에도 타고 있다.

(E) 돌이의 훌쩍이는 소리

순간-.

딱- 눈을 뜨고마는 송 영감. 다음 순간 그는 말할 수 없는 불안과 초조와 후회감에 사로잡힌다.

송 영감 돌았! (벌떡 일어난다) 돌았!

비틀거리며 문으로 달려간다.

- 여수중 각색, 황순원 원작, 「독짓는 늙은이」 -

\*E: 'Effect'의 약자. 효과음.

\*DIS: 'Dissolve'의 약자. 앞 화면이 사라짐과 동시에 다른 화면이 서서히 나타나게 하는 영화기법.

37. 위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똥손이는 송 영감을 잊지 못하고 있다.
- ② 나그네는 똥손이를 만나기 위해 뜰막으로 돌아왔다.
- ③ 방물장수는 송 영감에 대한 돌이의 미련을 버리게 했다.
- ④ 나그네는 송 영감의 죽음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다.
- ⑤ 송 영감은 도망간 제자의 독과 견주기 위해 독 만들기를 서둘렀다.

38.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영화에서는 시간을 재배열하는 기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현재의 관점으로 과거 사건을 바라보게 하여 그 인과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디졸브 기법을 사용하거나 사물이나 소리 등을 매개로 불연속적인 시간을 연결한다.

- ① 장면 82의 '조용한 말문을 닫는'은 장면 81의 나그네의 소리와 연결되어 현재에서 과거를 회상했음을 보여주는군.
- ② 장면 82의 뒷부분에서 디졸브 기법을 사용하여 현재에서 과거로 시간을 재배열하고 있군.
- ③ 장면 83과 84에서는 똥손이의 소리를 통해 불연속적인 시간을 연결하고 있군.
- ④ 장면 88의 효과음은 과거의 시간에서 현재로 돌아오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군.
- ⑤ 장면 88은 과거 사건을 그려내어 장면 82의 현재 관점에서 사건의 인과성을 드러내려 한 것이군.



39. 장면 88을 영화로 제작한다고 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방물장수는 돌이를 달래기 위해 타이르듯 부드러운 어조로 말한다.
- ② 송 영감의 흘러내리는 눈물에 석양빛이 비치는 모습을 클로즈업한다.
- ③ 뜰막 안에는 송 영감네의 가난한 형편이 드러날 수 있는 소도구를 배치한다.
- ④ 돌이가 떠난 뒤, 송 영감이 돌이를 애절하게 부르며 하여 한이 느껴지게 한다.
- ⑤ 돌이는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연기한다.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발생(發生)이란 단세포의 수정란이 세포의 증식, 분화, 형태 형성을 거쳐 수십억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복잡한 개체가 되는 과정을 일컫는다. 다윈 시대부터 생물학자들은 진화와 발생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에 주목했다. 즉, 단순한 생명체가 세대를 거듭하며 점차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하는 것이 발생과 비슷하다고 ①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발상에서 출발한 진화발생생물학인 이보디보(EVO DEVO)는 공통의 조상 관계를 밝히기 위해 생물들의 발생 과정을 비교하여 발생 과정상의 진화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보디보는 발생 과정에서 생물의 부위 형성을 조절하는 ‘호메오 유전자’의 발견을 통해 학문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다. 미국의 생물학자 루이스와 그의 동료들은 초파리의 호메오 유전자 연구 과정에서, 호메오 유전자들이 세포 내의 유전자 복제 과정을 정교하게 작동시키는 지휘통제소와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초파리에서 호메오 유전자를 발견한 이후, 선충에서 코끼리까지 모든 동물에서 호메오 유전자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쥐에게서도 호메오 유전자가 발견되었는데, 초파리의 경우처럼 유전자들의 배열 순서가 그들이 영향을 미치는 신체 부위의 순서와 일치하였다. 이는 호메오 유전자의 유사성이 발생 순서, 복합체 조직을 이루는 방식에까지 똑같이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②계통적으로 아주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종에서도 호메오 유전자가 매우 유사한 기능을 하게끔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 예로, 눈의 발생과 관련된 유전자는 초파리에서는 아이리스 유전자이고, 쥐의 경우에는 스몰아이 유전자이다. 이 들처럼 동물들의 눈을 형성하는 유전자를 팍스-6(Pax-6) 유전자라고 한다. 초파리와 같은 곤충의 눈은 겹눈이기 때문에 쥐와 같은 척추동물의 눈과는 구조와 재료, 그리고 작동 방식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초파리의 아이리스 유전자를 생쥐에게, 생쥐의 스몰아이 유전자를 초파리에게 이식시켰을 때 두 경우 모두 유전자를 제공한 종이 아닌, 실험 대상 종에게 맞는 정상적인 눈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초파리의 다리 발생 유전자 자리에 생쥐의 스몰아이 유전자를 이식했더니 초파리 다리에 초파리의 눈 조직이 발생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초파리와 쥐의 공통조상이 팍스-6과 같은 호메오 유전자를 사용했으며, 진화의 과정에서 이러한 유전자가 계속하여 재사용되고 보존되었음을 추

정할 수 있다.  
이처럼 초파리의 호메오 유전자의 발견에서 출발한 이보디보는 정설로 여겨졌던 진화생물학의 논리에 대항하여 진화와 발생의 오케스트라를 유전자가 지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생명체의 중요한 발생 과정을 조절하는 유전자가 있으며, 이 유전자의 체계가 변하는 것이 바로 진화임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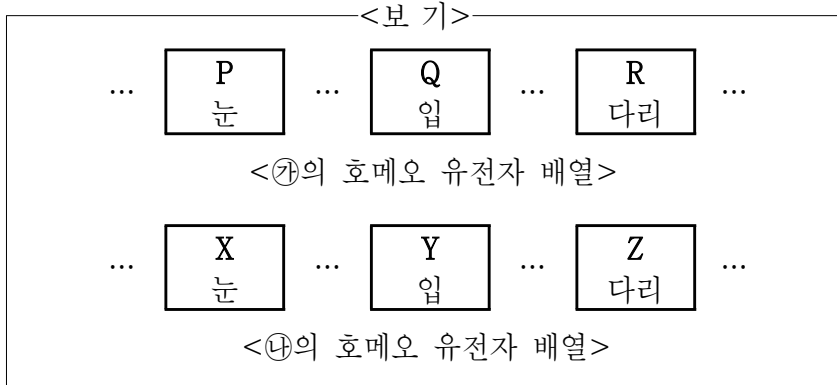
40. 위 글의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념을 정의하며 대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② 대상의 의의를 언급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③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글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⑤ 유사한 속성에 비유하여 대상의 역할을 드러내고 있다.

41. ㉠을 유추를 통해 설명하고자 할 때, 그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양하게 변주되는 재즈의 기본 선율
- ② 필요한 정보를 찾도록 도와주는 검색 사이트
- ③ 인간을 대신해 위험한 작업을 하는 탐사용 로봇
- ④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톨게이트
- ⑤ 대용량의 정보를 빠르게 담을 수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42. <보기>는 ㉡, ㉢ 두 생물의 호메오 유전자 배열을 간단하게 도식화한 것이다. 위 글을 바탕으로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P와 X도 팍스-6 유전자로 볼 수 있겠군.
- ② Q를 Z에 이식하면 ㉢에는 다리에 입 조직이 발생하겠군.
- ③ Z를 R로 대체하면 ㉢의 다리 대신 ㉡의 다리가 발생하겠군.
- ④ ㉡와 ㉢의 공통 조상들도 팍스-6과 같은 호메오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겠군.
- ⑤ Q와 R의 위치를 바꾼다면 ㉡는 ‘눈-다리-입’의 신체구조를 지닌 개체로 발생하겠군.

43. ㉡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로 볼 수 없는 것은? [1점]

- ① 학생들은 요즘 유행하는 음악을 들었다.
- ② 그들은 한때 돈벌이에만 관심을 가졌다.
- ③ 그는 잠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다.
- ④ 이번에 그녀에게 청혼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 ⑤ 나는 문득 그가 보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다.

[44 ~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완전경쟁시장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하고 상품의 동질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급자와 수요자는 시장 전체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와 달리 독점시장은 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단일 기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 이 경우 독점기업은 시장 전체에서 유일한 공급자이기에 공급량 조절을 통해 가격 결정을 할 수 있어 시장 지배력이 크다. 독점기업이 동일한 조건에서 생산된 똑같은 상품을 서로 다른 소비자에게 서로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 '가격차별'이라고 하는데, 이는 기업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가격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1급가격차별은 독점기업이 어떤 재화에 대하여 개별 소비자들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인 지불용의금액을 알고 있어 소비자 각각에게 최대 가격을 받고 판매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소비자잉여\*까지 모두 독점기업에게 귀속된다. 하지만 현실에서 독점기업이 개별 소비자의 지불용의금액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1급가격차별을 실시하는 독점기업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급가격차별은 독점기업이 소비자에게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여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지불용의금액에 따라 하나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가격차별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입량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별로 다른 가격을 부과하여 소비자가 그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경우이다. 또한 소비자가 상품을 소량 구매할 때보다 대량 구매할 때 단위당 가격을 깎아주는 방식이 2급가격차별에 해당한다.

3급가격차별은 소비자의 특징에 따라 소비자를 2개 이상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가격차별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각 소비자 그룹의 수요곡선을 예측하여 가격차별을 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을 특징에 따라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눈다는 것은 곧 시장을 몇 개로 분할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는 시장 분할에 의한 가격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 소비자잉여: 소비자가 얻고 싶은 재화를 낮은 가격에 살 경우 실제 구입 가격과 최대한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가격과의 차이에서 소비자가 얻는 이득 부분.

44.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완전경쟁시장에서 공급자는 가격 인상을 쉽게 할 수 있다.
- ② 독점시장에서 동일한 상품은 경우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판매되기도 한다.
- ③ 소비자들이 몇 가지 대안을 독점기업에 제시하여 가격차별을 결정할 수 있다.
- ④ 독점기업이 소비자들의 지불용의금액을 모르면 소비자잉여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⑤ 독점기업은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높은 가격에 판매하여 가격차별을 실시한다.

45. 독점기업이 ㉠의 전략을 구사한다고 할 때, 전제하고 있는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쟁에서 뒤처지면 손해를 본다.
- ② 소비자의 특징 및 심리가 다르다.
- ③ 홍보를 통해 기업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 ④ 수요량은 기업에서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다.
- ⑤ 상품의 질을 차별화하여 수익을 늘릴 수 있다.

46. 위 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산 정상에서 음료수를 파는 동업자 갑, 을, 병이 판매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단, 산 정상에는 갑, 을, 병 이외의 판매자가 없으며 구매자 간 재판매는 불가능함.)

갑: 단체로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 많이 사면 할인을 해주는 거야.

을: 음료수 가격의 10배인 3,000원에 팔자. 어제 그 가격보다 비싸게 팔 때는 아무도 안 샀는데, 3,000원에는 사간 사람이 있었거든.

병: 상대적으로 지불 능력이 있는 어른들에게는 비싸게 팔고, 지불 능력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싸게 파는 거야.

- ① '갑'은 지불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을 받는 1급가격차별 전략을 세웠군.
- ② '을'은 대량 구매 시 가격을 깎아주는 2급가격차별 전략을 내세우는군.
- ③ '병'은 소비자의 특징에 따라 시장을 달리하는 3급가격차별 전략을 주장하는군.
- ④ 산 정상에 음료수를 파는 사람이 많아져도 '갑', '을', '병'의 이익에는 변화가 없겠군.
- ⑤ 음료수가 한 병이고, 산 정상에 온 사람들이 모두 음료수를 사고자 한다면 '갑'의 전략이 가장 큰 이익을 남기겠군.

[47 ~ 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이자 철학자인 자크 라캉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이어받아 새롭게 재창조했다. 그는 인간 존재에 대한 중요한 철학적 성찰을 정신분석학에 가미함으로써 현대 사상을 일군 핵심 인물들 중 한 사람이 되었다.

라캉은 ‘거울 단계 이론’을 통해 자아의 자율성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밝히고자 했다. 그에 따르면 거울 단계란 어린 아이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신체 ㉠이미지를 매개로 해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외적 세계를 구성하는 단계이다. 대략 생후 6~18개월 정도의 아이는 처음에 거울에 비친 자신의 이미지를 외부 대상과 구별하지 못한다. 모든 것이 카오스처럼 하나로 ㉢뒤엉켜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어느 순간 아이는 자신의 이미지를 알아보게 되고 자신의 이미지에 매료되어 그것을 붙잡으려 하고 떠날 줄을 모른다. 일견 단순해 보이는 거울 이미지는 이후 모든 심리 발달 단계에서 원형으로 작용한다.

거울 단계의 경험이 보여주는 것은 인식의 기준이 되는 자명한 자의식이나 선형적이고 절대적인 자아는 없다는 것이다. 라캉에 따르면, 자아는 어느 순간 나의 이미지를 다른 대상 이미지로부터 분리하고 그것에 고착됨으로써 형성된다. 거울 단계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이미지에 열광하는 이유는 이 이미지가 처음으로 자신의 가시화된 신체를 보여주면서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다. 외부로 가시화된 이미지는 내 것이기도 하지만 실은 주체의 나르시시즘\*이 투사된 타자적 대상이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단지 신체가 가시적 공간에 반영된 것으로 나와 마주해 나의 시선을 머물게 하는 그림자이며, 나의 내면을 보여주지 못하는 대상일 뿐이기에 주체에 대해 언제나 타자로만 머물며 이상화되기 쉽다. 결국 거울 단계는 매우 행복한 단계이지만, 허구적 구축이 이루어지는 단계이고 타자를 통해 자아가 구성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기 소외적이라고 할 수 있다. 라캉은 “주체가 스스로를 발견하고 제일 먼저 느끼는 곳은 타자 속에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여기서 타자는 실제 타자를 의미할 수도 있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일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주체가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은 주체의 타자다. 인간은 타자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을 때 주체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조적으로 인간의 욕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타인의 욕망과 그것이 겨냥하는 대상을 향하게 된다. 욕망은 순수하게 나의 내면적 의지를 표현하는 것 같지만, 타자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타자가 욕망하는 것을 욕망한다는 점에서 소외의 표현이기도 하다. 자아가 타자라는 말은 이런 소외된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다.

\* 나르시시즘: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도취에 빠지는 일.

47. 라캉의 이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거울 이미지는 심리 발달의 원형이 된다.
- ② 자신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과 결부돼 있다.
- ③ 욕망은 자기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다.
- ④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이상화되기 쉽다.
- ⑤ 거울 단계에서 자아는 자신의 이미지를 통해 구축된다.

48. ㉠ : ㉡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 그림자 : 존재감  
 ㉡. 타자 : 자아  
 ㉢. 대상 : 자신  
 ㉣. 욕망 : 의지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49. 위 글의 ‘라캉’이 <보기>에 대해 평가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자아는 자생적인 것이어서 외부 대상과 상관없이 형성된다. 즉 자아는 스스로 지각하고 판단하며 결정을 내리는 자율적인 것이다.

- ① 자아가 외부 대상과 상관없다는 것은 자아의 선형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 ② 자아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어린 아이의 집착이 강화됨을 강조하는 것이다.
- ③ 자아가 자율적이라는 것은 자아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형성됨을 인정하는 것이다.
- ④ 자아가 자생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은 자아가 타자를 매개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 ⑤ 자아가 스스로 지각한다는 것은 대상 이미지로부터 자신의 이미지를 분리하는 과정을 과대평가한 것이다.

50. ㉢에 쓰인 ‘뒤-’와 의미가 유사한 것은?

- ① 흥분으로 뒤끓는 가슴을 진정시켰다.
- ② 중개인은 다 된 흥정을 뒤틀고 나섰다.
- ③ 이 책이 나의 세계관을 뒤바꾸어 놓았다.
- ④ 그가 이야기하면 항상 그 말을 뒤받는 사람이 있었다.
- ⑤ 물살이 밀어닥쳐 나룻배를 뒤엎는 바람에 사고가 일어났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2012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언어 영역

### 정답

1	③	2	④	3	③	4	③	5	④
6	②	7	⑤	8	⑤	9	⑤	10	③
11	⑤	12	②	13	④	14	④	15	⑤
16	⑤	17	③	18	①	19	⑤	20	①
21	②	22	④	23	②	24	②	25	④
26	④	27	②	28	④	29	⑤	30	③
31	④	32	⑤	33	②	34	②	35	①
36	③	37	②	38	④	39	①	40	④
41	①	42	③	43	①	44	②	45	②
46	③	47	③	48	④	49	④	50	①

## 듣기대본 및 해설

### 1. [출제의도] 이어질 내용 추리하기 이제 이야기 한 편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봉서 유신환의 선물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그는 어린 자식에게 부드럽고 편안한 가족신 대신 나막신을 새해 선물로 주었습니다. 나막신은 굽이 높고 딱딱하여, 어린아이가 신으면 살갓이 벗겨지고 넘어져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굳이 나막신을 선물했을까요? (사이) 나막신을 신고 다니다보면 넘어지지 않기 위해 늘 조심해야 합니다. 반면 가죽신을 신으면 편안함만 믿고 함부로 뛰놀다가 넘어져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위험은 위험함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함을 모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기서 우리는 봉서 유신환의 선물을 통해 선물의 의미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선물이란 단순히 상대를 기쁘게 하는 물건이 아니라

유신환이 자식에게 나막신을 선물한 것은 항상 처신에 주의하여야 한다는 특별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이다. 즉 자식이 살면서 지녀야 할 삶의 교훈을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 2.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이번에는 방송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은 도서관에서 책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책을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분류 기호를 이용하는 겁니다. 도서관에 있는 책을 보면 숫자와 문자로 된 분류표가 붙어 있지요. 이 분류표에서 숫자는, 지구상의 모든 책을 열 가지로 분류한 것입니다.

<표>를 보면 '듀이십진분류법'과 '한국십진분류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듀이십진분류법은 미국의 멜빌 듀이가 개발한 것인데, 문헌을 열 개의 주류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현재 이 방법이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지요. 우리나라의 대학 도서관에서도 주로 이 분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듀이십진분류법은 인문과학 위주로 고안되었고, 유럽과 미국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고쳐, 한국십진분류법을 만들었지요. 그 뒤 공공 도서관에서는 한국십진분류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류법에서 000번대의 총류에는, 하나의 주제로 나누기 어려운 것이나 여러 주제를 포괄하는 것이 속하는데, 사전이나 전집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럼 한국십진분류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을까요? 예를 들어, 811번대의 책은 어떤 책일까요? 맨 앞자리가 8인 것을 보면 문학 분야의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리는 나라별 분류를 나타낸 것인데요, 1은 한국 문학, 2는 중국 문학, 3은 일본 문학 등의 순서로 배열되므로, 이 경우에는 한국 문학에 해당합니다. 셋째 자리는 갈래별 분류를 표시합니다. 1은 시, 2는 희곡, 3은 소설, 4는 수필 등의 순서입니다. 따라서 셋째 자리가 1이니가 811번대의 책장에 꽂힌 책은 한국 문학 중에서 시에 관련된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십진분류법으로 김유정의 『봄봄』을 앞자리부터 순서대로 표시하면, 문학 '8', 한국문학 '1', 소설 '3'이므로 '813'번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 3. [출제의도] 반응의 적절성 파악하기 이번에는 강의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 음에 답하십시오.

수술실에서 의사들은 왜 초록색이나 파란색의 수술복을 입고 있을까요? 그것은 '착시현상'의 일종인 '보색 잔상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착시 현상은 어떤 사물의 크기·형태·빛깔 등의 객관적인 성질과 눈으로 보는 성질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어떤 빛깔을 보다가 흰 색을 보았을 때 그 보색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색 잔상 현상'이라고 합니다.

시세포는 색깔을 구분하는 원추세포와 명암을 구분하는 간상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추세포는 특정 색을 집중해서 오랫동안 주시하면 쉽게 피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수술하는 동안 붉은색의 피를 오랜 시간 보게 되면 빨간색을 감지하는 원추세포가 피로해져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파란색이나 초록색을 감지하는 다른 원추세포는 여전히 활력이 있으므로 이들 간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이때 하얀 옷을 입은 동료들을 보면 옅은 청록색으로 보이는 보색 잔상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잔상은 수술시 의사의 시야를 혼란시켜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실에서는 붉은색의 보색인 푸른색 수술복을 입음으로써 보색 잔상 현상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강의는 눈의 착시 현상 중에서 보색 잔상 현상을 설명한 것이다. 우리 눈의 시세포는 크게 색깔을 구분하는 원추세포와 명암을 구분하는 간상세포로 나눌 수 있다. 한 가지 색을 지닌 어떤 물체를 오랫동안 바라보면 그 물체의 색에 해당하는 원추세포가 피로해져 다른 원추세포와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 이때 다른 곳을 바라보면 그 물체의 보색이 보이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의사들은 보색 잔상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피의 색과 보색인 푸른색 수술복을 입는 것이다. 이러한 보색 잔상 현상은 색깔과 관계있는 것이므로, 명암을 구분하는 간상세포와는 관련이 없으며 원추세포와 연관이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 [4~5] 이번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질문에 답하 십시오.

여학생: 모둠 활동은 잘하고 있지?

남학생: 우리 모둠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야. 너희는 어때?

여학생: 우리는 모둠원 한 명이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아. 그 친구 때문에 우리 모둠 전체의 성적이 나빠질까봐 다들 걱정이야. 그래서 난 자기가 한 만큼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개별 활동이 더 낫다고 생각해.

남학생: 그래? 사실 우리 모둠도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겪었어. 내가 모둠장이 되어서 모둠원들의 역할을 나누었는데, 일부 모둠원들이 자기 역할을 바꿔달라며 모둠 활동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거든.

여학생: 그런데 지금은 별 문제가 없다니, 갈등은 어떻게 해결한 거야?

남학생: 어느 날, 모둠원들이 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 모둠원들은 역할을 분담할 때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내가 일방적으로 역할을 정해 준 게 서운했던 모양이야.

여학생: 모둠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었겠네.

남학생: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은 게 참 많아.

어떤 것을 정하고 추진할 때는 모두의 의견을 듣고 토의하는 것이 모둠 활동의 기본이라는 사실 말이야.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니 이해가 되더라고.

여학생: 맞아. 우리도 처음에는 우리가 모둠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친구의 역할을 대신하면 될 줄 알았어.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 모둠원들에게는 그것이 점점 부담이 되고, 그래서 우리도 그 친구를 원망하게 된 것 같아.

남학생: 그래? 그런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모둠 안에서 자신의 역할이 없다고 느꼈을 수도 있었겠네.

여학생: 생각해보니 우리는 그 친구가 왜 활동에 비협조적인지 물어보지도 않았어. 아마도 그 친구는 모둠 활동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랐을 수도 있고, 또 네 말처럼 자신의 역할이 없다고 여겼을 수도 있었겠구나.

남학생: 네가 그렇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도 모둠 활동이 주는 장점이 아닐까? 모둠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맞춰가면서 공통의 과제를 함께 수행해 가는 과정은 마치 어려운 퍼즐을 맞춰갈 때와 비슷한 것 같아. 어렵지만 충분히 보람 있는 일이야.

여학생: 너와 이야기하다 보니 우리 모둠 활동도 잘될 것 같아. 고마워. 그 친구와 대화를 좀 해봐야겠어.

### 4.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여학생은 모둠 활동에서 자신처럼 어려움을 겪었던 남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면서, 자신의 모둠이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 5. [출제의도] 공통된 주제 파악하기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모둠 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다. 여학생의 경우 비협조적인 모둠원으로 인해, 남학생의 경우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불만을 가지게 된 모둠원으로 인한 것이다. 두 학생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구성원들과 솔직한 대화와 상대의 상황을 이해해보려는 태도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이때 두 학생은 모둠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둠 활동에 참여하는 각 구성원의 태도가 중요함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 쓰기 \*\*

### 6. [출제의도] 추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상하기

승마 종목에서 추출한 내용은 말과 호흡이 맞아야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연상할 수 있는 것은 대상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정도이다. 그런데 ②는 여유로운 삶의 태도를 언급하고 있어 추출한 내용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 7. [출제의도] 자료 활용하기

(가)에서는 우리나라 고교생들의 금융이해력이 미국에 비해 낮다는 것과 학교에서의 금융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나)-1에서는 현재의 금융교육이 실생활에 도움이 크게 되지 않는 개념 위주의 교육에 치중해 있다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나)-2는 주로 언론과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금융정보를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는 금융이해력의 중요성을 근거로, 읍면 지역 학교에 금융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 (나), (다)를 활용하여 금융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말할 수는 있지만, 학생들의 의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료를 통해 알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 8. [출제의도] 개요 수정 및 보완하기

③의 '편견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인식의 중요성'은 지나치게 막연하여 '바람직한 진로 선택'이라는 주제와의 긴밀성이 떨어진다. ⑤번의 '미래 유망 직업의 탐색과 선택의 중요성'은 적성에 맞는 진로 선택, 외형적 가치보다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 탐색의 중요성 등을 말하고 있는 글의 흐름과 거리가 있다. 이를 글의 흐름에 맞게 '적성에 맞는 진로 선택과 그에 따른 노력' 정도의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9. [출제의도] 고쳐 쓰기의 적절성 평가하기

㉔은 시 공원에서 본 내용이므로 네 번째 문단에서 서술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지훈문학관을 선정할 이유를 밝히는 첫 번째 문단으로 옮긴다는 ⑤번은 적절하지 않다. ㉕은 '문화 유적지를 할 수 있는'과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는'으로 해석되기에 잘못된 표현이다. 따라서 ①번처럼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보기>의 계획에 따라 첫째 문단에는 답사 일정을 추가하고, 둘째 문단과 셋째 문단의 순서를 맞바꾸어야 한다. ㉖은 문학관 관람 내용과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10. [출제의도] 조건에 맞는 글쓰기

글쓰기의 조건은 시 공원에서 감상한 바를 대조적인 표현을 사용해 자신의 삶과 연결하는 것이다. ①번은 한 쪽 팔은 위로, 다른 쪽은 땅(아래)으로 늘어뜨리고 있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자신의 삶과의 연결이 없다. ②번에는 '정적인 가을 분위기'와 '역동적 춤사위'에 대조적인 표현이 드러나지만 자신의 삶과 연결시키지는 않았다. ③번에는 동상을 보며 느낀 감상을 '몸은 현실에 매여 있지만 마음만은 자유를 꿈꾸는'이라는 대조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나와 같았다.'라고 표현하여 자신의 삶과 연결하고 있다. ④번과 ⑤번에는 대조적인 표현이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11. [출제의도] 선어말어미의 기능 및 의미 이해하기

ㄱ의 '-으셨-'은 '-(으)시-'와 '-었-'이 축약된 것이다. '-(으)시-'가 '높임'을, '-었-'이 '시제'를 나타내는데, 둘이 함께 쓰일 때는 '높임 - 시제' 순으로 배열된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12. [출제 의도] 어휘 선택의 적절성 파악하기

그는 성격을 말하는 것이기에 '수줍다'와 '부끄럽다'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ㄴ의 경우에도 '아이'의 태도상의 특징을 말하는 것이기에 둘 다 사용할 수 있다. 반면 ㄴ은 '거짓말'을 통해 주체의 잘못을, ㄷ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를 통해 과거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므로 '부끄러움'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 현대소설 \*\*

□ 출전: 이무영, '제일과 제일장'

13. [출제의도] 공간의 의미 파악하기

'논'에서 주인공(수택)은 강중이에 의해 해를 입은 벼포기에 마음 아파하면서 강중이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다. 이는 작품에 대해 가졌던 애정과도 같은 것으로 벼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④번은 적절하다. ①번의 '신문사'는 주인공의 기자로서의 고달픈 삶을 그리면서, 그런 삶으로는 작가의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공간이다. ②번의 '교외'는 삶의 희의를 느낀 수택이 현재의 삶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삶을 고민하기 위해 찾은 공간이다. ③번의 '집'은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설계하기 위해 선택한 공간이지만, 이곳에서 작가로서의 꿈을 실현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⑤번의 '고향'은 수택이 새로운 삶을 위해 선택한 공간인데, 반감을 느꼈던 마을 사람들과 화해하여 갈등이 해소되었다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14. [출제의도] 장면의 서사적 기능 파악하기

[A]는 수택이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며 자신의 아버지가 강조했던 '흙냄새'의 의미를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수택은 도둑을 잡았을 때 자신을 때린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행위가 흙에 대한 애정과 인정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던 자신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15.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인물의 심리 파악하기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이 작품은 주인공이 도시적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농촌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보아야 한다. [B]에는 흙과 친해지려는 태도를 통해 농촌에서의 삶에 적응하려는 수택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그런데 [B]에서 또 다른 수택은 '퇴화다', '패배이다', '자위 수단이다'라고 하면서 농촌의 삶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택을 비웃고 있다. 이에 대해 수택은 '아무것도든 좋다'고 하면서 자신이 선택한 농촌에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보고자, 견뎌내고자

하고 있다. ①번에 진술된, 도시의 화려한 삶을 포기한 것에 대한 후회는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16. [출제의도] 구절의 함축적 의미 파악하기

㉔은 수택이 고향에 내려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보여준 차가운 시선이, 아버지가 자신에게 보였던 증오보다는 견딜 만한 것이었음을 되새기고 있는 부분이다. 이를 통해 도시적 삶의 방식을 지닌 수택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주인공이 지닌 아버지와 대결 의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㉕은 자문하는 방식을 통해 주인공이 진정한 삶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㉖에서는 주인공이 신문기자로 살게 되면 작가의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고뇌를 '희극'과 '비극'이라는 상반된 어휘를 사용해 드러내고 있다. ㉗에는 주인공이 흙의 냄새를 감각적으로 느끼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이 흙내는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농촌에서의 삶을 선택하는 전환의 계기가 된다. ㉘에서 주인공은 강중이에 대한 미움을 드러내는 자신의 모습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바라보고 있다. 이는 농작물에 대한 주인공의 애착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 언어 \*\*

□ 출전: 이익섭, <국어학개설>

17. [출제의도] 글의 전체 파악하기

이 글은 방언권의 전이지대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개신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때 개신이란 기준에 없던 언어가 새롭게 창조되거나 변하는 것이므로 언어는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 또한 잔재지역은 공간의 제약에 의해 개신의 물결이 미치지 않는 곳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18.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개신과의 침해를 받지 않는 지역은 언어의 고어형이 많이 간직하고 있다. 제주도나 태백산맥의 어느 마을은 모두 지리적 요인에 의해 해당 언어의 고어형을 간직하고 있다. 반면 경상도 마을과 휴전선 근처의 마을의 언어 현상은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한 언어 현상으로, 언어의 고어형을 간직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19. [출제의도] 그림을 통해 세부 정보 추리하기

A, B, C 모두 개신과의 중앙에 위치하므로 개신이 시작된 '방사의 중심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A지역의 개신파가 가장 크므로, '니'의 세력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A에 비해 D에서는 방사의 중심지에서 멀어졌으므로 '니'의 세력이 약해질 것이다. 그리고 D는 개신파의 양 끝이 만나는 전이지대이므로 '니'와 '네'의 의미 분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E는 잔재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여전히 '네'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⑤번의 진술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 기술 \*\*

□ 출전: 박병운, <뇌파를 통제하는 바이오피드백 기술>

20.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2문단에 의하면 뇌파는 눈 깜박임과 같은 미세한 움직임에도 변화한다고 하였기에 뇌파는 신체의 미세한 움직임에도 반응한다고 볼 수 있다. 특정 뇌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정 뇌파가 나오도록 반복 훈련하여야 하며(④), 정상인이나 정신질환자나 모두 뇌파 감지는 어렵지 않음을 알 수 있다.(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21. [출제의도] 핵심 내용 이해 및 추론하기

중폭 회로의 기능은 입력된 뇌파에 강한 전압을 가하여 약한 전기신호를 강하게 증폭하는 역할을 할 뿐, 뇌파의 양을 늘리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22.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치료 후에는 알파파·세타파·델타파를 발생시키는 회로가 잘 발달되어 잠을 잘 자게 되어야 정상이다. 따라서 알파파·세타파·델타파 발생 회로가 반응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면 그러한 뇌파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므로 적절한 치료 결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23. [출제의도] 한자어의 의미 파악하기

㉔의 '바꾸어'는 문맥상 '다른 형태나 상태로 바꾸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그러므로 이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한 것은 '전환(轉換)하는'이다. '교체(交替)하다'는 '사람이나 사물을 다른 사람이나 사물로 대신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 현대시 \*\*

□ 출전: (가) 유치환, '선한 나무'  
(나) 고희철, '수색으로 가며'  
(다) 이정, '풍계육가'

24.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에서는 '노송'을 통해 삶의 정신적 가치를, (나)에서는 보이지 않는 '수색'을 통해 소박하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다)에서는 속세의 공명과 욕심에서 벗어난 무욕의 삶의 자세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25.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 파악하기

(나)의 '태백 같은 산'은 화자가 추구하는 수색의 모습을 암시하는 긍정적인 공간이며, (다)의 '띠집'은 화자가 만족감을 느끼는 긍정적인 공간이다. (가)의 '길가'는 화자가 추구하는 노송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긍정적 의미를 발견할 수도 있으나 현재는 노송이 배어지지 없기에 부정적 의미를 드러내는 공간이기도 하다. 화자의 의지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고 화자의 외부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외적 세계이다. (나)에 표시된 '수색'은 화자가 추구하는 공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인간적 정감이 살아 있는 순수한 세계이다. (가)의 '바람'은 노송의 가치를 드러내주는 것이며 (다)의 '청풍'은 화자가 좋아하는 자연물이다. (나)의 '행정과 기사'는 화자와 달리 천박한 수색을 인정하는 사람이며 (다)의 '옛사람'은 자연을 두고 떠난 존재이다. (나)의 '서울'은 진정한 수색이 가능하지 않은 부정적 공간이며, (다)의 '홍진'은 자연과 대립되는 어지러운 속세를 나타낸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26.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가)에서는 '선한 나무', '탄식하듯 울고 있어' 등의 의인화된 표현을 통해 화자가 대상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 작품의 마지막 부분의 앓고 있는 수색을 의인화로 본다고 하더라도 대상에 대한 친근감을 나타내는 표현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27. [출제의도] 주어진 관점을 바탕으로 감상하기

'내 항상 그 아래 한때를 머물러'에는 노송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를 즐겨 들으며 그로부터 정신적 가치를 찾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따라서 이 행동은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28. [출제의도] 화자의 정서 파악하기

화자의 정서를 추리하여 일기를 썼을 때 적절한 내용을 찾는 유형이다. 화자는 이름뿐이고 말뿐인 수색에 대해 의문을 느낀다. 이 공간은 자신이 찾고자 하는, 가고자 하는 수색이 아니기 때문이다. 화자가 추구하는 수색은 태백 같은 산이 있는 곳, 석탄을 캐는 노동이 있는 곳, 남포동의 소박함이 존재하는 곳이다. 이런 수색과 너무도 다른 현실의 수색은 화자에게 '날이 갈수록 낯선'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29. [출제의도]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제4수의 '욕심'은 세속적인 욕심을, 제6수의 '홍진'은 세속을 뜻한다. 화자는 세속을 멀리하고 자연에서 만족하는 태도를 지니므로 '홍진'과의 거리를 좁히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의 '청풍, 명월, 산, 물'은 화자가 좋아하고 즐기는 자연물이다. ②의 '문'은 '창'과 달리 세속으로 통하는 통로로 화자는 이를 차단하고 있다. ③의 '바람비'는 어지러운 속세를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화자는 '작곡'을 맘에 두지 않는다. ④의 '낙숫대'는 화자가 지닌 소박한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화자는 '처간'에서의 삶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 예술 \*\*

□ 출전: 하워드 리사티, <공예란 무엇인가>

30. [출제의도] 제목의 적절성 파악하기

이 글은 공예가 순수미술과는 달리 예술로 인정받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하며, 스튜디오 공예를 통해 공예의 미적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제목은 '공예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적절하며 이의 부제는 '스튜디오 공예가 보여주는 가능성'이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31. [출제의도] 대상의 특징 추리하기

㉠은 '공방 공예'로 공예가들이 기능에 충실한 공예품을 만든 것이라면, ㉡의 '스튜디오 공예'는 공예품으로부터 기능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제거하여 공예의 전통에서 벗어났으며 미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관람자들과 미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32. [출제의도] 대상의 공통점 파악하기

백남준의 '다다익선'은 TV 모니터를 예술의 소재로 사용하여 본래의 기능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작품이다. '못'과 이 작품은 공예품이나 TV 등의 상품을 예술의 소재로 사용하여 작가 자신의 미적 의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사물의 기능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통해 예술의 범위를 확대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 고전소설 \*\*

□ 출전: 작자 미상, '김원전'

33.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김원의 말을 통해, 김원이 아귀를 죽이고 공주를 구출한 후 지하 동굴에 갇히게 된 사건을 알 수 있다. 용자의 말을 통해서도 아귀가 용궁에 침입한 사건과 자신이 나무에 매달리게 된 이유 등을 알 수 있다. 용궁의 배경이 묘사되고 있으나 새로운 갈등이 유발되지는 않으며, 김원과 용자도 갈등 관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34. [출제의도] 공간에 따른 사건의 전개 파악하기

김원은 용자를 만나기 전에 이미 납치된 공주를 구출하는 임무를 완수했다. 용자는 지하 동굴에 갇힌 김원을 다시 인간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 김원이 아귀를 죽인 것에서 영웅적인 면모를 볼 수 있다. 모험담은 낯선 공간에서 위험을 극복하거나 새로운 세계에서 신기한 경험을 다룬 이야기이기에, 김원이 '지하 동굴'과 '용궁'으로 이동하는 것에서 그런 성격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35.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작품 이해하기

설화의 '옛날 어느 곳'이라는 막연한 배경을 소설에서 '대명국'으로 구체화시켰다고 해서 이 작품이 실제 역사적 사건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니다.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흥미를 위해 장면을 추가하거나 설화의 장면을 그대로 반영하기도 하는 것, 소설에서 천상계를 설정해 서사가 복잡해지는 것 등을 찾을 수 있다. 또한 황명을 받들어 공주를 구출하는 것은 당대의 '충'의 이념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36. [출제의도] 상황에 맞는 한자성어 찾기

㉠에서 용자는 김원이 자신을 구해준 은혜에 보답하려고 한다. 동병상련(同病相憐)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로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다. ① '백골난망(白骨難忘)'은 남에게 큰 은혜를 입었을 때 고마움의 뜻으로 이르는 말, ② '청천벽력(靑天霹靂)'은 뜻밖에 일어난 큰 변고나 사건, ④ '결초보은(結草報恩)'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 ⑤ '겸양지덕(謙讓之德)'은 겸손한 태도로 남에게 양보하거나 사양하는 마음이나 행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 시나리오 \*\*

□ 출전: 여수중 각색, 황순원 원작, '독짓는 늙은이'

37. [출제의도] 등장인물의 특징 파악하기

장면 82를 보면, 나그네는 똥손이와의 우연한 만남을 인연으로 보고 있다. 나그네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서 고향을 찾은 것이 똥손이를 만나기 위해 온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38. [출제의도] 자료를 바탕으로 감상하기

장면 88의 효과음은 자식을 떠나보낸 아버지의 환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이지 과거에서 현재로 시간을 돌아오게 하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39. [출제의도] 다른 매체로 변용하기

장면 88은 송 영감이 돌이를 양자로 보내는 장면이다. 가난하고 병든 송 영감은 더 이상 돌이를 키울 수 없어 '방물장수'를 통해 다른 집 양자로 보내려 한다. 이를 방물장수가 돕고 있는데, 방물장수는 아버지에 대한 돌이의 미련을 없애기 위해 송 영감에게 죽은 척이라고 한다. 방물장수는 돌이를 데려가기 위해 이 글의 지시문에 나와 있듯 '겁주듯' 단호하게 말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 과학 \*\*

□ 출전: 선 B. 캐럴, <이보디보>

40.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 파악하기

'발생'과 '이보디보'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글을 시작하고, '호메오 유전자'를 '지휘 통제소'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에 비유하며 그 역할과 의의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초파리와 쥐의 실험 사례를 제시하여 생소한 개념인 '이보디보'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그러나 통계 자료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41. [출제의도] 유추에 적용할 수 있는 유사한 사례 찾기

모든 동물은 공통적으로 호메오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계통적으로 아주 동떨어진 종들도 호메오 유전자의 기능은 유사하다. 즉, 발생 과정에서 호메오 유전자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동물의 종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는 기본 선율을 어떻게 변주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곡들이 창작되는 재즈와 유사하다. 검색 사이트는 정보 활용의 도구, 탐사용 로봇은 위험한 일을 대신하는 도구, 톨게이트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통과해야 하는 과정, 하드디스크는 대용량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저장하는 도구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호메오 유전자의 기능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42. [출제의도] 그림 자료를 통해 세부 내용 추리하기

4문단을 통해 Z를 R로 대체하면 그곳에서는 유전자를 제공한 ㉡의 다리가 아닌, ㉢의 정상적인 다리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P와 X는 모두 눈의 발생과 관련이 있으므로 파스-6 유전자이며(①), 4문단을 통해 Q를 Z에 이식하면 ㉣에는 다리에 입의 조직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②). 그리고 ㉡와 ㉣에는 눈의 발생과 관련된 유전자가 있으므로, 그들의 공통 조상도 파스-6과 같은 호메오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리할 수 있다(④). 또한 호메오 유전자의 순서는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신체 부위의 순서와 일치하므로 Q와 R의 위치를 바꾼다면 '눈-다리-입'의 신체구조를 가진 개체로 발생할 것이다(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43. [출제의도] 어휘의 의미 파악하기

'생각'이라는 단어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거나 관심을 가지다', '어떤 사람이나 일 따위에 대해 기억하다',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다', '어떤 일에 대한 의견이나 느낌을 가지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음악을 듣다'라는 의미는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 사회 \*\*

□ 출전: 성백남, <미시경제학>

44. [출제의도] 세부 정보의 내용 이해하기

독점기업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차별을 실시할 때, 동일한 상품을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기도 한다. 완전경쟁시장에서 공급자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여서 공급자가 가격 인상을 쉽게 하지 못한다(①). 독점기업은 지불용의금액을 알지 못하기에 소비자에게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여 선택하게 한다(③). 소비자의 지불용의금액을 아는 경우, 소비자잉여를 모두 가져올 수 있으며(④), 독점기업은 동일한 상품을 서로 다른 가격에 판매하여 가격차별을 실시하는 것이다(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45. [출제의도] 전략에 담긴 전제 파악하기

독점기업은 소비자의 지불용의금액에 따라 가격을 달리하거나 구매량에 따라 가격을 할인하는 방법, 소비자들의 특징에 따라 시장을 분할해서 가격을 차별하는 방법 등으로 '가격차별'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독점기업의 전략은 소비자의 특징 및 심리가 다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46.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갑, 을, 병의 상황은 독점의 상황이다. 병의 전략은 학생과 어른의 지불 능력이라는 소비자의 특징에 따라 판매 전략을 달리하므로 3급가격차별에 해당한다(③). 갑의 전략은 대량 구매 시 가격을 할인해 주는 2급가격차별이며(①), 을의 전략은 판매 경험에 의해 최대 가격을 설정한 것으로, 구매량에 따라 가격을 차별하는 2급가격차별로 볼 수 없다(②). 산 정상에 음료수를 파는 사람이 많아지면 공급자가 많아지므로 갑, 을, 병의 이익은 줄어들 것이며(④), 음료수가 한 병이고, 산 정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사려고 할 때, 가장 높은 가격에 팔 경우 이익이 가장 클 것이다. 그런데 대량 구매 시 가격을 할인해 주는 갑의 방법이 가장 큰 이익을 남긴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 인문 \*\*

□ 출전: 김석, <프로이트&라캉-무의식에로의 초대>

47.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마지막 문단을 보면 욕망은 타자가 욕망하는 것을 욕망하므로 자기 소외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욕망은 자기 소외적 성격을 지닌 것이지, 자기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48. [출제의도] 핵심 단어의 관계 파악하기

지문에 따르면, 아이는 거울에 비친 '이미지'를 매개로 해서 '정체성'을 형성한다. 이때 '이미지'는 수단이나 방법이며 '정체성'은 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목표나 목적에 해당된다. 3문단에 그림자를 통해 존재감을 느낀다고 진술되어 있으며, 타자를 통해 자아가 구성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대상을 통해 자신을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다. 그런데 '욕망 : 의지'의 관계는 표현물 : 표현 내용의 관계이며, 더구나 내면적 의지가 표현된 것이 욕망인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49. [출제의도] 평가의 적절성 파악하기

<보기>는 자아가 자생적이라는 것,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율적인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라캉이 지적하고 있는 '자아가 타자다'라는 말과는 대립된 의견이다. 그러므로 자아의 형성이 자생적이라는 <보기>의 관점에 대해 라캉은 자아가 타자를 매개로 구성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50. [출제의도] 접사의 의미 파악하기

접두사 '뒤-'는 '뒹시, 마구, 온통'의 뜻을 더하는 경우와 '뒤집어', '반대로'의 뜻을 더하는 경우로 대별된다. 그런데 ㉡와 ㉢의 경우는 전자의 의미로, ㉡~㉤의 경우는 후자의 의미로 쓰였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제 1 교시

국어 영역 (B형)

[1~3] 다음은 수업 중 학생들이 실시한 반대 신문식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요즘 대체 휴일 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대체 휴일 제도는 어떤 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치면 휴일이 아닌 날을 더 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체 휴일 제도에 대해 노동계, 재계,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대체 휴일 제도 법안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찬성 측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1: 우리나라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090시간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국가인 미국의 경우에는 1,787시간, 일본은 1,728시간, 독일은 1,413시간인 것에 비해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이 국가들보다 떨어진다고 합니다. 장시간 근무를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죠. 충분히 쉬어야 일의 집중력이 올라가고, 창의력도 생깁니다. 일의 능률을 높이고, 근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체 휴일 제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체 휴일 제도는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의 행복 추구권에도 부합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산업은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로 이는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국내 소비를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휴일이 늘어나면서 여가, 문화 활동과 관련한 소비가 증가하고, 새로운 서비스 산업이 창출되어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반대 2: 반대 측 확인 질문하겠습니다. 대체 휴일 제도의 도입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셨죠? 재계에서는 경제적 손실이 32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찬성 1: 네, 재계의 주장은 문화 및 관광 산업 등의 서비스 산업이 발전되는 내수 진작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반대 1: 반대 측 입론하겠습니다. 저희는 대체 휴일 제도 도입에 부정적입니다. 2013년부터 한글날이 공휴일에 추가되면서 우리나라 공휴일은 노동절을 포함해 연간 16일에 달합니다. 이는 OECD의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6일이나 많은 것입니다. 또한 OECD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대부분 공휴일이 무급 휴일입니다. 우리나라는 공휴일에 일할 경우 휴일 근무 수당까지 포함해 임금의 250~350%를 지급합니다. 대체 휴일 제도가 도입되면 인건비도 그만큼 늘어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만 늘게 됩니다. 그리고 대체 휴일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실제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대기업 노동자로 한정될 것이며, 휴일도 근무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혜택이 없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성 2: 찬성 측 확인 질문하겠습니다. ( ㉠ )

1. '찬성 1'의 입론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은?

- ① 논제와 관련한 기대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② 논제와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③ 논제와 관련한 법 조항을 제시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④ 논제와 관련된 용어의 개념을 언급하며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⑤ 논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2. <보기>는 위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이다. 이를 토론에 활용할 수 있는 입장과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경기 침체 때문에 여가 비용 지출이 크게 줄고 있고, 국민 대부분은 적극적 외부 활동 대신 텔레비전 시청이나 낮잠과 산책으로 여가를 보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따르면, 월 평균 여가 비용은 2010년 16만 8천원에서 2012년 12만 5천 원으로 줄었으며, 여가 활동 유형도 휴식이 59.3%로 2년 전 36.2%보다 크게 늘었다. 반면 여가 활동으로 취미 활동과 오락을 하는 사람은 25.4%로 대폭 감소했다.

- 2012년 국민 여가 활동 조사 -

Table with 3 columns: Index, Position, and Proposed Solution. It lists five options for utilizing the collected data in a debate.

3. ㉠에 들어갈 수 있는 확인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휴식을 취한다고 일의 능률이 오른다고 할 수 있을까요?
② 공휴일이 많다고 반드시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죠?
③ OECD의 다른 국가들의 노동시간이 우리나라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④ 내수 진작 효과를 고려한다면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⑤ 대체 휴일 제도를 대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4~5] 다음은 선생님과 영희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영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응, 영희로구나. 점심은 먹었니?  
 영희: (어두운 표정으로) 아, 네.....  
 선생님: 응? 무슨 일 있니? 표정이 어둡네. 기운도 없는 것 같고.  
 영희: 아,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요.  
 선생님: 늘 밝고 명랑하던 영희가 웬일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 어려워하지 말고 편하게 말해 보렴.  
 영희: 이번 국어 시험 성적이 엉망이거든요.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서 속상해요.  
 선생님: 국어 시험 성적이 좋지 않다고?  
 영희: 네, 특히 문법 부분은 거의 다 틀렸어요. 문법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 ㉡그랬구나. 문법이 어려운 부분이긴 해. 처음에 설명을 읽어 보면 다 알 것 같은데, 막상 그걸 응용해 보면 어려워지지. 틀린 문제 생각해 아직도 속상하니? 영희는 매사 꼼꼼한 학생이니까 틀린 문제를 다시 한 번 본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야.  
 영희: 네, 선생님. ㉢항상 저를 믿어주셔서 마음이 든든해요. 하나하나 차분히 생각해 보면 풀 수 있었던 문제인데, 문법은 무조건 어렵다는 선입견 때문에 틀린 것도 있고, 실수로 문제를 잘못 읽어서 틀린 것도 있는데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선생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죠? 우리 학교에서 문법 수업 하면 선생님이시잖아요.  
 선생님: 그래? 몇 번 문제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영희: (시험지를 꺼내며) ㉤여기 이 문제요. 선생님, 이 문제 진짜 어려워요.  
 선생님: 음운 현상과 관련된 문제의 해답은 이미 네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영희: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잘 들어봐. 내가 설명해 줄게.

4. 위 대화에서 ㉠~㉤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에서 구체적인 말하기가 구두 언어의 특성임을 알 수 있다.
  - ② ㉡에서 구두 언어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상호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에서 대화 참여자 간의 친밀한 관계가 의사소통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에서 대화 참여자의 전문성이 전달 내용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에서는 지시어를 통해 대화가 동일한 시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위 대화에서 '선생님'이 사용한 의사소통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희의 비언어적 표현을 고려하며 듣는다.
- ② 질문을 하면서 영희가 대화에 참여하도록 이끈다.
- ③ 칭찬을 하면서 영희가 말을 이어가도록 격려한다.
- ④ 영희의 말하기 방식이 합리적인지 평가하며 듣는다.
- ⑤ 영희의 말에 호응해 줌으로써 공감하며 듣고 있음을 보여준다.

6. ㉠~㉤ 중, 수정한 자기 소개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자기 소개서 항목]  
 ○ 학창 시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기술하고, 이를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 서술하시오.

[수정 전]

나는 1학년 교내 합창 대회 때 학급의 협력을 위해 노력한 적이 있다. 합창 대회는 항상 가을 학교 축제 때 열리는데 무척 재미있다. 학급 운영에 있어 친구 간의 우정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친구들과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방안을 숙고하였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도 있듯이 친구의 갈등 상황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화해를 하는 데 건인 역할을 했다. 그 결과 학급은 단합했다. 따라서 나는 진정한 리더의 자격을 갖췄다고 본다.

[선생님의 조언]

-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좋겠어. .... ㉠
- 어려운 한자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 ㉡
- 지원 분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으면 좋겠어. .... ㉢
- 읽는 이를 고려하여 격식에 맞게 글을 썼으면 좋겠어. ... ㉣
- 요구하는 내용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삭제하면 좋겠어. · ㉤

[수정 후]

제 기억에 가장 남는 일은 1학년 때 있었던 교내 합창 대회입니다. 합창 대회는 항상 가을 학교 축제 때 열리는데 무척 재미있습니다. 저는 학급에서 지휘자를 맡았는데,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두 친구가 같은 파트를 맡게 되었고, 두 친구의 화음이 맞지 않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각자의 노래를 녹음하고 그 친구들에게 들려준 후 생각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서로 자신의 노래가 낫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노래를 동시에 들려주자, 서로 다른 음으로 노래하는 것을 듣고 두 친구는 당황하다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후 두 친구는 서로를 배려하며 열심히 연습에 참여하였고, 결국 우리 반은 1등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배려를 통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교사는 갈등의 원인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태도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이런 경험이 훗날 좋은 선생님이 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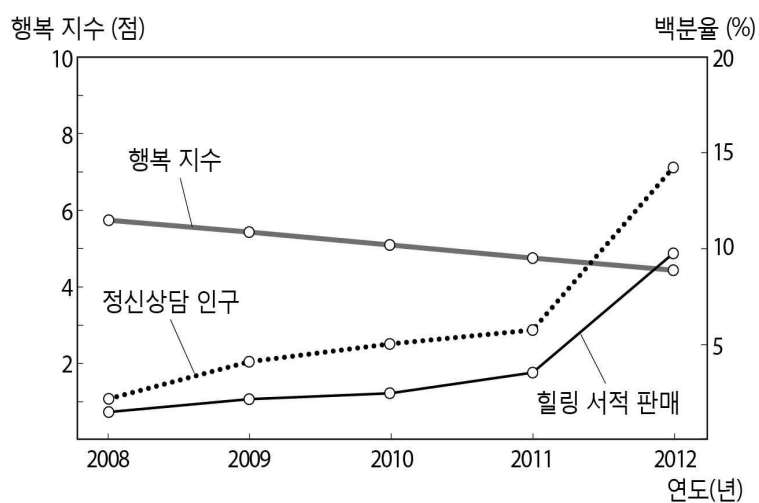
[7~8] <보기 1>은 보고서를 쓰려는 학생의 생각이고, <보기 2>는 활용하려는 자료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1>

보고서의 주제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힐링(healing)’으로 정했다. 힐링 열풍이 소비 형태에 머무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최근 신문 기사에 착안했다. 나는 힐링 열풍의 실태 및 원인을 찾고 힐링이 상업적 목적에 의해 변질되고 있는 문제점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어 글을 쓰기로 했다. 그러려면 먼저 힐링 열풍이 일어나게 된 이유, 사회적 배경과 관련된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실태를 드러내야겠다. 또한 힐링 활동의 내용과 참여한 사람들의 만족 여부에 대한 설문 조사, 힐링 열풍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힐링 열풍의 원인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겠다. 이를 바탕으로 힐링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보기 2>

(가) 현황 제시



(나) 힐링 관련 브랜드 출원 건수

(단위: 건)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출원 건수	26	40	65	72	86

(다) 힐링 활동의 참여율과 만족도

(단위: %)

구분		참여율	참여자 만족도
소비 중심 활동	여행	21.2	31.3
	문화 예술 스포츠 관람	45.6	30.8
	레저 스포츠 활동	13.8	20.6
창작적 취미		7.9	70.1
봉사 활동		1.4	60.3
휴식		10.1	60.9
합계		100	

7. <보기 1>과 글의 성격을 고려하여 글쓰기를 계획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글의 목적	○ 우리 사회 힐링 열풍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의미의 힐링을 모색함. …………… ①
수집 자료	○ 힐링 관련 서적 판매 및 정신 상담 인구에 대한 통계 자료 ○ 행복 지수에 대한 통계 자료 ○ 힐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 힐링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설문 조사 ○ 힐링 열풍에 대한 전문가의 칼럼 …………… ②
내용 구성 방향	○ 서론: 힐링 열풍의 사례를 제시한 뒤,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함. …………… ③ ○ 본론 1. 힐링 열풍과 경제 발전의 상관관계를 제시함. …………… ④ 2. 힐링 열풍이 일어나는 원인을 분석함. 3. 힐링 열풍이 상업화되는 현상을 제시함. 4. 힐링 열풍의 문제점을 지적함. …………… ⑤ 5. 바람직한 힐링의 의미를 밝힘. ○ 결론: 내용을 종합하며 바람직한 힐링의 방향을 제시함.

8. <보기 2>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와 (나)를 해석할 때에는 변화의 추이에 주목해야 한다.
- ② (가)는 힐링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힌 후에야 논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나)는 힐링 열풍이 상업성을 띠는 실태와 관련 있음을 드러내는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④ (다)에서 참여율이 10% 미만인 항목들은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으므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 ⑤ (다)를 힐링 열풍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논거로 활용할 때는 소비 중심 힐링 활동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가 보완되어야 한다.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다음 만화에 담긴 의미를 유추하여 생활글로 써 보자.

**과제 수행을 위한 기록**

오늘 글쓰기 과제는 ‘만화에 담긴 의미를 생활글로 표현하기’였다. 처음에는 ‘토끼와 거북이’의 원작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과제가 쉬울 것 같았으나, 이 우화를 패러디하여 새로운 의미를 이끌어 낸 만화를 활용해서 글을 쓰는 것이 막막하게 느껴졌다. 고민 끝에 반 친구들과 함께 시험공부를 했던 ‘학습 멘토링 활동’을 글감으로 정하여 과제를 완성하였다.

**학생의 글** 공동체 정신을 일깨워 준 학습 멘토링

처음과 달리 서로 손을 잡고 웃으며 결승선을 통과하는 토끼와 거북이의 모습을 보며, 지난 시험 기간 때 친구들과 함께 했던 학습 멘토링 활동 경험이 떠올랐다. 나는 국어 성적이, 친구는 수학 성적이 부진했는데, 시험 준비를 할 때마다 이 과목들을 공부하느라 고생하곤 하였다. ㉠따라서 가끔은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어주어야 한다. 그래서 시험 기간에 서로에게 부족한 과목을 ㉡가리켜 주기로 하였다. 처음에는 모르는 내용이 있어도 질문하지 않고 이해한 척했고, 그러다 보니 학습의 효율이 높지 않았다. ㉢또한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자고 마음을 굳게 먹고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수시로 질문을 하며 공부하였다. ㉣그 결과 나는 국어 성적뿐만 아니라 수학 성적도 크게 향상되었고 친구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혼자 가는 걸음보다는 ㉤상호 서로 협력하며 함께 가는 걸음이 소중한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9. ‘과제 수행을 위한 기록’에 비추어 볼 때, 학생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활용한 주요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중심 내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전개한다.
- ② 실제 경험과 관련지어 주제를 구체화한다.
- ③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독자의 관심을 유도한다.
- ④ 감각적 어휘를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 ⑤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전달한다.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통일성을 깨뜨리는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 ② ㉡은 단어의 선택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가리켜’로 바꾼다.
- ③ ㉢은 앞 문장과의 의미 관계를 고려하여 ‘그래서’로 바꾼다.
- ④ ㉣은 글의 일관성을 위해 바로 앞 문장과 위치를 바꾼다.
- ⑤ ㉤은 뒤에 나오는 단어와 의미가 중복되므로 삭제한다.

11. <보기 1>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1> —

두 음운이 결합할 때 어느 한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을 음운의 탈락이라 한다. 끝소리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미사와 결합하여 탈락하는 경우나 음절의 끝에 두 개의 자음이 올 때 이 중에서 한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보기 2> —

내일은 소풍 가는 날, 비 오지 ㉠않기를 바라며 잠자리에 들었다. 잔디밭을 ㉡밟고 친구들과 ㉢같이 즐겁게 놀며 ㉣멋진 경치를 볼 생각에 기분이 ㉤좋아서 잠도 오지 않았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12.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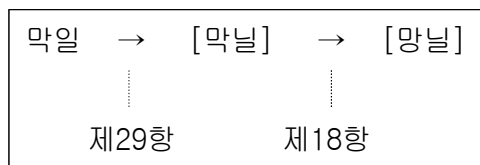
— <보 기> —

‘막일’은 [망닐]로 발음된다. 이는 표준 발음법 제18항과 제29항이 적용된 것이다.

**제18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 ㄹ), ㄷ(ㅅ, ㅆ, ㅈ, ㅊ, ㅌ, ㅎ), ㄴ(ㄷ, ㄹ, ㄺ, ㅃ)’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한다.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 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이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와 같은 예로는 ㉠ 을/를 들 수 있다.



- ① 식용유    ② 색연필    ③ 숨이불    ④ 맨입    ⑤ 국물

13. 다음의 ㉠, ㉡에 들어갈 용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 생: 선생님, '이렇게 많은 걸 언제 다 모았니?' 라고 할 때, 여기서 '걸'은 띄어 써야 하나요? 아니면 붙여 써야 하나요? '걸'은 앞말에 붙여쓰기도 하고 띄어쓰기도 해서 혼란스러워요.

선생님: 이 경우에는 띄어 쓰는 것이 맞아요. '걸'은 '것을'을 구어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거'는 의존명사 '것'에 해당하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겠지요. 그런데 '걸'이 가벼운 반박이나 감탄의 뜻을 나타낼 때에는 앞말에 붙여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때 '걸'은 '-ㄴ걸, -는걸' 등과 같은 어미의 일부이기 때문이지요. 그럼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용례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볼까요?

띄어 쓰는 경우	붙여 쓰는 경우
㉠	㉡

- ① ㉠: 몸에도 좋지 않은 걸 왜 먹니?
- ② ㉠: 내가 바라는 걸 너는 알고 있지?
- ③ ㉡: 날이 흐린걸 보니 곧 비가 오겠네.
- ④ ㉡: 그만하면 훌륭하던걸 뭐.
- ⑤ ㉡: 야, 눈이 많이 쌓였는걸!

14.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보 기>—

선어말어미 '-겠-'은 일반적으로 미래 시제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며, 미래의 일에 대한 추측이나 가능성, 말하는 이의 의지 등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특정 담화 상황에서는 말하는 이의 완곡한 태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 ① 제가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 ② 동생은 영화를 보러 가겠다고 한다.
- ③ 지금 떠나면 저녁에야 도착하겠구나.
- ④ 다음 달 정도면 날씨가 시원해지겠지?
- ⑤ 이 정도의 고통은 내 힘으로 이겨내겠다.

15. 다음은 바른 문장 표현에 대한 학습 자료이다. 적절하게 고쳐 쓴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됨	문예 동아리는 창작 활동과 전시회를 열었다. → 문예 동아리는 창작 활동을 하고 전시회를 열었다. .... ㉠
이중 피동이 사용됨	나는 선생님께 이름이 불려졌다. → 나는 선생님께 이름이 불렸다. .... ㉡
중의적 표현이 사용됨	아버지의 그림은 언제나 인기가 많다. → 언제나 아버지의 그림은 인기가 많다. ... ㉢
조사를 잘못 사용함	나는 오늘 아침 나무에게 물을 주었다. → 나는 오늘 아침 나무에 물을 주었다. .... ㉣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 ㉣

16. <보기>를 읽고 중세 국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海東 六龍이 느르샤 일마다 天福이시니 ㉠古聖이 同符하시니  
<제1장>

㉡불휘\* 기픈 ㉢남근\* ㉣브르매 아니 뭇씨 곳 도쿄 여름 하느니  
식미 기픈 ㉤므른 ㉥르래 아니 그출씨 내히 이러 ㉦바르래 가느니  
<제2장>

-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세종 29년-

\* 불휘: '불휘+0(주격 조사가 생략된 형태를 나타냄)'의 형태로 분석함.  
\* 남근: '남+근'의 형태로 분석함.

[풀이]

海東(해동) 六龍(육룡)이 나[飛]셔서 일마다 天福(천복)이시니. 古聖(고성)과 同符(동부)하시니. <제1장>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움직이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치므로 내[川]가 이루어져 바다에 가느니. <제2장>

- ① ㉠의 조사 '이'는 '古聖(고성)'이 비교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내는군.
- ② ㉡에는 현대 국어의 '가'에 해당하는 주격 조사의 형태가 드러나지 않는군.
- ③ ㉢의 형태소 분석을 볼 때, 중세 국어 체언 중에는 조사와 결합할 때 'ㄱ'이 덧붙는 체언이 있군.
- ④ ㉣의 조사 '은'과 ㉤의 조사 '은'은 형태는 다르지만 동일한 자격을 나타내는군.
- ⑤ ㉥과 ㉦의 조사 '애'는 모두 앞의 체언이 '원인'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군.

[17~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본질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서양 철학의 핵심적 질문이다. 탈레스가 세계의 본질을 ‘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부터 서양 철학은 거의 모든 것들에 대해 불변하는 측면과 그렇지 않은 측면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본질은 어떤 사물의 불변하는 측면 혹은 그 사물을 다른 사물과 구별시켜 주는 특성을 의미하는데, ㉠본질주의자는 이러한 사물 본연의 핵심적인 측면을 중시한다. 예를 들어 책상의 본질적 기능이 책을 놓고 보는 것이라면, 책상에서 밥을 먹는 것은 비본질적 행위이고 이러한 비본질적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본질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사물의 본질이 사실 사후적으로 구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책상 자체가 원래 ‘책을 놓고 보는 것’이라는 본질을 미리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이 책상에서 책을 보거나 글을 쓰면서, 즉 책상에 대해 인간이 경험적으로 행동을 해 보고 난 후에 책상의 본질을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비트겐슈타인의 말을 인용하여 책상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보자.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적 탐구』라는 저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이리해.’라고 나는 되풀이해서 중얼거린다. 만일 내가 나의 시선을 이 사실에다 그저 아주 명확하게 맞출 수만 있다면, 나는 틀림없이 사물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말했다. 책상을 보고서 책상은 이렇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되풀이해서 중얼거리는 것은 사후적 구성의 논리가 작동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어떤 사물의 본질을 파악한 것만 같은 느낌은 사후적 구성의 반복을 통해 책상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또한 그의 저서에서 ‘본질적이니 비본질적이니 하는 것들이 언제나 명료하게 분리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말한다. 램프의 본질적 기능은 빛을 내는 것이지만 방을 장식하는 기능을 할 수도 있다. 빛을 내는 것이 램프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믿으며 램프의 사용 목적에 편집증적으로 집착할 경우, 자신이 믿고 있는 본질을 여기는 타자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파이프를 그린 화가 마그리트의 「이미지의 배반」이라는 그림을 예로 들어보자. 마그리트는 파이프를 닮은 형상을 그리고 그 아래에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써 놓았다. 사람들은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 그림 속 형상을 파이프로 인식할 것이지만,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글자는 사람들의 인식을 배반하게 만든다. 이 그림을 본질에 대한 문제와 연결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본질이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 구성에 의해 획득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국 본질주의자들이 강조한 사물의 본질은 단지 인간의 가치가 투영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17. 윗글을 통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물의 본질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 ② 사물의 본질이 사물의 속성을 결정한다.
- ③ 사물의 본질은 사용 목적에 따라 정의된다.
- ④ 사물의 본질과 비본질은 명료하게 구분된다.
- ⑤ 본질과 비본질을 모두 경험한 후에야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18. <보기>에 대한 ㉠과 ㉡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동양의 불교 사상에서는 오래전부터 공(空)을 이야기해 왔다. 불교에서 본질이란 것은 ‘자기동일성’을 의미하는 ‘자성(自性)’이라고 불린다. 이런 자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해 ‘무자성’이야말로 불교에서 가장 강조해 온 ‘공’의 핵심적인 의미이다. 불교의 공은 본질을 맹신하는 집착을 치유하기 위해 제안된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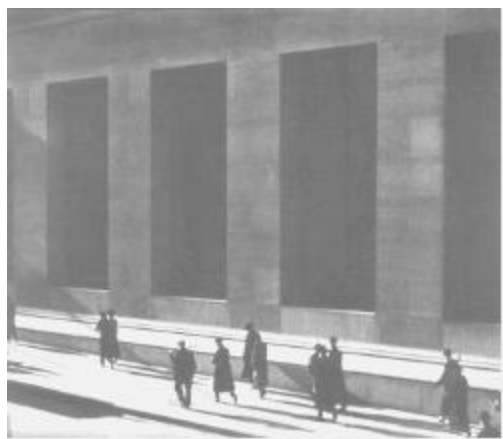
- ① ㉠: <보기>의 ‘자성’은 인간 개인이 생각하는 가치가 투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군.
- ② ㉠: <보기>의 ‘자기동일성’은 오랜 수양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후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군.
- ③ ㉡: <보기>의 본질에 대한 ‘맹신’은 사후적 구성의 반복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군.
- ④ ㉡: <보기>의 ‘공’은 경험적 행동을 통해 얻은 본질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군.
- ⑤ ㉡: <보기>의 ‘무자성’의 경지는 대상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지라고 할 수 있군.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세기 초에 등장한 사진은 2차원 평면 위에 현실을 재현한다는 점에서 회화와 비슷하지만 광학과 화학 등 기술적 특성을 지니기에 예술과 기술의 모호한 경계선상에 위치하였다. 처음의 사진은 회화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정도로 인식되었으나, 19세기 후반에 ‘픽토리얼리즘’이 등장하면서 사진으로서 독자적 예술성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픽토리얼리즘은 사진도 회화와 같은 예술적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픽토리얼리즘을 추구하는 작가들은 사진의 복제성을 포기하고 회화의 속성인 수공적 방법을 끌어들이어 예술적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했다. 회화적 구현의 방식으로 사진의 초점을 흐리게 하거나 인화 방식을 다양하게 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했던 것이다.

20세기 초, 사진이 갖는 기술적 특성인 기록성에 더 중점을 두고자 했던 ㉡‘스트레이트 포토’가 등장한다. ‘직접적인 사진’ 또는 ‘순수 사진’으로 불리는 스트레이트 포토를 추구하는 작가는 앵글이나 셔터, 프레임 등의 사진이 갖는 고유한 기능에 치중하려 했다. 즉, 사진에 어떠한 조작도 가하지 않고, 작가의 의도를 표현하려 했다. 미국의 폴 스트랜드는 그의 작품 「월 스트리트, 뉴욕」



에서 프레임의 설정만으로 자본주의의 부정적 속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대형의 직사각형 창이 있는 육중한 석조 건물과 출근하는 왜소한 사람들의 모습의 대비만을 프레임에 넣어 거대한 자본의 논리에 작아지는 사람들을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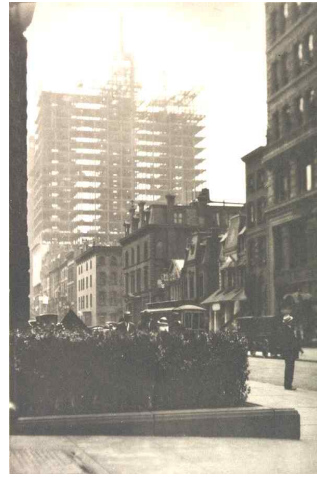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디지털 기술을 통해 보다 다양한 표현이 가능해짐으로써 ㉢‘디지털 픽토리얼리즘’이 등장하게 된다. 디지털 기술은 이미지의 합성 및 변조와 실재하지 않는 대상의 구현 등 다양한 표현을 가능하게 했고, 이러한 가능성으로 인해 작가들은 자신들의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보자면 픽토리얼리즘과 차이가 없어 보이나, 작가의 주제 의식을 보다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예술적 가능성을 발견했다고도 할 수 있다.

19.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사진과 관련한 예술적 경향을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② 사진의 발전 과정에 대해 과학 기술 변화에 초점을 맞춰 고찰하고 있다.
- ③ 사진의 예술적 가치를 다른 예술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
- ④ 예술적 사진과 그렇지 않은 사진의 개념을 특정한 준거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⑤ 사진을 바라보는 대비되는 두 견해를 제시하고, 이를 절충한 새로운 예술적 경향을 소개하고 있다.

2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감상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이 사진은 미국의 사진작가 스티글리츠의 「오래된, 그리고 새로운 뉴욕」이다. 그는 뉴욕의 옛 건물과 새로 짓는 현대적 건물을 사진에 그대로 담았다. 이 사진은 한 시대에 공존하는 전통과 테크놀로지의 대비를 통해 빠르게 변모하는 미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전면의 낡은 벽돌로 지어진 건물은 ‘오래된 뉴욕’을, 후면에 있는 수직적 상승감이 강조된 철골 구조는 ‘새로운 뉴욕’을 상징한다.

- ① 명암이 주는 효과에 주목하여 당대 사진의 표현 기법을 살핀다.
- ② 초점을 흐리게 하는 기술에 주목하여 작품이 지니는 형식적 실험성을 살핀다.
- ③ 대상을 왜곡하고 변조하는 디지털 기술에 주목하여 작가의 표현 의도를 살핀다.
- ④ 작가가 작품을 발표한 시기에 주목하여 작품이 가지는 시대사적 의의를 살핀다.
- ⑤ 프레임에 담긴 대비적 구도에 주목하여 작가가 표현하고자 했던 의미를 살핀다.

21.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사진의 기록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 ② ㉠과 ㉢은 사진의 복제성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 ③ ㉠과 ㉢은 사진의 사실적 재현성에서 벗어나려 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 ④ ㉡과 ㉢은 합성된 이미지를 사진에 표현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 ⑤ ㉡과 ㉢은 회화적 속성을 중시하여 사진을 찍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제 주체들은 시장을 통해 필요한 재화를 얻거나 제공하며, 재화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시장을 통한 재화의 배분이 어렵거나 시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때, 시장 제도를 적절히 설계하면 경제 주체들의 이익을 최대한 충족시키면서 재화를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데, 이를 ‘시장 설계’라고 한다.

① 시장 설계의 방법은 양방향 매칭(two-sided matching)과 단방향 매칭(one-sided matching)이 있다. 양방향 매칭은 두 집합의 경제 주체들을 서로에 대해 갖고 있는 선호도를 최대한 배려하여 쌍으로 맺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단방향 매칭은 경제 주체들이 지니고 있는 재화를 재분배하여 더 선호하는 재화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결국 양방향 매칭은 경제 주체들 간의 매칭을, 단방향 매칭은 경제 주체에게 재화를 배분하는 매칭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양방향 매칭에서는 잠정 수락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시장을 설계한다.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처음 제안자는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수락자에게 제안을 한다. 이 때, 1명에게만 제안을 받은 수락자는 무조건 그 제안자와 잠정적으로 매칭이 되고, 2명 이상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수락자는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제안자를 선택하여 잠정적으로 매칭이 된다. 그리고 잠정적으로 매칭이 되지 않은 제안자는 자신이 제안하지 않은 수락자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사람에게 제안을 한다. 한편 각 수락자는 잠정적으로 매칭이 되었던 제안자와 새롭게 제안한 제안자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사람을 골라 잠정적으로 매칭이 된다. 제안자 집합의 구성원들이 수락자 집합의 구성원들과 일대일로 모두 매칭이 될 때까지 이 과정이 반복되며, 매칭에 참가한 구성원은 임의로 매칭을 종료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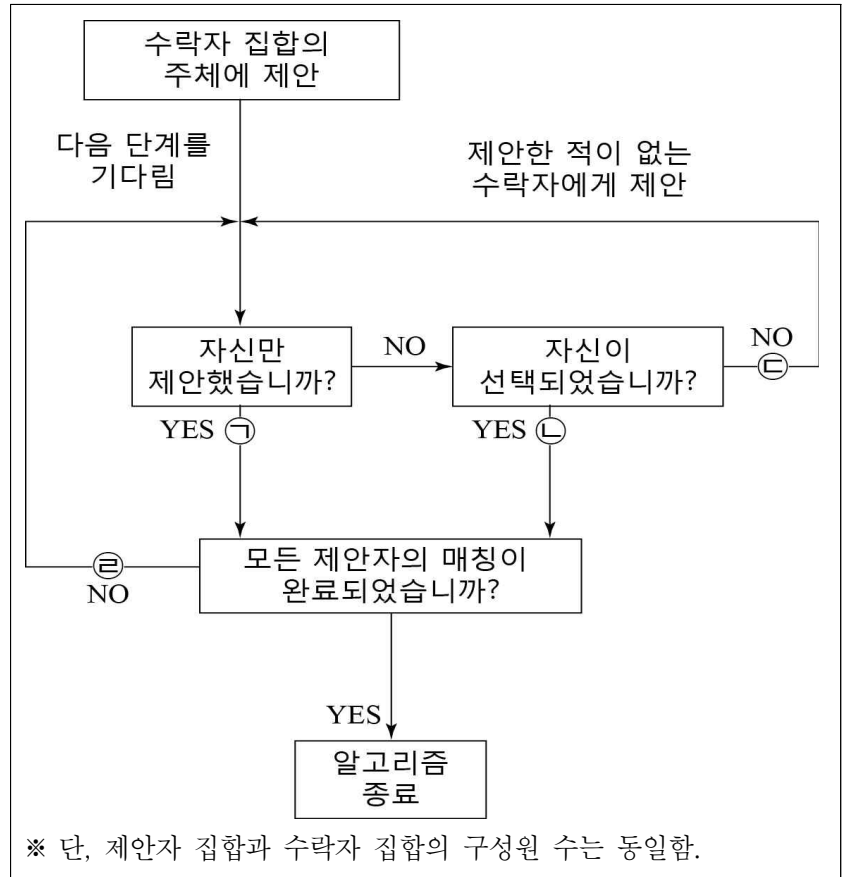
이와 달리 단방향 매칭에서는 선순위 거래 순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재화를 배분한다. 알고리즘에 참가하는 경제 주체는 자신이 선호하는 재화를 선택하고, 매칭이 이루어지면 다른 제안자의 매칭 결과와 상관없이 알고리즘이 종료된다. 이 방법은 매칭이 이루어진 경제 주체가 더 이상 알고리즘의 다음 단계에 참가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잠정 수락 알고리즘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현실에서 시장을 설계할 때 양방향과 단방향 매칭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 때에는 두 매칭을 함께 적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장 설계 이론은 장기 교환 이식 제도, 주택 청약 제도 등에 활용되고 있어, 경제학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2.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장 제도의 장점과 한계
- ② 시장 설계의 방법과 특징
- ③ 시대에 따른 시장 설계의 특징
- ④ 시장의 성격에 따른 재화 배분 과정
- ⑤ 시장의 범위에 따른 알고리즘의 종류

23. 다음은 제안자의 입장에서 ‘잠정 수락 알고리즘’의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의 과정에서 수락자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잠정적 매칭을 이루게 된다.
- ② 모든 제안자들이 ㉠의 과정을 통과하면 알고리즘을 종료할 수 있다.
- ③ ㉢에서 수락자는 제안자 중 가장 선호하는 사람과 매칭을 이룬다.
- ④ ㉣의 과정에서 수락자는 선호하는 제안자를 골라 추가 제안을 받는다.
- ⑤ 제안자와 수락자 구성원들이 일대일로 모두 매칭이 될 때까지 ㉢과 ㉣의 과정이 반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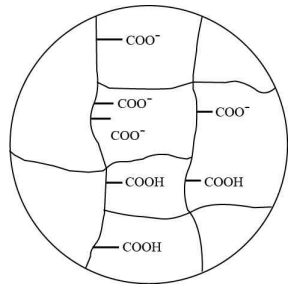
24. ㉠을 적용한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결혼 정보 회사: 결혼 상대자를 구하는 남녀를 짝지어 줌.
- ② 인력 정보 시장: 구직자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고용자를 이어줌.
- ③ 창업 정보 회사: 식당을 창업하려는 창업주에게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를 연결해 줌.
- ④ 사회 복지 기관: 봉사 활동을 원하는 학생에게 자원 봉사를 필요로 하는 단체에 대한 정보를 줌.
- ⑤ 중고품 판매 사이트: 중고 물품을 판매하려는 판매자와 중고 물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을 연결해 줌.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으로 물질이 물을 흡수하는 원리는 모세관 현상과 연관이 있다. 이는 물이, 가는 관을 따라 올라오는 현상으로 작은 구멍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을 잘 흡수할 수 있다. 펄프나 면은 작은 구멍이 많은 섬유질로 되어 있어 흡수력이 뛰어나지만 일정량 이상이 되면 물을 더 이상 흡수할 수도 없고 외부의 압력에 의해 물이 새기도 한다. 평소에 물을 바닥에 ㉠엿지르면 화장지로 닦아 내지만 닦아야 할 물의 양이 많아지면 화장지로도 부족한 것은 이것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고흡수성(高吸水性) 수지’이다.

㉡고흡수성 수지는 3차원 망상 구조, 즉 그물과 같은 물리적 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물에 의해 형성된 구멍의 크기를 천연 펄프보다는 미세하게 만들 수 있어 자기 무게보다 수십 배의 양을 저장하는 천연 펄프나 천과는 달리 수천 배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구멍의 크기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의 흡수 속도와 흡수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고흡수성 수지의 구조]

위 그림과 같은 망상 구조는 고분자 중합\*이라는 화학반응을 이용해 만든다. 먼저 분자들을 연결하여 긴 분자사슬을 만들고, 이 분자사슬의 중간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분자사슬을 연결해 주면 그물 모양의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물을 단단하게 설계한다면 어느 정도 압력이 있어도 물을 보유할 수 있다. 그런데 ㉢망상 구조만으로는 고흡수성 수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 물질은 크게 물과 친한 성질인 친수성과 물을 멀리하는 성질인 소수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망상 구조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분자들은 친수성 작용기를 가진 것들을 사용해야 한다. 주로 히드록시기(-OH)나 카르복시기(-COOH)와 같이 이온화가 쉽거나 물과의 수소결합이 가능한 작용기를 갖춘 분자들을 중합하는 방법으로 망상 구조를 만든다. 그리고 친수성인 작용기들은 그물 결합 내에서 서로 전기적 반발력이 있는데, 이로 인해 결합 내의 공간이 확대되어 많은 양의 물을 흡수하게 된다. 이런 과정으로 고흡수성 수지는 자기 무게의 1,000배 이상을 흡수한다. 여기에 이온화 경향이 더 높은 작용기를 사용할 경우 물뿐만 아니라 염도가 있는 액체에도 우수한 흡수력을 나타내게 된다.

\*중합: 단위체가 두 개 이상 결합하여 큰 분자량의 화합물로 되는 일. ≡중합 반응.

25.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모세관 현상은 물의 흡수력을 감소시킨다.
- ② 친수성 작용기를 가진 물질은 망상 구조를 가진다.
- ③ 분자 사이에 공간이 넓어지면 전기적 반발력이 생긴다.
- ④ 고흡수성 수지는 분자들이 그물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다.
- ⑤ 천연 펄프로 만들어진 종이는 압력을 견디는 힘이 강하다.

26. 윗글을 발표 수업의 원고라 할 때, 발표 수업을 위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목: 고흡수성 수지에 대하여

- 대상: 3학년 ○반 학생들
- 발표 내용 및 방법
  - 시각 자료를 통해 ㉠의 구조를 보여준다. .... ①
  - ㉡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시한다. .... ②
  - ㉢이 ㉡의 형태를 지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 ③
  - 사례를 들어 ㉠의 활용 분야를 자세히 보여준다. .... ④
  - ㉢의 특성을 과학적 원리로 설명한다. .... ⑤

27. 윗글을 읽은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마철에 습기를 제거하려고 구입한 제습제에는 고흡수성 수지가 들어 있을 거야.
- ② 친수성 작용기를 포함한 고분자 물질을 선박의 표면에 바르면 부식을 방지할 수 있겠어.
- ③ 아기들이 착용하는 기저귀에 고흡수성 수지를 사용하면 최적의 흡수력을 얻을 수 있겠어.
- ④ 망상 구조가 단단하게 설계된 꽃꽂이용 밀판은 더 많은 수분을 꽃에 제공할 수 있을 거야.
- ⑤ 물기 제거를 위한 청소용 스펀지는 중합 반응으로 만들어진 고분자 물질로 제작할 수 있겠어.

28. <보기>는 ㉠과 관련된 설명이다. 사례로 든 두 단어의 관계가 ‘유의 관계’가 아닌 것은?

—<보 기>—

쓰이는 상황이 제한적이더라도 둘 이상의 단어가 문장에서 유사한 의미를 지닐 때, 이 두 단어를 유의 관계에 있다고 한다. ㉠의 ‘엿지르면’은 ‘쏟으면’으로 바꿔 쓸 수 있다.

- ① 철수는 신호를 (보았다/지켰다).
- ② 영희는 철길을 (넘었다/진냈다).
- ③ 형이 나에게 사과를 (주었다/진냈다).
- ④ 나는 어젯밤에 전구를 (갈았다/바꿨다).
- ⑤ 날씨가 더워서 찬물을 (먹었다/마셨다).

[29~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무릇 책을 읽는 자는 반드시 단정히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앉아야 하며, 공경히 책을 대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뜻을 다하고, 정순한 생각으로 익숙히 읽고 깊게 생각하여 깊은 의취를 이해하고 구절마다 반드시 실천할 방법을 구해야 하니, 만일 입으로만 읽고 마음으로 본받지 않아서 몸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책은 책일 뿐이고 나는 나일 뿐이니,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먼저 『소학』을 읽어서, 아버이를 섬기고 형을 공경하며, 임금에게 충성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스승을 높이고 벗을 친히 하는 도리에 대해 일일이 자세히 익혀서 그것을 힘써 실행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 『대학』 및 『후문』을 읽어서, 이치를 궁구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며, 몸을 닦고 남을 다스리는 도리에 대해 하나 하나 참으로 알아서 성실히 실천해야 할 것이다.

(중략)

이상의 오서와 오경을 돌러가며 익숙히 읽음에, 이해하기를 마치지 않아서 뜻과 이치로 하여금 날마다 밝아지게 하고, 송나라의 선현들이 지은 책인 『근사록』, 『가례』, 『심경』, 『이정전서』, 『주자대전』, 어류(語類) 및 기타 성리설 같은 것을, 마땅히 틈틈이 정독해서 뜻과 이치로 하여금 항상 내 마음에 젖어 들어 어느 때고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하고, 남은 여가에 또한 역사책을 읽어 고금을 통하고 사물의 변화에 통달해서 식견을 신장시켜야 할 것이다. 이단 잡류의 바르지 않은 책이라면 잠시라도 펼쳐 보아서는 안 된다.

대체로 책을 읽음에, 반드시 한 책을 숙독하고 뜻과 취지를 모두 깨달아서 관통해서 의심을 없앤 다음에, 다시 다른 책을 읽어야 하고, 많이 읽기를 탐하고 얻기를 힘써서 조금하게 섭렵하지 말아야 한다.

- 이이, 「격몽요결」 -

29. 윗글의 필자인 'A'와 <보기>의 필자인 'B'의 독서 태도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나는 대학 졸업 후 회사 생활에 유용한 실용 도서를 집중해서 읽었지만 이런 독서는 회사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양한 인간 군상의 삶이 펼쳐진 대하소설을 찾아 읽었다. 대하소설을 읽으니 사회와 다양한 인간형을 이해하게 되어, 회사 동료들과의 원만한 관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 ① A는 B에 비해 재미와 흥미를 위한 독서를 선호하는군.
- ② A는 B에 비해 최신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독서를 강조하는군.
- ③ A는 B와 달리 관심 분야의 정보를 얻기 위한 독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군.
- ④ B는 A에 비해 생활의 문제와 관련된 독서를 중시하고 있군.
- ⑤ B는 A에 비해 다양한 분야의 식견을 넓히는 독서를 주장하는군.

30.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독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좋은 책을 선정해서 읽어야 한다.
- ②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며 읽어야 한다.
- ③ 책을 정독하여 깨달은 것을 내면화해야 한다.
- ④ 책에 담긴 뜻과 취지를 완전히 깨우쳐야 한다.
- ⑤ 바른 자세를 취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공명은 조조에게 신세를 진 적이 있는 관공이 혹시 조조를 놓아주지 않을까 염려한다. 관공은 목숨을 걸고 조조를 꼭 잡아오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조조를 잡으러 떠난다. 쫓기던 조조는 화용도에서 관공에게 잡히는데, 조조는 과거 관공의 목숨을 살려준 적이 있었다.

[아니리]  
칼을 번쩍 빼어 들고 조조 앞으로 바싹 달려드니 조조가 깜짝 놀래 목을 딱 움추리니 관공이 빙긋이 웃으며,  
“웃깃으로 내 청룡도를 피한단 말이냐.”  
“글쎄요, 그러기에 장군님은 제발 가까이 서지 마옵소서.”  
“네 말이 날다려 유정타 허며 어찌 가까이 서지는 말라느고.”  
“글쎄요, 장군님은 유정하나 청룡도는 무정하여 고정을 베일까 염려로소이다.”  
관공이 웃으시며 조조의 지기(志氣)를 떠보려고 청룡도를 높이 들어 조조 목을 베어낼 듯,  
“검여두이혼인(劍與頭而婚姻)하면 생기자유혈(生其子流血)이라. 네 목에 피를 내어 내 칼을 한 번 씻으라 함이로다.”  
목을 넘겨 땅을 킁 찌르니 조조 정신 아찔하여 군사들을 돌아보며,  
“야들야 청룡도가 잘 든다더니 과연 그 말이 맞구나. 아프잖게 잘 도려 가신다. 내 목 있나 좀 보라.”  
관공이 웃으시며,  
“목 없으면 죽었거늘 죽은 조조도 말을 하느냐.”  
“예. 그는 정신이 좋삽기로 말은 겨우 하거니와 혼은 벌써 피난간 지 오래로소이다.”  
관공은 본래 조조의 은혜를 입은지라 조조를 놓을까 말까 망설이며 결정을 못하고 있던 차에,

[자진모리]  
주창이 여짜오되,  
“장군님은 어찌하여 첫 칼에 베일 조조 살려 두려 하시는지. 옛 일을 모르시오. 강동의 모진 범여 함양을 파한 후 홍문연 앓은 패공 무심히 거저 놓아 항장(項將)의 날랜 칼이 쓸 곳이 없었고\* 계명산 추야월에 장량(張良)의 옥통소 한 곡조 슬피 불어 팔천병 흘었으니 오강풍랑 자문사(自刎死)라.\* 하물며 조조는 처세에 능하고, 난세에 간웅이라. 장군이 만일 놓아 주면 소장이 잡으리다.”  
별안간 달려들어 조조 멱살을 꼭 잡으며,  
“왕의 목숨이 주창의 손에 달렸도다. 내 손에 달린 목숨 네



어디로 피할소냐.”  
 냅다 잡아끄니 조조 놀래 벌벌 떨며,  
 “여보 주 별감(周別監) 술 많이 받아 드릴 테니 제발 날 좀  
 놔주세요.”  
 관공이 웃으시며,  
 “아서라 아서라 그리 마라. 어디 차마 보겠느냐. 목숨일랑 끊  
 지 말고 사로잡아 가자.”  
 좌우에 제장군졸을 한편으로 갈라 세우고 관공이 말머리를 돌  
 리실 제 조조가 급히 말을 타고 정신없이 달아난지라. 관공이  
 거짓 분노하며,  
 “내 분부도 듣지 않고 제 마음대로 달아나니 그 죄로 죽어봐라.”

[중모리]

조조 듣고 말 아래 뚝 떨어지니 장졸들이 황겁하여 장  
 군 말 아래 가 두 손 합장 비는디 사람의 인륜에 못 볼래  
 라.

“비나이다 비나이다 장군님전 비나이다. 살려주오 살려주  
 오 우리 승상 살려주오. 우리 승상 살려주면 높고 높은  
 장군 은혜 본국 친리 돌아가서 호호 만세 하오리다.”

조조 듣고 기가 막혀,

“우지 마라 우지 마라. 나 죽기는 설잖으나 가냘픈 너희  
 모습 눈뜨고 볼 수가 없구나. 풍파에 곤한 신세 고향 가  
 는 길에 장군님을 만났으니 가냘픈 우리 모습 설마 살  
 려 주시제 죽일소냐.”

관공이 꾸짖어 왈,

“이 놈 조조 들어보아라. 내 너를 잡으러 올 때, 군령장  
 에 다짐을 두었으니 그대 놓고 나 죽기는 그 아니 원통  
 할까.”

조조가 비는 말이,

“현덕과 공명 선생이 장군님 아시기를 오른팔로 민사오  
 니 초수(草獸)같은 이 몸 조조 아니 잡아 가드래도 죽  
 이지지는 않으리다. 장군님 타신 말과 청룡도에 나 죽기는  
 그 아니 원통하오.”

관공이 감심하여 조조를 놓아주고 말을 돌려 돌아가니 세  
 인이 노래를 허되, ‘슬겁구나, 슬겁구나. 화용도 좁은 길에  
 조조가 살아가니 천고에 늙름한 대장부는 관공인가 하노라.’

[아나리]

관공은 본국으로 돌아와 공명전 앞드려 왈,  
 “용렬(庸劣)한 관모는 조조를 잡고도 놓아 주었사오니 의율시  
 행(依律施行) 하옵소서.”  
 공명이 내려와 관공의 손을 잡고  
 “조조는 죽일 사람이 아닌 고로 장군을 그 곳에 보냈으니 그  
 일을 뉘 알리요.”

[옛중모리]

관공은 화용도 좁은 길에 조조를 살려주니 인후(仁厚)하신 관  
 공 ㉠이름 천추에 빛나더라. 그 뒤야 뉘가 알리. 더질 더질.  
 - 작자 미상, 「적벽가(赤壁歌)」 -

\* 강동의~없었고: 한나라 향우가 유방을 죽이지 않고 살려 준 고사.  
 \* 계명산~자문사라: 한나라의 전략가인 장량이 고도의 심리전으로 초나라 군  
 대를 해산시켜 향우를 자결에 이르게 한 고사.




31. 윗글을 연극으로 만든다고 할 때, 홍보 문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옥망의 덧에 걸려 쓰러지며
- ② 의리를 지키려 군율을 어기고
- ③ 백성들의 울음소리 하늘에 닿아
- ④ 패잔병의 슬픈 노래 전장을 울리며
- ⑤ 권력 투쟁에서 밀려 쓸쓸히 사라지고

32.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는 인물의 과장된 행동이 나타나 있다.
- ② [A]는 인물의 행동을 회화화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③ [B]는 동일한 어구가 반복되어 율격을 형성하고 있다.
- ④ [A]와 달리 [B]에는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드러나 있다.
- ⑤ [A]와 [B]에는 모두 관습적 표현을 통한 배경 묘사가 나타  
 나 있다.

33.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이 쓴 ‘작품 속 인물 탐구’에 대한  
 보고서이다.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벽가 인물 탐구〉	
 <관공>	○ ‘조조’와 대면하여 호통을 치는 모습에서 위엄 있는 장군의 면모가 드러난다. …… ① ○ ‘조조’에게 도움 받은 과거를 잊지 않고 ‘조조’를 놓아주는 모습에서 인간적인 면모 가 드러난다. …… ②
 <조조>	○ 궁지에 몰려서도 자신의 장졸들에게 권위를 내세우는 모습에서 위선적인 면모가 드러난 다. …… ③ ○ 살길을 도모하기 위해 상대 적장에게 빌고 있는 모습에서 비굴한 패장의 면모가 드러 난다. …… ④
 <주창>	○ 망설이는 ‘관공’과 달리 적장을 제거하려는 단호한 모습에서 원칙을 고수하려는 면모가 드러난다. …… ⑤

34. ㉠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방백세(流芳百世)
- ② 학수고대(鶴首苦待)
- ③ 금의환향(錦衣還鄉)
- ④ 타산지석(他山之石)
- ⑤ 상전벽해(桑田碧海)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명경(明鏡)에 티 써거던 갑주고 닳글 줄  
아희 어른 업시 다 밋쳐 알건마는  
갑 업시 닳글 명덕(明德)을 닳글 줄을 모르는다.  
<제1수>

성의관(誠意關)\* 도라드러 팔덕문(八德門) 바라보니  
크나큰 혼길(昏)이 넙고도 곳다마는  
엇지타 진일 행인(盡日行人)이 오도가도 아닌 게오.  
<제2수>

구인산(九仞山)\* 긴 솔 베희 제세주(濟世舟)를 무어\* 너야  
길 닐흔 행인(行人)을 다 건느려 헛였더니  
사공도 무상(無狀)하야\* 모강두(暮江頭)\*에 버렸는다.  
<제3수>  
- 박인로, 「자경(自警)」 -

\* 성의관: 뜻을 정성스럽게 하는 문.  
\* 구인산: 대덕(大德)으로 비유되는 높은 산.  
\* 무어: 만들어.  
\* 무상하야: 변변치 못하여.  
\* 모강두: 저무는 강가.

3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ㄴ. 공간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의식 변화가 나타나 있다.  
ㄷ. 상징적 시어를 사용하여 화자가 추구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다.  
ㄹ. 대비적인 상황을 제시하여 현실의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제목의 의미**  
「자경(自警)」은 자기의 능력이 미치지 못함에 대한 자탄으로, 개인의 수신(修身)을 강조함.

**작가의 창작 의도**  
자신을 반성할 줄 모르고 덕행을 멀리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유교적 수양을 권함.

**단어의 의미**

- 팔덕문(八德門): 팔덕을 갖춘 문. ‘팔덕’은 유교의 윤리 강령. 세상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正道(正道)를 의미함.
- 제세주(濟世舟): 세상을 구제할 배. 인간의 도리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작가의 포부가 담겨 있음.

- ① <제1수>에서 ‘명덕’을 닳는 것은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리의 실천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② <제1수>에서 작가는 덕을 실천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③ <제2수>에서 ‘크나큰 혼길’은 덕을 실천하기 위해서 ‘행인’이 만나는 장애물을 의미한다.  
④ <제3수>에서 ‘행인’을 건너게 하려는 화자를 통해 작가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가 드러난다.  
⑤ <제3수>에서 작가는 세상을 구제하고 싶은 포부에 비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한탄하고 있다.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루는 종로를 지나다가 박문서관에 들러 잡지를 보고 있었다. 사 불 밀천이 없으니책방에 가서 이렇게 공짜로 보기가 일쑤다. 조그만 책방에서 이런 짓을 하다가는 담박 쫓겨날 것이 지마는 큰 데는 사람이 우굴우굴하여 눈에 덜 뜨인다. 옆에 섰던 중학생 두 놈이 책을 뒤적거리면서 얘기를 한다.

“애 이 책이 어때?”

힐끗 결눈으로 보니 그 ‘化學의 徹底的研究(화학의 철저적 연구)’라는 책이다. 무어니무어니 해도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의 책이다. 하물며 내가 경양하여 마지않는 김가성 교수의 저서임에랴! 먹는 것 없이 나는 그 책이 좋다는 평이 내리고 이어서 두 말없이 사 가기를 원했다. 원했을 뿐더러 조바심까지 났다.

그런데 이놈의 대답이 껌씹하기 짝이 없다.

“틀렸어, 왜말루 쓴 그…… 무슨 책이더라?…… 하여튼 무슨 화학 연구야. 꼭 그대론 거 머. 그래두 볼라거든 내 걸 갖다 봐.”

적어도 신문에까지 난 사계의 권위자가 쓴 책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니 이따위 모욕적 언사를 감히 하는 학생놈이 아니꼽기 그지없다. 그렇다고 나 같은 것이 무어라고 하자니 알아야 핀잔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노라니까 행하고 내던지고 나가 버렸다. 자세히 보니 그 책뿐 아니라 옆에는 ‘金可成

著(김가성 저)'가 세 가지나 더 있다. 꼬마 점원이 무어라고 중얼거리면서 책을 바로잡는 것을 보고 나도 행하고 나와 버렸다.

바로 추석날이다. 신문사에 불일이 있어 들렀더니 세 사람이 둘러앉아 잡담을 하고 있다. 한 사람은 기자요 두 사람은 손님이었다.

“가성이란 놈, 죽일 놈이야. 지난 초열흘날 결혼했는데 청첩장 하나 없잖아. 그 며칠 전에 길에서 만났는데두 아무 말 없구, 관호한테 물으니 동창이라고 부른 건 두민이밖에 없대.”

“두민인 의살해서 돈냥 벌었겠다, 그럴 법하지 뭐야.”

“고거 큰일났어. 뻔질뻔질 돌아만 땡기구…… 게다가 제간엔 큰 권위자루 자처한다지.”

“흥, 왜놈덕을 단단히 봤지, 무호동중에 이작호(無虎洞中狸作虎)\*야.”

“일종의 새치기지.”

“새치기의 권위자가 하하…….”

“㉠새치길수록 꺾테기는 점잖구 한다는 소리는 크거든.”

“그 무슨 책인가 한 권 내구 꽤 벌었다지, 더 점잖아지겠군.”

모두들 가성의 진짜 동창인 모양이다.

—가성이 그릴 리 있나? 그 일람척기하던 가성이, 다른 가성이겠지.

나는 변명하고 싶었다. 적어도 내가 아는 김가성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소이연을 푹푹히 가르쳐 주고 싶었으나 아는 것이 없는데다가 말주변까지 없으니 가슴만 답답하였다.

새파란 청춘에 벌써 학계의 권위자가 되었으니 그의 앞날은 어찌면 아인슈타인쯤 될지도 모른다. 못되어도 일본의 유가와(湯川) 따위는 어렵도 없다고 은근히 기대하고 혼자 좋아서 어깨를 으쓱해 왔는데 그럴 리가 있나? 다른 가성이겠지.

하루는 옆집 문간방에서 자취하는 S대학생이 도끼 빌리러 왔기에,

“김가성 교수님 잘 계세요?”

하고 물었더니,

“네?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나는 그가 어려서 일람척기하는 신동이었던 것과 제국대학을 나오고 미국 가서 깊이 연구한 학자요 권위자니 크게 이루는 바가 있으리라고 자랑삼아 선전삼아 퍼부었다.

“글쎄요…… 뜬소문에는 다섯 가지 위원을 겸하고 있다니까 그런지는 몰라두…… 참 요새는 또 어느 무역회사 중역이 됐다나 부던데요.”

학생의 달갑지 않은 대답과는 달리 나는 여기서 실로 삼탄(三嘆)하였다. 교수 자리는 자리대로 차지하고 돈은 돈대로 벌고 행세는 행세대로 하고—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푸르다더니 과연 그런 말이 아니다.

“잘 살구 출세하구 더 바랄 게 무에 있어요, 과연 모두들 기대하던 대루 됐군.”

내가 이렇게 응수하니,

“그렇지만 사람이 어디…….”

이렇게 말미를 떼는가 했더니 멍하니 건너편 산꼭대기를 바라보다가 일어서 도끼를 쥐고 나가 버렸다. 나 같은 신문배달 무식쟁이를 상대로 얘기해 보았자 얘기가 안되리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별놈이 별소리를 다해도 내가 경애하는 김가성 교수는 일인

십역이라도 능히 감당할 천재요, 그 지식으로 말하면 고급과 동서를 전부는 몰라도 반쯤은 통했으리라 믿는 까닭에 그에게 대한 경애나 신뢰가 털끝만치라도 동요할 리 없다. 그는 단연 거리에 굴러다니는 어중이떠중이와는 유가 다르다.

그 후 나는 그의 소식을 듣지 못하였다. 아마 지금쯤은 직함도 더 늘고 저서도 부쩍 많아져서 더욱더 접근하기 어렵게 되었으리라.

김가성론을 마친다. 이로써 내가 김가성 교수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되었으니 나도 조금 잘나질까 남몰래 기대하고 있다. 말꼬리에 붙어서 천 리를 가려는 파리의 심사라고 험하지 말기를 바란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우리 조상의 그 알뜰한 전통을 낸들 잊을까보나.

— 김성한, 「김가성론」 —

\* 무호동중에 이작호(無虎洞中狸作虎): 뛰어난 사람이 없는 곳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이 득세함.

37.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현학적 표현으로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②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교체하여 사건을 다양한 관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중심인물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서술하여 성격 변화의 원인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현재와 과거의 사건을 교차 서술하여 사건 간의 인과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 ⑤ 삽화적 사건을 나열하며 인물과 사건에 대한 서술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38.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나’의 어수룩함에 대비되어 ‘김가성’의 숙물성이 부각된다.
- ② ‘김가성’은 ‘나’를 통해 자신의 숨겨진 모습을 세상에 알린다.
- ③ ‘김가성’에 대한 ‘나’와 타인의 평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 ④ ‘중학생’, ‘세 사람’, ‘S대학생’을 통해 ‘김가성’의 위선적 실체가 드러난다.
- ⑤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도 ‘김가성’에 대한 ‘나’의 생각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

39. ㉠을 통해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한 분야만 파고드는 열정이 필요하다.
- ② 사람은 걸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 ③ 전문 분야에서는 사람들의 평판이 중요하다.
- ④ 내적 성숙과 함께 외적 품위도 갖추어야 한다.
- ⑤ 학식이 높은 사람은 저절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 윤동주, 「길」 -

(나)  
 청계천 7가 골동품 가게에서  
 나는 어느 황소 목에 걸렸던 ㉠방울을  
 하나 샀다.

그 영롱한 소리의 방울을 딸랑거리던  
 소는 이미 이승의 짐승이 아니지만,  
 나는 ㉡소를 몰고 여름 해 질 녘 하산하던  
 그날의 소년이 되어, 배고픈 저녁 연기 피어오르는  
 마을로 터덜터덜 걸어 내려왔다.

장사치들의 흥정이 떠들썩한 문명의  
 골목에선 지금, 삼륜차가 울려 대는 ㉢경적이  
 저자바닥에 따가운데  
 내가 몰고 가는 소의 딸랑이는 ㉣방울소리는  
 돌담 너머 옥분이네 안방에  
 들릴까 말까,  
 사립문 밖에 나와 날 기다리며 섰을  
 누나의 귀에는 들릴까 말까.

- 이수익, 「방울소리」 -

40.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특정 소재에 주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있다.
  - ④ 어조의 변화를 통해서 정적인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41. <보기>는 (가)에 대한 수업의 일부이다. 학생들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선생님: 1연에서 화자가 ‘길’로 나아가는 것은 잃어버린 자아를 찾기 위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화자는 본질적 자아를 회복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그럼, 2연부터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발표해 볼까요?

- ① 2연에서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있다는 것은 잃어버린 자아를 찾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② 3연에서 돌담에 ‘쇠문’이 굳게 닫혀 있다는 것은 화자가 본질적 자아를 찾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 ③ 4연에서 길이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한다는 것은 잃어버린 자아를 찾기 위한 화자의 노력이 지속적인임을 의미합니다.
- ④ 5연에서 화자는 본질적 자아를 찾지 못해 ‘눈물’지으며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 ⑤ 6연, 7연에서 화자는 ‘풀 한 포기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잃어버린 자아를 찾는 것이 살아가는 이유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42. ㉠~㉣을 중심으로 (나)를 이해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화자를 유년 시절의 시간과 공간으로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 ② ㉡은 ㉠에 의해 연상된 것으로 화자의 소박하고 평화롭던 시절을 환기한다.
  - ③ ㉢은 ㉣과 대비되어 현대 문명의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 ④ ㉣은 화자가 소중한 이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한다.
  - ⑤ ㉣은 ㉡을 통해 깨닫게 된 자연과 인간사의 부조화를 상징한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엄마 인희는 50대의 가정주부이다. 남편은 월급 의사이고, 시어머니는 중증 치매 환자이며, 아들 정수는 삼수생이며 딸 연수는 직장인이다. 가족의 뒤치다꺼리를 하며 살아온 그녀는 오줌소태 증세로 병원을 찾는데, 자궁암 말기라는 결과가 나온다. 수술 이후에도 병세가 악화되기만 하자, 엄마는 자신이 죽으면 시어머니를 돌봐 줄 사람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시어머니의 목을 조르다가 이내 포기한다.

S# 51. 화장실 안

엄마, 할머니(변기 위에 앉아 있고)에게 세 속옷을 갈아입혀 주고 있다. 옷까지 마저 다 갈아입혀 주고.

엄마 (할머니 눈을 보며, 맘 아픈 걸 참고) 좋아요?

할머니 .....

엄마 (쪼그려 앉으며) 개운하지?

할머니 (엄마의 눈을 보고 있다. 정신이 들어왔는지 엄마 맘을 알 것 같다.)

엄마 (눈물을 참고, 대견해하며) 이렇게 입으니까 꼭 새색시 같네. (할머니 손을 잡고, 차마 못 보고) 어머니, 나 먼저 가 있을게, 빨리 와. (다시 할머니 눈을 보며) 싸우다 정든다고 나 어머니랑 정 많이 들었네. 친정어머니 먼저 가시고 애들 애비 공부한다고 객지 생활 할 때, 애들두 없구, 외롭구 그럴 때도..... 어머니 내 옆에 있었는데..... 나 밋다고 해도 가끔 나한테 당신이 좋아하시는 거 아꼈다가 주곤 하셨는데..... 어머니, 이젠 기억 하나두 안 나지?

연수(E) 엄마?

할머니 (갑자기 버럭, 밖에 대고) 저리 가, 이년아!

엄마 (놀라, 할머니를 보고 정신이 드는가 싶어 눈물이 난다.) ..... 어머니, 아까 미안해요. 내 맘 알죠?

할머니 (눈물이 나는 걸 참고) .....

엄마 (손을 잡고, 울며) 이런 말 하는 거 아닌데..... 정신 드실 때 허라도 깨물어, 나 따라와요. 아범이랑 애들 고생시키지 말고, 기다릴게. (손을 잡아 얼굴에 대며 울고) 아이고, 어머니.....

S# 67. 차 안

엄마 (장난처럼, 밝게) 정수야, 나 누구야?

정수 (고개를 들고 눈을 부릅떠 눈물을 참고, 아이처럼) 엄마.

엄마 한 번만 더 불러 봐.

정수 (목이 메어) 엄.....마.

엄마 (눈가가 그렇해) 정수야, 너..... 다 잊어버려두, 엄마 얼굴도 웃음도 다 잊어버려두..... 니가 이 엄마 뺨속에서 나온 건 잊으면 안 돼.

정수 (힘들게 끄덕이고)

엄마 (손가락에 낀 반지를 빼서, 정수 손에 쥐어 주고) 이거, 니 마누라 줘.

S# 73. 침실

조금은 어두운, 그러나 따뜻해 보이는. 엄마, 정철, 조금은 낯설고 멧쩍게 침대에 걸터앉아 있다.

엄마 당신은..... 나 없이두 괜찮지? [C]  
정철 (보면)  
엄마 잔소리도 안 하고 좋지, 뭐.  
정철 (고개 돌리며) 싫어.  
엄마 나..... 보고 싶을 거는 같애?  
정철 (고개를 끄덕인다.)  
엄마 언제? 어느 때?  
정철 .....다.  
엄마 다 언제?  
정철 아침에 출근하려고 넥타이 맬 때.  
엄마 (안타까운 맘. 보며) .....또?  
정철 (고개를 돌려, 눈물을 참으며) 맛있는 된장국 먹을 때.  
엄마 또?  
정철 맛있는 된장국 먹을 때.  
엄마 또?  
정철 술 먹을 때, 술 깼 때, 잠자리 볼 때, 잘 때, 잠 깼 때, 잔소리 듣고 싶을 때, 어머니 망령 부릴 때, 연수 시집갈 때, 정수 대학 갈 때, 그놈 졸업할 때, 설날 지킴이 할 때, 추석날 송편 빚을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엄마 (눈물이 그렇해, 괜히 옷깃만 만지며 둘레를 두리번거리며) 당신, 빨리 와. 나 심심하지 않게. (눈물이 주룩 흐르고)  
정철 (엄마를 안고, 눈물 흘리고)  
엄마 (울며 웃으며) 여보, 나 이쁘면 뽀뽀나 한번 해 줘라.  
정철 (엄마 얼굴을 손으로 안고, 입을 맞춰 주고) 두 사람, 다시 안고 울고.  
정철 고마웠다.

S# 74.

- 1. 정원에서 돌 고르는 행복한 얼굴을 한 엄마와 정철.
- 2. 화장실에서 정철에게 등목을 해 주는 엄마.
- 3. 서로 밥을 먹여 주는 엄마와 정철.
- 4. 거실 소파에서 엄마, 정철 무릎에 누워 있다. 정철, 재미난 책을 읽어 주고, 엄마는 재미있는지 환하게 웃고.

S# 76. 침실

침실 가득 밝은 햇살이 들어오고, 엄마는 정철의 팔에 안겨 깊은 잠이 들어 있다. 정철은 물기 가득한 눈으로 엄마를 안고 있다.

정철 (엄마의 죽음을 느낀다, 엄마를 보지 않고) 여보.

엄마 .....

정철 여보.....

엄마 .....

정철 인희야.

그러나 엄마는 대답 없고,

정철, 이를 앙다물고 우는데, 눈물 뚝 떨어져 엄마의 뺨 위로 흐른다.

엄마, 너무도 편안하게 깊이 잠들어 있고,

그런 두 사람 보여 주며 카메라 멀어진다.

- 노희경,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조명이 인물의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② 소도구를 활용하여 인물의 성격을 암시하고 있다.
- ③ 극적 반전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 ④ 효과음을 삽입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하고 있다.
- ⑤ 인물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장면이 구성되고 있다.

44. 윗글을 영화로 만든다고 할 때, 장면에 맞는 촬영 방법과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는 ‘엄마’의 얼굴을 클로즈업하여 ‘할머니’에 대한 죄책감, 안타까움 등의 복합적 심정이 담긴 표정을 잘 살렸으면 좋겠어.
- ② [B]는 애써 웃으려는 ‘엄마’와 슬픔을 참는 ‘정수’의 모습을 번갈아 카메라로 잡아 이별을 앞둔 모자간의 아픈 심리를 드러내면 좋겠어.
- ③ [C]는 ‘정철’에 대한 ‘엄마’의 바람을 내레이션으로 처리하여 ‘정철’이 ‘엄마’의 부재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어.
- ④ [D]는 가족들의 일상을 스쳐 지나가듯 삽입하여 이별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정철’의 심정이 부각되도록 하면 좋겠어.
- ⑤ [E]는 ‘엄마’와 ‘정철’의 일상적 장면을 연속적으로 이어 붙여 이별을 맞는 두 사람의 애뜻함을 보여주면 좋겠어.

45. <보기>를 ‘S# 76’으로 바꿨을 때, 고려했을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침실 가득 눈부신 햇살이 밀려들었다. 아침이었다. 햇살은 마치 무슨 축복인 양 쏟아져 들어와 잠든 인희 씨의 하얀 얼굴을 비춰 주고 있었다. 정철은 잠에서 깨자마자 조용히 아내를 불러 보았다.

“여보.”

아내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에서는 이미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인희야!”

정철은 오열하며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계속 그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서서히 몸을 굽혀 식어 버린 아내의 몸을 부서져라 껴안아 주었다. 그녀의 입술에 입 맞추며 그렇게 언제까지, 언제까지 끌어안고 있었다. 어느 곁에 고인 슬픔인지, 깊이 잠든 인희 씨의 눈에도 차디찬 물기가 서려 있었다.

- ① ‘정철’의 심리와 조용하는 배경으로 교체한다.
- ② ‘정철’과 ‘인희’가 서로 화해하는 장면을 삽입한다.
- ③ 죽음을 맞는 ‘인희’의 고통을 극대화하여 보여준다.
- ④ 삶에 미련을 갖는 ‘인희’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 ⑤ ‘인희’를 보내는 ‘정철’의 슬픔을 최대한 절제하여 보여준다.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2013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B형 정답

1	④	2	⑤	3	④	4	①	5	④
6	⑤	7	④	8	④	9	②	10	④
11	③	12	②	13	③	14	①	15	②
16	⑤	17	①	18	③	19	①	20	⑤
21	③	22	②	23	④	24	④	25	④
26	④	27	②	28	①	29	④	30	②
31	②	32	⑤	33	③	34	①	35	③
36	③	37	⑤	38	②	39	②	40	②
41	①	42	⑤	43	⑤	44	③	45	⑤

#### B형 해설

##### \*\* 화법 \*\*

#### 1. [출제의도] 입론 내용 파악하기

찬성 1은 입론에서 대체 휴일 제도에 대해 찬성의 논거로 행복 추구권이라는 법 조항을 들고 있고, OECD 국가들의 연간 노동시간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 휴일 제도에 대한 용어의 개념은 사회자의 발화에 나타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 2. [출제의도] 입장에 적합하게 자료 활용하기

<보기>의 자료는 경기 침체로 여가 비용에 대한 지출이 줄고, 외부 활동보다는 휴식을 취하는 사람이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휴일이 늘면 여가 및 문화 활동과 관련된 소비 증가로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찬성 1의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 3. [출제의도] 토론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참여하기

확인 질문에서는 상대방 입론의 허점을 지적하고 논거를 반박해야 한다. 따라서 대체 휴일 제도가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반박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 4. [출제의도] 의사소통의 성격과 요소 파악하기

영희는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답화 상황을 봤을 때,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 실망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속내를 감추고 ①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즉 구체적 말하기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 5. [출제의도] 공감하는 말하기의 전략 파악하기

선생님은 영희의 표정(비언어적 요소)을 고려하여 영희의 심리를 물어보면서 영희가 대화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매사에 꼼꼼한 학생'이라고 칭찬을 하면서 영희가 말을 이어나가도록 격려하고 있다. 또한 영희의 말에 호응하는 방식으로 공감적 듣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영희의 말하기 방식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 \*\* 작문 \*\*

#### 6. [출제의도] 자기소개서의 특성 고려하여 글쓰기

학생은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교내 합창 대회에서 있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지원 분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어려운 한자어를 피하고, 읽는 이를 고려하

여 격식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내용과 관계없는 '학교 축제는~재미있습니다.'라는 문장을 삭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 7. [출제의도] 보고문 쓰기를 위한 계획하기

<보기 1>에서 학생은 힐링 열풍의 실태와 원인을 찾고, 힐링이 상업적 목적에 의해 변질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힐링의 방향을 제시하는 글쓰기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므로 서론에는 사례를 통해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할 수 있다. 하지만 힐링 열풍과 경제 발전의 상관관계를 제시하는 것은 보고서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 8. [출제의도] 자료 분석하여 내용 생성하기

힐링 열풍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보기 2>에 제시된 (가), (나)의 변화 추이를 주목해야 한다. 또한 정신 건강에 힐링 열풍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혀야 (가)의 자료를 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나)의 브랜드 출원 건수의 증가는 힐링 열풍이 상업성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다)의 참여율 10% 미만의 항목들은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 주목하여 바람직한 힐링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 9. [출제의도] 의도에 맞는 글쓰기 전략 활용하기

친구와 함께 시험 공부를 했던 '학습 멘토링 활동'은 학생의 실제 경험이다. 학생은 이와 같이 실제 경험과 관련지어 작문 과제의 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 10. [출제의도] 글의 통일성과 응집성을 고려하여 고쳐 쓰기

㉠을 바로 앞 문장으로 옮기면 글의 논리적 흐름에 맞지 않으므로 그대로 두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 \*\* 문법 \*\*

#### 11. [출제의도] 음운의 탈락 규칙 이해하기

㉠의 '뱃고'는 음절 끝소리 'ㄹ'에서 'ㄱ'이 탈락한 후, 뒷말 첫소리 'ㄱ'이 'ㄴ'과 만나 된소리로 바뀌어 [뱃꼬]로 발음된다. ㉡의 '좋아서'는 끝소리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만나 탈락하여 [조아서]로 발음된다. ㉢은 축약어, ㉣은 구개음화가, ㉤은 음절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 12. [출제의도] 표준 발음법을 적용하여 발음하기

㉠에는 표준 발음법 제29항을 거쳐 제18항이 일어나는 사례가 적절하다. ㉡의 '색연필'의 발음은 [생년필]로 이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 '식용유[시공유]', ㉣ '숨이불[숨:니불]', ㉤ '맨입[맨입]'은 제29항만 적용되었고, ㉥ '국물[궁물]'은 제18항만 적용되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 13. [출제의도] 어미와 의존명사 구별하기

'날이 흐린 걸 보니 곧 비가 오겠네.'에서 '흐린 걸'은 '흐린 것'의 구어적 표현이다. 이 때의 '것'은 의존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 14. [출제의도] 선어말어미의 의미 파악하기

'제가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는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의도를 '-겠-'을 사용하여 완곡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 15. [출제의도] 어법에 어긋난 표현을 바르게 고쳐 쓰기

㉠은 접속조사 '과'로 연결된 두 목적어 중 '창작 활동'에 호응하는 서술어(필수성분)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서술어를 넣어야 한다. ㉡의 '불러졌다'는 피동 접미사인 '-리-'와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지다'가 사용된 이중 피동어이므로 '불렸다'로 수정해야 한다. ㉢은 관형격

조사 '의'로 인해 문장이 중의성을 갖게 된 예이다. 중의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 적어야 하므로 '아버지의 그림'을 '아버지가 그린 그림, 아버지가 소유한 그림, 아버지를 그린 그림' 중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의 부사격 조사 '-에'는 무정명사와, '-에게'는 유정명사와 결합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 16.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특징 파악하기

㉠의 조사 '-이'는 현대 국어의 조사 '와/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성'이 비교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낸다. ㉡의 '불휘'는 '불휘+0'로 분석되고, '불휘'는 현대 국어 '뿌리가'에 해당하므로 주격 조사의 형태가 드러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의 '남근'의 형태소 분석에 따르면 조사와 결합할 때, 'ㄱ'이 덧붙는 것을 알 수 있다. ㉣의 조사 '은'과 ㉤의 '므른(믈+은)'의 조사 '은'은 모두 현대 국어의 조사 '은'에 해당하며 앞말의 모음이 양성 모음인지 음성 모음인지에 따라 달리 표기되는 이형태이다. ㉥의 '브르매(브름+에)'의 조사 '에'는 '브름'이 원인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고 ㉦ '바르래(바름+에)'에 사용된 조사 '에'는 '바름'이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모두 현대 국어의 조사 '에'에 해당하지만 각각의 의미는 다르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 \*\* 인문 \*\*

#### □ 출전: 강신주, <본질이란 무엇인가>

#### 17. [출제의도] 글쓴이의 집필 의도 파악하기

글쓴이는 비트겐슈타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사물의 본질은 사후적 구성 논리에 의한 것이며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 18. [출제의도] 다른 자료를 통해 내용 추론하기

불교에서의 '자성'은 본질을 의미하는 것이며, 불교에서는 '무자성'을 강조한다. 이는 본질이 없다는 것으로, 본질에 대한 맹신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본질이란 사후적 구성의 반복에 의해 형성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결국 본질에 대한 맹신은 사후적 구성이 반복됨으로써 생기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 \*\* 예술 \*\*

#### □ 출전: 박평중, <사진의 경쟁-19세기->

#### 19. [출제의도] 내용 전개 파악하기

이 글은 사진의 경향을 19세기 후반의 픽토리얼리즘, 20세기 초의 스트레이트 포토, 20세기 후반의 디지털 픽토리얼리즘의 특징과 그에 담긴 작가의 예술적 의도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 20. [출제의도]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보기>의 사진은 사진에 어떠한 조작도 하지 않고 작가의 의도를 표현한 '스트레이트 포토'의 한 작품이다. 프레임에 담긴 옛 건물과 현대적인 건물의 선명한 대비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미국 사회의 단면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 21. [출제의도] 세부 정보 이해하기

㉠의 픽토리얼리즘은 회화적 구현 방식으로 사진의 초점을 흐리게 하거나 인화 방식을 달리 하고, ㉡의 디지털 픽토리얼리즘은 이미지를 합성하거나 변조한다. 그래서 ㉢과 ㉣은 사진의 사실적 재현에서 벗어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 \*\* 사회 \*\*

□ 출전: 홍성훈, <시장 설계의 이론과 응용>

22. [출제의도] 글의 중심 내용 파악하기

이 글은 시장 설계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후, 상황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 시장 설계의 방법과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23.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은 수락자가 한 명에게만 제안을 받은 경우이므로 수락자는 반드시 그 제안자와 잠정적 매칭이 이루어지며, 만약 모든 제안자가 각각 한 명에게만 제안했다면 모든 제안자와 수락자가 매칭을 이루게 되므로 알고리즘은 종료된다. 또한 ㉡은 여러 명의 제안자 중 수락자가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제안자를 택한 경우이며, ㉢과 ㉣은 모든 제안자가 매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은 반복된다. 잠정 수락 알고리즘은 수락자가 제안을 받은 후 선호하는 제안자를 선택하는 것이지, 선호하는 제안자를 선택하여 제안을 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24.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①, ②, ③, ⑤는 제안자와 수락자 사이에 매칭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④는 정보만 제공할 뿐 매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 과학 \*\*

□ 출전: 임두언, <고흡수성 수지>

25.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2문단을 보면 고흡수성 수지는 그물 모양의 3차원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즉 고흡수성 수지는 분자들이 그물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26. [출제의도] 글의 설명 방법 파악하기

이 글은 고흡수성 수지의 필요성, 구조, 특성, 망상 구조의 형성 과정, 고흡수성 수지가 망상 구조를 지닌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고흡수성 수지의 활용 분야를 보여주기 위해 사례를 들지는 않았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27. [출제의도] 반응의 적절성 파악하기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에 친수성 도료를 칠하게 되면, 도료가 물과 반응하여 녹이 슬거나 도료 자체가 물을 흡수하여 배의 운항에 지장을 준다. 선박의 도료는 소수성 작용기를 이용해서 물과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28. [출제의도] 어휘의 관계 파악하기

‘철수는 신호를 보았다’에서 ‘보다’는 ‘눈으로 대상의 존재나 형태적 특징을 알다’라는 의미이고 ‘철수는 신호를 지켰다’에서 ‘지키다’는 ‘규정, 약속, 법, 예의 따위를 어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실행하다’라는 뜻이다. ‘보다/지키다’는 ‘말아서 보살피거나 지키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에만 유의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 독서 \*\*

□ 출전: 이이, <격몽요결>

29. [출제의도] 독서 태도 비교하기

<보기>의 필자는 실용 도서와 대화소설 등 회사 생활에 유용한 책을 찾아 읽는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30. [출제의도] 독서 전략 파악하기

①은 3문단의 ‘이단 잡류의 바르지 않은 책’은 읽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통해, ③은 3문단에 ‘정독해서 뜻과 이치로 하여금 항상 내 마음에 젖어 들어 어느 때고 끊어지지 않게 해야’한다고 것을 통해, ④는 4문단에 ‘책을 속독하고 뜻과 취지를 깨달아서’를 통해, ⑤는 1문단에 ‘단정히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온전한 마음으로 독서를 해야’ 한다는 것을 통해 독서 전략을 알 수 있다. 하지만 ②의 내용을 요약하며 읽는다는 것은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 고전소설 \*\*

□ 출전: 작자 미상, <적벽가(赤壁歌)>

31. [출제의도] 중심 내용 파악하기

‘관공’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조조’를 꼭 잡아 오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인다. 그러나 과거 자신을 살려준 ‘조조’의 은혜를 생각하여, ‘조조’를 잡고서도 풀어준다. 목숨을 살려 준 것에 대한 의리를 지키려 ‘관공’은 균율을 어긴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32.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 파악하기

[A]에는 관공의 위협에 비굴하게 비는 ‘조조’의 모습이 희화화되어 있다. [B]에는 말 아래 떨어진 ‘조조’를 보고 ‘장졸들’이 어쩔 줄 몰라하는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 평가가 나타난다. 하지만 [A], [B] 모두 관습적 표현으로 배경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33. [출제의도] 인물의 태도와 특성 파악하기

‘조조’는 살길을 도모하려고 상대 적장에게 비는 비굴한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자신을 살려달라고 비는 장졸들에게 권위를 내세우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34. [출제의도] 적절한 한자 성어 찾기

‘유방백제’는 뜻이 다른 이를 후세에 길이 전한다는 의미이므로 ㉠에 적합하다. ㉡는 간절한 기다림을 의미한다. ㉢은 출세하여 고향에 돌아옴을 의미한다. ㉣은 분이 되지 않은 남의 말이나 행동도 자신의 지식과 인격을 수양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는 세상일의 변천이 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 고전시가 \*\*

□ 출전: 박인로, <자경(自警)>

35.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제1수>에서는 값을 치르면서까지 ‘명정’을 닦으면서도, ‘명덕’은 닦지 않는 모습을 대비하여 현실의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고 있다(ㄱ). <제2수>에서는 ‘성의관’, ‘팔덕문’이라는 상징적 시어를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유교적 이상을 드러낸다(ㄷ). 그러나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의식 변화 역시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36. [출제의도]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제1수>에서 인간의 기본 도리를 실천하기 위해 ‘명덕’을 닦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실천하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한다. <제3수>에서 화자는 ‘행인’들을 구제하려는 포부가 있었으나 부족한 자신의 능력으로 인해 그 포부를 이루지 못한 것을 한탄하고 있다. <제2수>에서 ‘크나큰 혼길’은 덕을 실천하기 위해 ‘행인’이 걸어가야 할 길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 현대소설 \*\*

□ 출전: 김성한, <김가성론>

37.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김가성’의 표절 행위, 위선적인 모습, 속물적인 모습을 삽화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며, 그러한 ‘김가성’에 대해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38. [출제의도] 서사적 흐름에 따른 인물의 성격 파악하기

‘나’는 ‘김가성’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지 못하는 어수룩한 인물로 묘사된다. 이러한 ‘나’의 어수룩함 때문에 ‘김가성’의 속물성이 더욱 부각된다(①). ‘중학생’, ‘세 사람’, ‘S대학생’에 의해 ‘김가성’의 실체가 드러나지만(④) ‘나’는 이들과

달리 김가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③). ‘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도 생각이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⑤). ‘나’를 통해 ‘김가성’의 숨겨진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②)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39. [출제의도] 작품 속 인물의 의도 추리하기

세 사람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사람인 ‘김가성’이 특정한 상황을 비웃는 것으로, 든 것은 없으면서 걸으며 점잖은 행세를 하고 큰소리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걸만 보고서는 그 사람의 사람됨이나 능력을 판단할 수 없음을 추릴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 현대시 \*\*

□ 출전: (가) 윤동주, <길>

(나) 이수익, <방울소리>

40.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는 ‘길’을 통해 본질적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부끄러움과 의지를, (나)는 ‘방울소리’의 소재를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41. [출제의도] 작품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가)는 ‘길’을 통해 본질적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과 잃어버린 자아를 찾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①에서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있는 것은 본질적 자아를 찾는 길이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 화자의 의지가 확고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42. [출제의도] 소재의 의미 및 기능 파악하기

화자는 ㉠을 매개로 소박하고 평화롭던 유년 시절의 고향을 떠올리면서 ㉡를 생각한다. 그리고 ㉢과 함께 ‘육분이’와 ‘누나’에 대한 그리움을 환기하게 된다. 현재 화자는 ㉣으로 상징된 때때로 문명의 시간을 살고 있는데, ㉤을 들으며 과거의 시간과 공간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따라서 ㉤은 과거를 환기하는 것이지, 자연과 인간사의 부조화를 상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 시나리오 \*\*

□ 출전: 노희경,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43. [출제의도] 작품의 특징 파악하기

‘엄마’는 S# 51에서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의 ‘할머니’를 걱정하고 있고, S# 67에서 ‘정수’와의 이별을 준비하고 있으며, S# 73에서 ‘정철’과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처럼 이 글은 ‘엄마’와 가족들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장면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44. [출제의도] 영화화 방안의 적절성 파악하기

[C]에서 ‘엄마’는 자신이 부재하더라도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소망하며 ‘정철’과 대화하고 있으므로, 이를 화면 밖의 해설로 들려주는 내레이션 기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45. [출제의도] 갈래를 바꾸어 표현하기

<보기>에서 ‘정철’이 오열하면서 아내의 몸을 껴안아 주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과 달리, ‘S# 76’에서는 ‘정철’이 이를 양다물고 우는 모습을 통해 인물이 슬픔을 최대한 절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제 1 교시

국어 영역 (B형)

[1~3] 다음은 유연근무제에 대한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최근 유연근무제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간제근무제,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등이 그것인데요, 이런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면 개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근무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기업 조직에 유연성을 부여한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고용의 불안정성을 들어 이 제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의 토론을 통해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 성:** 찬성 측 입론하겠습니다. 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1위 국인 룩셈부르크 12만 4,377달러의 절반 수준이며, OECD 평균의 79.9% 수준으로 회원국 중에서 하위권이라 합니다.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근로 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 시간은 2,090시간으로 OECD 전체 국가 중 두 번째로 많습니다. 따라서 연간 근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며, 그 중 하나가 바로 유연근무제입니다. 먼저 유연근무제를 시행한 영국의 사례를 보면 업무 만족도 및 몰입도가 높아져서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문제가 됐던 장시간 근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나아가 실업 문제 및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후 최대 수혜자는 일하는 여성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가사와 육아를 책임지는 현실에서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가 시행되면 여성들은 가정과 직장 일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긍정적 기능으로 볼 때, 유연근무제는 더욱 확대 시행되어야 합니다.

**사회자:** 네, 찬성 측 입론 잘 들었습니다. 이제 반대 측 입론 들어보겠습니다.

**반 대:** 반대 측 입론하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유연근무제가 상황에 따라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하고 좋은 제도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연근무제는 정규직의 안정된 일자리를 시간제, 파트타임제로 나누게 되어 통계 수치상 일자리는 늘어날지 모르지만 오히려 고용의 질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안정한 일자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만 높아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찬성 측 입론에서 말씀하신 일하는 여성과 관련해서,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마음 편히 일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수요를 정책 및 제도가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연근무제가 가정생활과 직장 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을 적극 반대합니다.

1. 위 토론에서 양측 모두가 동의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안정된 일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 ② 근로자들의 작업 환경이 안전해야 한다.
- ③ 기업에서 여성 구직자들을 적극 채용해야 한다.
- ④ 근로 시간의 단축을 통해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 ⑤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

2. '찬성'과 '반대'의 입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찬성: 외국의 사례를 근거로 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찬성: 구체적 수치를 들어 연간 근로 시간과 노동 생산성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찬성: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유연근무제가 직장 여성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반대: 정책 및 제도의 미비함을 들어 현실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있다.
- ⑤ 반대: 제도 시행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언급하면서 상대방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3. <보기>는 위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이다. 이를 토론에 활용할 수 있는 입장과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들은 주로 시간제근무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시간제근무자 중 78.5%가 임시·일용직 근로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연구소 -

- ① 찬성: 유연근무제 도입이 노동 생산성 증가로 이어진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군.
- ② 찬성: 유연근무제로 실직 여성이 늘고 있다는 반대 측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군.
- ③ 찬성: 유연근무제로 근로자들의 업무 만족도 및 몰입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군.
- ④ 반대: 유연근무제를 확대 실시하면 고용의 불안정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군.
- ⑤ 반대: 유연근무제로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찬성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군.

[4~5] 다음은 수업 중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진을 보여 주면서) 여러분, 무슨 사진인지 알겠어요? (대답을 듣고) 아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네요. 바로 목 디스크 질환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목이 빠근하거나 통증을 느낀 적이 있지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잘못된 자세 때문에 이 질환이 많다는 기사를 자주 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 디스크 질환에 대해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림을 보여 주면서) 척추에는 뼈와 뼈 사이에서 몸의 충격을 흡수하는 추간판이 있는데, 이것을 디스크라고도 합니다. 여러 원인으로 퇴행된 목 근육과 인대는 목뼈를 제대로 받쳐 주지 못하게 되어 목 디스크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죠. 이는 목 디스크의 퇴행으로 이어지고 퇴행된 디스크가 척추 뼈 사이에서 빠져 나와 신경을 압박하여 통증을 유발하는데, 이것이 목 디스크 질환입니다.

목 디스크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자세로 인한 척추 변형입니다. 잘못된 자세는 목의 근육과 인대를 퇴행시킵니다. 또 학업으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는 목 주변의 근육을 경직시키고 혈액의 순환을 방해하여 목 디스크에 부담을 증가시켜 질환을 유발하게 되지요. 최근에는 IT기기 사용의 급증으로 젊은 층 환자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 디스크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깨를 펴고 고개를 꼿꼿이 하는 바른 자세 유지가 중요합니다. IT기기의 사용 시간은 줄이고, 공부하다가도 한 시간에 한 번씩은 스트레칭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목 디스크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알려 드릴까요? (대답을 듣고) 다들 좋아하시네요. 제가 준비한 것은 열 가지이지만 발표 시간이 정해져 있어 두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대학 병원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동영상을 보며) 먼저 머리 젖히기입니다. 다음은 목 옆으로 젖히기입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자세와 과도한 IT기기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목 디스크 질환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스트레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4. 다음은 학생이 발표하기 전에 작성한 사전 계획이다. 발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 발표 유형: 정보 전달을 위한 말하기 ..... ①
2. 청중 분석
  - 가. 대상: 학급 친구들
  - 나. 사전 지식: 목 디스크 질환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을 접했을 것임 ..... ②
3. 내용 조직
  - 가. 도입: 화제 제시 및 배경 설명
  - 나. 전개
    - 목 디스크 질환 설명
    - 목 디스크 질환의 원인 제시
      - 잘못된 자세로 인한 척추 변형
      -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디스크의 손상 ..... ③
      - 심한 스트레스 및 IT기기 사용의 급증
    - 목 디스크 질환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안내 ..... ④
  - 다. 정리: 발표 내용 요약 ..... ⑤

5. 위 발표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활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혀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군.
- ② 다양한 자료와 매체를 활용하여 발표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있군.
- ③ 어려운 전문 용어를 다른 개념에 빗대어 설명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군.
- ④ 청중에게 질의하고 그 반응을 확인하여 청중과의 상호 작용을 강화하고 있군.
- ⑤ 주어진 시간에 맞게 발표하기 위해 계획된 발표 내용을 적절하게 재구성하고 있군.

6. 다음 건의문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교장 선생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생회장 박혜진입니다. 우리 학교에는 아침을 먹지 못하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지만 매점이 없어 마땅히 허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회에서는 그 해결 방안으로 빵을 판매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아침밥을 먹지 못하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1교시 쉬는 시간에 복지관에서 만든 빵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교시 쉬는 시간에만 팔기 때문에 배가 불러 점심 급식을 적게 먹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싼 가격으로 학생들에게 빵을 공급할 수 있고 빵 판매 수익금은 복지관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빵 판매는 학생들의 아침밥을 챙겨 주고 복지관도 도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교문 밖으로 간식을 사러 나가는 학생들의 불편함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한 달 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주시면 바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행하고자 하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가 항목		예	아니요	
내용 생성 및 선정	건의의 목적이 드러나 있는가?	√		...①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었는가?	√		...②
내용 조직	‘문제 상황-해결 방안-기대 효과’라는 순서에 따라 글을 쓰고 있는가?	√		...③
표현	비유적 표현을 활용함으로써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가?	√		...④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격식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		...⑤

[7~8] <보기 1>은 '탄소 발자국 줄이기'를 주제로 논설문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고, <보기 2>는 개요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1>

(가) 인터뷰 자료

“탄소 발자국은 지구의 환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입니다. 개인 또는 단체가 직접, 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 기체인 탄소의 총량을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는데, 연료, 전기, 용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지구의 평균 온도를 높여 환경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탄소 발자국의 심각성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탄소 라벨링 제도나 탄소 포인트 제도에 대한 참여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통계 자료

1. 탄소 발자국 관련 인식 조사

	탄소 발자국 개념	탄소 라벨링 제도
알고 있다	3%	13%
모른다	97%	87%

2. 생활 속의 탄소 발자국

생활용품	탄소 배출량	교통수단 (1km 운행 시)	탄소 배출량
비닐봉지	10g	지하철	1.53g
종이 쇼핑백	12g	기차	20g
컴퓨터 1시간 사용	90g	버스	27.7g
휴대 전화 1일 사용	306g	자가용	210g

(다) 신문 기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탄소 라벨링 제도나 탄소 포인트 제도는 국민들의 참여가 극히 저조하다. 그 첫 번째 원인은 이 제도를 적극 알리려는 정부와 기업의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두 번째 원인은 이 제도를 실천할 때 생기는 혜택이 적기 때문이다.

태국은 탄소 라벨링을 식품과 생활용품에서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모든 제품에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저탄소 가공 공정을 도입한 기업에는 정부 지원과 인센티브를 늘려 나가고 있는 추세이며, 저탄소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는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구매 동기를 유발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보기 2>

- 서론: 논의의 필요성 ..... ㉠
- 본론
  - 1. 문제점 분석
    - 가. 개인적 측면 ..... ㉡
    - 나. 사회적 측면 ..... ㉢
  - 2. 해결 방안 제시
    - 가. 개인적 측면 ..... ㉣
    - 나. 사회적 측면 ..... ㉤
- 결론: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개인과 사회의 노력 촉구

7. <보기 1>을 활용하여 <보기 2>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탄소 발자국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에서 '탄소 발자국을 줄여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다룬다.
- ② (가)와 (나)를 통해 사람들이 탄소 발자국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것이 탄소 배출 문제를 심화한다는 점을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에서 '탄소 발자국에 대한 개인의 인식 부족'을 문제로 다룬다.
- ③ (다)에서 제도적으로 탄소 라벨링 제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동기 부여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에서 '탄소 라벨링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다룬다.
- ④ (나)-2를 통해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탄소 발자국 줄이기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에서는 '탄소 포인트 제도 활성화 대책 수립'을 다룬다.
- ⑤ (다)의 태국의 탄소 라벨링 사례에서 우리나라 제도의 보완점을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에서 '탄소 라벨링 제도의 보완 및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다룬다.

8. <보기 2>의 결론의 일부를 <조건>에 따라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조 건>

- '(나)-2'를 고려한 개인의 노력을 다룰 것.
- 비유적 표현과 설의적 표현을 모두 활용할 것.

- ①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휴대 전화 사용을 자제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아닐까요?
- ②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제도는 시름시름 앓아가는 지구를 살립니다.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여 하나뿐인 지구를 함께 지켜볼까요?
- ③ 우리들의 영원한 쉼터인 지구를 지키기 위해 작은 일부부터 실천합니다. 자가용 사용을 줄이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가기. 이것만으로도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④ 매일 켜두는 전등, 항상 꽂혀 있는 가전제품의 플러그, 장바구니 대신 쓰는 일회용 비닐봉지에서 탄소 발자국은 오늘도 크고 있습니다. 탄소 발자국 줄이기에 적극 동참합시다.
- ⑤ 열병을 앓고 있는 지구를 치유하기 위해 온 국민의 참여를 권유하는 탄소 발자국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탄소 라벨링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지 않을까요?

[9~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작문 상황**: 신문 기사를 읽고 친구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 글을 써 보았다.

□ **신문 기사**  
스마트폰은 누구나 사용하는 필수품이 되었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게임이나 SNS 기능만 편중되게 사용하고, 사용 시간 또한 조절하지 못해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 **학생의 글**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자.**

요즘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친한 친구는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의 여러 재미있는 기능들에 푹 빠져 있다 보면 공부를 해야 할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부모님들은 스마트폰이 성적을 떨어뜨리는 ㉠ 주역이라고 여기시고 우리들의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신다.

㉡ 그리고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나쁜 친구일 뿐일까? 사실 우리가 ㉢ 스마트폰을 적당히 사용하고 스마트폰을 목적에 맞게 쓴다면 스마트폰은 유용한 도구임이 분명하다.

스마트폰의 인터넷 접속 기능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으며,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동영상 강의를 시청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이 학습하는 데 ㉣ 쓰여진다면 우리의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일정을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잘 활용한다면 스마트폰 중독도 막고, 학습 시간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도 하루에 한 시간은 가족과 대화를 하며 가족 간의 유대감을 회복해야 한다.

‘좋은 약이라도 잘 쓰면 약이 되고 잘못 쓰면 독이 된다.’라는 말처럼 우리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스마트폰이 독이 되지 않도록 올바르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9. 학생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활용한 주요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다.
- ②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한다.
- ③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의 개념을 정의한다.
- ④ 시간적 순서에 따라 내용을 조직하여 과정을 드러낸다.
- ⑤ 독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한다.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단어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주범’으로 바꾼다.
- ② ㉡은 앞 문단과의 의미 관계를 고려하여 ‘그렇다면’으로 바꾼다.
- ③ ㉢은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적당히 사용하고 목적에 맞게 쓴다면’으로 고친다.
- ④ ㉣은 피동 표현이 잘못 사용되었으므로 ‘쓰여진다면’으로 고친다.
- ⑤ ㉤은 글의 흐름과 어긋나는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11. 다음 탐구 과정에서 ㉠에 들어갈 사례로 적절한 것은?

의문	‘자리를 바꿔(○) 앉았다.’와 ‘잔금을 치뤄(×) 두었다.’에서 ‘바꿔’와 달리 ‘치뤄’의 표기가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	
탐구	(1) 각 단어의 기본형을 찾아 활용 형태를 분석해 본다. ◦ 바꾸-(다) + -어 → 바꾸어 → 바꿔 ◦ 치르-(다) + -어 → 치러 (2) ‘치러’와 같은 형태로 활용하는 사례를 찾아본다. ㉠
↓	
결과	‘치르다’를 ‘바꾸다’와 같이 어간이 ‘ㄷ’로 끝나는 사례와 혼동하였기 때문이다. ‘치르-’는 어간이 ‘-’로 끝나는 용언이므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가 탈락한다.

- ① 할머니께서 아침에 동생을 깨워 주셨다.
- ② 그는 자물쇠로 책상 서랍을 잠가 놓았다.
- ③ 오늘은 가족과 함께 고기를 구워 먹었다.
- ④ 언니의 얼굴이 오늘따라 몹시 하얗게 보였다.
- ⑤ 오빠가 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 보았다.

12. <보기>는 ‘끝말잇기’ 놀이에서 제시된 단어들이다. 표준발음법을 참고할 때, 단어의 표기대로만 발음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예의 → 의의 → 의무 → 무예 → 예절 → 절의

**표준 발음법**

- ‘ㅈ, ㅊ, ㅋ, ㆁ, ㄷ, ㄱ, ㄴ, ㄹ, ㄷ, ㅌ, ㄷ, ㅌ, ㄷ, ㄱ, ㄴ, ㄹ’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 다만 2. ‘예, 례’ 이외의 ‘ㄷ’는 [ㄷ]로도 발음한다.  
 예 지혜[지혜/지혜]
- 다만 4.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조사 ‘의’는 [ㄷ]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예 주의[주의/주이]

- ① 예의, 의의, 의무
- ② 예의, 무예, 절의
- ③ 의무, 무예, 예절
- ④ 의의, 의무, 무예
- ⑤ 무예, 예절, 절의

13. 다음 문장을 바르게 고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제는 비와 바람이 많이 불었다.  
→ 어제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많이 불었다.
- ② 너는 반드시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된다.  
→ 너는 절대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된다.
- ③ 전체가 모여 회의를 갖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전체가 모여 회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④ 문제는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이 다른 곳으로 이동되었다.  
→ 문제는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 ⑤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 모든 사회악을 뿌리 뽑아 근절해야 한다.  
→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 모든 사회악을 근절해야 한다.

14. <보기>의 예문을 통해 문장의 의미 관계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ㄱ. 나는 그를 안다.  
 ㄴ. 너는 고민할 필요 있다.  
 ㄷ. 방 안에 있다.  
 ㄹ. 늑대가 양을 물었다.  
 ㅁ. 그는 옳은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선다.

- ① ㄱ: 반의어를 사용한 반의 관계 문장으로 ‘나는 그를 모른다’를 쓴다.
- ② ㄴ: 부정 표현을 사용한 반의 관계 문장으로 ‘너는 고민할 필요 있지 않다’를 쓴다.
- ③ ㄷ: 반의 관계에 있는 문장으로 만들면, ‘방 안에 없다’ 외에 ‘방 밖에 있다’도 가능하다.
- ④ ㄹ: 피동 표현을 통해 유의 관계에 있는 문장을 만들면, ‘양이 늑대에게 물렸다’가 된다.
- ⑤ ㅁ: 관용적 표현을 통해 유의 관계에 있는 문장을 만들면, ‘그는 옳은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선다’가 된다.

15. <보기>의 ㉠~㉤에 나타난 심리적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어미를 사용하여 추정, 감탄, 단정, 확인, 의지, 전달 등의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드러낼 수 있다.

영희: 너 오늘 산에 간다고 했잖아. 오늘 간 거 ㉠ 맞지?  
 철수: 아니, 못 갔어. 내일은 꼭 가고 ㉡ 말했어.  
 영희: 그럼 너희 형은?  
 철수: 아마 ㉢ 갔을걸. 아까 엄마 말씀이 ㉣ 갔다더라고.  
 영희: 우와. 너희 형은 정말로 ㉤ 대단하구나.

- ① ㉠: 확인                      ② ㉡: 의지                      ③ ㉢: 추정
- ④ ㉣: 단정                      ⑤ ㉤: 감탄

16. <보기>를 읽고 중세 국어의 의문문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의문문에는 청자에게 가부(可否)를 묻는 판정 의문문과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이 있다. 중세 국어의 경우, 판정 의문문에는 ‘-가’, ‘-녀’ 등의 어미가 쓰이고, 설명 의문문에는 ‘-고’, ‘-뇨’ 등의 어미가 쓰인다. 주어가 2인칭인 경우에는 ‘-나다’의 특수한 의문형 어미가 쓰인다.

ㄱ. 이 썩리 너희 종가 (이 딸이 너희들의 종이나?)  
 ㄴ. 이제 엇더혼고 (이제 어떠하냐?)  
 ㄷ. 네 모르던다 (너는 모르느냐?)  
 ㄹ. 네 엇데 안다 (너는 어떻게 아느냐?)

- ① ‘ㄱ’의 ‘이’ 대신 ‘엇던’이 쓰이면, ‘종가’를 ‘종고’로 바꿔야겠군.
- ② ‘ㄴ’의 ‘엇더’ 대신 ‘평안’이 쓰이면, ‘혼고’를 ‘혼가’로 바꿔야겠군.
- ③ ‘ㄴ’과 ‘ㄹ’은 청자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이군.
- ④ ‘ㄷ’의 ‘너’ 대신 3인칭인 ‘그’가 쓰이면, ‘모르던다’를 ‘모르던고’로 바꿔야겠군.
- ⑤ ‘ㄷ’과 ‘ㄹ’을 보니, 주어가 2인칭인 경우의 의문형 어미는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에 따른 구분이 없군.

[17~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책을 읽을 때는 모름지기 의심이 있어야 하니, 의심이 있어야 학문이 진보할 수 있는 법입니다. 주자(朱子)는 ‘책을 읽으면서 크게 의심하면 크게 진보한다.’라고 하였고, 또 ‘처음 읽을 때는 의심이 없다가 그 다음에는 점차 의심이 생기고 중도에는 구절 구절 의심이 생긴다. 이런 과정을 한 차례 거친 뒤에는 의심이 점차 풀려서 두루 꿰어 통하게 되니, 이러해야 비로소 학문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이것이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한 일대 단안(斷案)\*이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대저 성현의 말씀은 모두 평이(平易)하면서도 명백하니, 너무 천착\*해서 별다른 뜻을 찾다가 스스로 혼란 속에 얽혀 들어서는 안 됩니다. 퇴계 선생(退溪先生)은 ‘책을 읽을 때는 별다른 뜻을 깊이 찾을 필요가 없고, 본문에서 현재 있는 뜻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적당(的當)하고 쉬우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문에는 진실로 두 가지 뜻이 있을 수 있는데 후세 사람들은 해석할 때 반드시 자기 생각으로 헤아려 보고서 가장 근사한 것을 취합니다. 지금 그대가 책을 읽을 때 경전의 뜻과 견해가 다른 것이 있거든 그 견해가 다른 곳에 나아가서 어느 쪽이 더 나은지 헤아려 보고 그 대목을 가만히 읊조리며 생각해 보면 절로 변별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사사로운 선입견을 가슴 속에 걸어두고서 도리어 선유(先儒)\*의 학설을 가지고서 자기 견해에 맞추려 한다면 이는 매우 옳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려거든 자기 생각대로 글을 쓸 것이지 무엇하러 애써 옛 성현의 책을 읽습니까.

— 안정복, 「권철신의 별지에 답함」 —

\* 단안: 어떤 사항에 대한 생각을 딱 잘라 결정함. 또는 그렇게 결정된 생각.

\* 천착: 어떤 원인이나 내용 따위를 따지고 파고들어 알려고 하거나 연구함.

\* 선유: 옛 선비. 또는 선대(先代)의 유학자.

17.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독서의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독서 능력에 맞게 독서 분량을 조절하며 읽는다.
- ② 책을 읽어 가는 과정에서 의문을 품으며 읽는다.
- ③ 다양한 참고 도서를 찾아 비교하며 읽는다.
- ④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며 읽는다.
- ⑤ 글의 내용을 요약하며 읽는다.

18. 윗글의 글쓴이가 <보기>의 ‘나’에게 할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나는 연암 박지원의 기행문인 『열하일기(熱河日記)』 중, 「일야구도하기(一夜九渡河記)」를 읽었어. 이 글은 필자가 강을 아홉 번 건넌 경험을 통해, 사물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눈과 귀로 지각한 외물(外物)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서술하고 있어. 필자는 강물을 건너지는 데 눈과 귀가 방해가 된다고 하였지만, 나는 오히려 강을 건널 때 눈과 귀뿐만 아니라 모든 감각기관을 활용해야 안전하게 강을 건널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 ① 책을 읽을 때에는 책에 담겨 있는 본래의 뜻을 헤아리며 읽어야 한다.
- ② 글의 전개 방식과 구조가 내용을 전달하는 데 적절한지 판단하며 읽어야 한다.
- ③ 독자는 필자의 생각을 다른 관점으로 바꾸어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며 읽어야 한다.
- ④ 글의 내용이나 필자의 생각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며 읽어야 한다.
- ⑤ 글의 종류를 고려할 때, 견문과 감상을 구분하여 여정에 따른 견문에 주목하여 읽어야 한다.

[19~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양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영혼·정신·의식·마음 등으로 인간을 이해하고자 했다. 몸을 중속적이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 이와 달리 몸을 중심으로 인간의 존재를 규명하고자 한 학자들이 있었는데, 푸코와 ㉠ 메를로퐁티가 그들이다.

우리는 지하철에서 사람을 볼 때 사람이 앉아 있는 자세만 보아도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자세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푸코는 구성주의 이론을 대표하는 학자로 우리의 몸이 어떻게 규율화되는지를 ㉡ ‘몸-권력’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푸코는 인간의 몸이 정치·사회적 권력에서 요구하는 행동 양식을 따르게 된다고 보았다. 푸코에 따르면 학교, 군대 등의 근대적인 정치·사회 조직이 통제된 일람표를 사람들에게 제시하여, 반복적인 훈육을 통해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체화시킨다. 개인들은 모두 어떤 식으로든 규정된 행동 양식을 따르게 되고, 이러한 규제는 몸에 각인되며 몸을 통해 실현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지하철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자세 차이도 이러한 정치·사회적 권력의 요구가 하나의 행동 양식으로 체화된 결과인 것이다.

그러나 푸코는 우리의 몸이 어째서 규율을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는 말해 주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학자는 메를로퐁티이다. 그는 ㉢ ‘몸-주체’의 개념을 제시하여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했다. 메를로퐁티는 몸과 정신은 분리하여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이라는 관점에서 ‘세계에의 존재’로서의 우리는 세계에서 의도를 가지고 세계와 관계 맺으며 살고 있는 몸이라고 보았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인 세계에서 삶을 전개하기 위해 습관을 형성하고 그것들로 인하여 능숙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습관을 유기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행위, 즉 실존적 행위로 본 그는 인간의 습관은 사회성 및 역사성을 띤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인간이 ‘세계에의 존재’라고 말할 때, 이 세계는 우리의 물리적 환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문화까지 포함하는 세계, 인간적인 세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 존재는 세계에서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주체로 그 세계와 적극적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의미를 생산해 낸다고 보았다.

몸을 행위의 주체로 파악하여, 행위의 사회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푸코와 메를로퐁티의 입장은 서로 통하지만 몇 가지 차이를 보인다. 우선 푸코는 정치·사회적 권력에 입각하여 몸과 행위를 이해하는 데 비해, 메를로퐁티는 실존성에 입각하여 몸과 행위를 이해한다. 둘째, 푸코는 몸의 불안정성과 변화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데 반해, 메를로퐁티는 몸-주체가 습관으로부터 안정성을 끌어낸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푸코에 의하면 인간에게 안정적인 것은 없으며 규율이 변화하는 시기에 인간의 몸은, 몸을 파헤치고 분해하며 재조립하는 권력 장치 속으로 들어가게 됨으로써 변화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 메를로퐁티는 인간의 몸은 행위를 통해 세계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행위가 습관화되면서 안정성을 얻는다고 보았다.

19. 윗글의 집필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일반화된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 ②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두 학자의 견해를 소개하기 위해
- ③ 새로운 이론이 사회적 합의에 의해 성립된 것을 증명하기 위해
- ④ 상식적인 개념을 제시한 후 그것과 대립되는 현상을 보여주기 위해
- ⑤ 어떤 학자가 주장한 이론을 소개하고 그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

20.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세계를 긍정적으로, ㉡은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 ② ㉠은 외부와 몸의 관계를 우연적인 것으로, ㉡은 필연적인 것으로 본다.
- ③ ㉠은 세계에 반응하는 주체의 의도에, ㉡은 세계에 의해 변화된 결과에 주목한다.
- ④ ㉠은 인간을 이상을 추구하는 존재로, ㉡은 인간을 현실에 순응하는 존재로 보는 관점이다.
- ⑤ ㉠은 규제에 의해 몸이 규율화되는 과정에, ㉡은 세계와 상호작용하면서 의미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 주목한다.

2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고등학생 A군이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타셨다. A군은 학교에서 배운 경로효친 사상이 생각나서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했다.
- 국제면허증이 있는 회사원 B씨는 지난 달 일본으로 출장을 가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날 뻔하였다. 일본의 차량 진행 방향이 한국과 반대라는 것을 잊고 무의식적으로 상대방 차선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 ① ‘푸코’는 A군이 자리를 양보한 것을 세계에 주체적으로 참여한 행동이라 보겠군.
- ② ‘푸코’는 B씨가 사고 낼 뻔한 것을 몸이 세계와 관계 맺으려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겠군.
- ③ ‘메를로퐁티’는 A군의 행동에 대해 정치적 의도와 관련 있는 행동이라 여기겠군.
- ④ ‘메를로퐁티’는 A군의 행동 이유를 몸에 각인된 규제가 몸을 통해 실현되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겠군.
- ⑤ ‘메를로퐁티’는 B씨가 사고 낼 뻔한 것을 기존에 형성했던 습관이 달라진 환경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겠군.

22. ㉢의 입장에서 <보기>를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인간의 신체와 정신은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체는 정신이 자신을 드러낼 때에만 그 의미를 가질 뿐이다. 이런 점에서 신체는 단지 정신을 담을 수 있는 그릇에 불과하다.

- ① 인간 존재를 정신과 신체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을까?
- ② 인간 존재에 대한 탐구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 아닐까?
- ③ 우리가 가져야 할 철학적인 관심은 몸을 초월한 의식 세계이어야 하지 않을까?
- ④ 정신은 신체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닐까?
- ⑤ 신체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정신을 신체가 담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아닐까?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파레토는 한쪽의 이익이 다른 쪽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모두의 상황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적어도 한 사람의 상황이 나아져 만족도가 커진 상황을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파레토는 경제적 효용을 따져 최선의 상황을 모색하는 이론을 만들었고, 그 중심에는 ‘파레토 개선’, ‘파레토 최적’이라는 개념이 있다.

같은 시간당 500원, 을은 1,000원을 받는 상황 A와, 같은 시간당 750원, 을은 1,000원을 받는 상황 B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파레토에 의하면 상황 B가 을에게는 손해가 되지 않으면서 갑이 250원을 더 받을 수 있기에 상황 A보다 우월하다. 즉 상황 A에서 상황 B로 바뀌었을 때 아무도 나빠지지 않고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은 좋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때, 상황 A에서 상황 B로의 전환을 파레토 개선이라고 하고,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상황을 파레토 최적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파레토 최적은 서로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선택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한계 또한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시간당 500원을 받고 을이 시간당 1,000원을 받는 상황에서 갑과 을 모두의 임금이 인상되면 이는 파레토 개선이다. 그러나 만약 갑은 100원이 인상되고 을은 10원이 인상되는 상황과 갑은 10원 인상되고 을이 100원 인상되는 상황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파레토 이론은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파레토 최적은 자유 시장에서 유용한 경제학 개념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특정한 한쪽의 이익이 다른 쪽의 손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위와 같이 같은 시간당 500원, 을은 1,000원을 받는 상황 A에서 같은 시간당 750원, 을은 1,000원을 받는 상황 B로의 전환에 대해 협의한다고 가정하자. 을은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익도 없고 만족도도 별로 나아지지 않는 상황 전환에 대해 별로 마음 내켜 하지 않을 것이나 갑은 250원이나 더 받을 수 있으므로 상황의 전환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갑이 을에게 자신이 더 받는 250원 중에서 100원을 주기로 제안한다면 을은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상황 B로 전환하는 데 동의할 것이다. 이와 같이 파레토 최적은 (                    ㉠                    )을/를 설명했다는 점에서 가치 있게 평가받고 있다.

2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파레토 최적의 개념과 특성을 밝히고 있다.
- ② 파레토 이론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③ 파레토 이론의 한계와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 ④ 파레토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 ⑤ 파레토 최적의 상황을 파레토 개선과 관련지어 밝히고 있다.

24. 윗글을 통해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영희는 사과 6개, 철수는 배 6개를 갖고 있다. 철수는 사과에서 얻는 만족도가 배에서 얻는 만족도의 2배이고, 영희는 사과와 배에서 얻는 만족도가 동일하며 영희와 철수 모두 서로의 만족도를 잘 알고 있다.

이 상황에서 ㉠ 철수는 자신의 배 6개를 영희의 사과 6개와 교환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영희는 이에 반대하고, ㉡ 자신의 사과 중 3개를 철수의 배 6개와 교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철수가 반대하여, 영희는 마지막으로 ㉢ 자신의 사과 가운데 4개를 철수의 배 6개와 교환하자고 제안했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제안을 철수가 수용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최초의 상황		㉠		㉡		㉢	
	사과	배	사과	배	사과	배	사과	배
영희	6개	0개	0개	6개	3개	6개	2개	6개
철수	0개	6개	6개	0개	3개	0개	4개	0개

- ① ㉠에 대해 영희가 반대한 이유는 철수의 만족도는 최초에 비해 2배로 증가하지만, 영희의 만족도는 최초와 같기 때문이다.
- ② ㉡에 대해 철수가 반대한 이유는 영희의 만족도는 최초에 비해 1.5배 증가하지만, 철수의 만족도는 최초와 같기 때문이다.
- ③ ㉢에 대해 서로 합의한 이유는 영희와 철수의 만족도 모두 최초에 비해 증가하였고, 결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 ④ 최초의 상황이 ㉠나 ㉡로 바뀌어도 모두 파레토 개선으로 볼 수 있다.
- ⑤ ㉠~㉢ 중 영희가 얻을 수 있는 만족도는 ㉢에서 가장 크며, 철수 역시 그러하기에 ㉢를 파레토 최적으로 볼 수 있다.

25.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선택의 기회가 많을수록 이익은 줄어드는 경우
- ② 경제 주체 간의 타협보다는 경쟁이 중요한 이유
- ③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상품 가격이 결정되는 상황
- ④ 합리적인 투자를 위해 이기적인 태도가 필요한 이유
- ⑤ 모두에게 손해가 되지 않으면서 효용을 증가시키는 상황



[26~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장마철이 되면 자주 ‘번쩍’ 하는 번개와 함께 ‘우르릉 쿵’ 하는 천둥소리가 울려 퍼지는 자연 현상을 볼 수 있다. 번개는 대기 중에서 대규모 전류가 흐르는 현상으로 구름과 지면 사이에서 방전이 일어나는 벼락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번개와 천둥은 어떻게 해서 생길까?

벼락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적란운, 그리고 수증기의 증발이 필요하다. 온난 습윤한 대기가 지표면의 불균등한 가열로 인해 강한 상승기류로 발달하면 적란운이 형성된다. 동시에 공기 중에 있는 물이 수증기로 증발하게 된다. 수증기는 상승하면서 냉각되어 작은 물방울로 변하고, 열기 시작하면서 팽창하여 양전하를 띤 바깥 껍질이 깨져 흩어지게 된다. 양전하를 띤 상대적으로 가벼운 얼음 조각은 상승 기류에 의해 구름 위로 더 상승하고, 음전하를 띤 내부의 상대적으로 무거운 물방울은 무게로 인해 적란운 하단부로 내려오게 된다. 한편 지표면의 전하는 고른 분포를 이루고 있는데, 적란운이 발달하면서 하단부에 모인 음전하를 띤 물방울로 인해 지표면의 전하가 밀려나면서 상대적으로 양전하의 양이 증가하게 된다. 적란운이 발달하게 되면 지표면과의 전위\*차가 점점 증가하게 되고 둘 사이에 섬광이 발생한다. 이것이 벼락이다.

한편 번개가 발생하면 공기는 즉시 과열된다.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온도가 무려 33,000℃로 상승하여 고온이 된 공기가 팽창한다. 그러면 주변의 공기가 압축되어, 고밀도인 부분과 저밀도인 부분이 생긴다. 이 차이가 ‘충격파’라는 파동이 되어 공기 속에서 전해진다. 즉 공기가 단기간에 데워지면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음파로 듣게 되는 천둥이 된다. 번개는 바로 보이지만 음파인 천둥소리는 번개보다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려 약 340%의 속도로 공기 속을 이동하므로 나중에 들린다. 번개와 천둥은 거의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번개 발생 이후 천둥소리가 들리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면 번개가 어느 정도 먼 곳에서 발생하였는지 알 수 있다. 만약, 번개가 친 후 5초 뒤에 천둥소리가 들렸다면 번개가 친 곳은 약 1,700m 떨어진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다.

\* 전위: 전기장 내에서 단위 전하가 갖는 위치 에너지. 특히 전기장 내의 두 점 사이의 전위의 차이를 전위차 또는 전압(Volt)이라고 한다.

26.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번개가 발생하면 충격파가 생긴다.
- ② 번개보다 천둥이 더 먼 곳에서 발생한다.
- ③ 소리와 빛의 속도 차이로 천둥소리가 크게 들린다.
- ④ 벼락은 습한 공기와 지표면의 균등 가열에 의해 발생한다.
- ⑤ 지표면의 양전하의 양이 증가하게 되면 적란운이 발생한다.

27. <보기>는 번개를 발생시키기 위한 모의 실험이다. <보기>를 [A]와 관련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① 벨트가 작동하기 전, 두 금속구는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이다. 벨트가 작동하면 벨트 하단에서 마찰 전기가 발생하여 큰 구에서 이동해 온 중성의 전하는 양전하와 전자로 분리된다.

↓

② 벨트를 따라 양전하는 큰 구 쪽으로 이동하고, 전자는 도선을 따라 작은 구 쪽으로 이동한다.

↓

③ 벨트가 반복하여 작동하면서 큰 구에는 양전하가 늘어나 (+)극으로, 작은 구에는 전자가 늘어나 (-)극으로 유도된다.

↓

④ 두 금속구 사이에 전위차가 점점 증가하여 ㉤ 둘 사이에 스파크가 일어나게 된다.

- ① ㉠에서 두 구가 중성의 전하를 띠는 것은 적란운이 발달하기 전의 상황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은 공기 중의 물이 수증기로 증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은 적란운이 발달하면서 적란운 하단과 지표면이 서로 다른 전하로 유도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은 적란운 하단과 지표면 사이에 전위차가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은 적란운과 지표면 사이에서 벼락이 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영화 촬영 시 카메라가 찍기 시작하면서 멈출 때까지의 연속된 촬영을 ‘쇼트(shot)’라 하고, 이러한 쇼트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연극의 ‘장(場)’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씬(scene)’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러 개의 씬이 연결되어 영화의 전체 흐름 속에서 비교적 독립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을 ‘시퀀스(sequence)’라 일컫는다.

시퀀스는 씬을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에피소드 시퀀스’와 ‘병행 시퀀스’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에피소드 시퀀스는 짧은 장면을 연결하여 긴 시간의 흐름을 간단하게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특정 인물의 삶을 다룬 영화의 경우, 주인공의 생애를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특징적인 짧은 장면을 연결하여 인물의 삶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병행 시퀀스는 같은 시간, 다른 공간에서 일어나는 둘 이상의 별개 사건이 교대로 전개되는 것을 말한다. 범인을 추격하는 영화의 경우, 서로 다른 공간에서 쫓고 쫓기는 형사와 범인의 영상을 교차로 제시하는 방식이 좋은 예이다. 이 방법은 극적 긴장감을 조성할 수 있으며, 시간을 나타내는 특별한 표지가 없더라도 두 개의 사건에 동시성을 부여하여 시각적으로 통일된 단위로 묶을 수 있다.

시퀀스 연결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이다. 원래 이미지가 점점 희미해지면서 다른 이미지로 연결되는 디졸브 등의 기법을 사용하면 관객들은 하나의 시퀀스가 끝나고 다음 시퀀스가 시작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이러한 ㉠ 자연스러운 시퀀스 연결은 관객들이 사건의 전개 과정을 쉽게 파악하고, 다음에 이어질 장면을 예상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와 달리 시퀀스의 마지막 부분에 시공간이 완전히 다른 이미지를 연결하여 급작스럽게 시퀀스를 전환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 부자연스러운 시퀀스 연결은 관객들에게 낯선 느낌을 주고 의아함을 불러일으켜 시퀀스 연결 속에 숨은 의도나 구조를 생각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각 시퀀스의 길이가 길어 시퀀스의 수가 적은 영화들은 느린 템포로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서사적 이야기 구조를 안정되게 제시하는 데 적합하다. 반면 길이가 매우 짧은 시퀀스를 사용한 영화는 빠른 템포로 사건이 전개되므로 극적 긴장감을 조성할 수 있으며, 특정 이미지를 강조하거나 인물의 심리 상태 등도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밖에도 서사의 줄거리를 분명하고 세밀하게 전달하기 위해 각 시퀀스에서 의미를 완결지어 관객으로 하여금 작은 단위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시퀀스 전체의 연결 관계를 통해서 영화의 서사 구조를 파악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영화에 사용된 시퀀스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은 영화의 서사 구조와 감독의 개성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28. 윗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시퀀스의 연결 방법과 효과
- ② 시퀀스의 길이에 따른 특징
- ③ 영화의 시퀀스를 구성하는 요소와 개념
- ④ 영화의 발전 과정과 시퀀스의 상관관계
- ⑤ 씬을 제시하는 방법에 따른 시퀀스의 종류

29. 윗글을 바탕으로 다음 시나리오를 분석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S# 5 서영의 자취방 앞(밤) 현우의 청혼을 받아들이기 위해 집을 나서는 서영. 현관 문을 잠그기 위해 열쇠를 꺼낸다. 그때 주머니에서 현우가 준 반지가 떨어진다.
B	S# 6 길가, 편의점 앞(밤) 같은 시각 편의점 앞. 승용차가 멈추고 서영을 만나기 위해 현우가 내린 후, 서영의 집이 있는 골목길로 들어선다.
C	S# 7 서영의 자취방 앞(밤) 반지가 떨어진 것을 모르는 서영. 행복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본다. 잠시 후 문을 잠그고 집을 나선다.
D	S# 8 서영의 자취방 앞(밤) 서영의 자취방 문 앞에서 바닥에 떨어진 반지를 발견한 현우. 슬픈 표정으로 전화기를 꺼내 문자를 보낸다. 대답 잘 들었어요. 잘 지내요. 전화기의 전원을 끈다. (디졸브)
E	S# 9 사무실 안(낮) (자막) ‘2년 후’ 활기찬 분위기의 사무실. 사람들이 모여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있다. 이들과 동떨어져 홀로 컴퓨터를 바라보며 서류를 정리하는 서영.
F	S# 10 사무실 안(밤) (자막) ‘한 달 후’ 퇴근하는 사무실 사람들. 혼자 남은 서영. 여전히 자신의 컴퓨터를 바라보며 서류를 정리하고 있다.

- ① A와 B는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교대로 제시하여 시각적으로 통일된 단위로 묶고 있다.
- ② A부터 D까지는 ‘서영’이 ‘현우’와 헤어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시퀀스로 볼 수 있다.
- ③ E에 사용된 자막은 A와 C의 사건에 동시성을 부여하는 시간 표지에 해당한다.
- ④ D에서 E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점에서, E는 새로운 시퀀스의 시작에 해당한다.
- ⑤ E와 F의 연결은 시간의 흐름을 짧은 장면으로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다.

30.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사건의 인과 관계를 분명하게 제시할 때 사용할 수 있겠군.
- ② ㉠과 ㉡은 모두 드러내고자 하는 서사적 의미를 명확하게 완결 지을 수 있는 방법이겠군.
- ③ ㉠은 ㉡에 비해 관객에게 친숙한 내용을 낯설게 전하기에 적합한 방법이겠군.
- ④ ㉡은 ㉠과 달리 디졸브와 같은 다양한 편집 기법을 활용하겠군.
- ⑤ ㉡은 ㉠에 비해 영화를 이해하기 위한 관객의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겠군.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명나라 때, 전 승상의 아들로 태어난 장국진은 달마국의 침입으로 어려서 부모와 이별하고 죽을 고비를 넘긴다. 그 후 여학도사의 가르침을 받고 장원급제하여 계양(이 부인)과 혼인한다. 달마왕이 재차 명나라를 침입하자 국진이 이를 막기 위해 나섰으나 병이 들어 위기에 처한다. 이때 이 부인이 남장을 하고 전장으로 달려가 국진을 돕고 그의 병을 치료한다.

백운도사와 오금도사는 국진의 회복으로 명나라 진영에 새로운 변화가 왔음을 능히 알 수 있더라. 두 도사는 병세로 인해 진문을 굳게 닫고 있던 국진이 회복하여 싸우러 나오리라는 것을 벌써부터 훤히 알고 있었더라.

도사들은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도 이 부인의 정체를 알아보는 못하는 듯하더라. 그러나 그들의 포위를 헤치고 나가는 용감한 태도로 보아 천하의 명장이요, 혹시나 여학도사가 보낸 장군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더라. 더구나 이 알 수 없는 장군이 명나라 진에 들어가 국진의 병을 고쳐 주었으니, 그 재주의 비범함은 틀림없다고 짐작하더라. 이에 도사들은 진세를 바꾸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주장하더라.

이렇게 하여, 달마왕과 천원왕은 포위진을 뜯어 자기의 군사를 원래의 진영으로 다시 정리하더라. 이런 다음 천원왕은 예의 용천금을 휘두르며 적진으로 호통을 치면서 달려 나가더라. 이에 국진과 이 부인은 서로 나가겠다고 한동안 승강이를 벌였으나, 국진은 이 새로운 사촌 처남의 열의에 어쩔 도리 없이 양보하더라.

이 부인은 천원왕과 마주 싸우니, 보이지 않는 선녀들이 비호한 이 부인의 대담무쌍한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격찬을 불러 일으키게 할 정도라. 그것을 보고 누가 이 부인을 감히 여자라고 말할 것인가. 따라서 국진이 이 부인을 자기의 처남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한 귀결이라.

이 부인은 천원왕과 같은 천하 명장을 고양이 귀를 잡듯하니, 이를 보는 국진으로서는 그 통쾌한 솜씨에 자신도 모르게 탄복할 따름이더라.

이러한 놀라움과 찬탄은 적진에서도 마찬가지라. 백운도사와 오금도사는 흥분해서 바라보고 있을 정도였고, 그중에서도 오금도사는 천원왕의 위협을 간파하고는 재빨리 징을 쳐 그를 돌아오게끔 하더라.

땀을 흘리며 지쳐 돌아온 천원왕은 자기의 피로도 잊은 채 적장을 칭찬하기에 정신이 없더라. 그의 말에 따르면, 이 부인은 국진보다 몇 배나 더한 신출귀몰(神出鬼沒)한 명장이더라.

날은 캄캄하여, 이튿날 동이 트기도 전에 천원왕은 어제의 분패를 씻으려 나서자, 달마왕이 그를 밀어내고 앞질러 적진으로 나아가더라. 이에 이 부인이 그들 앞으로 나서니, 달마왕이 이 부인을 막아 격전을 벌이더라.

서로의 싸움은 한동안 승패 없이 이어진 듯도 하니 좋은 적수를 만난 것 같기도 하더라.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국진과의 싸움에서처럼 달마왕은 말에서 떨어져 하마터면 이 부인의 비린도에 맞아 머리통이 부서질 뻔하더라. 이것을 본 천원왕이 서둘러 구출하여 제 진으로 돌아가더라.

그런 후, 격분한 천원왕은 급히 말을 몰아 이 부인과 싸우더라. 얼마간 싸웠을 때, 천원왕의 용천금이 허공에서 번쩍하고 불이 나는 듯하더니, 그는 온힘을 다하여 용천금을 내리치더라. 이

때문에 이 부인의 비린도가 반 가량 부서지더라.

이 유일한 무기를 잃었으니 이 부인은 이제 어찌할 것인가? 그러나 이 부인의 비범한 재주는 이를 뛰어넘고도 남을 만하더라. 이 부인은 남은 비린도를 어루만지며 입 속으로 주문(呪文)을 외우자 비린도가 칠척 장검으로 변하는 것이 아닌가. 이에 천원왕은 싸울 기력을 잃고 말았으니, 적장의 비범한 재주에 놀라 하염없이 무릎을 꿇고 빌고 싶을 정도더라.

장대에서 이것을 지켜보던 오금도사와 백운도사가 각각 최후의 그들의 유일한 무기인 물병과 화전을 손에 내어 들더라. 백운도사가 필사의 힘을 다하여 먼저 적장을 향해 화전을 흔드니, 화전이 대번에 불로 화하며 이 부인을 감싸더라. 이를 보는 백운도사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가득하더라.

다음 순간, 놀랄 만한 일이 그들 앞에 일어나더라. 이 부인은 불에 싸이자 선녀를 명하여 폭포수를 내려 이 불을 끄라고 하달(下達)하니, 두 선녀는 허공에 솟아올라 폭포수를 쏟아 내더라. 이에 불도, 화전도 쓰일 바 없으며 폭포수에 간 곳조차 없더라. 이를 본 오금도사가 이 때라고 생각하고 물병을 기울더라. 그 결과 순식간에 홍수가 되어 명나라 진영으로 그 물은 흘러가니, 황하의 홍수도 이토록 거창하다면 우임금의 구년치수(九年治水)\*를 애초부터 단념시켰을지 모를 일이라.

이 부인은 다시 선녀를 불러 이 물을 적진으로 돌리라고 명하니 두 선녀는 순식간에 그것을 바다로 만들어 적진으로 향하게 하니, 달마국의 백만 군사와 천원국의 이백만 군사는 삼시간에 형체조차 찾을 길 없이 바닷물에 쓸려 가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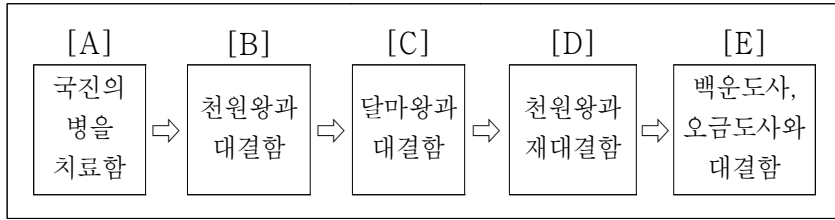
이에 국진은 천원왕을 뒤쫓고, 이 부인은 달마왕을 뒤쫓아 달려가더라. 백운도사와 오금도사를 비롯하여 술한 도사들은 제각기 술법을 다해 이들을 막으며, 두 왕을 멀리 화룡산으로 보호해 피하더라. 이로써 그들은 ㉠ 전쟁을 포기할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더라.

- 작자 미상, 「장국진전」 -

\* 구년치수(九年治水): 9년 동안 홍수를 다스림.

3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을 회화화하고 있다.
  - ② 꿈을 삽입하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③ 서술자를 교체하여 사건의 인과 관계를 밝히고 있다.
  - ④ 사건의 빠른 전개를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장면에 대한 과장된 서술을 통해 비극성을 강화하고 있다.

32. 다음은 ‘이 부인’을 중심으로 윗글의 사건을 정리한 것이다.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는 ‘달마왕’과 ‘천원왕’이 진세를 바꾸는 계기가 된다.
- ② [B]와 [C]를 통해 ‘이 부인’이 전쟁을 하는 명분이 드러난다.
- ③ [B], [C]와 달리 [D]에서는 ‘이 부인’의 일시적인 위기가 나타난다.
- ④ [B]~[D]의 결과로 [E]에서 ‘백운도사’와 ‘오금도사’가 최후의 방책을 사용한다.
- ⑤ [B], [E]에서 ‘이 부인’이 승리하는 것은 초월적 존재와 관련된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조선 사회는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사회였으며 그로 인해 여성들의 활동은 많이 위축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영웅적 여성의 활약상이 두드러진 소설은 여성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다.

- ① ‘이 부인’이 남장을 하고 남편을 대하는 것을 통해 ‘국진’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 했음을 알 수 있군.
- ② ‘이 부인’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통해 당시의 여성에게 자아실현 기회가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③ ‘국진’이 자신의 아내를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함을 통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지위가 변화했음을 추측할 수 있군.
- ④ ‘이 부인’이 비범한 능력으로 영웅적인 활약을 하는 모습을 통해 당대 여성들은 현실에서 느끼지 못했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겠군.
- ⑤ ‘국진’이 적장과의 싸움에 ‘이 부인’이 나서는 것을 만류하는 행동을 통해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에게 가해졌던 제약을 짐작할 수 있겠군.

34. ㉠의 상황을 나타내기에 적절한 한자성어는?

- ① 속수무책(束手無策)
- ② 방약무인(傍若無人)
- ③ 각골난망(刻骨難忘)
- ④ 수수방관(袖手傍觀)
- ⑤ 연목구어(緣木求魚)

[35~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범수는 아까 눈독 들인 금비녀를 빼어 손바닥에 놓고 출씩거리보며 묻는다.

점원이 그것을 받아 저울에 달고 있는 동안에 범수는 다른 놈을 두어 개 빼어가지고는 어림하는 듯이 양편 손바닥에 올려놓고 출씩거리본다.

이것이 기회인 것이다. 그는 그 기회를 이용하려고 다뺏 긴장이 되어서 점원이

“닷 돈 두 푼쯤입니다.”

하는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아니했다.

점원이 저울질을 하는 잠깐 동안에 손 빠르게 한 개를 요술하듯이 소매 속에든지 어디든지 감추었어야 할 것을 막상 닥뜨리고 보니 범수에게는 그러한 재치도 없고 기술도 없으려니와 또한 담보의 단련도 없다.

첫 시험은 실패를 하고 그 답에는 가락지를 가지고 시험을 해보았다.

그러나 역시 실패를 하고 말았다.

그는 점원의 멸시하는 시선을 뒤통수에 받으면서 금은상을 나와 화신 앞으로 건너왔다. 그는 혼자 속으로 생각했다.

㉠ 보통학교부터 쳐서 대학까지 십육 년이나 공부를 한 것이 조그만한 금비녀 한 개 감쪽같이 숨기는 기술을 배우니만도 못하다고.

그렇다면..... 그렇다면..... 하고 그는 그 뒤를 생각하다가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의 라스폴리니코프가 도끼를 높이 들어 전당쟁이 노파를 내리찍는 장면을 생각하고 오싹 등허리가 추워 눈을 감았다.

그는 허우대가 이만이나 하고 명색이 대학까지 마쳐 소위 교양이 있다는 사람으로 도적질을 하려고 한 자기를 나무라보았다.

㉡ 그러나 그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항거를 한다.

도적질을 하는 것이 왜 나쁘냐고.

이 말에는 자기로서도 자기에게 대답할 말이 나오지 아니한다. 아니, 도적질을 하는 것이 나쁘고 악하고 하다는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더럽다. 치사스럽다.

이 해석이 마침 자기의 비위에 맞았다. 그래 그는 싱그레니 혼자 웃었다. 그러면서 마침내

“뺏기지 않는 놈은 도적질할 권리도 없다.”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중략>

“웬일야?”

범수는 대뜸에 선 채 이렇게 물었으나 아내는 눈물 젖은 눈을 들어 원망스럽게 한 번 치어다보고는 도로 앞드려 울기만 한다.

영주는 폭포같이 말을 쏟뜨려놓고 싶어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다만 남편이 원망스럽고 노여워 울음이 앞을 서는 것이다.

범수는 마루로 피해 나오는 종석이를 흘겨보며

“너 요놈, 또 어머니 말 아니 듣구 싸웠든지 그랬구나?”

하고 나무람 반 물었으나 아이 역시 대답이 없다.

그러자 아내가 고개를 번쩍 쳐들더니 범수를 치올려보며

“무슨 낫으루 자식을 나무래요? 다 에미 애비 죄지.”

하고 악을 쓴다.

“아니, 그건 무슨 소리야?”

“자식을 굶겨노니 안 그럴까?”

“아니 글썸, 왜 그러는 거야. 굶는 게 오늘 처음이요, 또 우리 뿐이게 새삼스럽게 이러나?”  
 “그러니까 자식이 도적질을 해두 괜찮단 말이요?”  
 “도적질?”  
 “그렇다우…… 배가 고파서 두부장수 두부를 훔쳐먹다가 들켰다우. 자, 시언허우.”  
 범수는 피가 한꺼번에 머리로 치밀어올랐다.  
 ㉠ 그는 무어라고 아이를 나무라려다가 문득 자기가 오늘 낮에 겪던 일이 선연히 눈앞에 나타나 그만 두 어깨가 축 처져버렸다.  
 그는 종석이를 흘겨보며  
 ㉡ “흥! 이놈의 자식 승어부(勝於父)\*는 했구나.”  
 하고 두런거렸다. 영주도 남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듣지 못했다.

이튿날 아침 일찍이.  
 영주는 종태만이라도 근처의 사립학교에나마 보낸다고 데리고 나섰다. 종석이까지 데리고 간다고 밤늦게까지 우기며 다투었으나 범수는 듣지 아니하고 정 그러려거든 작은아이 종태나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말하자면 두 사람의 소산을 둘이서 반분한 셈이다.  
 종태를 데리고 나가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범수는 혼자 중얼거렸다.  
 ㉢ “두구 보자. 네 방침이 옳은지 내 방침이 옳은지.”  
 뒤미처 범수는 종석이를 데리고 씨비스 공장으로 최씨를 찾아갔다.

- 채만식, 「명일(明日)」 -

\* 승어부(勝於父): 자식이 아버지보다 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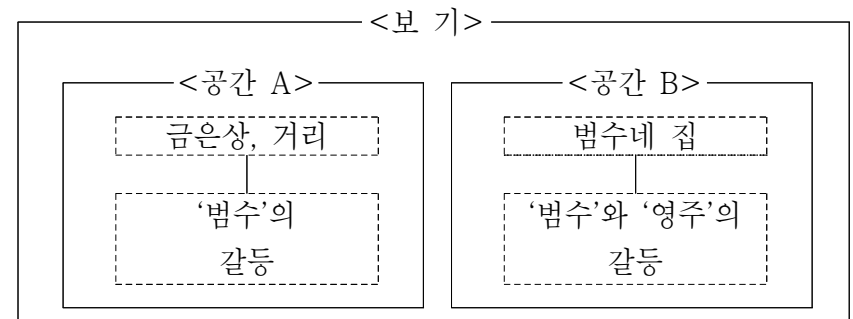
35.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감각적 묘사를 통해 공간적 배경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사건의 속도감을 높이고 있다.
  - ③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④ 친근감을 주는 말투를 통해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 ⑤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사건을 서술하여 그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36~37]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채만식의 「명일(明日)」은 일본 유학까지 다녀왔지만 취업도 하지 못한 채 급기야 도적질까지 하려고 하는 주인공을 통해 식민지 현실을 살아가는 지식인 계층의 무기력한 삶을 풍자하고 있다.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아내와 달리 주인공 ‘범수’가 아들을 공장에 보내려는 것은, 식민지 시대에서의 교육의 무가치함에 대한 지식인의 고뇌와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3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지식이 무가치하다는 인물의 생각을 통해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를 엿볼 수 있군.
  - ② ㉡: 도적질이 나쁘지 않다고 합리화하는 인물의 모습에서 식민지 현실의 모순으로 인한 인물의 혼란한 인식을 엿볼 수 있군.
  - ③ ㉢: 아들을 나무라지 못하는 인물의 모습을 통해 식민지 현실을 살아가는 가장의 무기력한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④ ㉡: 도적질을 한 아들이 오히려 아버지보다 낫다는 말을 통해 식민지 지식인의 자조적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⑤ ㉢: 자신의 방침이 옳다고 여기는 인물의 모습을 통해 교육의 무가치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신념을 엿볼 수 있군.

37. <보기>는 윗글에 나타난 공간을 중심으로 갈등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공간 A와 공간 B에서의 갈등은 사회 현실과 관련되어 있다.
- ② 공간 A의 ‘금비녀, 가락지’와 공간 B의 ‘두부’는 갈등을 유발하는 소재이다.
- ③ 공간 A의 갈등이 공간 B의 갈등으로 전환되면서 범수는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다.
- ④ 공간 A에서의 갈등의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 한, 공간 B에서의 갈등이 해소되기는 어렵다.
- ⑤ 공간 A에서의 갈등은 공간 B에서 자식의 교육 문제에 대한 범수의 생각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저 내 일이야 그릴 줄을 모로드냐  
이시라 헛더면 가라마는 제 구티여  
보내고 그리는 정(情)은 나도 몰라 흐노라  
- 황진이 -

(나) 임이별 하울저기 저는 나귀 한치 마소  
가노라 돌쳐 설제 저난 거름 안이런덜  
꽃 아리 눈물 적신 얼굴을 엇지 자세이 보리요  
- 안민영 -

(다) 내게는 원수가 업서 개와 닭이 큰 원수로다  
벽사창 깃픈 밤에 품에 들어 자는 님을 자른 목 느르혀 해  
해 쳐 울어 닐어 가게 하고 적막 중문(重門)에 왔는 님을 물  
으락 나으락 캉캉 즈저 도로 가게 하니  
아마도 유월유두 백종(百種) 전에 스러져 업씨하리라  
- 박문옥 -

38.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정적인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 ② 세속적인 삶과 거리를 두고 있다.
- ③ 임과 함께 있고 싶은 소망을 담고 있다.
- ④ 이별로 인한 삶의 무상감이 나타나고 있다.
- ⑤ 힘든 상황을 낙천적인 자세로 극복하고 있다.

39.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어저 내 일이야 그릴 줄을 모로드냐'는 영탄과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회한을 나타내고 있다.
- ② (가)의 '제 구티여'는 행동의 주체를 중의적으로 표현하여 화자의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의 '보내고 그리는 정(情)'은 화자의 행위와 심리를 대비시켜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의 '저는 나귀 한치 마소'는 다리를 절며 느리게 걷는 '나귀'를 통해 임과 함께 있는 시간을 연장하고 싶은 화자의 심정을 담아내고 있다.
- ⑤ (나)의 '꽃 아리 눈물 적신 얼굴'은 감정이입을 통해 화자의 암담한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40. (다)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행궁견월상심색(行宮見月傷心色)\*의 달만 비쳐도 님의 생각  
춘풍도리화개야(春風桃李花開夜)\*의 꽃만 피여도 님의 생각  
야우문령단장성(夜雨聞鈴斷腸聲)\*의 비 죽죽 와도 님의 생각  
추절(秋節)가고 동절(冬節)이 오면 명사벽해(明沙碧海)를  
바라보고  
뚜루를 낚록 울고 가는 기러기 소리에도 님의 생각  
얏어 생각 누어 생각 생각 끝일 날이 전혀 없어  
모진 간장의 불이 탄들 어느 물로 이 불을 끌거나  
아이고 아이고 내 일이야  
- 작자 미상, 「춘향가」 -

\* 행궁견월상심색: 행궁에서 달을 보니 사뭇 구슬픈 느낌이 들.  
\* 춘풍도리화개야: 복숭아꽃, 오얏꽃이 활짝 핀 봄의 으스스달밤.  
\* 야우문령단장성: 밤비에 울리는 풍경소리가 간장을 도려내는 듯함.

- ① (다)와 <보기>는 독백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군.
- ② (다)와 <보기>는 유사한 구조를 지닌 문장을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군.
- ③ (다)와 달리 <보기>는 계절의 변화에 따른 화자의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군.
- ④ <보기>와 달리 (다)는 상황을 가정하여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군.
- ⑤ <보기>와 달리 (다)의 의성어는 화자에게 원망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군.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  
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指針)을 돌  
 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 나는 향기로운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님의 얼굴  
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걸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부었습  
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 아아,님은 갔지만 나는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

(나) 시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나  
 서른 먹은 사내가 하나 잠을 못 잔다.  
 먼 기적 소리 처마를 스쳐가고  
 잠들은 아내와 어린것의 베갯말에  
 밤눈이 내려 쌓이나 보다.  
**무수한 손에 뺨을 얻어맞으며**  
 향시 곤두박질해 온 생활의 노래  
**지나는 돌팔매에도** 이제는 피곤하다.  
 먹고 산다는 것  
 너는 언제까지 나를 쫓아오느냐.  
**등불을 켜고 일어나** 앉는다.  
 담배를 피워 문다.  
**쓸쓸한 것이 오장을 씻어 내린다.**  
 노신\*이여  
 이런 밤이면 그대가 생각난다.  
 온 세계가 눈물에 젖어 있는 밤  
 상해(上海) 호마로(胡馬路) 어느 뒷골목에서  
 쓸쓸히 앉아 지키던 등불  
 등불이 나에게 속삭거린다.  
 여기 하나의 상심한 사람이 있다.  
 여기 하나의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  
 - 김광균, 「노신」 -

\* 노신(魯迅): 루쉰, 중국의 문학가이자 사상가.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으며 가족 제도의 폐해를 폭로하거나 중국의 의식 개혁을 주장하는 등 사회적 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들을 저술함.

41. (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현실 초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② 부정적 상황이 창작의 계기가 되고 있다.
  - ③ 억압적 현실에 대한 비애가 드러나 있다.
  - ④ 대상에 대한 원망이 표면에 나타나 있다.
  - ⑤ 과거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반성이 나타나 있다.

4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입을 잃은 상실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② ㉡: 대비적 의미를 지닌 시구를 통해 화자의 좌절감을 그려내고 있다.
  - ③ ㉢: 연쇄법을 사용하여 임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 접속어를 사용하여 이별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전환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역설적인 표현 방식을 통해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43.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김광균의 「노신」은 시인으로서 어렵게 살아온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시의 화자는 예술가로서의 신념을 흔들리는 생활인으로서의 현실적 고통으로 인해 고뇌하던 중, 고단한 삶 속에서도 신념을 지켰던 노신의 삶을 떠올리며 위안을 얻고 있다.

- ① ‘시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나’는 시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드러내는 화자의 탄식이라 할 수 있군.
- ② ‘무수한 손에 뺨을 얻어맞으며’, ‘지나는 돌팔매’에서 화자가 그동안 견뎌왔던 생활인으로서의 고통을 짐작할 수 있군.
- ③ ‘등불’은 화자가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노신의 삶을 떠올리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군.
- ④ ‘쓸쓸한 것이 오장을 씻어 내린다’에서 예술가로서의 신념을 지키기 힘든 상황에 대한 화자의 고뇌가 느껴지는군.
- ⑤ ‘하나의 굳세게 살아온 인생’에서는 노신처럼 사회의 개혁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화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44~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별게 아니었다. 끝없이 단념해 가는 것, 그것뿐인 것 같다. 산 너머 저 산 너머는 행복이 있다 한다. 언젠고 그 산을 넘어 넓은 들로 나가 본다는 것이 산골 젊은이들의 꿈이었다. 그러나 이윽고는 산 너머 생각도 잊어버리고 ‘아르네’\*는 결혼을 한다. 머지 않아서 아르네는 사, 오 남매의 복(福) 가진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세상의 수많은 아르네들은 그만 나폴레옹을 단념하고 셰익스피어를 단념하고 토머스 아퀴나스를 단념하고 렘브란트를 단념하고 자못 풍정낭식(風定浪息)\*한 생애를 이웃 농부들의 질소(質素)한 관장(觀葬)\* 속에 마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주 단념해 버리는 것은 용기를 요하는 일이다. 가계를 버리고 처자를 버리고 지위를 버리고 드디어 온갖 욕망의 불덩이인 육체를 몸쓸 고행으로써 벌하는 수행승의 생애는 바로 그런 것이다. 그것은 무(無)에 접(接)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는 아주 반대로 끝없이 새로운 것을 욕망하고 추구하고 돌진하고 대립하고 깨뜨리고 불타다가 생명의 마지막 불꽃마저 꺼진 뒤에야 끊어지는 생활 태도가 있다. 돈 후안이 그랬고 베토벤이 그랬고 「장 크리스토프」의 주인공이 그랬고 랭보가 그랬고 로렌스가 그랬고 고갱이 그랬다.

이 두 길은 한 가지로 영웅의 길이다. 다만 그 하나는 영구한 적멸(寂滅)로 가고 하나는 그 부단한 건설로 향한다. 이 두 나무의 과실로 한편에 인도의 오늘이 있고 다른 한편에 서양 문명이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극단 사이에 있는 가장 참한 조행(操行)\* 갑(甲)에 속하는 태도가 있다. 그저 얼마간 욕망하다가 얼마간 단념하고..... 아주 단념도 못 하고 아주 쫓아가지도 않고 그러한 사이에 분에 맞는 정도의 지위와 명예와 부동산과 자녀를 거느리고 영양(營養)도 갑을 보전하고 때로는 표창(表彰)도 되고 해서 한 편(篇) 아담한 통속소설 주인공의 표본이 된다. 말하자면 속인 처세의 극치다.

이십 대에는 성(盛)히 욕망하고 추구하다가도 삼십 대만 잡아서면 사람들은 더욱 성하게 단념해야 하나 보다. 학문을 단념하고 연애를 단념하고 새로운 것을 단념하고 발명을 단념하고 드디어는 착한 사람이고자 하던 일까지 단념해야 한다. 삼십이 넘어 가지고도 시인이라는 것은 망나니라는 말과 같다고 한 누구의 말은 어찌면 그렇게도 찬란한 명구나.

약간은 단념하고 약간은 욕망하고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한 일인지도 모른다.

아름다운 단념은 또한 처량한 단념이기도 하다. 그러나 예술에 있어서도 학문에 있어서도 나는 나 자신과 친한 벗에게는 이 고상한 섭생법을 권하고 싶지 않다.

‘일체(一切)냐 그렇지 않으면 무(無)냐?’

예술도 학문도 늘 이 두 단애(斷崖)\*의 절정을 가는 것 같다. 평온을 바라는 시민은 마땅히 기어 내려가서 저 골짜기 밑바닥의 탄탄대로를 감이 좋을 것이다.

- 김기림, 「단념」 -

\* 아르네: 노르웨이의 작가 비에른손이 쓴 소설 「아르네」(1858)의 주인공으로 감성적이며 먼 곳을 동경하는 젊은이.  
 \* 풍정낭식: 바람이 자고 파도가 잔잔해진다는 뜻으로, 들떠서 어수선하던 것이 가라앉음.  
 \* 질소한 관장: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치르는 소박한 장례.  
 \* 조행: 태도와 행실을 아울러 이르는 말.  
 \* 단애: 낭떠러지.

4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비의 방법으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② 시선의 이동을 통해 대상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있다.
  - ③ 우화를 제시하여 삶에 대한 반성을 이끌어내고 있다.
  - ④ 공간의 이동에 따라 글쓴이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 ⑤ 과거를 환기함으로써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45.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많은 아르네’는 욕망하다 단념해 버리는 속인들의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군.
  - ② ‘무(無)에 접(接)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영웅의 길로 볼 수 있겠군.
  - ③ ‘부단한 건설’은 새로운 것을 욕망하고 추구하는 삶의 과정이라 할 수 있겠군.
  - ④ ‘고상한 섭생법’은 적당히 단념하고 적당히 욕망하는 것으로 글쓴이가 긍정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군.
  - ⑤ ‘골짜기 밑바닥’은 모든 단념과 욕망을 끝낸 후 도달한 평온한 삶의 단계라 할 수 있군.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2014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 정답 및 해설(국어 영역)

### 국어 영역

#### B형 정답

1	①	2	③	3	④	4	③	5	③
6	④	7	④	8	③	9	⑤	10	④
11	②	12	③	13	④	14	②	15	④
16	④	17	②	18	①	19	②	20	⑤
21	⑤	22	①	23	②	24	⑤	25	⑤
26	①	27	②	28	④	29	③	30	⑤
31	④	32	②	33	④	34	①	35	⑤
36	⑤	37	③	38	③	39	⑤	40	④
41	②	42	③	43	⑤	44	①	45	⑤

### 국어 영역

#### B형 해설

\*\* 화법 \*\*

1. [출제의도] 토론 참가자들의 공통 인식 파악하기  
이 토론은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에 대한 찬반 토론이다. '찬성 측'은 유연근무제를 통해 실업 문제를 해결하여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 측'은 유연근무제가 시행되면 정규직을 비정규직 일자리로 바꿈으로써 안정된 일자리에 대한 불안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입장은 다르지만 결국 양측 모두 안정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2. [출제의도] 토론 전략 파악하기  
'찬성 측'은 외국의 사례와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유연근무제를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을 들어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④ 여성들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가 미비하여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현실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있다. ⑤ '찬성 측'이 주장한 유연근무제의 긍정적 효과가 오히려 고용의 질을 나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3. [출제의도]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보기>의 자료는 시간제근무자의 대부분이 임시·일용직 근로자임을 보여준다. 결국 유연근무제

가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양산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하는 '반대 측'에서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4. [출제의도] 발표 계획에 따른 내용 파악하기  
사전 계획에서는 목 디스크 질환의 원인으로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디스크의 손상을 들고 있었으나 실제 발표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① 이 발표는 '목 디스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말하기이다. ②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5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출제의도] 발표 전략 파악하기  
'추간판', '퇴행된 디스크' 등의 전문 용어가 나오기는 하지만 다른 개념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 작문 \*\*

6.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 평가하기  
이 글은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해결 방안을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들어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사용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② 학생의 건의문에 제시된 문제 상황은 아침을 먹지 못하고 오는 학생이 많은데 마땅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는 1교시 쉬는 시간에 빵을 판매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⑤ 교장 선생님께 건의하는 것이므로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다.
7. [출제의도]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나)-2의 자료에서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이끌어 낼 수는 있으나 '탄소 포인트 제도 활성화 대책 수립'은 개인이 아닌 사회 측면의 해결 방안이므로 ㉠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8.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글쓰기  
자가용 사용을 줄이는 것은 (나)-2에서 찾을 수 있는 개인의 노력에 해당한다. '우리들의 영원한 쉼터인 지구'는 비유적 표현이며, 설의적 표현으로 끝맺고 있으므로 <조건>에 모두 부합한다.  
① 비유적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② (나)-2를 고려한 개인의 노력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설의적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⑤ (나)-2를 고려한 개인의 노력이 나타나 있지 않다.
9.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 파악하기  
'학생의 글'은 친구들에게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자고 설득하는 글로, 학습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폰의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10. [출제의도] 고쳐 쓰기의 적절성 파악하기  
'씩어진다'는 피동사 어간 '쓰어-'에 피동 표현 '-어지다'가 결합한 것으로 피동 표현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었다. 이를 고친 '쓰여진다'도 중복된 피동 표현이므로, '쓰인다'로 고쳐야 적절하다.

\*\* 문법 \*\*

11. [출제의도] 한글 맞춤법 규정 파악하기  
'치러'는 '치르다'가 기본형으로, '치르-'가 어미 '-어'와 결합하여 활용할 때, 어간의 '-이'가 탈락한

것이다. ②의 '잠가' 역시 '잠그다'가 기본형으로, '잠그-'가 어미 '-아'와 결합하여 활용할 때, 어간의 '-이'가 탈락한 형태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① '깨우다'가 '깨워'가 된 것은 규칙 활용으로, 모음이 축약된 형태이다. ③ '굽다'가 '구워'가 된 것은 ㅂ불규칙 활용이다. ④ '하얏다'가 '하얘'가 된 것은 ㅎ불규칙 활용이다. ⑤ '듣다'가 '들어'가 된 것은 ㄷ불규칙 활용이다.

12. [출제의도] 표준 발음법 적용하기  
'다만 4'에 의하면, '의무'에서 '의'는 단어의 첫 음절이므로 [의]로 발음해야 한다. '무예'와 '예절'은 '다만 2'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표준발음법에 따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해야 한다.  
'다만 4'에 의해 '예의'는 [예이], '의의'는 [의이], '절의'는 [절이]→[저리]로도 발음함이 허용된다.

13. [출제의도] 정확한 문장 표현하기  
④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어색한 문장이므로, '문제는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이 다른 곳으로 이동되었다는 것이다.'로 수정해야 한다.  
① 필요한 서술어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많이 불었다.'로 고쳐야 한다. ② 부정 서술어 '안 된다'와 호응하는 부사인 '절대'로 바꾸어야 한다. ③ '회의를 갖는'은 외국어 번역투이므로, '회의하는'으로 고쳐야 한다. ⑤ '근절'은 '다시 살아날 수 없도록 아주 뿌리째 없애 버림'이라는 뜻이므로, 의미가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모든 사회악을 근절해야 한다.' 또는 '모든 사회악을 뿌리 뽑아야 한다.'로 수정해야 한다.

14. [출제의도] 문장의 의미 관계 파악하기  
'필요 있다'의 부정 표현은 '필요 있지 않다'가 아닌 '필요 없다'로 쓴다. '없다'는 '있다'의 어휘적 부정 표현이다.

15. [출제의도] 심리적 태도 파악하기  
㉠은 엄마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영희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단정'이 아니라 '사실의 전달'에 해당한다.

16.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의문문 이해하기  
2인칭인 '너'를 3인칭인 '그'로 바꾸면, ㄷ은 판정 의문문이므로, '모르던가'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① '엇던'이 쓰이면 설명 의문문이 되므로, '종고'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② '평안'이 쓰이면 판정 의문문이 되므로, '헛가'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③ ㄴ과 ㄹ은 의문사를 사용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⑤ ㄷ과 ㄹ을 통해 주어가 2인칭인 경우에는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에 따른 구분이 없이 특수한 의문형 종결어미 '-나다'가 쓰임을 알 수 있다.

\*\* 독서 \*\*

- 출전: 안정복, <송암집>
17. [출제의도] 독서 방법 파악하기  
1문단에서 주자의 말을 통해 끊임없이 의심하며 책을 읽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18. [출제의도] 독서 태도 비교하기  
<보기>의 '나'는 「일야구도하기」를 읽으며 필

자의 생각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글의 필자는 '경전의 뜻과 견해가 다른 것이 있거든 그 견해가 다른 곳에 나아가서 어느 쪽이 더 나은지 헤아려 보고'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견해가 옳다고 고집하기보다는 책에 담겨 있는 본래의 뜻에 집중하여 읽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인문 \*\***

□ 출전: 강미라, <몸 주체 권력>

**19. [출제의도] 집필 의도 파악하기**

몸을 중심으로 인간의 존재를 규명하여, 행위하는 몸의 사회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푸코와 메를로퐁티는 공통점을 갖는다. 하지만 푸코는 인간의 몸이 정치·사회적 권력에서 요구하는 행동 양식을 따르고 있다고 본 반면, 메를로퐁티는 인간의 몸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인 세계에 주체적으로 적응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글은 몸을 중심으로 인간의 존재를 규명하고자 한 푸코와 메를로퐁티의 견해를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소개하는 글이다.

**20.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푸코는 인간이 규정된 행동 양식을 따르게 되고, 이러한 규제는 몸에 각인되며 몸을 통해 실현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은 인간의 몸이 정치·사회적 권력이 요구하는 규제에 의해 규율화 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이와 달리 메를로퐁티는, 인간은 세계와 관계를 맺으며 세계에서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주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은 인간의 몸이 세계와 적극적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의미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 주목한다.

**21.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메를로퐁티는 인간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서 습관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능숙하게 행동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메를로퐁티는 B씨가 사고를 낼 뻔한 것을 환경 속에서 형성된 습관과 관련지어 설명할 것이다. 푸코는 A군의 행동을 학교에서 배운 훈육의 결과로 볼 것이다.

① 세계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메를로퐁티의 견해이다. ② 몸이 세계와 관계를 맺으려 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은 메를로퐁티의 견해이다. ③ 몸을 정치적 견해와 관련지어 설명하는 것은 푸코의 견해이다. ④ 몸에 각인된 규제가 몸을 통해 실현된다고 보는 것은 푸코의 견해이다.

**22. [출제의도] 비판의 적절성 평가하기**

메를로퐁티는 인간의 몸과 정신은 분리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이라고 본 반면, <보기>에서는 인간의 정신과 신체를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메를로퐁티의 입장이라면 인간을 정신과 신체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 사회 \*\***

□ 출전: 김철환, <파레토 최적>

**23.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 파악하기**

이 글은 파레토의 경제학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글로, 그 특성과 한계 및 의의 등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 이론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발전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발전 과정을 설명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파레토 최적에 관한 개념을 1문단에서 밝히

고 있으며, 그 특성은 글 전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파레토 이론의 한계를 3문단에서 밝히고 있으며, 그 의의는 한계와 관련지어 4문단에서 언급하고 있다. ④ 파레토 개선과 관련된 구체적 상황은 2~4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파레토 최적의 상황을 파레토 개선과 관련지어 밝히고 있다.

**24.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영회는 ㉠에서, 철수는 ㉡에서 만족도가 가장 크기에 ㉢는 적절하지 않다.

㉠의 상황에서 철수는 최초와 동일하게 6개의 과일을 갖게 되나, 철수는 배에 비하여 사과에 대해 2배의 만족도를 얻기에 만족도는 2배로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영회는 두 과일에서 얻는 만족도가 동일하기에 최초와 같은 숫자인 6개를 갖게 되면 그 만족도는 동일한 것이다. ㉡의 상황에서 철수는 전과 달리 3개의 과일을 갖게 되나, 2배의 만족도를 갖는 사과를 갖게 되기에 만족도는 결국 동일하다. 그러나 영회는 총 과일의 수가 9개로 늘어나기에 결국 만족도는 1.5배 증가한다. ㉢의 상황에서 철수는 최초와 달리 4개의 과일을 갖게 되나, 2배의 만족도를 갖는 사과를 갖게 되기에 만족도는 결국 증가한다. 또한 영회는 과일의 수가 8개로 늘어나기에 만족도는 증가한다.

**25. [출제의도] 핵심 내용 파악하기**

더 이상은 좋아질 수 없는, 양측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상황이 파레토 최적이며 이해 당사자는 협상을 통해 이러한 파레토 최적의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파레토 최적 이론은 손해가 없으면서 효용을 증가시키는 상황을 설명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 과학 \*\***

□ 출전: 프레드릭 외, <뇌우와 토네이도>

**26.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번개가 발생하면 주변 공기가 압축되어 밀도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 차이가 충격파라는 파동이 되어 공기 속에 전해지는데 이것이 바로 천둥이다.

② 3문단을 통해 번개가 발생한 후 주변 공기가 압축되고 그 결과 천둥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번개보다 천둥이 더 먼 곳에서 발생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소리와 빛의 속도 차이는 번개 발생 후 천둥소리를 듣기까지의 시간을 통해 번개 발생 거리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천둥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은 아니다. ④ 2문단을 통해 습한 공기와 지표면의 불균등한 가열로 적란운이 형성되어 벼락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지표면의 균등 가열에 의해 벼락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2문단을 통해 적란운이 발달하면서 적란운의 하단부에 모인 음전하를 띤 물방울로 인해 지표면의 전자가 밀려나며 양전하의 양이 증가하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지표면의 양전하의 양이 증가하여 적란운이 발생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27. [출제의도] 반응의 적절성 파악하기**

[A]에서는 적란운의 발생, 전하가 적란운 내부에서 상·하부로 분리되는 원리와 과정, 적란운 발달로 인해 지표면의 전하 분포가 변해 전위차가 증가하여 벼락이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보기>는 모의 번개 발생 실험으로, 벨트의 작동으로 생긴 마찰 전기로 인해 두 구 사이의 전위차가 증가하여 스파크가 발생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 중에서 ㉡은 양전하가 큰 구 쪽으

로 이동하는 현상으로, 적란운 속에서 양전하를 띤 상대적으로 가벼운 얼음 조각이 상승 기류에 의해 적란운 상층부로 상승하는 것에 해당한다. 하지만 공기 중의 수증기가 증발하는 것은 전하가 나누어지기 전의 단계에 해당하므로, 전하의 이동과는 관련이 없다.

**\*\* 예술 \*\***

□ 출전: 크리스티안 메츠, <영화의 의미 작용에 관한 에세이>

**28.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이 글은 영화의 시퀀스를 구성하는 요소와 개념에 대해 설명한 후, 씬의 제시 방법에 따른 시퀀스의 종류를 언급하고 있다. 또한 시퀀스의 연결 방법과 효과, 시퀀스의 길이에 따른 특징을 설명한 후 영화를 감상할 때 시퀀스 분석이 지니는 의의를 언급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그러나 영화의 발전 과정과 시퀀스의 상관관계에 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29.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E에 사용된 자막은 D와 E 사건 사이의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표지에 해당하나, A와 C의 사건에 동시성을 부여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①, ② A에서 D까지는 '서영'과 '현우'가 있는 공간을 교차로 제시하며 '서영'이 '현우'와 헤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동일한 시퀀스로 볼 수 있다. ④, ⑤ E와 F는 자막을 통해 이별 후의 서영과 관련된 시간의 흐름을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다.

**30. [출제의도] 정보 간의 관계 파악하기**

시퀀스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관객들은 사건의 전개 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다음 장면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시퀀스를 부자연스럽게 연결하면 관객들에게 낯선 느낌을 주고 의아함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관객들은 시퀀스 연결 속에 숨은 의도나 구조를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에 비해 ㉡은 영화를 이해하기 위한 관객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고전소설 \*\***

□ 출전: 작자 미상, <장국진전>

**31.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이 글은 전쟁터를 배경으로 이 부인과 다른 인물들의 대결이 빠른 속도로 전개되어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⑤ 장면에 대한 과장된 서술은 확인할 수 있지만, 이것이 비극성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32. [출제의도] 사건의 특징 및 기능 파악하기**

[B]와 [C]에서 천원왕, 달마왕과 대결하는 이 부인의 영웅적 면모가 드러난다. 하지만 이 부인이 전쟁을 하는 명분을 확인할 수는 없다.

① [A]에서 백운도사와 오금도사는 국진의 병을 치료한 이 부인의 비범한 재주를 알게 되어, 달마왕과 천원왕에게 진세를 바꾸자고 제안하였고 이 제안이 받아들여진다. ③ [D]에서는 이 부인의 비련도가 천원왕에 의해 부서지지만 이 부인은 주문을 외워 일시적 위기를 모면한다. ④ [B]~[D]에서 패한 천원왕과 달마왕으로 인해 백운도사와 오금도사는 [E]에서 최후의 무기인 물병과 화전을 사용한다. ⑤ [B]와 [E]에서 이 부인은 선녀의 비호를 받는다.

33. [출제의도]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이 글에는 주인공 '장국진'을 도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여성 영웅으로서의 '이 부인'이 나타나 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많은 제약을 받았던 여성들은 '이 부인'의 활약을 보며 대리 만족을 느꼈을 것이다.

34. [출제의도] 상황을 한자성어로 나타내기

㉠은 이 부인의 영웅적 능력으로 인해, 명나라를 침입한 달마왕과 그 무리가 전쟁을 포기할 수밖에 없음을 드러낸다. 따라서 ㉠의 상황을 나타내기에 '더 이상의 어찌할 방법이 없음'을 의미하는 속수무책(束手無策)이 적절하다.

㉡ 방약무인(傍若無人)은 '아무 거리낌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가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 각골난망(刻骨難忘)은 '남에게 입은 은혜가 매우 큼'을 나타내는 말이다. ㉣ 수수방관(袖手傍觀)은 '간섭하거나 거들지 아니하고 그대로 버려둠'을 이르는 말이다. ㉤ 연목구어(緣木求魚)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현대소설 \*\*

□ 출전: 채만식, <명일(明日)>

35.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이 글은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고뇌를 범수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서술자는 사건 밖에 존재하는 전지적 서술자로, 범수를 중심으로 사건을 서술하여 범수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36.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이 글은 식민지 현실을 살아가는 지식인의 무기력한 삶을 풍자하고 있다. 범수가 아들을 공장으로 보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육이 무가치하다는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지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신념으로 보기는 어렵다.

37. [출제의도] 갈등 파악하기

공간 A와 공간 B의 갈등은 식민지 현실에서 지식인으로서 겪는 무기력함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으로, 범수는 고등 교육을 받았으면서도 실제 현실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자신에 대해 고뇌한다. 그리고 그러한 고뇌가 행동으로 표출된 것이 금은상에서 도적질을 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결국 도적질에 실패하고 집으로 돌아온 범수 앞에 닥친 상황은 아들의 도적질이다. 이 때문에 범수는 아내 영주와 대립하면서 아들을 사립학교에 보내려는 아내와 달리 아들 '중식'을 공장으로 데려간다. 이를 정체성 회복으로 볼 수는 없다.

\*\* 고전시가 \*\*

□ 출전: (가) 황진이, <어저 내 일이야>  
(나) 안민영, <임 이별 하울 저귀>  
(다) 박문옥, <내게는 원수가 업서>

38.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와 (나)는 부채하는 입에 대한 그리움을, (나)는 입과 이별하는 순간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그리움과 아쉬움은 모두 입과 함께 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이다. 따라서 (가)~(다) 모두 입과 함께 하고 싶은 소망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9.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 파악하기

(나)의 '꽃 아리 눈물 적신 얼굴'은 이별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제시한 부분으로, 이별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감각적으로 드러낸 부분이다. 그러나 자연물인 '꽃'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한 것은 아니다.

㉠ '어저'에서 영탄을, '모로도냐'에서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회한을 드러내고 있다. ㉡ '제 구티여'는 '가라마는'과 관련하여 임이 행동의 주체임을, '보내고'와 관련하여 시적 화자가 행동의 주체임을 중의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입을 보내는 행위와 입을 그리워하는 심리를 대비시켜 입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다리를 저는 나귀가 빨리 가지 못하는 것을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를 통해 입과 함께 하는 시간을 연장하고 싶은 화자의 심정이 드러난다.

40. [출제의도] 다른 작품과의 비교 감상하기

(다)는 임의 부재로 인한 슬픔을 개와 닭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다)에서 개와 닭은 임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원망의 대상으로 나타나며, 화자는 이들을 없애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상황을 가정하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 (다)와 <보기>는 모두 화자의 독백적 어조를 통해 입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다)는 중장에서, <보기>는 1~3행에서 유사한 구조를 지닌 문장을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다)와 달리 <보기>에서는 봄, 가을, 겨울의 계절 변화에 따른 입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다)의 '캉캉'은 입을 오지 못하게 하여 사랑을 방해하는 소리이므로 화자는 개를 원망하지만 <보기>의 '뚜루를 킨룩'은 떠나간 입을 떠오르게 하는 소리이다.

\*\* 현대시 \*\*

□ 출전: (가) 한용운, <님의 침묵>  
(나) 김광균, <노신>

41.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의 화자는 사랑하는 입과 이별한 상황에서, 인식의 전환을 통해 입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나)의 화자는 예술적 신념을 지키며 사는 것이 몹시 어려운 가난한 현실에서, '노신'을 떠올리며 삶의 위안을 받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화자의 부정적 상황이 작품 창작의 계기가 되고 있다.

42.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은 역설법과 대구법을 사용하여 임이 화자에게 절대적 존재였음을 드러내는 부분으로, 연쇄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 '님은 갔습니다'라는 시구를 반복하고 있다. ㉢ '황금의 꽃'과 '차디찬 티끌'이라는 대비적 의미를 지닌 시구를 사용하였다. ㉣ '그러나'라는 접속어 이후 이별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슬픔'에서 '희망'으로 전환되었다.

43.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 이해하기

'하나의 굳세게 살아온 인생'은 생활인과 예술인 사이에서 갈등하던 화자가 고단한 삶 속에서도 굳세게 살았던 '노신'을 떠올리며 고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으로 사회 개혁에 대한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 수필 \*\*

□ 출전: 김기림, <단념>

44.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이 글의 글쓴이는 영웅의 삶과 속인의 삶을 대비하며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모든 것을 아주 단념해 버리는 것과 끝없이 새로운 것을 욕망하고 추구하는 것을 영웅의 삶, 이와는 달리 약간은 욕망하고 약간은 단념하는 삶을 속인의 삶으로 대비시켜 진정한 삶의 자세라는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45.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속인의 삶을 '골짜기 밑바닥'을 걸어가는 것에 비유하고 있으므로 욕망을 끝낸 후에 도달한 평온한 삶의 단계라 할 수 없다.

㉠ '수많은 아르네'는 산 너머 생각을 잊어버리고 결혼을 하여 아버지가 되는, 욕망하다 단념해 버리는 속인이라 할 수 있다. ㉡ '무(無)에 접(接)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아주 단념해 버리는 수행승의 삶을 나타내고 필자는 이를 영웅의 길로 보고 있다. ㉢ '부단한 건설' 역시 또 하나의 영웅의 삶의 모습으로 새로운 것을 욕망하고 추구하는 삶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고상한 섭생법'은 적당히 단념하고 적당히 욕망하는 속인의 삶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제 1 교시

국어 영역 (B형)

[1~2] 다음은 인터뷰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학생 기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왕의 식사인 수라에 관한 기사를 준비하는데, 궁금한 점이 많아서 교수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교수: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학생: 먼저 수라의 재료는 어떻게 마련했나요?

교수: 예전에는 조세를 물품으로도 냈었는데 그런 공납의 형태나 지방의 진귀한 토산물을 나라에 바치는 진상의 형태로 마련했어요.

학생: 그렇군요. 그러면 공납이나 진상의 경로는 어땠나요?

교수: 중앙 부서를 통해 궁중으로 공납되거나 관찰사와 같은 지방 관료들을 통해 직접 궁중으로 진상되었죠. (옛 문헌을 가리키며) 이게 고종 29년에 함경도 관찰사가 왕에게 올린 진상품을 기록한 문서인 진상 단자예요.

학생: 아, 그렇군요. 그럼 수라는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나요?

교수: 궁중으로 간 식재료는 사옹원의 설리 내관에게 보내진 다음, 반감이 받아서 음식으로 만들어졌지요.

학생: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수: 설리는 궁중 음식을 관리하던 내관이었고, 반감은 궁중 음식을 담당하는 남자 요리사들의 수장이었죠. 설리가 관리한 식재료로 반감의 지휘 하에 음식이 만들어졌던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음식은 최고의 맛을 냈고, 다양한 모양의 식기류에 담겼죠. (사진을 보여 주며) 사진을 보니 쉽게 이해가 되시죠?

학생: 네, 정말 그렇군요. 그렇다면 수라의 종류와 구성은 어땠나요?

교수: 시간대에 따라 아침 식사인 조수라, 점심 식사인 주수라, 저녁 식사인 석수라가 있었죠. 또한 세끼 수라 이외에 드시는 간식, 조수라 전에 가볍게 드시는 쌀죽인 죽수라도 있죠. 한편 수라는 밥을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기본 밑반찬으로 구성되었죠.

학생: 아, 그렇군요. 수라는 종류가 정말 다양했네요. 그런데 저는 수라가 왕권의 상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교수: 그렇지 않아요. 수라상을 한 번 차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피와 땀이 어려야 하죠. 이것은 왕권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임금이 백성들의 수고와 정성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백성들에게 좋은 정치를 하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학생: 결국 수라에는 선정에 대한 바람이 담겨 있었군요.

교수: 그렇지요. 평소에 저는 왕의 식사인 수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번 인터뷰가 여러분에게도 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1. 위 대화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교수는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화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② 교수는 화제와 관련이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 주며 답변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③ 교수는 학생의 요청에 따라 화제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학생은 교수의 답변에 긍정적으로 반응함으로써 공감하며 듣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학생은 교수에게 질문을 하여 자신의 배경지식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2. 위 내용을 바탕으로 교지의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나눈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원: 오늘은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편집 지침에 따라 교지 기사를 어떻게 쓸지 논의해 보자. 먼저 표제는 글 전체의 내용을 포함하는 의문형 문장으로 제시하기로 했지?

민지: 그럼 인터뷰 내용이 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의미니까 ‘강한 왕권의 상징, 수라를 아시나요?’로 하면 되겠네. .... ①

시원: (회의록을 살펴보며) 다음으로 기사의 내용은 인터뷰 때 질문한 순서대로 구성하기로 했어.

석준: 그러면 교수님과 인터뷰 때 질문한 순서대로 수라 재료의 마련 방법, 공납과 진상의 경로, 수라가 만들어진 과정, 수라의 종류와 구성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수라의 의미를 서술하면 되겠어. .... ②

시원: 또 친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족한 내용은 정보를 추가하여 설명하기로 했지?

민지: 수라상에는 다양한 기본 밑반찬이 있었다고 했는데, 인터뷰에서는 그것들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이지 않아. 그래서 그 기본 밑반찬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조사하여 기사에 추가했으면 좋겠어. .... ③

시원: 그리고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각적 자료도 활용하기로 했어.

석준: 최고의 맛을 낸 수라와 그것이 다양한 모양의 식기류에 담긴 모습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을 싣기로 하자. .... ④

시원: 기사의 끝 부분에는 전문가의 당부를 포함하기로 했어.

석준: 그러면 수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기대한다는 교수의 말씀을 기사의 마무리 부분에 싣도록 하자. .... ⑤

[3~5] 다음은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지켜야 할 도덕규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처럼 예외를 인정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시한부 환자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병세가 호전됐다고 말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의의 거짓말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찬성 측에서 입론을 한 후에 반대 측에서 입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측: 선의의 거짓말을 허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바람직한 행위가 아니지만, 거짓말의 결과가 유익함과 행복을 준다면 거짓말을 허용해도 된다고 봅니다. 어떤 행위의 결과가 좋다면 선한 행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 측: 저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도덕규범에 어긋나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덕규범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또한 도덕규범에 예외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결국 도덕은 무너질 것입니다. 칸트는 「인류애를 위하여 거짓말할 권리에 대해서」라는 논문에서 친구를 죽이려는 암살자가 쫓아와 친구가 집 안으로 달아나지 않았느냐고 물었을 때에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회자: 이제 찬성 측의 반론을 듣고, 이어서 반대 측의 반론을 듣겠습니다.

찬성 측: 저도 칸트의 논문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친구를 해치려는 자가 쫓아와 친구의 행방을 묻는다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친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협으로부터 친구를 지키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암살자에게 쫓겨 위험에 처한 친구의 행방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측: 행위의 결과에 주목하여 거짓말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행위의 결과가 어떨지는 아무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즉 선의의 거짓말이 어떤 문제를 가져올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3. 위 토론의 논제의 성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떤 행위가 바람직한지를 판단하고 자신의 판단이 더 타당함을 밝혀야 하는 논제이다.
- ② 어떤 상황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그 사실 관계의 정확성을 밝혀야 하는 논제이다.
- ③ 어떤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그 중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논제이다.
- ④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이 더 유용한지를 판단하고 다른 방법과의 절충 방안을 밝혀야 하는 논제이다.
- ⑤ 어떤 입장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서로의 안을 평가하고 자신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는 지점을 찾아야 하는 논제이다.

4. <보기>의 ㉠, ㉡을 활용하여 토론의 논거를 보강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 사탕을 약으로 위장하여 환자에게 먹게 했을 때, 병세가 호전되거나 유익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한다.
- 의사가 환자를 위해 위약(偽藥)\*을 투여한 사실을 환자가 알게 되어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가 깨졌을 경우, 환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노시보 효과'라고 한다.

\* 위약: 환자에게 심리적 효과를 얻도록 하려고 주는 가짜 약.

- ① 찬성 측: 선의의 거짓말은 상호 간의 신뢰를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을 활용해야겠어.
- ② 찬성 측: 결과가 유익하다면 수단은 도덕적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의 근거로 ㉡을 활용해야겠어.
- ③ 반대 측: 도덕규범을 지키는 것이 의무라는 주장의 근거로 ㉠을 활용해야겠어.
- ④ 반대 측: 유익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도덕규범을 지켜야만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을 활용해야겠어.
- ⑤ 반대 측: 행위의 결과가 어떨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의 근거로 ㉡을 활용해야겠어.

5. 위 토론을 들은 청중들의 듣기 전략에 따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듣기 전략	청중의 반응
토론 내용에 공감하며 듣는다.	○ 찬성 측의 주장처럼 나도 산타클로스의 선물이라는 거짓말 때문에 즐거웠던 경험이 있어. .... ①
논지의 일관성을 파악하며 듣는다.	○ 찬성 측은 반론에서 상대방의 논거로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없어. ... ②
토론자의 준비 상황을 추리하며 듣는다.	○ 반대 측은 논거를 찾기 위해 학자의 논문도 읽어 보며 준비했어. .... ③
사회자의 역할 준수 여부를 평가하며 듣는다.	○ 사회자는 논제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양측에 발언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고 있어. ... ④
토론자의 발언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고를 점검하며 듣는다.	○ 반대 측 주장을 들으니, 지금까지 좋게만 생각했던 선의의 거짓말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 ⑤



[6~8] 다음은 '인문학 발전 방안'에 대해 글을 쓰기 위해 계획한 개요와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개요

- 서론: 현황 제시 ..... ㉠
- 본론
  - 1. 현황이 지닌 문제 ..... ㉡
  - 2. 인문학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된 원인
    - 사회적 차원 ..... ㉢
    - 개인적 차원 ..... ㉣
  - 3. 인문학 발전 방안
    - 사회적 차원
    - 개인적 차원
- 결론: 인문학 발전을 위한 노력 당부 ..... ㉤

□ 학생이 작성한 초고

최근에 대학가를 비롯해서 지역의 문화 센터 등에서 역사와 철학 관련 교양 강연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 서점에서는 인문학 관련 서적이 작년 대비 20% 이상 판매가 늘어나는 등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인문학 열풍 현상이 일시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며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현대인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수많은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 상황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런 인문학에 대한 일시적인 관심으로는 그 답을 얻기가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우리 사회는 아직 인문학적 기반이 약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우리 사회가 인문학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된 원인을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인문학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이 인문학 전공자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과 학교 교육에서 취업이나 입시를 중시하여 실질적인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약하다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인문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사람들은 인문학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인문학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약화되고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것은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 구성원 모두는 인문학이 삶의 지혜를 주는 학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6. 학생의 초고에 사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의 시작 단계에서 사례를 들어 현황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현황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이해를 높이고 있다.
  - ③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 ④ 문제 상황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⑤ 글의 마무리 단계에서 문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7. ㉠~㉤ 중, 학생의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8. <보기>를 활용하여 <조건>에 따라 ㉠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가) 프랑스의 대학에서는 컴퓨터 전공자들이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 여러 사람들과 토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고등학교 교과에 철학 과목을 두어 인문학이 기초 학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 □□ 일보(신문 기사 중에서) -

(나) 생존이나 생계 문제만이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인문학을 단순히 처세의 도구로 여기거나 현실과 무관한 학문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삶의 의미를 알고 삶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갈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문학은 우리가 삶의 굴곡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에너지 지원이 된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 △△ 대학 인문학 강연의 일부 -

<조 건>

- (가)에 드러난 시사점을 찾아 ㉠을 구체화할 것.
- (나)로부터 핵심 생각을 찾아 ㉠에 추가할 것.

- ① 따라서 정부는 인문학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리고 언론 매체에서도 대중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② 따라서 정부는 인성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혁신해야 한다. 그리고 인성 교육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 ③ 따라서 정부는 인문학이 기초 학문의 역할을 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인문학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바탕이 될 수 있다는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 ④ 따라서 정부는 학교 교육과정을 개선하여 인문학을 교양 과목으로 편성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려움에 좌절하지 말고 언젠가는 이겨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가치관을 지녀야 한다.
- ⑤ 따라서 정부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 기술의 창조력을 지닌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에서도 사원 선발 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사람들을 선발하도록 해야 한다.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업 상황]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자신을 변화시킨 책에 대한 글쓰기 과제를 부여하였다.


학생 1의 작문 과제  
(가)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을 메모해 보자.  
(나) 메모한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한 단락으로 써 보자.

학생 2의 작문 과제  
㉠~㉣을 고려하여 한 편의 글을 작성해 보자.

㉠자신의 경험을 들어 글을 시작하고, ㉡책을 읽게 된 계기를 밝히며, ㉢책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책의 내용과 관련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바라는 점을 제시하고, ㉤다짐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을 것.

9. 다음은 **학생 1의 작문 과제** 의 (가)를 수행하기 위해 작성한 메모이다. (나)를 고려하여 쓴 ‘학생 1’의 글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거울의 특징
- 성찰이 필요한 이유
-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



- ① 사람은 저마다 다른 능력이 있다. 자신의 능력을 찾기 위해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고 생각했다.
- ② 거울은 깨끗해야 사물을 왜곡 없이 비출 수 있다. 바른 마음가짐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바로잡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 ③ 거울은 사물의 모습을 반대로 비추고 있다. 나도 나의 마음과는 반대로 행동하고 있지 않은지 반성하게 되었다.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 ④ 거울은 사람의 모습을 비춘다.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자신이 가야할 길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다. 나를 점검하여 나침반처럼 가야할 방향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 ⑤ 사람이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아보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인생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황금빛 가을 들녘처럼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다.

10. 다음은 **학생 2의 작문 과제** 를 수행한 ‘학생 2’의 글이다. ㉠~㉣ 중, 반영되지 않은 것은?

몇 달 전 한 친구가 내가 해 준 충고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나에게 말했다. 나도 그 친구의 말에 서운함을 느꼈고, 그 이후 서로 어색해지면서 둘 사이가 멀어졌다. 이 문제로 고민하던 나에게 상담 선생님께서 책 한 권을 추천해 주셔서 읽게 되었다.

책 속에서 글쓴이는 상대방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긍정적인 말은 상대의 마음 밭에 꽃나무를 심어 향기를 선물하는 것이고, 상대를 무시하고 비하하는 부정적인 말은 상대의 마음 밭에 가시나무를 심어 상처를 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이 글을 읽고 당시에 내가 한 말이 친구에게 향기가 아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뒤늦게 미안함을 느꼈다.

앞으로는 이 책에 제시된 공감의 대화, 긍정의 대화 방법을 익혀 바람직한 언어생활을 습관화하여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1. <보기>를 통해 부정 표현의 특성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ㄱ. 나는 수학 공부를 안 했다.  
나는 수학 문제가 어려워서 못 풀었다.

ㄴ. 여기에는 이제 해가 비치지 {않는다/못한다}.

ㄷ. 그녀를 만나지 {\*않아라/\*못해라/마라}.

ㄹ. 그는 결코 그 일을 {\*했다/안 했다}.

그는 분명히 그 일을 {했다/안 했다}.

ㅁ. 교실이 {안/\*못} 깨끗하다.

\*비문법적 표현.

- ① ㄱ을 보니, ‘안’ 부정문은 ‘의지 부정’을 나타내고, ‘못’ 부정문은 ‘능력 부정’을 나타내는군.
- ② ㄴ을 보니, 행동 주체의 의지를 부정할 때는 ‘긴 부정문’만 쓸 수 있군.
- ③ ㄷ을 보니, 명령문의 부정 표현은 보조 용언 ‘말다’를 활용하여 사용하는군.
- ④ ㄹ을 보니, 어떤 부사는 반드시 부정 표현과 함께 쓰여야 하는군.
- ⑤ ㅁ을 보니, 형용사를 부정할 때에는 부사 ‘못’을 사용하여 부정 표현을 나타낼 수 없군.

12. <보기>는 국어사전의 일부이다. 이를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번(番)**

**I** ㉠ 차례로 숙직이나 당직을 하는 일. 『번을 서다.

**II** 의존명사

① 일의 ㉡을/를 나타내는 말. 『둘째 번.  
② 일의 횟수를 세는 단위. 『여러 번.

**한-번(-番)**

**I** 명사  
((주로 ‘한번은’ 꼴로 쓰여)) 지난 어느 때나 기회. 『한번은 그런 일도 있었지.

**II** 부사

① ((주로 ‘-어 보다’ 구성과 함께 쓰여)) 어떤 일을 시험 삼아 시도함을 나타내는 말. 『한번 해 보다. / 한번 먹어 보다.  
② 기회 있는 어떤 때에.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 ㉢ / 한번 찾아볼게요.  
③ (( ㉣ 바로 뒤에 쓰여))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 『춤 한번 잘 춘다. / 공 한번 잘 찬다.

- ① ㉠, ㉡에 들어갈 말은 모두 ‘명사’이겠군.
- ② ㉡에 들어갈 말은 ‘차례’이겠군.
- ③ ㉢에는 ‘시간 날 때 낚시나 한번 갑시다.’를 넣을 수 있겠군.
- ④ ‘한-번 I’과 달리 ‘한-번 II’는 문장에서 자립하여 쓰일 수 없겠군.
- ⑤ ‘난 제주도에 한 번 가 봤어.’에서 ‘번’은 ‘번 II-②’의 뜻으로 쓰였겠군.

13. 다음은 <보기>의 한글 맞춤법 규정을 참고하여 두 친구가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제27항**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꽃잎, 헛웃음

**제28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  
예 따님(딸-님), 화살(활-살)

**제29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  
예 손가락(술~), 사흘날(사흘~)

우진: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꽃잎’은 [꼰닙]이라고 발음을 하지만 합성어는 원형을 밝혀 적기에 ‘꽃잎’이라고 적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예가 또 있을까?

정인: ㉠ ‘칼날’을 [칼랄]이라고 발음하지만 ‘칼날’로 표기하는 것도 이에 해당하겠지. 그런데 ‘소나무’는 합성어인데 왜 ‘술나무’라고 적지 않을까?

우진: ㉡ ‘술’의 끝소리가 ‘ㄹ’이고 ‘나무’와 어울릴 때 ‘ㄹ’이 탈락하여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이지. ‘ㄹ’이 탈락하는 다른 예가 뭐가 있을까?

정인: 다른 예로는 ‘마소, 아드님’이 있어.

우진: 그래, 그런데 ‘마소’와 ‘아드님’은 단어 형성법이 다르네.

정인: ㉢ ‘마소’는 ‘말’과 ‘소’가 합성어를 이루는 과정에서 ‘ㄹ’이 탈락한 것이고, ㉣ ‘아드님’은 파생어로 명사 ‘아들’과 접미사 ‘-님’이 결합하면서 ‘ㄹ’이 탈락한 것이지.

우진: 그런데, ‘손가락’은 ‘술’과 ‘가락’이 합성된 말인데 왜 ‘손가락’이라고 적을까?

정인: ㉤ 본래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도록 한 것이지. ‘여닫이’도 이에 해당해.

- ① ㉠      ② ㉡      ③ ㉢      ④ ㉣      ⑤ ㉤

14. <보기>의 표준 발음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제23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 ㄷ, ㄷ, ㄷ), ㄷ(ㅌ, ㅍ, ㅍ, ㅍ, ㅍ)’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ㅌ, ㅍ, ㅍ’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

**제24항** 어간 받침 ‘ㄴ(ㄴ), ㄹ(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ㅌ, ㅍ’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  
다만, 피동, 사동의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 ㉢

**제27항**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ㅌ, ㅍ, ㅍ’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  
[붙임]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 ㉤

- ① ㉠에 따르면 ‘꽃다발이 예쁘다.’에서 ‘꽃다발’의 표준 발음은 [꼰따발]이겠군.
- ② ㉡에 따르면 ‘아기를 꼭 껴안고 갔다.’에서 ‘껴안고’의 표준 발음은 [껴안꼬]이겠군.
- ③ ㉢에 따르면 ‘감기를 옮기다.’에서 ‘옮기다’의 표준 발음은 [옴기다]이겠군.
- ④ ㉣에 따르면 ‘여기 외엔 갈 데가 없다.’에서 ‘갈 데가’의 표준 발음은 [갈떼가]이겠군.
- ⑤ ㉤에 따르면 ‘사랑할수록 참아야지.’에서 ‘사랑할수록’의 표준 발음은 [사랑할수록]이겠군.

15. 다음은 잘못된 문장 표현을 고쳐 쓴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잘못된 경우  
예 그는 마음먹은 일은 절대로 하고 만다.  
→ 그는 마음먹은 일은 반드시 하고 만다. .... ①
- 활용 어미의 사용이 잘못된 경우  
예 알맞는 답을 고르시오.  
→ 알맞은 답을 고르시오. .... ②
- 불필요한 어휘가 중복된 경우  
예 이 사람의 장점은 노래를 잘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 이 사람의 장점은 노래를 잘한다는 것이다. .... ③
- 시간 표현이 잘못된 경우  
예 철수가 어제 집에 오지 않습니다.  
→ 철수가 어제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 ④
-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지나치게 생략된 경우  
예 인사 발령이 나서 가게 되었다.  
→ 인사 발령이 나서 급히 가게 되었다. .... ⑤

16.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p>중세 국어의 ‘-습/-줍/-습-’은 객체 높임의 의미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다. 주체 높임은 선어말 어미 ‘-시-’, 상대 높임은 선어말 어미 ‘-이-’를 사용하여 나타냈다. 또한 높임의 뜻을 가진 어휘로 높임이 실현되기도 했다.</p>
<p>학습 자료</p>	<p>[중세 국어] 聖子를 내㉠시니㉡이다 [현대 국어] (하늘이) 聖子(성자)를 내셨습니다.</p> <p>[중세 국어] 世尊尊존人 安한否불 문㉢줍고 [현대 국어] 世尊(세존)의 安否(안부)를 여쭙고</p> <p>[중세 국어] ㉣진지 오를 제 반드시 [현대 국어] 진지 올릴 때 반드시</p>
<p>학습 활동</p>	<p>㉠~㉣을 현대 국어와 비교하여 정리해 보자. ( _____ [가] _____ )</p>

- ① ㉠: 주체인 ‘聖子(성자)’를 높이는 ‘-시-’가 쓰인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같다.
- ② ㉡: 상대를 높이는 ‘-이-’가 쓰인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 ③ ㉢: 객체를 높이는 ‘-줍-’이 쓰인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 ④ ㉣: ‘밥’을 높여서 이르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같다.
- ⑤ ㉠+㉡: 주체와 상대에 대한 높임이 함께 나타난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같다.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구조주의란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들을 해석할 때 각각의 ㉠요소들 자체보다는 그 요소들이 기능적 연관을 이루는 하나의 구조를 우위에 두고 파악하려는 철학의 한 ㉡경향을 말한다. 이러한 구조주의를 바탕으로 언어를 연구하여 구조주의 언어학을 창시한 인물이 바로 소쉬르이다. 그에 따르면 언어는 그 사회의 관습에 의하여 결정되며 언어의 의미는 구조에 의해 생성된다고 보았다. 이는 ㉢발화 주체의 모든 생각과 언어 사용의 방식을 기본적으로 결정하는 요소들은 그 발화 주체가 속해 있는 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우리가 만약 음운 체계나 문법 체계 등 사회의 언어 규제에 관한 지식이 없다면 상대방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말을 할 때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회의 다양한 규제로부터 지배를 받게 된다. 소쉬르는 이런 규제를 랑그(langue)로 설명하였는데, 랑그란 언어 공동체 모두가 공유하는 약속이며 동시에 개인적 발화를 가능하게 하는 추상적 체계를 말한다. 소쉬르의 이러한 이론을 이어받아 발전시킨 사람이 프랑스의 구조주의 철학자인 롤랑 바르트이다.

바르트는 언어의 보이지 않는 규제로 랑그 이외에 스틸(style)이 있다고 말하였다. 스틸이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언어 감각으로, 이야기할 때의 속도나 리듬감, 음감, 운율, 호흡 등을 말하며, 글에서는 문자 형태로의 인상이나 비유, 문장의 호흡 등을 말한다. 그는 스틸이 개인의 무의식적 선호에 의한 것이며 이것이 개인을 규제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바르트는 또 하나의 규제인 에크리튀르(écriture)라는 새로운 개념을 밝혔는데, 이는 글을 쓰는 방법 또는 어법을 의미한다. 바르트는 이것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에크리튀르가 랑그나 스틸과 다른 점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스틸이 개인의 무의식적 선호에 ㉣근거한 것이라면, 에크리튀르는 집단적으로 선택되고 실천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글쓰기에서 1인칭 표현을 '나는'에서 '제가'로 바꾸었다. 그 이후 그 학생의 글쓰기는 좀 더 점잖아지고 그 학생의 글에는 어딘가 ㉤격식을 갖춘 사람들의 말투와 태도들이 스미게 된다. 그 학생은 자신도 모르게 '제가'를 사용하는 점잖은 사람들의 습관을 지니고 사고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그 학생이 어떤 지식인 집단의 에크리튀르를 선택하고 그에 익숙해지면 그 집단의 논리적이고 지적인 언어와 태도를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바르트는 에크리튀르가 광범위하게 쓰일 경우 특정한 사고를 유발하는 언어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어떤 에크리튀르가 사회적 차원의 어법으로 확대되어 그 집단의 구성원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하게 되면, 그들은 그것을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인 것처럼 느끼게 된다.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무의식적으로 사회 집단이 공유하는 이데올로기나 사고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17.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스틸은 개인의 언어 습관을 규제할 수 없다.
  - ② 소쉬르는 바르트의 언어관에 영향을 주었다.
  - ③ 문법 체계에 대한 지식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 ④ 랑그는 개인적 발화를 가능하게 하는 추상적 체계이다.
  - ⑤ 구조주의는 사회 요소 간의 기능적 연관을 이루는 구조를 중시한다.

18. 윗글에 나타난 '소쉬르'와 '바르트'의 공통된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언어는 이데올로기와 관련지을 수 없다.
  - ② 언어의 가치는 개인의 생각에 의해 결정된다.
  - ③ 언어에는 보이지 않는 규제가 작용하고 있다.
  - ④ 언어는 연속되는 세계를 불연속적으로 나타낸다.
  - ⑤ 언어는 지역에 상관없이 사용하는 말의 양상이 동일하다.

19. 윗글의 '바르트'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A씨는 열심히 노력한 끝에 기자가 되었다. 기자가 된 그는 기자 집단이 쓰는 국어 어법에 맞는 정확한 글쓰기, 육하원칙에 따른 글쓰기에 충실하였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논리적인 사고를 하게 되었다. 자신도 모르게 긴 호흡의 문장으로 일기를 썼던 A씨는 어느 날 자신의 일기를 보고, 이전과 달리 자신이 일기를 기사문처럼 논리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 ① A씨의 글쓰기는 언어 공동체가 공유한 약속의 규제를 받았겠군.
- ② A씨가 일기를 긴 호흡의 문장으로 썼던 것은 무의식적 선호에 의한 것이겠군.
- ③ A씨가 논리적인 사고를 하게 된 것은 기자 집단의 에크리튀르를 선택해서 그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이겠군.
- ④ A씨가 일기를 의식적으로 기사문처럼 쓴 것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데올로기를 의식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겠군.
- ⑤ 만약 A씨의 논리적 글쓰기가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되어 사용된다면 사회 구성원들은 그것을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인 것처럼 느끼게 되겠군.

20.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사물의 성립이나 효력 발생 따위에 꼭 필요한 성분.
  - ② ㉡: 현상이나 사상, 행동 따위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짐.
  - ③ ㉢: 소리를 내어 말을 하는 현실적인 언어 행위.
  - ④ ㉣: 어떤 일이나 의논, 의견에 그 근본이 됨.
  - ⑤ ㉤: 제도나 법률 따위를 만들어 정함.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비자들은 제품을 선택할 때 여러 개의 제품 중 본인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제품을 선택한다. 그런데 이때 소비자는 제품을 둘러싼 상황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이에 대한 현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맥락 효과가 있는데, 맥락 효과의 대표적 유형에는 유인 효과와 타협 효과가 있다.

[A] 유인 효과란 기존에 두 개의 경쟁하는 제품이 있을 때, 새로운 제품의 추가로 인해 기존 제품 가운데 하나는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다른 하나는 시장점유율이 떨어지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시장에 컴퓨터 A와 B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가격과 처리 속도라는 두 가지 속성만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한다고 가정하자. 가격 면에서는 A가 저렴하여 우월하고, 처리 속도 면에서는 B가 빨라 우월하다. 이런 경우 두 제품은 상충 관계에 있다고 하며, 소비자는 제품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때 B보다 가격과 처리 속도 면에서 열등한 C를 추가하게 되면 B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하고 경쟁하던 A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 유인 효과이다. 여기에서 C는 유인 대안이라 하고, 유인 대안이 추가되어서 시장점유율이 하락하는 A는 경쟁 대안, 유인 대안 때문에 시장점유율이 상승하는 B는 표적 대안이라 한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유인 대안의 등장으로 소비자가 표적 대안과 경쟁 대안과의 가격 차이를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 표적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결국 B를 선택한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가치 평가가 달라져 자신의 선택을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진다.

타협 효과는 시장에 두 가지 제품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세 번째 제품이 추가될 때, 속성이 중간 수준인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가격이 비싸면서 처리 속도가 우수한 컴퓨터와 가격이 저렴하면서 처리 속도가 떨어지는 컴퓨터가 있을 때, 중간 정도의 가격과 처리 속도를 지닌 컴퓨터가 등장하면 중간 수준인 새로운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많아진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소비자의 성향에 기인한다. ㉠소비자들은 대안에 대한 평가가 어려울 때 보통 비교하고자 하는 속성의 중간 대안을 선택하여 자신의 결정을 합리화하려는 심리가 강하다.

맥락 효과는 이처럼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 변화 현상을 상황 맥락과 연관 지음으로써 소비 심리의 양상을 경제학적으로 밝혀냈다는 데 그 가치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소비자의 구매 행위를 분석하는 마케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21. 밑줄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 ① 맥락 효과의 유형
- ② 유인 효과의 개념
- ③ 유인 효과의 예시
- ④ 타협 효과의 한계
- ⑤ 맥락 효과의 의의

22.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소비자들은 품질과 가격을 고려하여 에어컨을 선택한다. 시장에 에어컨 ㉠과 ㉡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자사 에어컨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를 출시하였다.

구분	에어컨	㉠	㉡	㉢
제품	품질(점)	90	80	88
속성	가격(만 원)	22	17	30
선택 비율	최초	48%	52%	
	㉢ 추가	74%	22%	4%

단, 에어컨의 품질은 100을 만점으로 평가하며, 품질과 가격 이외의 다른 속성은 고려하지 않음. 또한 선택 비율이 높아지면 시장점유율이 상승한다고 가정함.

- ① ㉢가 출시되기 전, ㉠과 ㉡는 품질과 가격 면에서 상충 관계이었겠군.
- ② ㉢는 시장에서 유인 대안의 역할을 하여 ㉠의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효과를 냈군.
- ③ ㉢의 출시로 ㉡의 선택 비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보아 ㉡는 표적 대안에 해당하겠군.
- ④ ㉢의 출시로 ㉠과 ㉡ 간의 가격 차이를 상대적으로 적게 느낀 소비자들이 있었겠군.
- ⑤ ㉢가 시장에 추가로 출시되었을 때, ㉡를 선택한 소비자는 자신의 선택을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쉬웠겠군.

23. ㉣을 이용한 기업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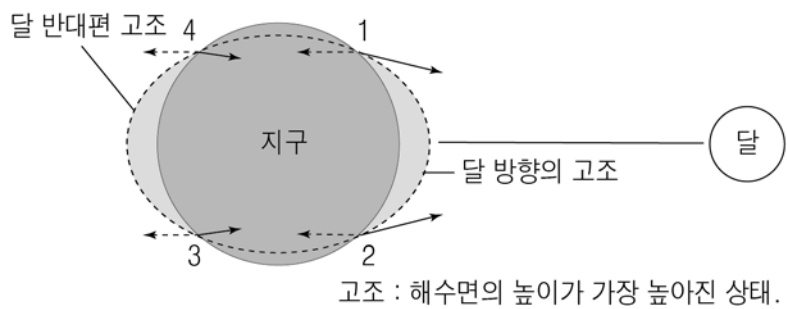
- ① 의류 회사에서 유행이 지난 의류의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정가의 50%로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 ② 자사 과자의 시장점유율을 경쟁 회사보다 높이기 위해 인기 캐릭터 스티커를 넣어 판매하는 경우
- ③ 고기능-고가 카메라를 출시하여 저기능-저가 카메라에 밀려 팔리지 않던 자사 제품을 중기능-중가로 만드는 경우
- ④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향이 독특하면서도 질이 좋은 원료로 만든 커피를 판매하여 고급 커피 시장을 개척하는 경우
- ⑤ 음료 회사에서 새로 출시한 이온 음료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제품 광고에 유명 영화배우를 광고 모델로 출연시키는 경우



[24~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나라의 서해안을 소개할 때 종종 ‘조석 간만의 차가 큰 지역’이라는 표현이 들어갈 때가 있다. 여기서 ‘조석 간만의 차’는 무엇을 의미할까? ‘조석’은 하루 동안 해수면이 오르내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썰물로 인해 해수면이 가장 낮을 때를 ‘간조’라고 하고, 밀물로 인해 해수면이 가장 높을 때는 ‘만조’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서해안에서는 하루에 만조와 간조가 두 번씩 일어난다. ‘조석 간만의 차’란 밀물과 썰물로 인한 하루 동안의 해수면 높낮이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흔히 달의 인력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조석’은 기조력에 의한 것이다. 기조력은 달의 인력, 태양의 인력, 원심력이 합해진 힘을 말한다.



그림에서 지점 1, 2, 3, 4의 점선 화살표는 지구의 회전 운동에 의한 원심력을 보여 주고, 달 쪽으로 향하고 있는 실선 화살표는 달의 인력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에서의 원심력은 달과 지구의 공통 질량 중심\*의 주위를 지구가 회전 운동하여 생기는 힘이다. 원심력은 모든 측정 지점에서 크기와 방향이 모두 같다. 그런데 달의 인력은 달과의 거리에 따라 달라지므로 크기와 방향이 다르다. 또한, 달의 위상\*에 따라 지구 내에서 작용하는 기조력은 그 크기가 다르게 나타난다. 1, 2 지점 사이에서는 달에 가까워 인력이 반대쪽으로 향하는 원심력보다 크기 때문에 이곳의 해수가 그림처럼 달 쪽으로 끌려간다. 3, 4 지점 사이에서는 인력보다는 원심력이 크기 때문에 해수는 달 반대쪽으로 끌려간다. 이렇게 기조력은 해수면의 높이를 변화시킨다.

조석에는 달뿐만 아니라 태양도 영향을 미친다. 기조력은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천체의 질량에 비례하고 이 천체와 지구 간의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한다. 태양은 달보다 훨씬 큰 질량을 갖지만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는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보다 훨씬 멀기 때문에 지구에 대한 태양의 기조력은 달의 기조력에 비해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달의 위상이 삭과 망일 때, 태양과 달은 일렬로 놓이게 되고 기조력이 가장 강해진다. 이때 조석 간만의 차는 최대가 되고, 이때를 ‘사리’라고 한다. 그런데 달의 위상이 상현과 하현일 때, 달과 태양은 지구를 중심으로 직각에 놓이게 된다. 이때 태양에 의한 기조력은 달에 의한 기조력에 영향을 주어 그 힘을 작아지게 한다. 그 결과 조석 간만의 차가 가장 작게 되는데 이때를 ‘조금’이라 한다. 조금과 사리는 매월 두 번 발생한다.

이와 같은 조석의 변화는 조류의 빠르기와 방향에도 영향을 준다. 조류의 빠르기는 조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조석 간만의 차가 클수록 조류의 속도도 빨라진다. 그리고 만조와 간조 시에는 그 흐름의 방향이 정반대이다.

\* 공통 질량 중심: 두 행성이 서로의 중력장 안에 있어 계를 형성할 때, 한 점에 대해서 공전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 한 점을 공통 질량 중심이라고 함.  
\* 위상: 위치에 따른 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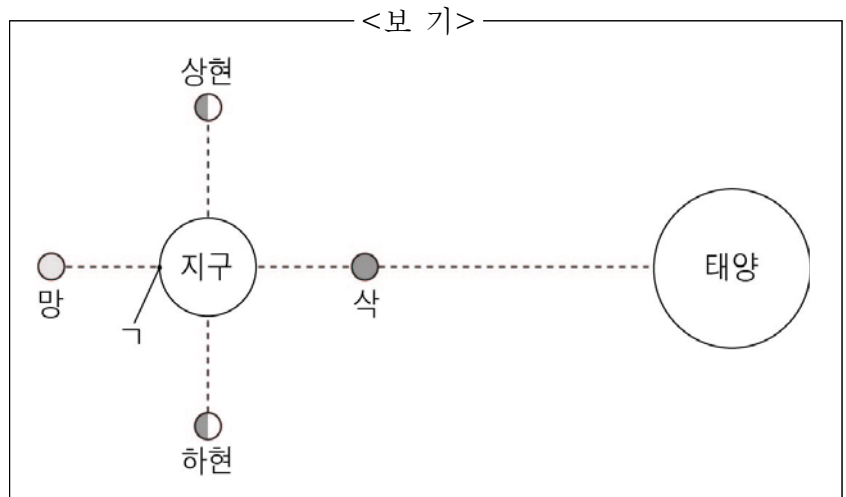
2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과 관련한 가설에 대해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 있다.
- ② 대상의 발생 이유를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③ 대상의 발달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하고 있다.
- ④ 대상과 관련한 두 이론을 통합하여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고 있다.
- ⑤ 대상의 구조적 특징을 유사한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5.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조금은 해수면의 높이가 하루 중 가장 낮을 때를 말한다.
- ② 지구에 작용하는 달에 의한 기조력이 태양에 의한 기조력보다 크다.
- ③ 달에 의한 기조력은 지구의 어느 지점에서나 크기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 ④ 조석은 밀물과 썰물로 인한 해수면의 높이 변화가 가장 클 때를 의미한다.
- ⑤ 우리나라 서해안에서는 기조력에 의한 조류의 방향이 하루에 한 번만 육지로 향하게 된다.

2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달의 위상이 삭일 때, ㄱ지점에는 지구의 원심력이 달의 인력보다 크게 작용하겠군.
- ② 달의 위상이 망일 때, 조석 간만의 차는 달의 위상이 상현일 때보다 크겠군.
- ③ 달의 위상이 삭이나 망일 때, 해수의 조류 속도는 한 달 중 가장 빠르겠군.
- ④ 달의 위상이 상현일 때, 조석에 영향을 미치는 기조력은 달의 위상이 삭일 때보다 약해지겠군.
- ⑤ 달의 위상이 상현이나 하현일 때, 조석 간만의 차는 최대가 되겠군.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미지란 무엇인가? 근대 철학자들은 우리가 현실 세계의 사물을 감각에 의해 지각하여 실제 세계를 구성하듯 이미지도 감각을 바탕으로 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현실 세계는 인간에 의해 지각되기 이전에 이미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세계를 의미하고, 실제 세계는 이러한 현실 세계를 인간의 지각에 의해 파악한 세계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미지는 감각을 바탕으로 하지만 그것은 불완전하게 지각된 모사물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들은 이미지가 지각의 하위 영역이며 실제 세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등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사르트르는 ‘이미지 이론’을 통해 상상 세계를 제시하면서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 드러냈다.

사르트르는 “㉡ 실제 세계와 상상 세계는 본질적으로 서로 공존할 수 없다.”라고 단언하며 이 두 세계는 지각과 상상이라는 인식 방법의 차이에 따라 달리 인식되는 것이라 설명한다. 이는 두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를 지각에 의해 인식하기도 하고 상상에 의해 이미지로 인식하기도 한다는 것을 ㉢ 뜻한다. 결국 사르트르는 현실 세계가 우리의 의식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실제 세계와 상상 세계로 나누어지며 이 둘이 동시에 인식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르트르는 이전까지 실제 세계에 속한 영역이자 열등한 복사물 정도로 ㉣ 여겨져 왔던 이미지를 실제 세계에서 완전히 독립하여 상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정신 의식으로 규정하였다.

이렇게 사르트르에 의해 실제 세계로부터 독립된 이미지는 인식된 그 순간부터 온전한 전체가 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지각에 의해 인식된 실제 세계는 세부적 특성이 파악될 때마다 변화하는 것에 비해 이미지는 우리가 아는 만큼만, 혹은 우리가 의도한 만큼만 구성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상을 비추는 조명의 색이 ㉤ 달라지면 실제 세계에서 지각되는 색채는 그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미지는 조명의 색이 달라지더라도 상상 세계에서 항상 같은 색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지는 지각에 의해 파악되는 실제 세계의 속성들과 단절되어 상상 세계에서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작년에 외국으로 떠난 친구에 대해 상상할 때, 그와 함께 하던 빈 방을 보며 그의 부재라는 실제 세계는 사라지고, 상상 세계에 이미지화되어 있는 친구의 모습만 떠오른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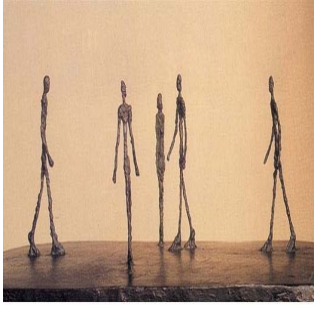
이러한 사르트르의 관점에서 예술을 바라본다면, 예술은 늘 변할 수밖에 없는 실제 세계가 아닌 독립된 상상 세계에서 인식되어야 한다. 고전적인 조각의 경우를 예로 들면 예술가는 자신이 지각한 그대로를 완벽하게 표현하려 ㉥ 애쓰지만 실제 세계에서 인식되는 대상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결국 지각에 의한 재현에는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조각을 상상 세계에서 이미지화하면 의도한 만큼 작품을 변하지 않게 구성할 수 있다. 이때 비로소 예술가가 나타내고자 했던 이미지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르트르는 변화하는 실제 세계가 아닌 독립된 상상 세계에서 예술을 대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27.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근대 철학자들은 이미지가 지각의 하위 영역이라고 생각했다.
- ② 근대 철학자들은 이미지가 대상을 온전하게 지각한 것이 아니라 모사한 것이라고 보았다.
- ③ 근대 철학자들은 실제 세계와 이미지 모두 감각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 ④ 사르트르는 이미지가 인식된 그 순간부터 이미지를 온전한 전체로 보았다.
- ⑤ 사르트르와 근대 철학자들의 입장이 다른 이유는 대상의 인식 주체를 다르게 보았기 때문이다.

28. 윗글의 ‘사르트르’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인간을 단순화하여 인간의 형상을 양상한 몰골로 드러냈다. 또한 광장에서 사람들이 엇갈린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이미지화하여 인간의 고독한 삶이라는 의미를 표현하였다. 그리고 감상자와 작품의 거리가 달라지더라도 대상이 전달하는 이미지는 변하지 않는다.

자코메티, 「도시 광장」

- ① 작가는 인간의 고독한 삶이라는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상상 세계에서 이미지화했겠군.
- ② 작가는 나타내고자 했던 이미지를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변화하는 실제 세계를 지각하려고 고민했겠군.
- ③ 작가가 인간을 단순화하여 조각한 것은 현실 세계를 상상이라는 인식 방법을 통해 이미지로 인식했기 때문이겠군.
- ④ 작가가 사람들이 엇갈린 방향으로 걷는 모습을 이미지화하였기 때문에 실제 세계의 속성들과 단절되어 나타나겠군.
- ⑤ 감상자와 작품의 거리가 달라지더라도 전달하는 이미지가 변하지 않는 것은 작가가 의도한 만큼만 이미지를 구성했기 때문이겠군.

29. 윗글을 통해 ㉥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실제 세계가 상상 세계로 통합되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의식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지는 두 세계가 동시에 인식될 수 없기 때문이다.
- ③ 대상이 주는 인상의 강도 차이에 따라 두 세계가 분명히 구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 ④ 지각된 대상과 완벽히 일치하는 세계와 지각된 대상과 일치하지 않는 세계가 있기 때문이다.
- ⑤ 분리된 두 세계는 정신 의식 속에서는 분리되지 않으며, 결국 인과관계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30.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표명했다                    ② ㉡: 의미한다
- ③ ㉢: 간주되어                    ④ ㉣: 변화하면
- ⑤ ㉤: 피력하지만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알록조개에 입맞추며 자랐나  
 눈이 바다처럼 푸르뎠더러 까무스레한 네 얼굴  
 가시내야  
 나는 발을 얼구며  
 무쇠다리를 건너온 함경도 사내

바람소리도 호개도 인전 무섭지 않다만  
 어두운 등불 밑 안개처럼 자욱한 시름을 달게 마시려다만  
 어디서 흥참한 기별이 뛰어들 것만 같애  
 두터운 벽도 이웃도 못 미더운 ㉠북간도 술막

온갖 방자의 말을 품고 왔다  
 눈포래를 뚫고 왔다  
 가시내야  
 너의 가슴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을 나는 헤메이자  
 술을 부어 남실남실 술을 따르어  
 ㉡가난한 이야기에 고히 잠거다오

네 두만강을 건너왔다는 석 달 전이면  
 단풍이 물들어 천리 천리 또 천리 산마다 불탔을 겐데  
 그래두 외로워서 슬퍼서 초마쪽으로 얼굴을 가렸더냐  
 두 낮 두 밤을 ㉢두루미처럼 울어 울어  
 불술기 구름 속을 달리는 양 유리창이 흐리더냐

차알삭 부서지는 파도소리에 취한 듯  
 때로 ㉣싸늘한 웃음이 소리 없이 새기는 보조개  
 가시내야  
 울 듯 울 듯 울지 않는 전라도 가시내야  
 두어 마디 너의 사투리로 때 아닌 봄을 불러줄게  
 손때 수줍은 분홍 댕기 휘 휘 날리며  
 잠깐 ㉤너의 나라로 돌아가거라

이윽고 얼음길이 밝으면  
 나는 눈포래 휘감아치는 별판에 우줄우줄 나설 게다  
 노래도 없이 사라질 게다  
 자욱도 없이 사라질 게다

- 이용악, 「전라도 가시내」 -

(나)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청룡 흑룡 흩어져 비 개인 나루  
 잡초나 일깨우는 잔바람이 되라네

뱃길이라 서울 사흘 목계 나루에  
 아흐레 나흘 찾아 박가분 파는  
 가을별도 서러운 방물장수 되라네  
 산은 날더러 들꽃이 되라 하고  
 강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산서리 맵차거든 풀 속에 얼굴 묻고  
 물여울 모질거든 바위 뒤에 붙으라네  
 민물 새우 꿍어 넘는 토방 툃마루  
 석삼년에 한 이레쯤 천치로 변해  
 짐부리고 앉아 쉬는 떠돌이가 되라네  
 하늘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고  
 산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 신경림, 「목계장터」 -

3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② 시상의 반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③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④ 구체적 청자를 설정하여 대상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음성 상징어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3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가시내가 함경도 사내와 함께 있는 공간으로 두렵고 불안한 상황임을 나타낸다.
- ② ㉡: 가시내의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삶을 나타낸다.
- ③ ㉢: 가시내가 고국을 떠나야 했던 슬픔을 나타낸다.
- ④ ㉣: 가시내가 함경도 사내에게 느끼는 연민의 정서를 나타낸다.
- ⑤ ㉤: 가시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추억의 공간을 나타낸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와 (나)에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없어 유랑의 삶을 살아가는 민중들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가)는 유랑하는 삶의 고통과 이에 대응하는 모습, 비슷한 처지의 사람끼리 위로하는 모습 등을 그리고 있고, (나)는 떠돌이 삶의 비애와 갈등을 그리고 있다.

- ① (가)의 ‘봄을 불러줄게’에는 함경도 사내가 가시내의 삶을 위로하고자 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군.
- ② (가)의 ‘별판에 우줄우줄 나설 게다’에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맞서려는 함경도 사내의 모습이 나타나 있군.
- ③ (나)의 ‘가을별도 서러운’에는 유랑하는 민중들의 삶의 비애가 드러나 있군.
- ④ (가)의 ‘눈포래’, ‘얼음길’과 (나)의 ‘산서리’, ‘물여울’은 유랑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시련을 나타내는군.
- ⑤ (가)의 ‘자욱도 없이 사라질 게다’와 (나)의 ‘짐부리고 앉아 쉬는’에는 현실을 극복하려는 민중들의 의지가 드러나 있군.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늙고 병든 몸을 주사(舟師)\*로 보내시어 [A]  
 을사(乙巳)년 여름에 진동영(鎭東營)에 내려오니  
 국경의 요새에 병이 깊다고 앉아 있으랴  
 일장검(一長劍) 비스듬히 차고 병선(兵船)에 감히 올라  
 두 눈을 부릅뜨고 대마도(對馬島)를 굽어보니  
 바람을 쫓아가는 황운(黃雲)은 원근(遠近)에 쌓여 있고  
 아득한 창파(滄波)는 긴 하늘과 한 빛일세  
 선상(船上)에 거닐면서 예와 오늘을 생각하고 [B]  
 어리석고 미친 생각에 현원씨(軒轅氏)\*를 애달파 하노라  
 대양(大洋)이 넓고 아득하여 천지(天地)를 둘러 있으니  
 진실로 [C] 아니면 풍파 만 리 밖의 어느 오랑캐가 옛불런가  
 무슨 일 하려고 배 만들기를 비롯하였는가  
 만세천추(萬世千秋)에 끝없는 큰 폐(弊) 되어  
 넓고 넓은 이 세상에 만백성의 원한 사네  
 어즈버 깨달으니 진시황(秦始皇)의 탓이로다  
 배 비록 있다 하나 왜적이 아니 생겼던들 [C]  
 일본의 대마도(對馬島)에서 빈 배 절로 나올 것인가  
 누구 말을 믿어 듣고, 동남동녀(童男童女)를 들여다가  
 해중(海中) 모든 섬에 도적들을 남겨 두었나  
 통분(痛憤)한 수치가 중국 땅에 미치도다  
 장생(長生) 불사약(不死藥)을 얼마나 얻어 내어  
 만리장성(萬里長城) 높이 쌓고 몇 만 년을 살았던고  
 남과 같이 죽어 가니 유익한 줄을 모르겠네  
 (중략)  
 때때로 머리 들어 북쪽을 바라보며  
 어지러운 세상에 늙은이 눈물짓네  
 우리나라 문물(文物)이 한당송(漢唐宋)에 지라마는 [D]  
 국운(國運)이 불행하여 왜적의 흉한 침략  
 만고의 그 원한을 못 씻어 버렸거든  
 백분(百分)에 한 가지도 못 씻어 버렸거든  
 이 몸이 무상(無狀)한들 신하 되어 있다가 [E]  
 궁달(窮達)의 길이 달라 못 모시고 늙어간들  
 우국단심(憂國丹心)이야 어느 뎨들 잊겠는가  
 - 박인로, 「선상탄(船上嘆)」 -

\* 주사: 수군.  
 \* 현원씨: 처음으로 배를 만들었다고 전하는 전설의 인물.

(나)  
 경오년(1810) 여름에 엄청난 파리떼가 생겨나 온 집 안에 가득하더니 점점 번식하여 산과 골을 뒤덮었다. 으리으리한 저택에도 엉겨 붙고, 술집과 떡집에도 구름처럼 몰려들어 우레 같은 소리를 내었다. 노인들은 괴변이라 탄식하고, 소년들은 분을 내어 파리와 한바탕 전쟁을 벌이려고 했다. 혹은 파리통을 설치해 잡아 죽이고, 혹은 파리약을 놓아 섬멸하려 했다.  
 나는 이를 보고 말했다.  
 “아아, 이 파리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 굶어 죽은 사람들이 변해서 이 파리들이 되었다. 아아, 이들은 기구하게 살아난 생명들이다. ㉠슬프게도 작년에 큰 기근을 겪었고, 겨울에

는 혹독한 추위를 겪었다. 그로 인해 전염병이 유행하였고, 가혹하게 착취까지 당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시신이 쌓여 길에 즐비했으며, 시신을 싸서 버린 거적이 언덕을 뒤덮었다. 수의도 관도 없는 시신 위로 따뜻한 바람이 불고, 기온이 높아지자 살이 썩어 문드러졌다. 시신에서 물이 나오고 또 나오고, 고이고 영기더니 변하여 구더기가 되었다. 구더기떼는 강가의 모래알보다 만 배나 많았다. 구더기는 점차 날개가 돋아 파리로 변하더니 인가로 날아들었다. ㉡아아, 이 파리들이 어찌 우리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존재가 아니라. 너의 생명을 생각하면 눈물이 줄줄 흐른다. 이에 음식을 마련해 파리들을 널리 불러 모으나니 너희들은 서로 기별하여 함께 와서 이 음식들을 먹어라.”  
 이에 다음과 같이 파리를 조문(弔問)한다.  
 파리야, 날아와 이 음식 소반에 앉아라. 수북한 흰 쌀밥에 맛있는 국이 있단다. 술과 단술이 향기롭고, 국수와 만두도 마련하였다. ㉢그대의 마른 목을 적시고 그대의 타는 속을 축여라.  
 (중략)  
 파리야, 날아오너라. 살아 돌아오지는 마라. 그대 지각 없어 아무것도 모르는 걸 축하하노니 그대 죽어도 재앙은 형제에게까지 미친다. 6월이면 조세를 독촉하며 아전이 문을 두드리는데, 그 소리 사자의 포효처럼 산천을 흔든다. 가마솔도 빼앗아 가고 송아지와 돼지도 끌고 간다. 그러고도 부족하여 관가에 끌고 가 곤장을 치는데, 맞고 돌아오면 기진하여 병에 걸려 죽어 간다. 백성들은 온통 놀리고 짓밟혀 괴로움과 원망이 너무도 많지만 천지 사방 어디라 호소할 데 없구나. 백성들 모두 다 죽어 가도 슬퍼할 수도 없구나. ㉣어진 이는 움츠려 있고 소인배는 비방이나 일삼는다. 봉황은 입 다물고 까마귀만 우짖는다.  
 파리야, 날아서 북쪽으로 가거라. 북으로 천 리를 날아 궁궐로 가거라. 임금님께 그대의 충정을 하소연하고 깊은 슬픔 펼쳐 아뢰어라. 어려운 궁궐이라고 시비(是非)를 말 못하진 마라. 해와 달처럼 환히 백성의 사정 비추어서 어진 정치 펴주십사 간곡히 아뢰어라. ㉤번개처럼 우레처럼 임금님 위엄이 떨쳐지게 해 달라고 하여라. 그러면 곡식은 풍년이 들고 백성은 굶주리지 않으리라. 파리야, 그런 다음 남쪽으로 돌아 오려무나.  
 - 정약용, 「파리를 조문한다」 -

34. (가)의 [A]~[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주사’로 임명되어 ‘진동영’에 내려온 화자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② [B]에는 배를 만든 ‘현원씨’를 추모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③ [C]에는 왜적을 생기게 한 ‘진시황’에 대한 화자의 원망이 드러나 있다.
  - ④ [D]에는 ‘한당송’에 뒤지지 않는 ‘문물’을 가졌음에도 ‘왜적’의 침략을 받아 원통해 하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 ⑤ [E]에는 ‘신하’로서 ‘우국단심’을 다짐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3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열거를 통해 백성들이 겪었던 고통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② ㉡: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파리를 죽은 백성들로 인식하는 필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 의인법을 사용하여 굶주려 죽은 백성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대비를 통해 관리들의 부패를 개혁하려는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비유를 통해 필자가 바라는 임금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36. (가)의 [배]와 <보기>의 [빈 배]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추강(秋江)에 밤이 드니 물결이 츄노매라.  
 낚시 드리치니 고기 아니 무노미라.  
 무심(無心)한 달빛만 싣고 [빈 배] 저어 오노라.  
 - 월산대군 -

- ① (가)의 '배'는 화자가 머물러 있다가 떠난 공간이고, <보기>의 '빈 배'는 화자가 머무르고 있는 공간이다.
- ② (가)의 '배'는 화자에게 시름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보기>의 '빈 배'는 화자의 무욕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의 '배'와 달리 <보기>의 '빈 배'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보기>의 '빈 배'와 달리 (가)의 '배'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⑤ <보기>의 '빈 배'와 달리 (가)의 '배'는 계절적 배경과 어울려 풍류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37. 다음은 수업 시간 중 학습한 내용이다. (가), (나)를 감상 요소에 따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감상 요소	감상한 내용
현실 인식	○ (가)의 화자는 주사(舟師)로서의 충성심을, (나)의 화자는 백성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있군. .... ①
원인 분석	○ (가)의 화자는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과거의 인물과 관련지어 생각하고 있군. .... ② ○ (나)의 화자는 기근, 전염병, 가혹한 착취 등으로 백성들이 죽음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있군. .... ③
화자의 태도	○ (가)의 화자는 왜적을 이기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군. .... ④ ○ (나)의 화자는 어진 정치가 펼쳐져 백성이 굶주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군. .... ⑤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 이두병이 스스로 황제라 일컫고 국법을 새로이 하여 각국 열읍에 공문을 보내 벼슬도 올려 주는지라. 여러 신하들이 모여 동궁을 폐하여 외객관으로 내치니, 후궁과 벼슬아치들과 내외궁의 노비 등이 하늘을 부르짖고 땅을 치며 끝없이 슬프고 마음 아파하니 ㉠푸른 하늘이 부르짖는 듯하고 태양도 빛을 잃은 듯하더라. 이때 왕 부인이 이러한 변을 보고 크게 놀라 실색하여,

“마땅히 죽으리로다.”  
 하며, 주야로 하늘을 향해 빌며 말하기를,  
 “웅의 나이 팔 세에 불과하니 죄 없는 것을 살려 주소서.”  
 하며 애걸하니 그 모습을 차마 보지 못하겠더라. 웅이 모친을 붙들고 만 가지로 위로하여 말하기를,  
 “모친은 불효자식을 생각하지 마시고, 천금같이 귀하신 몸을 보존하소서. 꿈 같은 세상에 유한한 간장을 상하게 하지 마소서. 인생에서 죽는 일 하나만은 제왕도 마음대로 못하옵거늘 어찌 한 번 죽음을 면하오리까? 짐작하옵건대 ㉡이두병은 우리의 원수요, 우리는 그의 원수가 아니오니 어찌 조용이 이두병의 칼에 죽겠사오리까? 조금도 염려치 마옵소서.”  
 하며 분기를 참지 못하더라.

이때 이두병이 큰아들 관으로 동궁을 봉하고 국호를 고쳐 평순황제(平順皇帝)라 하고 연호를 새로 고쳐 건무(建武) 원년(元年)으로 삼았다.

이즈음에 송 태자를 외객관에 두었더니, 여러 신하들이 다시 간하여 태산 계량도에 유배하여 주거를 제한하고 소식을 끊게 하였다. 이날 왕 부인 모자가 태자께서 유배되었다는 말을 듣고 망극하여,

“우리 도망하여 태자를 따라 사생(死生)을 한 가지로 하고 싶으나 종적이 탄로나면 이에 앞서 죽을 것이니 어찌하리오?”  
 하며 모자가 주야로 통곡하더라. 하루는 웅이 황혼의 명월을 보며 원수 갚을 묘책을 생각하더니, 마음이 아득하고 분기탱천(憤氣撐天)한지라. 울적한 기운을 참지 못하여 부인 모르게 중문에 내달아 장안 큰길 위를 두루 걸어 한 곳에 다다르니 여러 사람들이 모두 모여 시절 노래를 부르거늘, 들으니 그 노래는 이러하더라.

국파군망(國破君亡)\*하니 무부지자(無父之子)\*나시도다.  
 문제(文帝)가 순제(順帝)되고 태평(太平)이 난세로다.  
 천지가 불변하니 산천을 고칠소냐.  
 삼강이 불퇴하니 오륜을 고칠소냐.  
 맑고 밝은 하늘에서 소슬히 내리는 비는  
 충신원루(忠臣冤淚) 아니면 소란스럽게 구는 사람의 하소연이로다.  
 슬프구나 백성들아, 오호에 한 조각배를 타고  
 사해에 노니다가 시절을 기다려라.

웅이 듣기를 다함에 분을 이기지 못하고 두루 걸어 경화문에 다다라 대궐을 바라보니, 인적은 고요하고 월색은 뜰에 가득한데 오리와 기러기 몇 쌍이 못에 떠 있고, 십 리나 되는 화원에 전 왕조의 경치와 풍물 아닌 것이 없더라. ㉢전 왕조의 일을 생각하니 일편단심에 굵이 굵이 쌓인 근심이 갑자기 생겨나는지라. 조용이 담장을 넘어 들어가 이두병을 만

나서 사생을 결단하고 싶으나 힘이 모자랄뿐더러, 문 안에 군사가 많고 문이 굳게 닫혀 있는지라 할 수 없이 그저 돌아 서며 분을 참지 못하여 붓을 넣어 차고 다니던 주머니에서 붓을 내어 경화문에 글자가 잘 보이도록 글자를 크게 써서 이두병을 옥하는 글 몇 구를 지어 쓰고는 자취를 감추어 돌아오더라.

(중략)

이날 밤에 황제가 꿈이 몹시 흉하고 참혹하기에 날이 밝기를 기다려 여러 신하들을 궁궐로 불러 들여 꿈속의 일을 의논할 때, 경화문을 지키던 관원이 급히 고하기를,  
“밤이 지나고 나니 문밖에 없던 글이 있기에 옮겨 적어 올립니다.”  
황제가 그 글을 보니,

‘송나라 황실이 쇠약하고 미미하니 간신이 조정에 가득하도다! 만민이 불행하여 황제의 상이 나셨도다! 동궁이 장성하지 못했으니 소인이 득세하는 때로다! 만고 소인 이두병은 벼슬이 일품이라. 무엇이 부족하여 역적이 되었던 말인가? 천명이 온전하거든 네 어이 장수하리오. 동궁을 어찌하고 네가 옥새를 전수하느냐? ㉠진시황의 날랜 사슴 입자 없이 다닐 때에 초패왕의 세상 덮는 기운과 범종의 신기한 능력으로도 임의로 못 잡아서 임자를 주었거늘\*, 어이할까 저 반적이야! 부귀도 좋거니와, 신명을 돌아보아 송업을 끊지 말라. 광대한 천지간에 용납 없는 네 죄목을 조목 조목 생각하니 한 줄의 글로도 기록하기 어렵도다.  
이 글은 전조 충신 조용이 삼가 쓰노라.’  
하였더라.

황제와 여러 신하들이 보고 나서 놀라며 분기등등하여 우선 경화문 관원을 잡아들여 그때에 잡지 못한 죄로 곤장을 쳐서 내치고는 크게 호령하여 조용 모자를 결박하여 잡아들이라 하니 장안이 분분한지라. 관원들이 조용의 집을 에워싸고 들어가니 인적이 고요하고 조용 모자는 없는지라. 죄인을 다스리는 벼슬아치가 돌아와서 도망한 사연을 황제에게 아뢰니, 황제께서 책상을 치며 크게 노하여 대신을 크게 꾸짖어 말하기를,

“조용 모자를 잡지 못하면 여러 신하에게 중죄를 내릴 것이니 바빠 잡아 짐의 분을 풀게 하라.”

하니, ㉡여러 신하들이 매우 급하고 두려워하여 장안을 에워싸고, 또한 황성 삼십 리를 겹겹이 싸고 곳곳을 뒤져 본들 벌써 삼천 리 밖에 있는 조용을 어찌 잡으리오.

- 작자 미상, 「조용전」 -

\* 국과군망: 나라가 망하고 임금이 돌아가심.  
\* 무부지자: 아버지가 없는 아들.  
\* 진시황의~주었거늘: 진시황이 죽고 초패왕 항우가 그의 용맹함과 비범한 능력을 가진 책사 범증이 있음에도 황제가 되지 못하고 결국 유방이 황제가 된 일을 말함.

3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왕 부인은 이두병이 황제에 오르자 조용의 안위를 걱정했다.
- ② 조용 모자는 송 태자와 사생을 같이 하겠다는 계획을 실행했다.
- ③ 이두병은 송 태자를 대신하여 자신의 큰아들을 동궁으로 봉했다.
- ④ 이두병은 송 태자를 유배 보내자는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 ⑤ 이두병은 조용이 쓴 경화문의 글을 보고 조용을 잡아들이게 했다.

3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조용전은 나무판에 글자를 새겨 찍어낸 방각본 소설로 여러 판본의 작품들이 남아 있다. 이 작품에는 선의 회복을 추구하는 작가와 수용자의 욕망이 내재되어 있어 당시 독자들에게 인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영웅의 모습으로 그려지며, 악을 물리치고 태평한 질서를 회복하려는 선의 욕망을 지닌 인물이다. 반면 반역을 꾀하는 인물들은 악의 욕망을 지녀 선의 욕망을 지닌 인물들과 대립하고 갈등한다.

- ① 이두병이 황제의 자리에 올라 송 태자를 내쫓는 모습에는 악의 욕망이 드러나 있군.
- ② 원수 갚을 묘책을 생각하는 조용의 모습에는 악에 맞서려는 선의 욕망이 나타나 있군.
- ③ 여러 사람들이 부른 ‘시절 노래’에는 선의 회복을 추구하는 작가와 수용자 층의 욕망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군.
- ④ 조용이 경화문에 쓴 글에는 악을 물리치고 태평한 질서를 회복하고 싶은 조용의 욕망이 내재되어 있군.
- ⑤ 경화문에 글을 쓴 조용을 잡지 못하는 관원들의 모습에서 악이 선의 세력에 의해서 축출되었음을 알 수 있군.

40.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새로운 황제의 등극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슬픔을 비유적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 이두병과의 싸움의 결과를 회의적으로 전망하는 조용의 심리를 대조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③ ㉢: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는 새로운 황제에 대한 조용의 원망을 서술자가 직접 제시하고 있다.
- ④ ㉣: 이두병이 황제가 된 것은 하늘의 뜻이었음을 고사(古事)를 인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⑤ ㉤: 이두병을 속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신하들의 모습을 편 집자적 논평으로 드러내고 있다.



[41~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돈으로 의관이라는 벼슬을 산 조 의관은 족보인 대동보를 엮는 데 돈을 쓰며 ○○당 할아버지 산소를 꾸미자는 문중의 요구를 받고, 조상훈은 이 문제로 육촌인 조창훈과 다툰다.

영감도 결단코 어수룩한 사람은 아니다. 어수룩이라니 거의 후반생을 셈과 ㉠주판으로 늙은 사람이었다.

속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면서 천냥 만냥 판\*으로 돌아다니거나 있는 집 사랑 구석에서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는 조가의 떨거지들이 다른 수단으로는 이 영감의 주머니끈을 풀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족보를 앞장세우고 살고 굶고 하는 바람에 조춤조춤 쓰기 시작한 것이 삼천여 원 근 사천여 원을 쓰게 되고 보니 속으로 퐁퐁 앓는 판인데 또 ㉡○○당 할아버지를 앞세워서 오천 원 논란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오천 원을 부른 사람도 그만큼 불러야 삼천 원은 우려 내려니 하는 것이요, 조 의관도 오천 원의 반절은 아무래도 또 털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죽을 날이 알파하여 가니까 ×× 조씨 문중에서 자기가 둘째 중시조\*나 되는 셈치고 이 세상에 남겨 놓고 가는 기념사업이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해보려는 노릇이다.

그래서 요새로 부쩍 달고 치는 바람에 그러면 우선 ㉢천원 하나를 내놓을 터이니 오백 원은 산소를 꾸미는 데에 쓰고 오백 원은 묘막을 짓되 부족되는 것은 조상의 산소 근처에 있는 조씨들이 금력으로 보태든지 돈 없는 사람은 부역으로 ㉣흙 한 줌 때 한 장씩이라도 떠다가 힘으로 보태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제위답\*으로는 다소간 나중에 마련해 놓으라고 하였다. 조 의관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천 원 내놓고 이천 원 들인 생색은 내려니 하는 속다짐이다.

“그래야 결국 아저씨께서는 돈 천 원 하나밖에 안 내놓으신다니까 나중에 뒷감당은 우리 발로다 돌아다니며 굶어모아야 할 셈이라네. 말 내놓고 안 할 수 있나! 이래저래 뺏골만 빠지고 잘못되면 시비는 우리만 만나고…….”

창훈이는 한참 앉았다가 혼잣말처럼 이런 소리를 한다.

“장한 사업 하슈. ○○당 할아버지가 묘막 지어달라고, 산소 앞에 석물(石物)이 없어서 호젓하다고 하십니까?”

상훈이는 ‘합디까’라고 입에서 나오는 것을 겨우 ‘하십디까’라고 존대를 하였다. ○○당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좀 어설픈다. 예수교인이라 하여 자기 조상을 존경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부친이 새로 모셔 온 십 몇 대조 할아버지라 하니 좀 낯설기 때문이다.

“그런 소린 아예 말게. 자네는 천주학을 하니까 이런 일에는 반대인지 모르지만 조상 없이 우리 손이 어떻게 퍼졌으며 ㉤조상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어떻게 우리 조씨도 그렇게 해서 남에 빠지지 않고 자자손손에 번창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창훈이는 못마땅한 것을 참느라고 더욱 이죽이죽 대거리를 한다.

(중략)

“대동보소만 하더라도 족보 한 길에 오십 원씩으로 매었다 하니 그 오십 원씩을 푹푹 수봉하면 무엇 하자고 삼사천

원이 가외로 들겠습니까?”

“삼사천 원은 누가 삼사천 원 썼다던?”

영감은 아들의 말이 옳다고는 생각하였으나 실상 그 삼사천 원이란 돈이 족보 박는 데에 직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 조씨로 무후(無後)한 집의 계통을 이어서 일문일족에 끼려 한즉 군식구가 늘면 양반의 진국이 묶어질까 보아 반대를 하는 측들이 많으니까 이 입들을 씻기 위하여 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난봉자식이 난봉 핀 돈 액수를 줄이듯이 이 영감도 실상은 한 천 원 썼다고 하는 것이다. 중간의 협잡배는 이런 약점을 노리고 우려 쓰는 것이지만 이 영감으로서 성한 돈을 가지고 이런 병신 구실 해보기는 처음이다.

[A] “그야 얼마를 쓰셨는지요. 그런 돈은 좀 유리하게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재하자 유구무언\*’의 시대는 지났다 하더라도 노친 앞이라 말은 공손했으나 속은 달았다.

“어떻게 유리하게 쓰란 말이냐? 너같이 오륙천 원씩 학교에 디밀고 제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자식 유인하는 것이 유리하게 쓰는 방법이나?”

아까부터 상훈이의 말이 화롯가에 앉아서 폭발탄을 만지작거리는 것 같아서 위태위태하더라니 겨우 간정되려던 영감의 감정에 또 불을 붙여 놓고 말았다.

상훈은 어이가 없어서 얼굴이 벌게진다.

부친의 소실 수원집과 경애 모녀와는 공교히도 한 고향이다. 처음에는 감쪽같이 속여 왔으나 수원집만은 연줄연줄이 닿아서 경애 모녀의 코빼기도 못 보았건마는 소문을 뻗히 알고 따라서 아이를 낳은 뒤에는 집안에서 다 알게 되었던 것이다. 덕기 자신부터 수원집의 입에서 대강 들어 안 것이다. 그러나 상훈이 내외끼리 몇 번 싸움질이 있던 외에는 노영감도 이때껏 눈 감아 버린 것이요, 경애가 들어 있는 북미창정 그 집에 대하여도 부친이 채근한 일은 없는 것이라서 지금 조인광 좌중(稠人廣座中)\*에서 아들에게 대하여 학교에 돈 쓰고 제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 유인하였다는 말을 터놓고 하는 것을 들으니 아무리 부친이 화тім에 한 말이라 하여도 듣기에 괴란쩍고 부자간이라도 너무 야속하였다.

“아버님께서 너무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어쨌든 세상에 좀 할 일이 많습니까. 교육 사업, 도서관 사업, 그 외 지금 조선어 자전 편찬하는데…….”

상훈은 조심도 하려니와 기를 녹이어서 차근차근히 이왕지사 말이 나왔으니 할 말은 다 하겠다는 듯이 말을 이어 나가려니까 또 벼락이 내린다.

“듣기 싫다! 누가 네게 그 따위 설교를 듣자든? 어서 가거라.”

“하여간에 말씀입니다. 지난 일은 어쨌든 지금 이 판에 별안간 ㉥치진\*이란 당한 일입니다. 치산만 한대도 모르겠습니까마는 서원을 짓고 유학생들을 몰아다 놓으시렵니까? 돈도 돈이거니와 지금 시대에 당한 일입니다?”

상훈이는 아까보다 좀 언성을 높여서 반대를 하였다.

“잔소리 마라! 그놈 나가라니까 점점 더하고 섰구나. 내가 무얼 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내가 죽으면 동전 한 닢이라도 너를 남겨 줄 줄 아니! 너는 이후 아무리 굶어 죽는다 하여도 한 푼 없다. 너는 없는 셈만 칠 것이니까…… 너희들도 다 들어 두어라.”

하고 좌중을 둘러다보며 말을 잇는다.

[B] “내 재산이라야 얼마 있는 게 아니다마는 반은 덕기에게 물려줄 것이요, 그 나머지로 는 내가 쓰고 싶은 데 쓰다 남으면 공평히 나누어 주고 갈 테다. 공증인을 세우든 변호사를 불러 대든 하여 뒤를 깡그러뜨려 놓 것이니까 너는 인제는 남 된 셈만 쳐라. 내가 죽으면 네가 머리를 풀 테냐? 거상을 입을 테냐?”

- 염상섭, 「삼대(三代)」 -

- \* 천냥 만냥 판: 노름판이라는 뜻.
- \* 중시조: 쇠퇴한 가문을 다시 일으킨 조상.
- \* 제위답: 추수한 것을 조상의 제사 비용으로 쓰기 위하여 마련한 논.
- \* 재하자 유구무언: 아랫사람으로서 어른에 대해 논쟁하지 못함을 이룸.
- \* 조인광 좌중: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가운데.
- \* 치산: 산소를 매만져서 다듬음.

4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전지적 시점으로 인물들의 복잡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인물의 외양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특정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③ 공간적 배경의 상징성을 활용하여 주제를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인물들의 체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여 주제를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 ⑤ 현재와 과거의 장면을 교차하여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4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조 의관이 금전적인 판단이 어설프지 않은 인물임을 드러낸다.
  - ② ㉡은 조 의관이 새로운 지출을 하게 될 원인이 된다.
  - ③ ㉢은 조 의관이 문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한 최대 금액이다.
  - ④ ㉣은 묘막 짓는 일에 문중 사람들이 힘으로라도 보태야 한다는 조 의관의 생각을 보여준다.
  - ⑤ ㉣은 묘막 짓는 일에 불만인 상훈을 염두에 두고 창훈이 한 말이다.

43. [치산]과 관련한 인물들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훈’은 이 일로 집안이 몰락할 것이라고 걱정한다.
  - ② ‘조 의관’은 이 일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내놓기로 했다.
  - ③ ‘조가의 딸거지들’은 가문의 발전을 위해 이 일을 제안했다.
  - ④ ‘창훈’은 이 일로 문중에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고민하고 있다.
  - ⑤ ‘조 의관’은 이 일로 자신이 문중에 기념할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44. [A]와 [B]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상훈은 조 의관에게 장자로서 신임을 얻으려 애쓰고 있다.
  - ② [A]에서 상훈은 유산 상속에 대한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③ [B]에서 조 의관은 상훈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 ④ [B]에서 조 의관은 [A]의 상훈의 비판을 수용하고 있다.
  - ⑤ [A]와 [B] 모두 상대방에 대한 동정심을 드러내고 있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삼대」는 구한말을 대표하는 할아버지 조 의관, 개화기를 대표하는 아버지 조상훈, 일제 강점기를 대표하는 손자 조덕기를 통해 1920~30년대의 생활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고 근대적으로 변화되는 시대상을 드러내고 있다. 작품 속의 인물들은 돈을 중심으로 대립하고 있는데, 특히 봉건적 의식을 지닌 조 의관과 개화기 지식인이지만 위선적인 조상훈의 대립을 통해 세대 간의 갈등을 보여 주기도 한다.

- ① ‘교육 사업’이나 ‘도서관 사업’을 강조하는 상훈의 모습에서 개화적 지식인으로서의 일면이 드러나는군.
- ② 조 의관이 신분을 사고 족보를 꾸미는 데 돈을 들인 것을 통해 조 의관의 봉건적 가치관이 드러나는군.
- ③ 조 의관의 비난에 상훈이 변명하는 것을 보니, 상훈은 개화적 의식은 지녔지만 민족의 현실을 외면하는 인물이군.
- ④ 상훈이 조 의관과 조상을 섬기는 일로 언쟁하는 것을 보니, 상훈은 조 의관의 가치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군.
- ⑤ 조 의관이 재산의 반을 상훈이 아니라 덕기에게 상속하려는 것을 통해 돈을 중심으로 세대 간의 갈등이 나타났던 시대상을 엿볼 수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 2015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B형 정답

1	①	2	①	3	①	4	⑤	5	②
6	②	7	④	8	③	9	④	10	④
11	②	12	④	13	⑤	14	⑤	15	⑤
16	①	17	①	18	③	19	④	20	⑤
21	④	22	③	23	③	24	②	25	②
26	⑤	27	⑤	28	②	29	②	30	⑤
31	③	32	④	33	⑤	34	②	35	④
36	②	37	④	38	②	39	⑤	40	①
41	①	42	③	43	⑤	44	③	45	③

## 국어 영역

### B형 해설

#### \*\* 화법 \*\*

#### 1. [출제의도] 의사소통 전략 평가하기

A형 1번 해설 참고.

#### 2. [출제의도] 필요한 정보 파악하기

A형 2번 해설 참고.

#### 3. [출제의도] 논제의 성격 파악하기

이 토론의 논제는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행위가 바람직한가를 판단하고, 적절한 논거를 들어 자신의 판단이 상대방의 판단보다 더 타당함을 밝혀야 하는 논제이다.

② '선의의 거짓말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논제는 사실 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논제가 아니라 가치 판단이 필요한 논제이다.

#### 4. [출제의도]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은 선의의 거짓말로 예상치 못했던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사례이다. 따라서 반대 측은 행위의 결과가 어떨지 아무도 미리 알 수 없으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의 근거로 ㉠을 활용할 수 있다.

① 선의의 거짓말로 상호 간의 신의를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은 찬성 측의 주장이 아니다. ③ 반대 측은 도덕규범을 지키는 것은 의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은 이와 관련이 없다.

#### 5. [출제의도] 반응의 적절성 판단하기

선의의 거짓말을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 측의 논지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일관성이 없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① 청중은 선의의 거짓말로 좋은 결과가 있었던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찬성 측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

#### \*\* 작문 \*\*

#### 6.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 파악하기

학생의 초고에서는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는 현실 상황을 제시한 후(①), 인문학의 이런 현상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삶에 대한 진정한 답을 구할 수 없다는 점을 전문가의 말을 활용하여 제시하였다(③). 그리고 인문학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된 원인을 사회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다(④). 해결 방안으로 사회적, 개인적 차원의 인문학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인문학 열풍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이 지속될 경우 사회는 더 어려워질 수 있음을 들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고(⑤) 정부와 사회적 차원의 노력을 당부하고 있다. 현황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 7. [출제의도] 개요를 바탕으로 글쓰기 점검하기

학생의 초고에는 개인적 차원에서 인문학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된 원인이 나타나 있지 않다.

#### 8.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글쓰기

<보기>의 (가)에서 프랑스는 인문학 교육에 비중을 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나)에서는 인문학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바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현재의 인문학을 처세의 수단과 도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 생각이다. 따라서 ㉠은 교육과정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과 개인의 인식 전환과 관련한 내용으로 수정·보완하는 것이 적절하다.

#### 9.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에 따른 표현하기

A형 9번 해설 참고.

#### 10. [출제의도] 내용 생성의 적절성 평가하기

A형 10번 해설 참고.

#### \*\* 문법 \*\*

#### 11. [출제의도] 부정 표현 탐구하기

ㄴ은 '해가 비치다'는 객관적 사실을 부정하는 표현이며, 긴 부정문뿐만 아니라 짧은 부정문이 모두 가능하다.

#### 12.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A형 14번 해설 참고.

#### 13. [출제의도] 맞춤법 규정 이해하기

'여단이'의 '여-'는 '열다'의 어간 '열-'이 '단다'와 합성되면서 'ㄹ'이 탈락한 경우로 제28항에 해당한다.

① '칼날'을 [칼달]이라고 발음하지만 제27항에 의거하여 '칼날'로 표기한다. ② '소나무'는 제28항에 의거하여 '솔나무'라고 표기하지 않는다.

#### 14. [출제의도] 표준 발음법 탐구하기

'사랑할수록'은 '사랑하다'의 어간 '사랑하-'에 '-ㄹ'로 시작하는 어미 '-ㄹ수록'이 결합한 경우이다. 따라서 제27항 [붙임] 규정을 적용하여 [사랑할수록]이라고 발음해야 한다.

④ 표준 발음법 제27항에 의하면, '갈 데가'는 관형사형 '-(으)ㄹ' 뒤에 'ㄷ'이 연결되므로 [갈때가]로 발음한다.

#### 15. [출제의도] 문장 표현의 적절성 판단하기

A형 15번 해설 참고.

#### 16. [출제의도]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높임법 비교하기

㉠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이다. '-시-'는 목적어 즉 객체인 '聖子(성자)'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체인 '하늘'을 높이고 있다.

③ 중세 국어의 객체 높임은 선어말 어미 '-줍-'을 사용하여 실현되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높임의 뜻을 가진 어휘 '여쭙다'를 사용하여 실현된다.

#### \*\* 인문 \*\*

#### □ 출전: 주현성, <지금 시작하는 인문학>

#### 17.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3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통해 스티븐은 개인을 규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2문단 마지막 문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2문단 첫 번째 문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2문단 5~7번째 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1문단 첫 번째 문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18. [출제의도] 공통된 생각 파악하기

2문단에서 '우리는 말을 할 때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회의 다양한 규제로부터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소쉬르는 '랑그'로 설명하였다. 2~3문단에서 바르트는 소쉬르의 이론을 이어나가 언어의 보이지 않는 규제로 랑그 이외에 '스틸'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언어에는 보이지 않는 규제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두 학자의 공통된 생각으로 볼 수 있다.

**19.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바르트의 관점에 의하면 이데올로기는 집단 구성원들이 그들의 에크리튀르를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할 때, 그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스미는 것이다. <보기>에서 A씨는 자신도 모르게 일기를 기사문처럼 쓴 것이지, 일기를 의식적으로 기사문처럼 쓴 것은 아니다.

① A씨는 언어 공동체가 공유한 약속이며 개인적 발화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추상적 체계인 랑그의 규제를 받고 있다. ⑤ A씨의 논리적 글쓰기가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되어 사용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마지막 문단을 통해서 구성원들은 그것을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인 것처럼 느끼게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20.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격식'은 '격에 맞는 일정한 방식.'을 의미한다. '제도나 법률 따위를 만들어 정함.'은 '제정'의 의미이다.

**\*\* 사회 \*\***

□ 출전: 안광호·곽준식, <행동경제학 관점에서 본 소비자 의사결정>

**21. [출제의도] 글의 중심 화제 파악하기**

1문단에서는 맥락 효과의 유형을, 2문단에서는 유인 효과의 개념과 예시를, 3문단에서는 타협 효과의 개념과 예시를, 4문단에서는 맥락 효과의 의미를 언급하고 있다. 타협 효과의 한계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22.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A]는 유인 효과와 관련된 설명이다. ㉔는 ㉓에 비해 품질이 우월하고 ㉕는 ㉔에 비해 가격 면에서 저렴하여 우월하기 때문에, 품질과 가격 면에서 ㉔와 ㉕는 상충 관계에 있다. 품질과 가격 면에서 ㉔보다 열등한 에어컨 ㉖가 출시되고 ㉔의 선택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볼 때 ㉕는 유인 대안이고, ㉖의 출시로 선택 비율이 높아진 ㉔는 표적 대안, 선택 비율이 낮아진 ㉕는 경쟁 대안이다.

**23.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㉑은 타협 효과와 관련한 소비자의 심리를 설명한 내용이다. 타협 효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대안 평가가 어려울 때, 자신이 비교하고자 하는 속성의 중간 대안을 선택하려 한다. 따라서 저기능-저가의 카메라에 밀려 팔리지 않는 자사의 카메라를 판매하기 위해 고기능-고가의 카메라를 출시하면, 기존의 자사 카메라는 중간 수준이 되어 이 제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 이것은 타협 효과와 관련한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매출을 늘리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 과학 \*\***

□ 출전: 강효진 외, <해양학>

**24. [출제의도]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이 글은 '조석 간만의 차'가 일어나는 이유를 달의 인력만이 아니라 태양의 인력, 달의 인력, 원심력의 합력인 기조력이라는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25.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4문단을 볼 때 태양은 달보다 큰 질량을 갖지만 달에 비해 지구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구에 미치는 태양의 기조력은 달의 기조력에 비해 절반 정도임을 알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기조력은 달의 위상에 따라 지구 내에서 그 크기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26.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보기>의 그림은 태양과 달이 지구와 일직선에 있는 상황과 지구와 달이 직각으로 놓여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보기>에서 달의 위상이 상현이나 하현일 때에는 기조력이 작아지게 되고, 그 결과 조석 간만의 차가 가장 작아져 '조금'이 나타난다.

**\*\* 예술 \*\***

□ 출전: 지영래, <사르트르의 미술론>

**27.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A형 27번 해설 참고.

**28. [출제의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기**

A형 28번 해설 참고.

**29. [출제의도] 세부 내용 추론하기**

A형 29번 해설 참고.

**30. [출제의도] 어휘 선택의 적절성 판단하기**

A형 30번 해설 참고.

**\*\* 현대시 \*\***

□ 출전: (가) 이용악, <전라도 가시내>

(나) 신경림, <목계장터>

**31.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는 '울 듯 울 듯'과 '~사라질 게다'의 반복을 통해, (나)는 '~되라 하고'와 '~되라 하네'의 반복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32.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싸늘한 웃음'은 가시내가 자신의 삶과 세상에 대해 갖는 웃음으로 볼 수 있다. 함경도 사내에게 연민을 느껴 갖는 웃음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복간도 술막'을 '홍참한 기별'이 뛰어든 것 같은, '이웃도 못 미더운' 공간으로 그리고 있으므로 '복간도 술막'이 불안하고 두려운 공간임을 알 수 있다. ⑤ '너의 나라'는 '너의 사투리', '수줍은 분홍 댕기'를 볼 때 가시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추억의 공간임을 알 수 있다.

**33. [출제의도]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가)의 '자옥도 없이 사라질 게다'는 함경도 사내가 별관에 나서는 비장한 정서를 드러낸 표현이지만, (나)의 '짐 부리고 앉아 쉬는'은 잠시나마 쉬고 싶은 정서를 표현한 것이므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봄을 불러줄게'는 함경도 사내가 가시내에게 '너의 나라'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하여 가시내를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갈래복합 \*\***

□ 출전: (가) 박인로, <선상탄(船上嘆)>

(나) 정약용, <파리를 조문한다>

**34.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화자는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배를 만든 '헌원씨'와 불사약을 찾기 위해 일본에 사람들을

보낸 '진시황'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을 원망하고 있다. 따라서 [B]에서 화자는 배를 만들어 왜적이 침범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헌원씨'를 원망하고 있지, 추모하는 것은 아니다.

**35.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㉔에서 필자는 대비를 통해 '어진 이'는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있고, '소인배'가 비방만 하고 있는 현실을 한탄하고 있다. 결국 백성들이 모두 죽어 가는 상황에서 호소할 곳도 없고, 도와줄 이도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① ㉑은 기근, 추위, 전염병, 가혹한 착취를 열거하여 백성들이 죽음에까지 이르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36. [출제의도] 다른 작품과 비교 감상하기**

(가)에서 화자는 '배'가 전쟁을 일으킨 원인이라고 여기고 있다. 따라서 (가)의 '배'는 화자에게 시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나)에서 '빈 배'는 달빛만 가득 싣고 돌아오는 화자의 무욕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37. [출제의도]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가)의 화자는 전운이 감도는 상황에서 주사로 임명받아 '진동영'으로 내려와 배 위에서 '우국단심'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왜적을 이기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거나, 이를 실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지는 않다.

⑤ (나)의 마지막 문단에서 화자는 해와 달이 빛을 비추듯이 임금이 백성에게 선정을 베풀어 백성이 굶주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 고전 소설 \*\***

□ 출전: 작자 미상, <조웅전>

**38.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왕 부인이 송 태자가 폐위되었다는 말을 듣고 "우리 도망하여 태자를 따라 사생을 한 가지로 하고 싶으나 종적이 탄로 나면 이에 앞서 죽을 것이니 어찌하리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송 태자와 사생을 같이 하겠다는 계획을 실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여러 신하들이 다시 간하여 태산 계량도에 유배하여 주거를 제한하고 소식을 끊게 하였다.'와 송 태자가 유배된 것을 볼 때 송 태자를 유배 보내자는 신하들의 제안을 이두병이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39. [출제의도]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관원들은 경화문에 글을 쓴 조웅을 잡지 못했다. 이 부분은 악의 세력과 선의 욕망을 지닌 인물의 갈등을 보여 주는 것이지만 선의 세력에 의해서 악이 축출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① 이두병은 반역을 통해 황제가 되고 송 태자를 폐하는 모습에서 악의 욕망을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② '~원수 값을 묘책을 생각하더니, 마음이 아득하고 분기탱천한지라'에는 악과 대결하려는 조웅의 욕망이 드러나 있다. ④ '동궁을 어찌하고 내가 옥새를 전수하느냐', '신명을 돌아보아 송업을 끊지 말라' 등을 통해 조웅이 악을 물리치고 태평한 질서를 회복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0.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 이해하기**

이두병이 황제가 되고 송 태자가 폐위당하자 후궁과 벼슬아치들, 내외궁의 노비 등이 하늘을 향해 부르짖고 땅을 치며 슬퍼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듯하고', '~듯하더라'의 비유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② ㉑은 어머니를 안심시키려는 조웅의 태도를

대조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㉓㉔은 이전 왕조에 대한 일편단심과 현재 상황에 대한 조웅의 근심을 서술자가 직접 제시하고 있다. ㉕㉖은 이두병이 황제가 된 것은 부당한 일임을 고사를 인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㉗㉘은 이두병의 명령을 어기게 될까 두려워하는 신하들의 모습과 조웅 모자가 이미 멀리 달아나 잡을 수 없는 상황을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 현대 소설 \*\***

□ 출전: 염상섭, <삼대(三代)>

- 41.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A형 34번 해설 참고.
- 42.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A형 35번 해설 참고.
- 43. [출제의도] 중심 소재에 대한 인물의 태도 파악하기  
A형 36번 해설 참고.
- 44. [출제의도] 인물 간의 대화 양상 파악하기  
A형 37번 해설 참고.
- 45.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A형 38번 해설 참고.

제 1 교시

국어 영역

[1~2] 다음은 인터뷰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 ○○ 과학관 연구관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술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A]

연구관: 네, 안녕하세요. 술의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학생: 먼저 금속으로 만든 술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알고 싶고, 술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연구관: 기록에 따르면 하나라 때에 금속으로 술을 만들고, 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 유적지에서 금속으로 만든 술이 발견될 정도로 역사가 오래되었답니다. 역사에 등장하는 술은 나라와 왕의 업적을 의미하여 신성하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B]

학생: 그렇군요. 그런데 무쇠로 만든 술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연구관: 한국 고고학 사진에 따르면 무쇠술은 형태에 따라 정과 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은 다리가 세 개이고 주둥이가 약간 넓게 퍼진 모양이고, 부는 다리가 없고 주둥이가 좁은 술이랍니다. 사진 자료를 찾아서 보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학생: 네. 저는 민간에서 두루 사용하던 무쇠술은 밥을 짓는 데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연구관: 물론 무쇠술을 밥을 짓는 데 사용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무쇠술은 밥을 짓는 용도 외에도 국을 끓이거나 반찬을 만들 때와 소죽을 끓이는 데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술뚜껑은 전을 부치는 도구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C]

학생: 아, 그렇군요. 그런데 무쇠술로 지은 밥맛이 최고라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구관: 혹시 열의 대류와 전도에 대해 알고 있나요?

학생: 네, 과학 시간에 배워 알고 있습니다.

연구관: 무쇠술로 지은 밥이 맛있는 이유는 열의 대류와 전도에 있습니다. 무쇠술은 바닥이 가장 두껍고 위로 올라가면서 점차 얇아지게 만들어져 있어서 열을 받으면 술 전체에 열이 빠르고 고르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뚜껑이 무거워 내부 압력이 적당하고 오랫동안 높은 온도를 유지시켜 준답니다. 이처럼 무쇠술에는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이 담겨 있기 때문에 밥알이 단단하고 찰기 있어 맛이 있는 겁니다. [D]

학생: 무쇠술은 과학적 원리가 담긴 훌륭한 발명품이었네요.

연구관: 그렇습니다. 현대의 발전된 과학 기술은 이런 전통 기술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봅니다. 참, 한술밥 먹는 사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서로 허물없이 지내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한 관계를 뜻합니다. 학생도 한술밥을 먹는 친구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지냈으면 좋겠네요. [E]

학생: 네. 선조들이 물려주신 문화는 유용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도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 [A]~[E]에 나타난 대화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학생은 인터뷰의 취지를 밝히며 인터뷰의 절차를 소개하고 있다.
  - ② [B]: 연구관은 학생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사용하여 핵심 정보를 설명하고 있다.
  - ③ [C]: 연구관은 학생이 알고 있는 내용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보충을 해 주고 있다.
  - ④ [D]: 연구관은 과학적 개념을 정의하며 학생의 질문에 대해 답하고 있다.
  - ⑤ [E]: 연구관이 학생의 태도를 우회적으로 지적하고 학생은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고 있다.

2.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술에 대해서'라는 주제로 발표하려고 한다. 발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술의 역사와 술에 담긴 의미
  - 하나라와 고조선 시대에 금속 재료로 된 술을 사용했다는 기록 자료의 출처와 유물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
  - 술로 나라와 왕의 업적을 나타낸 역사적 사례를 보충하여 제시한다. .... ㉡
- 무쇠술의 종류와 무쇠술의 용도
  - 무쇠술인 정과 부를 각각 시각 자료로 제시한다. .... ㉢
  - 무쇠술이 밥을 짓는 제한된 용도로 쓰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
- 무쇠술에 담긴 과학적 원리
  - 과학 시간에 배운 열의 대류와 전도의 개념을 언급하며 무쇠술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한다. .... ㉤

- ① ㉠      ② ㉡      ③ ㉢      ④ ㉣      ⑤ ㉤



[3~5] 다음은 연설 의뢰서와 이에 따라 행한 연설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연설 의뢰서]

저는 □□시 의회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시에서는 □□ 동물원 폐쇄를 두고, 주민들의 의견이 나뉘어 주민 투표를 통해 이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평소 동물원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해 오신 ○○○ 정책 국장님께 투표단을 대상으로 동물원 폐쇄를 지지하는 연설을 부탁드립니다. 투표단은 □□시의 주민들로, 동물원 폐쇄에 대한 정당성을 따져 보고자 한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동물 보호 연대 정책 국장으로 동물 보호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입니다. 저는 그간 여러 학술 대회와 세미나에서 동물 보호와 관련된 논문을 다수 발표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시의 시민으로서 요즘 우리 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동물원 폐쇄 문제에 대해 여러분들처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중과 시선을 맞추며) 여러분들은 동물원의 동물 쇼를 보며 혹시 동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청중의 반응을 보고) 실제로 동물 쇼를 하는 동물들이 다양한 고통에 시달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쇼를 하는 동물뿐 아니라 우리 안에 갇힌 동물이 받는 고통도 큰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코스타리카는 세계 최초로 동물원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코스타리카는 2014년부터 동물원을 식물원으로 전환하고, 동물원에 있던 동물들을 야생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10년 후엔 동물원이 없는 최초의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시의 동물원도 폐쇄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물원을 폐쇄하는 것에 반대하는 분들은 동물원이 멸종 보호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거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멸종 보호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보호 센터를 운영하면 됩니다. 또한 동물원을 폐쇄하지 않고 계속 운영했을 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피터 싱어 교수의 책 『동물 해방』에는 '어떤 존재들이 쾌락과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서 인간과 같다면 그들은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생명의 주체인 동물 역시 고통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생각해 보았을 때, 동물은 구조나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가뉘 두지 말아야 합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며)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시의 동물원이 폐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물이 고통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연설 의뢰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운 계획 중 연설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 ① □□시의 시민이라는 청중과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야겠어.
- ② 동물원을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확보해야겠어.
- ③ 동물원 폐쇄를 위해 청중을 설득해야 하므로 동물원을 폐쇄해야 하는 이유를 밝혀야겠어.
- ④ 청중에게 신뢰감을 주어야 하므로 화제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을 드러내야겠어.
- ⑤ 청중이 동물원 폐쇄의 정당성을 따져 보고자 하므로 동물원 폐쇄가 경제적 이익과 직결됨을 강조해야겠어.

4. [A]~[C]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시사적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가 동물원을 폐쇄하는 최초의 국가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② [A]: 상황에 적절한 반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현재 □□시의 동물원의 수가 필요 이상으로 많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③ [B]: 구체적인 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예상되는 반론을 분석하고 있다.
- ④ [B]: 멸종 보호종 보호 센터 운영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여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재반박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 ⑤ [C]: 화제와 관련된 책의 일부를 인용해서 동물에 대한 도덕적 관점을 제시하며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5. 동물원 폐쇄에 반대하는 입장의 청중이 위 연설을 반박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코스타리카의 사례는 동물원 폐쇄와 관련이 없어서 설득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 ② 동물원 폐쇄 시 멸종 보호종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동물원 폐쇄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 ③ 동물원을 폐쇄하지 않고 계속 운영했을 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 ④ 피터 싱어 교수의 생각은 동물원을 폐쇄하지 말자는 입장이 가깝기 때문에 설득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 ⑤ 동물의 권리를 밝히지 않고 동물원 폐쇄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동물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므로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6~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작문 과제:** 시사적 화제에 대해 조사하여 글 쓰기
- **학생의 초고**

얼마 전 지하철역에 심정지로 쓰러져 있던 남성을 지나가던 시민이 구했다는 ㉠ 아름다운 미담을 들었다. 이 시민은 구급 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신속하게 심폐 소생술을 시행했고, 그 결과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만들었다. 이처럼 심폐 소생술은 존각을 다루는 심정지 환자를 살리는 데 아주 중요한 응급 처치 방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심정지 환자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심폐 소생술의 시행률은 저조하다.

한 연구 기관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일반인들이 심폐 소생술 시행을 꺼리는 가장 큰 원인은 심폐 소생술 시행 방법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이었다. 이는 심폐 소생술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거나, 이론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심폐 소생술에 대한 실습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 그래서 다른 원인은 실습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재교육을 받지 못해 심폐 소생술을 잘 할 수 있을지 ㉢ 염려되어져 부담감을 느낀다는 것이었다.

심정지 환자를 가장 먼저 발견하는 사람은 대부분 일반인이라고 한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심폐 소생술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이를 시행할 수 있게 하려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심폐 소생술 교육을 확대하고 심폐 소생술에 대한 실습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심정지는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음으로 교육을 받은 지 1~2년 이상 경과하면 시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교육 경험자에 대한 재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심폐 소생술을 '4분의 기적'이라고 한다. 이는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심정지 발생 후 이른 시간 내에 심폐 소생술을 시행하면 환자의 심장을 다시 뛰게 ㉤ 할 수 있다. 이처럼 갑작스레 위협에 처한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는 심폐 소생술 교육 방법의 개선과 지속적인 재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6. 다음은 학생이 글을 쓰기 전에 떠올린 생각이다. '학생의 초고'에 반영된 것은?

[학생이 떠올린 생각]

- ㉠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 잘 알려진 우화로 글을 시작한다.
- ㉡ 문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나'가 직접 설문 조사한 내용을 제시한다.
- ㉢ 글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문제의 원인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 ㉣ 해결 방안이 구체성을 지니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한다.
- ㉤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속담을 사용해 글을 마무리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7. '학생의 초고'를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보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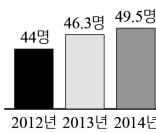
<보 기>

(가) 신문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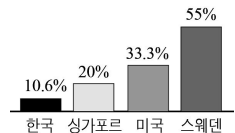
심정지 환자는 일반인에 의해 발견되는 경우가 90%에 달한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 심정지 환자에 대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심폐 소생술 실습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은 심정지 발생 후 생존하여 회복하게 되는 환자의 비율이 10%로, 우리나라의 4%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나) 통계 자료

1. 국내 심정지 환자 발생 현황  
(인구 10만 명 당)



2. 2014년 4개국 심폐 소생술 시행률 비교



3. 응급 상황에서 심폐 소생술 시행을 꺼리는 원인

원인	응답(%)
심폐 소생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서	48.3
심폐 소생술 방법이 잘 기억나지 않아서	38.8
심리적으로 당황해서	12.9

(다) 국내 전문가와의 인터뷰 내용

"스웨덴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심폐 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때 전체 교육 시간의 65% 이상을 실습 교육에 할애하고 있어요. 또한 미국은 실습 교육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교육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한 반복적인 교육이 심폐 소생술 시행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처럼 교육 체계가 잘 갖추어진 나라들은 심폐 소생술 시행률이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죠."

- ① (가)를 활용하여, 셋째 단락에서 언급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심폐 소생술에 대한 실습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한다.
- ② (나)-3을 활용하여, 둘째 단락에서 언급한 일반인들이 심폐 소생술을 꺼리는 원인 중 재교육이 부족해 심폐 소생술 시행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점을 부각한다.
- ③ (다)를 활용하여, 셋째 단락에서 언급한 심폐 소생술 교육 경험자에 대한 재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제시한다.
- ④ (가)와 (다)를 활용하여, 심폐 소생술에 대한 실습 교육을 강조하는 외국의 교육 사례를 셋째 단락에 추가한다.
- ⑤ (나)-1과 (나)-2를 활용하여, 첫째 단락에서 언급한 우리나라는 심정지 환자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심폐 소생술 시행률은 저조하다는 내용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한다.

8. ㉠~㉤를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단어의 의미가 중복되므로 '아름다운'을 삭제해야겠어.
- ② ㉡: 문장 간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그러나'로 고쳐야겠어.
- ③ ㉢: 피동 표현이 중복되므로 '염려되어'로 고쳐야겠어.
- ④ ㉣: 글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내용이므로 삭제해야겠어.
- ⑤ ㉤: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되지 않으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로 고쳐야겠어.

[9~10] 다음은 학생이 쓴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어제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길에 핀 몇 송이의 꽃들이 우연히 눈에 들어왔다. 그 꽃들은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진 화단이 아닌 보도블록 사이에 피어 있었다. 힘든 상황에서도 피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꽃들로부터 나는 감동을 받았고, 또 꽃들이 서로의 줄기를 지탱 하듯 자란 모습을 보며 수업 시간에 배웠던 ‘답쟁이’라는 시의 구절이 떠오르며 감동이 더해졌다. ‘㉠ 한 뺨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라는 구절이었다. 이처럼 [A]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에 있었던 동아리 발표 대회에서 상을 받았던 생각이 났다.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갈등을 겪으며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동아리 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내 뜻대로 꼭심 있게 일을 추진했기에 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나와 함께 발표를 열심히 준비하던 동아리 부원들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얼굴이 화끈거렸다. 시의 구절처럼, 발표를 위해 힘든 과정을 견디며 함께 노력했던 동아리 부원들이 없었다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발표를 포기하려 했던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나 하나의 힘이 아닌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 협력에 있었다. 이러한 협력의 의미를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다.

9. 학생의 글에 사용된 글쓰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협력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협력이 갖는 장점과 단점을 비교한다.
  - ② 협력과 관련된 정서적 체험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자신의 경험을 깨달음과 연결한다.
  - ③ 협력이 갖는 실용적 가치를 제시하고 그것이 갖는 전통적 의미와 현대적 의미를 대조한다.
  - ④ 협력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제시하고 일반적인 협력의 진행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 준다.
  - ⑤ 협력을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해석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그 해석에 따라 의미가 다른 이유를 설명한다.

10. [A]에 들어갈 글을 작성하고자 할 때, <조건>에 따라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 건>

○ 첫 번째 문장은 ㉠의 일부를 직접 인용하면서 꽃들의 상황과 연관 지어 쓸 것.  
○ 두 번째 문장은 ㉡에 대해 직유법을 사용하여 쓸 것.

- ① 꽃들도 ‘한 뺨이라도 꼭 여럿이’처럼 서로 협력하며 어려움을 견뎌 냈을 것이다. 서로를 위한 양보는 모두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인 것이다.
- ② 꽃들도 서로 의지하며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어려움을 이겨낸 것이다. 무엇보다 삶의 다양한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 ③ 꽃들도 척박한 환경이 아니라 좋은 환경에 놓였어도 함께 하는 자세가 중요했을 것이다. 아무리 좋은 여건에 놓였더라도 협력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
- ④ 꽃들이 보도블록 사이에 필 수 있었던 것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시련을 이겨 냈기 때문이다. 흠어지면 약하지만 뭉치면 단단해지는 눈 같은 협력의 힘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 내게 하는 것이 아닐까.
- ⑤ 꽃들이 필 수 있었던 것도 긍정적인 자세를 지니고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매우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햇살처럼 웃을 수 있는 밝고 희망찬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11. <보기>의 ㉠~㉣의 밑줄 친 부분과 동일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예가 모두 바르게 제시된 것은?

<보 기>

국어에는 자음군 단순화, 구개음화, 비음화, 된소리되기, 거센소리되기 등의 음운 변동이 있다.

- ㉠ 우리는 자리를  옮겨서 [ 옮겨서 ] 밥을 먹었다.
- ㉡ 그녀는 내 말을  굳이 [ 구지 ] 따지려 들지는 않았다.
- ㉢ 그는 정계에  입문하여 [ 입문하여 ] 활동을 시작했다.
- ㉣ 나는 말을  더듬지 [ 더듬찌 ] 않고 또박또박 대답했다.
- ㉤ 그는  듚직한 [ 듚지간 ] 성품으로 주변에 친구가 많았다.

- ① ㉠의 예 : 굽기다, 굽하다
- ② ㉡의 예 : 미닫이, 뺨대다
- ③ ㉢의 예 : 집문서, 만누이
- ④ ㉣의 예 : 꺼안다, 꿈같이
- ⑤ ㉤의 예 : 굽히다, 한여름

12.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국어의 조사 중에는 주로 체언 뒤에 결합하여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격 조사와 체언, 부사, 활용 어미 따위에 붙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사가 있다.

- ① ‘국수만도 먹으렴.’에서의 만
- ② ‘영어야 철수가 도사지.’에서의 야
- ③ ‘그 과자를 먹어도 보았다.’에서의 도
- ④ ‘일을 빨리만 하면 안 된다.’에서의 만
- ⑤ ‘그는 아이처럼 순진하다.’에서의 처럼

13.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높임법은 화자가 높이려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객체 높임법으로 구분된다. 주체 높임법은 주어 가 나타내는 대상인 주체를 높이는 것이며, 상대 높임법은 대화의 상대인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고,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객체를 높이는 것이다.

㉠ 할머니께서 책을 읽고 계신다.  
 ㉡ 누나는 어머니께 모자를 선물로 드렸다.  
 ㉢ 할아버지께서 월요일 오후에 병원에 가신다.  
 ㉣ (선생님과와의 대화 중) 선생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 (아버지와와의 대화 중)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예전부터 존경해 왔습니다.

- ① ㉠은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는 데에 '께서'와 '계시다'를 사용하고 있다.
- ② ㉡은 객체인 '어머니'를 높이는 데에 '께'와 '드리다'를 사용하고 있다.
- ③ ㉢은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는 데에 '께서'와 '-시-'를 사용하고 있다.
- ④ ㉣은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는 데에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
- ⑤ ㉤은 상대인 '아버지'를 높이는 데에 '-습니다'를 사용하고 있다.

14.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이르다<sup>1</sup>** [이르러, 이르니] ㉠ 【...에】  
 ① 어떤 장소나 시간에 닿다. ㉠목적지에 이르다  
 ② 어떤 정도나 범위에 미치다. ㉠결론에 이르다

**이르다<sup>2</sup>** [일러, 이르니] ㉡  
 ① 【...에게 ...을】 【...에게 -고】 무엇이라고 말한다. ㉡나는 아이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모두 일러 주었다. ㉡아이들에게 주의하라고 이르다.  
 ② 【...을 -고】 어떤 대상을 무엇이라고 이름 붙이거나 가리켜 말한다. ㉡이를 도루묵이라 이른다.

**이르다<sup>3</sup>** [일러, 이르니] ㉢ 【...보다】 【-기에】  
 대중이나 기준을 잡은 때보다 앞서거나 빠르다.  
 ㉢그는 여느 때보다 이르게 학교에 도착했다.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

- ① '이르다<sup>1</sup>'과 '이르다<sup>2</sup>'의 유의어로 '다다르다'가 있겠군.
- ② '이르다<sup>1</sup>'과 '이르다<sup>2</sup>'와 '이르다<sup>3</sup>'은 서로 동음이의 관계이겠군.
- ③ '이르다<sup>1</sup>'은 규칙 활용을 하지만 '이르다<sup>2</sup>'와 '이르다<sup>3</sup>'은 불규칙 활용을 하겠군.
- ④ '이르다<sup>1</sup>'과 '이르다<sup>2</sup>'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이르다<sup>3</sup>'은 성질 혹은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겠군.
- ⑤ '이르다<sup>3</sup>'의 용례로 '올해는 예년보다 첫눈이 이른 감이 있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15. 다음은 잘못된 문장 표현을 고쳐 쓴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단어의 사용이 잘못된 경우  
 ㉠ 나이가 많고 작은은 큰 의미가 없다.  
 → 나이가 크고 작은은 큰 의미가 없다. .... ①

○ 조사의 쓰임이 잘못된 경우  
 ㉡ 우리는 아버지께 생신을 축하하려고 모였다.  
 → 우리는 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하려고 모였다. .... ②

○ 어미의 사용이 잘못된 경우  
 ㉢ 집에 가던지 학교에 가던지 해라.  
 → 집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해라. .... ③

○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잘못된 경우  
 ㉣ 그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었다.  
 → 그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 ④

○ 문장 성분이 과도하게 생략된 경우  
 ㉤ 그녀는 노래와 춤을 주고 있다.  
 → 그녀는 노래를 부르며 춤을 주고 있다. .... ⑤

16. <보기>의 중세 국어 자료에서 나타난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중세 국어]  
 나라히 파망(破亡)호니 :되와 ㅁ:썸 잇고  
 ·갓 ·얏 보·릭·플와 나모:썸 가궛도다  
 시절(時節)을 감탄(感嘆)호니 고지 ·늬:ㅁ:를 썸·리계 ·코  
 여·희여·슈물 슬·후니 :새 ㅁ·수·돌 :놀래·다  
 봉화(烽火) | :식·드·를 나·세사니  
 지·벧 음서(音書)는 만금(萬金)이 ·스도다  
 - 초간본 『분류두공부시언해』 중에서 -

[현대어 풀이]  
 나라가 망하니 산과 강만 있고  
 성 안의 봄에 풀과 나무만이 깊어 있도다.  
 시절을 감탄하니 꽃이 눈물을 뿌리게 하고  
 헤어져 있음을 슬퍼하니 새가 마음을 놀라게 한다.  
 봉화가 석 달을 이어지니  
 집의 편지는 만금보다 값지도다.

- ① '보·릭'은 현대 국어의 '봄에'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끊어 적기를 하였군.
- ② '플·와'가 현대 국어의 '풀과'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방점이 쓰였군.
- ③ '썸·리계'가 현대 국어의 '뿌리게'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단어의 첫머리에 서로 다른 자음이 함께 사용되었군.
- ④ 'ㅁ·수·돌'이 현대 국어의 '마음을'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ㅁ', '·'가 사용되었군.
- ⑤ '드·를'이 현대 국어의 '달을'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모음 조화가 지켜졌군.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계관이란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일관된 견해로 세계관의 차이에 따라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달리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성리학은 이(理)와 기(氣)의 개념에 바탕을 둔 세계관을 통해 도덕적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理)는 인간을 포함한 만물에 내재된 보편적인 이치나 원리를 말한다. 이러한 이(理)는 모든 사물에 본성으로 내재한다. 특히 성리학에서는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인 이치로서의 선한 본성이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한편 성리학은 개개인의 도덕성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데에 차이가 생겨나는 이유를 기(氣)에서 ㉠ 찾는다. 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악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개인의 도덕성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칫 악으로 흐를 수 있는 기를 다스리기 위한 부단한 수양을 통해 순수한 본성이 오롯이 발현되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것을 위해 성리학에서는 내면에 대한 관조를 통해 경건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여 악으로 흐를 수 있는 기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실학자 정약용은 성선설에 바탕을 둔 기존의 성리학적 세계관을 비판하고, 인간의 본성을 선과 악을 구분하여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할 줄 아는 분별 능력을 갖춘 윤리적 욕구라고 말하며 ㉡ 새로운 인성론을 주창하였다. 인간에게는 선을 좋아하는 윤리적인 욕구만이 주어졌을 뿐이므로 선을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선을 실천해야만 비로소 도덕성이 갖추어진다는 것이다. 즉 도덕성이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선에 대한 주체적인 선택과 지속적인 실천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런 실천이 이루어질 때 선에 대한 욕구가 충족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정약용은 선의 실천이 나와 타인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실학자 최한기는 세계의 모든 존재는 기(氣)라는 보편적인 요소에 의해 형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모든 존재의 본성인 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불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에 선악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기는 끊임없이 활동하고 변화하는 것으로 외부 세계와 소통하면서 선악이 나타난다. 인간의 윤리도 기의 운동과 변화에 합치되면 선하고 도덕적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이 된다. 인간은 감각 기관을 통해 외부 세계를 경험하여 이것을 바탕으로 지각을 형성하며 이런 지각은 추측에 의해 확장된다. '추측'은 논리적인 추론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윤리적 공부나 실천과 같은 경험적인 부분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인간이 올바른 추측을 통해 외부 세계와 소통하게 될 때 그것이 선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악이 된다. 추측을 바르게 하지 못해 외부 세계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자기 내면이 아니라 외부 세계의 운동과 변화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이처럼 최한기는 외부의 사물이나 사태에 대한 올바른 추측과 부단한 소통으로 도덕성이 실현되는 공동체의 세계를 지향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성리학은 형이상학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내면적 수양을 강조하였으며, 정약용과 최한기는 실천과 소통을 중시하는 경험주의적 세계관을 토대로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도덕성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17.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 ① 성리학은 경험주의적 세계관을 토대로 형성되었다.
- ② 성리학에서는 본성은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 ③ 성리학에서와 달리 최한기는 본성을 절대 선한 것으로 보았다.
- ④ 성리학에서는 기는 악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 ⑤ 성리학에서는 개개인의 도덕성의 차이가 이(理)의 개별적 속성 때문에 생긴다고 보았다.

18. ㉠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선과 의로움을 지속적으로 실천한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 보아도 부끄럽지 않고, 나아가 호연지기가 천지에 가득 차게 되어 모든 덕을 갖추게 된다. 반대로 날마다 양심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은 이익으로 유혹하면 개나 돼지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된다.

- ① 사람은 주체적인 선택과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도덕성을 갖추게 된다.
- ② 사람은 남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바라는 이기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다.
- ③ 사람에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선한 도덕성이 선천적으로 부여되어 있다.
- ④ 사람은 내면에 대한 관조를 통해 경건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면 선이 실현된다.
- ⑤ 사람은 감각을 통해 경험을 쌓고 추측을 통해 주변 사물과 소통하며 도덕성을 갖추게 된다.

1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조선 후기에는 외부와 전쟁을 치르면서 나라는 어려움에 처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 관리들은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리사욕에 집착해 백성은 어려움을 겪었고, 나라는 더욱 위기에 빠졌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실학자들은 대안을 모색하려 했다.

- ① 정약용은 부정한 관리들이 사리사욕을 채웠다 하더라도 선에 대한 욕구가 충족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겠군.
- ② 정약용은 백성들을 어려움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는 관리들이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선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했겠군.
- ③ 최한기는 여러 관리들이 타고난 악한 기로 인해 부정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겠군.
- ④ 최한기는 본분을 망각한 관리들의 모습은 기의 운동과 변화에 합치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겠군.
- ⑤ 최한기는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리들이 당대 현실에 대한 올바른 추측과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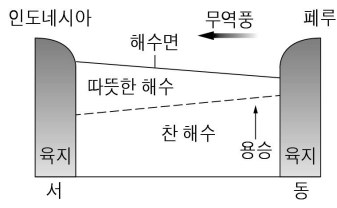
20. ㉔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
- ② 감기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부쩍 늘었다.
- ③ 나는 저금했던 돈을 은행에서 찾았다.
- ④ 어떤 손님은 항상 이 과자만 찾는다.
- ⑤ 어머니가 빗자루를 찾는다.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구의 여러 곳에서 장기간에 걸친 가뭄, 폭염, 홍수, 폭우 등과 같은 이상 기후가 발생하여 인간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러한 이상 기후가 나타나는 원인 중에는 ㉑ 엘니뇨와 ㉒ 라니냐가 있다.

평상시에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에 있는 남아메리카 페루 연안으로부터 서쪽으로 무역풍이 지속적으로 분다. 이 무역풍은 동쪽에 있는 따뜻한 표층수를 서쪽 방향으로



운반하기 때문에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는 서태평양 쪽에서는 두껍고 동태평양 쪽에서는 얇아진다. 이와 함께 남아메리카 페루 연안에서는 서쪽으로 흘러 가는 표층수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 차가운 심층 해수가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용승\*이 일어나게 된다.

이 결과 적도 부근 동태평양 페루 연안의 해수면 온도는 같은 위도의 다른 해역보다 낮아지고, 적도 부근 서태평양에서의 표층 해수의 온도는 높아지게 된다. 표층 해수의 온도가 높아지면 해수가 증발하여 공기 중에 수증기의 양이 많아지고, 따뜻한 해수가 공기를 데워 상승 기류를 발생시켜 저기압이 발달하고 구름이 생성된다. 이로 인해 해수 온도가 높은 서태평양에 위치한 동남아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에는 강수량이 많아진다. 반대로 남아메리카의 페루 연안에는 하강 기류가 발생하여 고기압이 발달하고 맑고 건조한 날씨가 나타난다.

적도 부근 태평양의 무역풍은 2~6년 사이로 그 세기가 변하는데, 이에 따라 적도 부근 태평양의 기후 환경은 달라진다.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약해지면 태평양 동쪽의 따뜻한 표층수를 서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약해진다. 이로 인해,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용승이 약해지며 해수면의 온도는 평상시보다 높아진다. 따뜻한 표층수가 동쪽에 머무르면, 적도 부근 서태평양은 평상시에 비해 해수면의 온도와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지고, 적도 부근 동태평양은 해수면의 온도와 해수면의 높이가 상승하는데 이 현상이 엘니뇨이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는 평상시에 비해 강수량이 감소하여 가뭄이 발생하고, 대규모 산불이 일어나기도 한다. 반면에 페루, 칠레 등에서는 평상시보다 많은 강수량을 보이면서 홍수가 자주 발생하는 등 이상 기후가 나타나게 된다.

한편,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강해지면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해수면의 온도와 해수면의 높이가 평상시보다 더 낮아지

고 적도 부근 서태평양의 해수면의 온도와 해수면의 높이가 평상시보다 더 높아진다. 이런 현상을 라니냐라고 한다. 라니냐가 발생하면 동남아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홍수가 잦아지거나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반대로 페루, 칠레 등에서는 평상시보다 더 건조해져 가뭄이 발생할 수 있다. 라니냐가 발생하면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기압은 평상시보다 상승하고 서태평양의 기압은 평상시보다 하강하여 두 지역의 기압차는 평상시보다 더 커진다.

\* 용승: 표층 해수의 이동에 의해 심층의 찬 해수가 상승하는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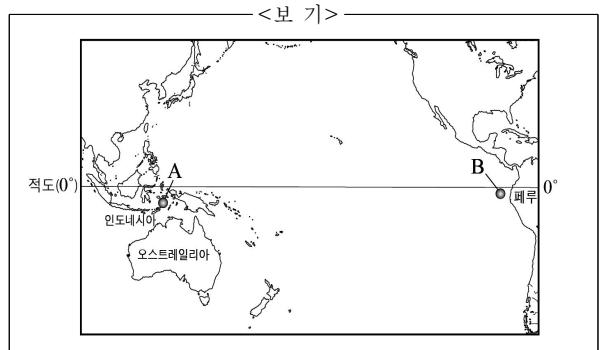
21.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상들을 제시하고 그 현상들의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 ② 가설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검증하고 있다.
- ③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여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 ④ 현상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유용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 ⑤ 현상과 관련된 이론을 소개하고 그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22. 뒷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적도 부근 서태평양에서 표층 해수의 온도가 높아지면 상승 기류가 발생한다.
- ② 평상시에 무역풍은 적도 부근 태평양의 표층수를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 ③ 동태평양 페루 연안에서 용승이 일어나면 같은 위도의 다른 해역보다 페루 연안의 해수면 온도가 높아진다.
- ④ 평상시 적도 부근 서태평양에 저기압이 발달하면 적도 부근 서태평양에 위치한 동남아시아의 강수량이 많아진다.
- ⑤ 평상시에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따뜻한 표층수가 서쪽으로 이동하여 동태평양의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얇아진다.

23. 뒷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그림을 활용하여 ㉑, ㉒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 해역의 표층 해수의 온도는 ㉑일 때보다 ㉒일 때 더 높다.
- ② B 해역의 따뜻한 해수층은 ㉑일 때보다 ㉒일 때 더 두껍다.
- ③ ㉑일 때, A 해역의 해수면의 높이는 평상시보다 낮아진다.
- ④ ㉑일 때, A 해역 부근 지역에서는 가뭄, 산불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⑤ ㉒일 때, A와 B의 기압 차는 평상시보다 더 크다.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업들은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끝없이 경쟁한다. 이러한 경쟁의 전략으로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하거나 다른 기업과 합치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기업인수합병이라고 한다. 이는 기업 간의 결합 형태에 따라 수평적, 수직적, 다각적 인수합병으로 ㉠ 나눌 수 있다.

먼저 수평적 인수합병은 같은 업종 간에 이루어지는 인수합병이다. 예를 들면 두 전자 회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전자 회사가 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수평적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면 경쟁 관계에 있던 회사가 결합하여 불필요한 경쟁이 줄고 이전보다 큰 규모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인수합병한 기업은 생산량을 ㉡ 늘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면 생산 단가가 낮아져 가격 경쟁력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수평적 인수합병 이후에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가 ㉢ 일어날 경우, 이는 규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수직적 인수합병은 동일한 분야에 있으나 생산 활동 단계가 다른 업종 간에 이루어지는 인수합병이다. 이러한 수직적 인수합병은 통합의 방향에 따라 전방 통합과 후방 통합으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원자재를 공급하는 기업과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이 인수합병하는 경우,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이 자동차의 원자재를 공급하는 기업을 통합하면 후방 통합이고, 자동차의 원자재를 공급하는 기업이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을 통합하면 전방 통합이 된다. 이렇게 수직적 인수합병이 ㉣ 이루어지면 생산 단계의 효율성이 증가하여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수합병한 기업 중 특정 기업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업 전체가 위협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마지막으로 다각적 인수합병은 서로 관련성이 적은 기업 간의 결합이다. 예를 들면 한 회사가 전자 회사, 건설 회사, 자동차 회사를 결합하여 하나의 회사를 만드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만약 건설 회사의 수익성이 낮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이 기대되는 다른 회사를 통해 위험을 분산시킨다면 기업의 안정된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업이 외형적으로만 비대해질 경우, 시장에서 높은 수익을 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기업은 인수합병을 통해 사업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인수합병을 통한 외적인 성장에만 ㉤ 치우쳐 신기술 연구 등과 같은 내적 성장을 위한 투자에 소홀할 수 있다. 또한 인수합병 과정에서 많은 직원이 해직되거나 전직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조직의 인간관계가 깨지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인수합병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규모의 경제: 생산 요소 투입량의 증대(생산 규모의 확대)에 따른 생산비 절감 또는 수익 향상의 이익.

\* 시장점유율: 경쟁 시장에서 한 상품의 총판매량에서 한 기업의 상품 판매량이 차지하는 비율.

\* 거래비용: 각종 거래 행위에 수반되는 비용.

24. 밑글의 내용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업인수합병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비판하고 기업인수합병이 가지는 의의를 밝히고 있다.
- ② 기업인수합병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보여 주고 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 ③ 기업인수합병의 개념을 살펴보고 기업인수합병의 유형을 나누어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 ④ 기업인수합병에 대한 상반된 견해의 문제점을 각각 지적하고 기업인수합병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기업인수합병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분석하고 이러한 조건들의 현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25. 밑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업은 인수합병을 통해 이익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다.
- ② 기업은 수직적 인수합병을 통해 생산 단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③ 기업이 다각적 인수합병을 한 경우 위험을 분산하여 안정된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다.
- ④ 기업은 수평적 인수합병을 통해 경쟁 관계에 있던 기업과 결합하여 불필요한 경쟁을 줄일 수 있다.
- ⑤ 기업은 수직적 인수합병을 통해 서로 다른 분야에 있으나 생산 활동 단계가 같은 업종끼리 결합할 수 있다.

26.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부도 위기에 놓인 A자동차 회사의 경영진은 회사를 매각하기로 했다. 이때 경쟁 관계에 있던 B자동차 회사는 생산 단가를 낮추고 가격 경쟁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A자동차 회사 노조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A자동차 회사와의 인수합병에 성공했다. 이후, A자동차 회사와 결합한 B자동차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매우 높아졌으며, 자동차 분야에서 세계 1위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후 B자동차 회사는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철강 회사를 저렴한 비용으로 인수합병하여 B사가 되었다. 그런데 B사는 신기술 연구에 소홀했던 탓에 자동차 분야에서 C자동차 회사에 1위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 ① A자동차 회사의 노조가 B자동차 회사와의 인수합병에 반대한 이유는 A자동차 회사가 B자동차 회사에 다각적 인수합병이 되었기 때문이군.
- ② B자동차 회사가 A자동차 회사를 인수합병한 이유는 가격 경쟁력을 증가시켜 이익을 내려 했기 때문이겠군.
- ③ B자동차 회사는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철강 회사를 후방 통합하였군.
- ④ B자동차 회사에 의해 인수합병된 철강 회사의 경영에 큰 문제가 생긴다면 B사 전체에 위험이 될 수도 있겠군.
- ⑤ B사가 자동차 분야의 경쟁에서 C자동차 회사보다 뒤쳐진 이유는 신기술 연구에 소홀했기 때문이군.

27.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구분할
- ② ㉡: 실현할
- ③ ㉢: 촉구될
- ④ ㉣: 포함되면
- ⑤ ㉤: 왜곡되어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회화 작품에는 점, 선, 면, 형태, 색채와 같은 조형 요소와 통일성, 균형, 비례와 같은 조형 원리들이 다양하게 어우러져 있다. 이들은 감상자에게 시각적으로 작용함은 물론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회화의 조형 원리 중 하나인 통일성은 화면의 여러 조형 요소들에 일관성을 부여하여 질서를 갖추게 하는 원리를 말한다.

㉠ 회화의 통일성은 시각적인 것과 지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시각적 통일성이란 눈으로 볼 수 있는 각 조형 요소들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이나 규칙성 등을 통해 통일성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작품을 보는 순간 느낄 수 있는 직접적인 것으로 형태나 색채 등의 시각적인 조형 요소들로 표현된다. 지적 통일성이란 주제와 관련된 의미나 개념이 통일성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즉 사고를 통해 알 수 있는 개념적인 것들이 주제와 연관성을 가지는 통일성을 의미한다. 시각적인 일치를 이루고 있지는 않더라도 특정 주제에 대해 그와 관련된 것들로 그림을 완성하였다면 이는 지적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각적인 통일성이 조형 요소의 형식적 질서라면, 지적인 통일성은 내용에 대한 질서라고 할 수 있다.

통일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인접, 반복, 연속 등의 방법이 사용된다. 인접은 각각 분리된 요소들을 가까이 배치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법이다. 밤하늘에서 별자리를 찾는 일도 몇몇 특정한 별들을 인접시켜 해석함으로써 형상에 따라 의미를 부여한 것이고 문자를 인접시켜 단어를 만드는 것도 통일성의 질서를 이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복은 부분적인 것들을 반복시켜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반복되는 것에는 색깔이나 형태, 질감은 물론이고 방향이나 각도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속은 어떤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연관을 갖고 이어지게 하여 통일성을 구현하는 방법이다. 연관된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눈길은 어떤 것에서 연관된 그 다음의 것으로 자연스럽게 옮겨 가게 된다. 시각적으로는 형태나 색채 등이 화면에서 연관되는 것을 의미하고, 지적으로는 주제와 관련된 의미나 개념이 서로 연결되며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주제와 관련된 대상들을 연속적이고 유기적으로 배열하여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통일성은 작품에서 주제를 구현하는 중요한 조형 원리이다. 회화에서 통일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작품 속의 다양한 조형 요소와 그 조형 요소들이 이루는 일관된 질서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했을 때 감상자는 작가가 의도한 작품의 의미에 한발 더 다가서서 작품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8. 윗글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은?


- ① 회화에서 통일성의 개념
- ② 회화에서 통일성의 종류
- ③ 회화의 통일성을 구현하는 방법
- ④ 회화에서 통일성을 잘 구현한 작가들의 작품
- ⑤ 회화에서 통일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작품 감상의 의의

29.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각적 통일성은 시각적인 조형 요소들로 표현된다.
- ② 회화의 통일성은 작품에 다양성을 부여하는 조형 요소이다.
- ③ 회화 작품에는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가 다양하게 어우러져 있다.
- ④ 작품에서 주제와 관련된 대상들을 연속적이고 유기적으로 배열하여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할 수 있다.
- ⑤ 회화에서 통일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하면 작가가 의도한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30. ㉠과 관련하여 <보기>의 ㉡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 클림트의 「너도밤나무 숲」은 화면의 근경에서 원경에 이르기까지 점점 작아지는 수직의 너도밤나무들을 반복하여 표현했다. 각각의 나무들은 개별적으로 보이기보다는 전체적인 숲의 모습으로 보이며 시각적 연관을 통해 통일성을 느끼게 한다. 또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낙엽 등 가을과 관련한 황금 색깔로 배경을 가득 채워 늦가을 숲의 정취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① ㉡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갈수록 나무의 형태를 확대하여 시각적 통일성을 구현하고 있군.
- ② ㉡는 곧게 뻗은 나무의 수직적인 형태를 반복하는 반복의 방법을 사용해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구현하고 있군.
- ③ ㉡는 나무 하나하나의 모습을 개별적으로 도드라져 보이게 하는 연속의 방법을 사용해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구현하고 있군.
- ④ ㉡는 바닥에 떨어진 낙엽과 서 있는 나무를 분리하여 서로 멀리 배치하는 인접의 방법으로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구현하고 있군.
- ⑤ ㉡는 작품을 보는 순간 직접적으로 보이는 낙엽의 황금 색깔을 통해 계절의 순환이라는 주제를 보여 주는 지적 통일성을 구현하고 있군.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향단아 ㉠그냔줄을 밀어라  
머연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베갯모에 놓이듯 한 풀꽃더미로부터,  
자잘한 나비 새끼 피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다오.  
채색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다오!

서(西)으로 가는 달같이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다오  
향단아.

- 서정주, 「추천사」 -

(나)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지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지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냔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어릴 때는 나비를 좇듯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  
이렇게 뒷걸음질치면서 말야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찾아나선 것도 아니었지만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러라는 것이

- 나희덕, 「땅끝」 -

31.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며 화자를 성찰하게 하고 있다.
  - ② ㉡은 작품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며 화자와 청자가 갈등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 ③ ㉠과 ㉡은 모두 소망에 이르기 위한 수단 of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 ④ ㉠과 ㉡은 모두 화자가 주변의 대상들과 공감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 ⑤ ㉡과 달리 ㉠은 화자의 정서를 빗대어 보여 주고 있다.

32.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인간은 이상을 동경하는 존재로, 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현실에 대한 미련이나 현실적 제약에서 벗어나고자 고뇌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을 겪기도 한다. 이런 고뇌와 좌절은 유한적 존재인 인간이 겪어야 하는 운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을 지향하는 인간의 모습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을 보여 주며, 문학에서 보여 주고자 하는 가치 있는 삶의 태도이기도 하다.

- ① ‘수양버들나무’, ‘풀꽃더미’, ‘나비 새끼 피꼬리들’은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화자가 결별해야 할 대상으로 볼 수 있군.
- ② ‘저 하늘’은 화자가 동경하는 이상과 연관된 공간이겠군.
- ③ ‘울렁이는 가슴’은 현실적 제약을 벗어나 이상을 성취하고 싶은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군.
- ④ ‘서(西)으로 가는 달’은 현실적 제약을 극복할 수 없는 운명을 지닌 화자를 나타내고 있군.
- ⑤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다오’는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어려울 지라도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군.

33.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는 어린 시절에 겪었던 삶의 좌절을 표현한 것이다.
  - ②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는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얻는 보람을 표현한 것이다.
  - ③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는 삶의 시련과 이를 극복한 성취감을 표현한 것이다.
  - ④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는 삶의 시련을 이겨 내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 ⑤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는 삶의 고통 속에서 깨달은 삶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다.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수의 자택에 연못이 생긴 것은 그 며칠 전의 일이었다. 뜰 안에다 벽이고 바닥이고 시멘트를 들어부어 만들었으니 연못이라기보다는 수족관이라고 하는 편이 알맞은 시설이었다. 시멘트가 굳어지자 물을 채우고 울긋불긋한 비단잉어들을 풀어 놓았다.

비단잉어들은 화려하고 귀티 나는 맵시로 보는 사람마다 탄성을 자아내게 하였으나, 그는 처음부터 흘기눈을 떴다. 비행기를 타고 온 수입 고기라서가 아니었다. 그 회사 직원 몇 사람 치 월급을 합쳐도 못 미치는 상식 밖의 몸값 때문이었다.

[A] “대관절 월매짜리 고기간디그러?” / 내가 물어보았다.  
 “마리당 팔십만 원씩 주구 가져왔다.”  
 그 회사 직원들의 봉급 수준을 모르기에 나의 월급으로 계산을 해 보니, 자그마치 3년 4개월 동안이나 봉투째로 쌓아야 겨우 한 마리 만져 볼까 말까 한 값이었다.  
 “웬 늙은 잉어가 사람버덤 비싸다나?”  
 내가 기가 막혀 두런거렸더니,  
 “보통 것은 아닐러면그러. 벨어넨벤또(베토벤)라나 웨라나를 틀어 주면 그 가락대루 따라서 허구, 차에코플구실어(차이콥스키)라나 웨라나를 틀어 주면 또 그 가락대루 따라서 허구, 좌우간 곡을 틀어 주는 대루 못 추는 춤이 읊는 순진 판따라 고기닝께. 물고기두 꼬랑지 흔들어서 먹구사는 물고기가 있다는 건 이번 에 그 집에서 춤 봤구면.”

그런데 이 비단잉어들이 어제 새벽에 떼죽음을 한 거였다. 자고 일어나 보니 죄다 허영계 뒤집어진 채로 떠 있는 것이었다.

총수가 실내화를 켜 발로 뛰어나왔지만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다. / “어떻게 된 거야?”

한동안 넋 나간 듯이 서 있던 총수가 하고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유자를 겨냥하며 물은 말이였다.

“글쎄유, 아마 밤새에 고빨이 들었던 개비네유.”  
유자는 부러 탄정을 하였다.

“뭐야? 물고기가 물에서 감기 들어 죽는 물고기두 봤어?”  
총수는 그가 마치 혐의자나 되는 것처럼 화풀이를 하려 드는 것이었다. / 그는 비위가 상해서,

“그야 팔자가 사나서 이런 후진국에 시집와 살라니께 여러 가지루다 객고가 썩여서 조시두 안 좋았을 테구…… 그런데다가 부릇쓰구 지루박이구 가락을 트는 대루 디럽다 취했으니께 과로해서 몸살끼두 다소 있었을 테구…… 본래 받들어서 키우는 새끼덜일수록이 다다 탈이 많은 법이니께…….”

그는 시멘트의 독성을 충분히 우려내지 않고 고기를 넣은 것이 탈이었으려니 하면서도 부러 배참\*으로 의문을 떨었다.  
“하는 말마다 저 말 같잖은 소리…… 시끄러 이 사람아.”  
총수는 말 가운데 어디가 어떻게 듣기 싫었는지 자기 성질을 못 이기며 돌아섰다.

[중간 부분의 줄거리] 불상을 닦는 일로 총수의 미움을 사게 된 유자는 총수의 개인 운전수 자리에서 쫓겨나 회사에 속한 차량의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그가 다루는 사건도 태반이 가해자의 운전 윤리 마비증이 자아낸 것이었다. 그렇지만 가해자가 그룹 내의 동료 운전수라 하여 팔이 들이굽는다는 식의 적당주의를 취한 적은 거의 없었다.

다만 사건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기 위해 신상 기록 대장에 있는 주소를 찾아가 보면 일쭉 비탈진 산꼭대기에 더렁이 진 무허가 주택에서 근근이 셋방살이를 하는 축이 많았고, 더욱이 인건비를 줄이느라고 임시로 쓰던 스페어 운전수들이 사는 꼴이 말이 아닐 때는, 그 운전자의 자질 여부를 떠나서 현실적인 딱한 사정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스페어 운전수는 대체로 별이가 시달지 않아 결혼도 못한 채 늙고 병든 홀어미와 단칸 셋방에 살고 있거나, 여편네가 집을 나가 버려 어린것들만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들여다보면 방구석에 먹던 봉지쌀이 남은 대신 연탄이 떨어지고, 연탄이 있으면 쌀이 없거나 밀가루 포대가 비어 있어, 한심해서 들여다볼 수가 없고 심란해서 돌아설 수가 없는 집이 허다한 것이었다.

그는 결국 주머니를 털었다. 스페어 운전수의 사고에는 업무 추진비 명색도 차례가 가지 않아 자신의 용돈을 털게 되는 것이었다. 식구가 단출하면 쌀을 한 말 팔아 주고, 식구가 많은 집은 밀가루를 두 포대 팔아 주고, 그리고 연탄을 백 장씩 들여놓아 주는 것이 그가 용돈에서 여투\* 수 있는 한계였다.

[B] 그는 쌀가게에서 쌀이나 밀가루를 배달하고, 연탄 가게에서 연탄 백 장을 지게로 져 올려 비에 안 젖게 쌓아 주기를 마칠 때까지 그 집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집을 나와서 골목을 빠져나오다 보면 늘 무엇인가를 빠뜨리고 오는 것처럼 개운치가 않았다.

그는 비탈길을 다 내려와서야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곤 하였다. 산동네 초입의 반찬 가게를 보고서야 아까 그 집의 부엌에 간장밖에 없었던 것이 뒤늦게 떠올른 것이었다.

그러면 다시 주머니를 뒤졌다.  
그가 반찬 가게에서 집어 드는 것은 만날 열간하여 엮어 놓은 새끼 굴비 두름이었다. 바다와 연하여 사는 탓에 밥상에 비린 것이 없으면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아 하는 대천 사람의 속성이 그런 데서까지도 드러났던 것이다.

도로 산비탈을 기어 올라가서 굴비 두름을 개 안 당게 고양이 안 당게 야무지게 매달아 주면서,  
“뵙(부엌)에 제우(겨우) 지랑(간장)뵙이 읊으니 뵙이구 수 제비구 건건이가 있어야 넘어가지유. 탄불에 귀 자시든 뵙솔에 썬 자시든 하면, 생긴 건 오죽잖어두 너인네 입맛에 그냥저냥 자셔볼 만할쥬.”

쌀이나 연탄을 들여 줄 때는 회사에서 으레 그렇게 돌봐주는 것이거니 하고 멀건 눈으로 쳐다만 보던 노파도, 그렇게 반찬거리까지 챙겨 주는 자상함에는 그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눈시울을 적시고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

- 이문구, 「유자소전(俞子小傳)」 -

\* 배참: 꾸지람을 듣고 그 화풀이를 다른 데다 함.  
\* 여투다: 돈이나 물건을 아껴 쓰고 나머지를 모아 두다.  
\* 드티다: 밀리거나 비켜나거나 하여 약간 틈이 생기다.

34.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그 회사 직원들'의 봉급 수준을 알고 있었다.
  - ② '노파'는 반찬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유자'에게 도움을 청했다.
  - ③ '스페어 운전자'들은 그들의 자질 여부와 관계없이 대체로 별이가 좋았다.
  - ④ '총수'는 비단잉어들이 죽은 이유에 대한 '유자'의 대답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 ⑤ '유자'는 그룹 내 '동료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처리할 때 적당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35.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서술자가 작품 속에서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 ② [B]는 서술자가 전지적 시점에서 등장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 ③ [A]와 [B]는 모두 현재와 과거의 사건을 교차하여 향후 전개될 사건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 ④ [A]와 [B]는 모두 회상의 방식을 사용하여 인물 간의 갈등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A]는 주인공의 부정적 측면을, [B]는 주인공의 긍정적 측면을 제시하여 인물의 이중적인 성격을 부각하고 있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유자소전」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인물의 행적을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전(傳)의 형식을 빌려 와 전통적 삶의 양식을 현대적으로 재현하려고 했다. 또한 지역 방언과 익살스러운 표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문체를 사용했고, 인간적 도리를 꾸준히 실천하는 평면적인 인물을 통해 산업화 속에 나타나는 부정적 가치관과 인간 소외의 문제를 들추어내고 있다. 이 작품은 양심적이고 인정미 넘치는 주인공의 삶을 조명하여 산업화 속에 사라지고 있는 전통적 삶의 양식을 보여 주고자 했던 작가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 ① 유자가 사용하는 방언과 익살스러운 표현을 통해 토속적인 느낌과 인물에 대한 정감을 주고 있군.
- ② 유자가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인정미 넘치는 모습을 통해 인간적 도리를 실천하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군.
- ③ 유자에 얽힌 일화들을 소개하여 그가 한 일들을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의 형식을 빌려 온 것이라 할 수 있군.
- ④ 총수의 사치와 허영심에 대한 유자의 불만스러운 태도를 통해 산업화 시대의 물질주의적 가치관에 대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군.
- ⑤ 총수의 운전자에서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업무 담당자로 처지가 바뀌고 나서야 인간성을 회복하는 유자는 평면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군.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빈천(貧賤)을 팔려고 권문(權門)\*에 들어가니  
덤 없는 흥정을 누가 먼저 하자고 하겠는가  
강산(江山)과 풍월(風月)을 달라하니 그건 그리 못하리  
- 조찬한 -

(나)  
어리석고 어수룩하기로 나보다 더한 이 없다  
길흉화복(吉凶禍福)을 하늘에 맡겨 두고  
누항(陋巷)\* 깊은 곳에 초막(草幕)을 지어 두고  
풍조우석(風朝雨夕)\*에 썩은 짚을 섞으로 삼아  
㉠서 흙 밥 닷 흙 죽(粥)에 연기(煙氣)도 자욱하다  
설 테운 승냥으로 빈 배 속일 뿐이로다  
내 삶이 이러한들 ㉡장부(丈夫) 뜻을 바꿀런가  
안빈(安貧) 일념(一念)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  
뜻한 바대로 살려 하니 갈수록 어긋난다  
가을이 부족(不足)한데 봄이라 넉넉하며  
주머니가 비었는데 병(瓶)이라고 담겼으랴  
빈곤(貧困)한 인생(人生)이 천지 간(天地間)에 나뿐이라  
배고픔과 추위로 피로워도 일단심(一丹心)을 잊을런가  
의(義)를 위해 목숨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자루와 주머니에 줌이 모아 넣고  
전쟁 오 년에 감사심(敢死心)\*을 가져 있어  
주검 밟고 피를 건너 ㉢몇 백 전(戰)을 지냈던고  
내 몸이 여유 있어 일가(一家)를 돌아보랴  
수염이 긴 노비는 노주분(奴主分)\*을 잊었거든  
㉣불이 왔다 알리는 걸 어느 사이 생각하리  
경당문노(耕當問奴)\*인들 누구에게 물을런고  
손수 농사짓기가 ㉤내 분(分)인 줄 알리로다  
- 박인로, 「누항사(陋巷詞)」 -

\* 권문: '권문세가'의 준말. 권세가 있는 집안.  
\* 누항: 가난한 사람이 사는 곳, 누추한 곳을 이룸.  
\* 풍조우석: 바람 부는 아침과 비 오는 저녁.  
\* 감사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 노주분: 노비와 주인의 구분.  
\* 경당문노: 밭 갈기는 마땅히 노비에게 물어야 함.

37.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청각적 심상을 통해 애상적인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② (가)에서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를 활용하여 주제를 강조한다.
  - ③ (나)에서는 의성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넘치게 표현한다.
  - ④ (가), (나)에서는 모두 감정 이입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심화한다.
  - ⑤ (가), (나)에서는 모두 설의적 표현을 통해 구절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3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화자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소재
  - ② ㉡: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화자가 지키려는 뜻
  - ③ ㉢: 화자가 죽음을 무릅쓰고 용감히 싸웠던 전쟁
  - ④ ㉣: 한해의 농사를 짓기 시작해야 할 때
  - ⑤ ㉤: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는 넉넉한 태도

39.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조선 시대에 여러 내우외환을 겪으면서 나라의 사정은 어려워지고 권력과 부귀를 지니지 못한 선비들도 삶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그들은 현실적인 삶의 문제와 선비로서 지조와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삶 사이에서 갈등했다. 조찬한의 시조와 박인로의 「누항사」에는 선비들이 현실적 고민 속에서도 선비로서의 삶의 자세를 잃지 않으려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① (가)의 '빈천'은 선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② (가)의 화자가 '강산과 풍월'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며 선비로서의 삶의 자세를 잃지 않으려는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③ (나)의 '누항'은 가난한 현실로 인해 선비로서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드러나 있는 공간이군.
- ④ (나)의 화자가 '빈곤한 인생' 속에서도 '일단심'을 잊지 않겠다는 모습에는 선비로서 지조와 신념을 지키며 살겠다는 의지가 드러나 있군.
- ⑤ (가)의 화자가 '권문'을 찾은 모습과 (나)의 '안빈 일념'을 적게 지닌 화자의 모습을 통해 현실과 타협하며 살았던 과거의 태도를 반성하는 선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군.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채봉과 장필성은 혼약을 하지만, 김 진사는 허 판서에게 돈을 주는 것과 채봉을 허 판서의 첩으로 들이는 것을 대가로 벼슬을 약속 받는다.

김 진사 내외가 상경하여 이왕 객줏집으로 임시 거처를 정하고, 이튿날 허 판서를 가서 보니, 허 판서가 김 진사를 보고 반겨,

“아! 김 현감 오시나. 그래 올라오는데 노독이나 아니 냈나? 자, 우선 급한데 과천 현감을 구경하려나.”

하더니, 문갑에서 현감 칙지\*를 내어 주는지라. 김 진사가 칙지를 보고 가슴이 주저앉으며 혼 빠진 사람처럼 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받지를 못한다. 허 판서가 거동을 보고 꺄꺄 웃으며,

“왜 그래? 너무 반가워서 그러하지.”

김 진사가 일어나 절을 하여 칙지를 받아 앞에 놓고, “대감 혜택으로 친을 입었습니다마는, 운수가 불길하여 올라오다가 죽을 풍파를 겪고 올라왔으나, 대감 비운 닢이 없습니다.” / 허 판서가 꺄꺄 놀라며,

“응, 그게 무슨 소리냐? 풍파를 겪다니?”

김 진사가 전후의 말을 다하니, 허 판서가 별안간 눈이 실췌하여지며, 조금도 가엾은 생각이 없이,

“허! 이런 맹랑한 놈 보아! 제가 어찌하였는지 과천 현감을 할 터이니가, 내려갈 때에는 허락을 다하고 지금은 탄소리를 해.”

하며, 부르르 놀라는 체하고 김 진사의 얼굴을 훑어보며,

“대단히 놀라운 말일세. 재물은 도적이 가져갔거니와, 딸이야 못 찾아 가지고 온단 말인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있어야지요. 대감 위력이나 빌어 가지고 찾고자 하여 올라왔습니다.”

허 판서가 왈락 성을 내어 큰 소리로 꾸짖어 가로되,

“이놈, 부모가 되어서 난(亂)중에 자식을 잃고 찾을 생각도 아니하고, 뉘 위력을 빌어서 찾으려고 내버리고 왔어. 맹랑한 놈.” / 하더니, 하인을 불러서 구류를 시키라 하며,

“이놈, 네 딸을 데려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돈 오천 냥을 마저 바치든지 해야 무사하리라. 이놈아, 이따위 소리를 뉘 앞에서 하느냐. 시골 내려간 동안에 주선을 다 해서 주마고 하였더니, 현감은 할 터이니가, 지금 와서 그까짓 소리를 한단 말이나.” / 하고, 다시 말할 새 없이 가두더라.

(중략)

이때 채봉은 취향과 약속한 후 만리교에서 이 부인이 잠든 틈을 타서 도망하여 취향과 취향 어미를 데리고 평양으로 도로 내려와 취향의 집에서 있으며, 부친의 기별을 기다리고, 차차 길을 얻어 장필성에게 통하려고 우선 서화(書畵)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었다. 채봉이는 만리교에서 도적이 듣기 전 두어 식경이나 앞서 도망한 고로, 김 진사가 그 지경이 된 줄은 모르고 있더라. 이때 부인이 주야 열흘 만에 평양에 당도하니 어디로 가리오. 속으로 생각하되,

‘㉠애기가 이리로 오면 필연 취향의 집으로 왔을 터이니, 취향의 집으로 찾아가는 것이 옳다.’

하고 대동문을 들어서며 좌우를 돌아보고, 탄식하는 말이,

“㉡산천과 물색은 의구하다마는 나는 불과 한 달 동안에

행색이 이렇게 초췌하여졌단 말이나?”

이렇듯 한숨지며 고을에 들어서서 취향의 집으로 들어가니, 이때 채봉은 취향을 데리고 선후 방침을 의논하며 앉았는데, 이 부인이 안으로 들어오며 취향부터 부른다.

“취향아, 취향아!”

채봉과 취향이 부인의 음성을 어찌 모르리오. 한걸음에 우르르 뛰어나오는데, 이 부인이 미처 채봉은 보지 못하고 앞선 취향부터 보고,

“취향아, 우리 택 아기씨 여기 왔니?”

채봉이 급히 이 부인의 손을 잡고,

“어머니, 나 여기 있소.” / 이 부인이 얼싸안고,

“㉢이 일을 어찌하면 종단 말인가? 우리 집이 오늘날같이 불시에 망할 줄을 꿈에나 생각하였을까?”

채봉이 이 말을 듣고 소스라쳐 놀라 울며,

“망하다니! 불초녀(不肖女)로 무슨 풍파가 났소?”

이 부인이 정신을 진정하고 방으로 들어가 앉으며,

“어떻게 되어서 내가 이리로 왔니?”

채봉이 부인의 행색을 보고, 이 말에는 대답을 아니하고 도리어 묻기부터 한다.

“글쎄 어머니, 나 여기에 온 것을 장차 이야기할 것이니, 어머니의 이야기부터 하시오. 아버지는 어디 계시며, 어머니는 무슨 일로 이렇듯이 혼자 오시오?”

하는데, 부인은 한참 동안 가슴이 답답하여 앉았다가, 만리교에서 도적을 만난 일과, 서울에 갔다가 허 판서가 영감을 가두고 억박지르던 말을 다 하며,

“이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돈을 오천 냥을 하여 놓든지, 너를 데려오든지 하라 하니, 너는 아버지를 살리려거든 나와 같이 서울로 올라가자.”

채봉이 이 말을 듣고 눈물을 머금고 지난날 만리교 주막에서 취향과 약속하고 밤중에 도망하여 온 말을 대강하여 말하고,

“어머니, 나는 죽어도 서울로 올라가는 싫소. 이 자식은 죽은 걸로 아십시오.”

“내가 아니 가면 아버지는 아주 돌아가시란 말이나. 너를 찾아 놓든지, 돈을 해서 놓아라 하니, 너라도 가야지.”

채봉이 묵묵히 앉아서 홀로 사세를 생각하니,

‘㉣가련한 부모는 이미 범의 아구리에 들었으며, 가산은 탕진한 것과 다를 바가 없고, 이 몸은 죽어도 먹은 마음 변할 생각이 없으니 이 일을 어찌하리오. 내가 올라가면 장필성의 죄인이 될 것이요, 돈도 못 하고 나도 아니 올라 가면 부모는 환란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 차라리 이 몸이 죽으면 모를까. 죽으면 나는 허물이 없는 사람이 되려니와, 늙고 병든 부모는 속절없이 죽는 사람이라. ㉤죽기도 살기도 어려우니 슬프다. 천지가 광활하나 가련한 박명 여자의 한 몸을 용납할 곳이 없는가. 세상에 뉘가 만일 돈을 주어 내 부모를 구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데려다가 종노릇을 시키거든 종노릇을 하고, 기생 노릇을 시키거든 기생 노릇이라도 하리라.’

이와 같이 결심하니, 세상에 한없는 것은 눈물이라.

- 작자 미상, 「채봉감별곡(彩鳳感別曲)」 -

\* 칙지: 왕이 내린 명령.

40.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부인은 재물을 잃은 것이 채봉의 탓이라고 생각했다.
- ② 채봉은 도망 후 부모와 연을 끊으려고 취향의 집에 숨었다.
- ③ 김 진사는 허 판사에게 채봉을 찾아 데려오겠다고 약속했다.
- ④ 채봉은 이 부인과 재회한 후, 도망 온 대강의 사연을 이 부인에게 말했다.
- ⑤ 김 진사는 허 판사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받는 것을 끝까지 거부했다.

4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내적 독백을 통해 '이 부인'이 '취향'의 집으로 가려는 이유를 나타내고 있다.
- ② ㉡: 자연과 대비되는 '이 부인'의 상황을 제시하여 '이 부인'의 암담한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 의문의 진술을 통해 '이 부인'의 막막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비유적 표현을 통해 채봉의 '부모'가 직면한 상황의 절박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채봉'의 행위에 대한 서술자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4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채봉감별곡」은 주인공이 장애를 극복하고 사랑을 이루어 가는 과정을 보여 주는 소설이다. 조선 후기의 사회 현실을 배경으로 한 이 소설에서는 인물들의 행위가 현실적인 욕망에서 기인하며, 주인공이 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에 전기적(傳奇的)인 요소가 거의 없고 우연적인 요소가 적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뜻에 따라 행동하며 자신에게 닥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스스로 모색하고자 하는 능동적인 인물을 제시한 점이 이 소설의 특징이다.

- ① 채봉은 혼약을 지키려고 평양으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자신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채봉은 천한 신분이 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능동적인 인물로 볼 수 있겠군.
- ③ 허 판사의 매관매직과 횡포로 채봉의 집안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의 부정적 현실이 드러나 있군.
- ④ 김 진사는 딸을 첩으로 보내면서까지 출세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채봉이 만리교에서 도적이 들 것을 예측하고 피했다는 점에서 사건의 구성에 비현실적 요소가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철호는 월남 가족의 가정으로, 실성한 어머니, 만삭의 아내, 상이군인인 남동생 영호, 힘들게 살아가는 여동생 명숙과 함께 해방촌의 판잣집에서 살고 있다. 철호는 은행 강도가 된 동생 영호가 경찰서에 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 S# 103. 철호의 방 안

철호가 아랫방에 들어서자 윗방 구석에서 고리짝을 뒤지고 있던 명숙이가 원망스럽게  
 명숙: 오빠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슈.  
 철호는 들은 척도 않고 아랫목에 털썩 주저앉아 버린다.  
 명숙: 어서 병원에 가 보세요. / 철호: 병원에라니?  
 명숙: 언니가 위독해요. / 철호: .....  
 명숙: 점심때부터 진통이 시작되어 죽을 애를 다 쓰고 그만 어린애가 걸렸어요. / 철호: .....

(중략)

㉡ S# 104. 동대문 산부인과 복도

철호가 419호실 앞으로 휘청거리고 와서 조용히 노크한다.  
 이윽고 문이 열리면 텅 빈 실내를 간호원이 소독하고, 한 간호원이 철호의 위아래를 훑어보며  
 간호원: 혹시 이 방에 입원한 환자의 가족이신가요?  
 철호: .....네. / 간호원: .....  
 철호: ..... / 간호원: 한 시간 좀 지났어요.  
 철호: .....? ..... / 간호원: 부인과 과장실에 가 보세요.  
 하고 문을 닫는다. 화석 같은 철호.

S# 105. 시체 안치실 앞

철호가 유령처럼 걸어온다.  
 문 앞에 와서 손잡이를 잡다가 힘없이 놓고 돌아선다.  
 눈앞에 뽀얗게 흐린 채 거기 우두커니 서 있을 뿐.....

㉢ S# 107. 거리

허탈한 상태로 걸어가는 철호.  
 여기서 자신의 소리가 겹친다.  
 ㉠ 소리: (벽력같은 소리로) 영호야! 그렇게나 살자면 이 형도 벌써 잘 살 수 있었던 말이다.  
 입은 찢어지고 눈에선 눈물이 사정없이 솟고 그러면서도 눈만은 정기(精氣)가 차서 앞을 정시(正視)하며.....

S# 110. 다른 거리

문방구점, 라디오방, 사진관, 제과점. 그는 길옆에 늘어선 가게의 진열장을 하나하나 기웃거리며 걷고 있다. 하나 철호의 눈에는 무엇인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그는 어느 문 앞에 걸린 간판 앞에 우뚝 선다. '치과' 그것을 쳐다보는 철호의 얼굴이 점점 찌푸러지며 손으로 볼을 움켜쥔다. 철호가 주머니에서 만 환을 꺼내 보더니 이윽고 결심한 듯 안으로 들어간다.

S# 113. 거리

철호가 볼을 만지며 걸어온다.  
 그는 또 우뚝 선다. 다른 치과 앞이다. 그가 한참 생각다 들어가면 —㉡ O.L.\*— 철호가 이번에는 양쪽 볼을 손으로 누르며 나온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지를 꺼내 입안의 피를 뺀다.

㉢ S# 116. 그 집 앞

그 집 옆 골목으로 비틀거리고 나온 철호가 시궁창에 가서 쭈그리고 앉는다.

“왈각” 쏟아져 나오는 피.  
그는 저고리 소매로 입술을 닦으며 일어선다.  
눈앞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한다.  
그는 휘청거리고 나가서는 지나가는 자동차를 세우고 던져  
지듯 털썩 차 안에 쓰러지자 택시는 구르기 시작한다.

S# 117. 자동차 안

조수: 어디로 가시죠? / 철호: 해방촌!

자동차가 원을 그리며 돌아

철호: 아냐, 동대문 부인 병원으로.

이번엔 반대로 커브를 돌리자

철호: 아냐, 종로서로 가야!

운전수와 조수가 못마땅해서 힐끗 돌아본다.

㉠ S# 120. 자동차 안

조수가 뒤를 보며

조수: 경찰습니다.

혼수상태의 철호가 눈을 뜨고 경찰서를 물끄러미 내다보다  
가 뒤로 쓰러지며

철호: 아니야. 가! / 조수: 손님 종로 경찰선데요.

철호: 아니야. 가! / 조수: 어디로 갑니까?

철호: 글썽 가재두……. / 조수: 참 딱한 아저씨네.

철호: …….

운전수가 자동차를 몰며 조수에게

운전수: 취했나? / 조수: 그런가 봐요.

운전수: 어쩌다 오발탄 같은 손님이 걸렸어. 자기 갈 곳도 모  
르게.

철호가 그 소리에 눈을 떴다가 스프르 감는다.

밤거리의 풍경이 쉼 새 없이 뒤로 흘러간다.

여기에 들리는 철호의 소리.

㉠ 철호E: 아들 구실, 남편 구실, 애비 구실, 형 구실, 오빠  
구실, 또 사무실 서기 구실. 해야 할 구실이 너무  
많구나. 그래 난 네 말대로 아마도 조물주의 오발  
탄인지도 모른다. 정말 갈 곳을 알 수가 없다. 그  
런데 지금 나는 어딘지 가긴 가야 하는데…….  
- 이범선 원작, 나소운·이종기 각색, 「오발탄」 -

\* O.L.: 하나의 화면이 끝나기 전에 다음 화면이 겹치면서 먼저 화면  
이 차차 사라지게 하는 기법.  
\* E: 화면은 앞 화면 그대로 유지한 채 소리만 덧붙이는 기법.

4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명숙의 대사에 대한 철호의 반응을 통해, 명숙의 태도  
에 대해서 철호가 원망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 ② ㉡: 간호원의 대사에 대한 철호의 반응을 통해, 아내의 상  
태가 나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이 드러난다.
- ③ ㉢: 철호의 행동을 통해, 성공한 삶을 살게 된 영호에 비해  
초라한 자신의 모습에 대한 철호의 자괴감이 드러난다.
- ④ ㉣: 철호의 행동을 통해, 철호가 육체적 고통에서 회복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 ⑤ ㉤: 목적지를 결정하지 못하는 철호의 모습을 통해, 삶의 방  
향을 상실한 피로움이 드러난다.

44. <보기>는 S# 110에 해당하는 원작 소설의 일부이다.  
<보기>를 시나리오로 각색할 때 고려했을 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문방구점, 라디오방, 사진관, 제과점. 그는 길가에 늘어선  
이런 가게의 진열장을 하나하나 기웃거리며 걷고 있었다. 그  
러면서도 무엇이 있는지 하나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던 철  
호는 또 우뚝 섰다. 그는 거기 눈앞에 걸린 간판을 쳐다보고  
있었다. 장기판만한 흰 판에 빨간 페인트로 치과라고 써 있  
었다. 철호는 갑자기 이가 쏙이는 것을 느꼈다. 아침부터, 아  
니 벌써 전부터 훌쩍훌쩍 쏙이는 충치가 갑자기 아팠다. 양  
쪽 어금니가 아래위 다 쏙였다. 사실은 어느 것이 정말 쏙시  
는 것인지조차도 분간할 수가 없었다. 철호는 호주머니에 손  
을 넣어 보았다. 만 환 다발이 만져졌다. 철호는 치과 간판  
이 걸린 층계 이층으로 올라갔다.

- ① 소설 속 인물의 심리가 시나리오 속 인물의 표정과 행동으로  
드러나도록 한다.
- ② 사건을 추가하여 인물 간의 갈등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  
록 구체화한다.
- ③ 장면 해설을 활용하여 사건의 의미를 쉽게 풀어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등장인물의 수를 늘려 사건의 의미를 다각도로 조명할 수 있  
도록 한다.
- ⑤ 공간적 배경을 다르게 설정하여 시대상을 정확히 보여 주도  
록 한다.

4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찾아 바르  
게 짝지은 것은?

<보 기>

ㄱ. ㉠: 현재 '영호'와의 대화 장면 속에서 '철호'의 속마음  
을 보여 주는 소리로, '영호'에 대한 반감을 효과적  
으로 드러낸다.

ㄴ. ㉡: 전후 장면에 나타나는 '철호'의 행동을 통해 생략된  
사건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ㄷ. ㉢: '철호'가 치과 안과 밖에서 겪는 두 사건을 한 화면  
에 병치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을 드러낸다.

ㄹ. ㉣: '철호'의 소리를 화면에 덧붙이는 기법을 사용하여  
'철호'의 심리를 짐작하여 보여 준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십시오.

# 2016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정답

1	㉓	2	㉔	3	㉕	4	㉖	5	㉗
6	㉘	7	㉙	8	㉚	9	㉛	10	㉜
11	㉝	12	㉞	13	㉟	14	㊱	15	㊲
16	㊳	17	㊴	18	㊵	19	㊶	20	㊷
21	㊸	22	㊹	23	㊺	24	㊻	25	㊼
26	㊽	27	㊾	28	㊿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 국어 영역

#### 해설

\*\* 화법 \*\*

#### 1.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C]에서 연구관은 무쇠술의 용도에 대해 밥을 짓는 데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국과 반찬을 만들 때나 소죽을 끓이는 데 사용했고, 솔뚜껑은 전을 부치는 도구로 이용하기도 했다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이 알고 있는 내용에 보충을 해 주고 있다.

① 학생은 인터뷰 취지는 밝히고 있으나 절차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④ 연구관은 열의 대류와 전도에 대한 언급은 했으나 이에 대한 과학적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 2. [출제의도] 말하기 계획 평가하기

무쇠술은 밥 짓는 데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여러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무쇠술이 밥을 짓는 제한된 용도로 쓰인 이유를 밝히겠다는 발표 계획은 적절하지 않다.

① 인터뷰에서 기록과 유적을 바탕으로 술의 역사를 설명했으므로 발표의 신뢰성을 얻기 위해 기록 자료의 출처와 유물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역사에 등장하는 술이 나라와 왕의 업적을 의미한다고 했으므로 이에 대한 사례를 보충하여 제시하면 더 충실한 발표를 할 수 있다.

#### 3. [출제의도] 말하기 계획 평가하기

청중이 동물원 폐쇄에 대한 정당성을 따져 보고자 함은 '연설 의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기에 동물원을 폐쇄해야 한다는 것은 '연설'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연설자가 연설 계획 단계에서 고려했는지 사후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4. [출제의도] 연설의 전략 평가하기

[C]에서 연설자가 피터 싱어 교수의 책 『동물해방』의 일부인 '어떤 존재들이 ~ 대상이 되어야 한다.'를 인용하여, 동물은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배려의 대상이라는 도덕적 관점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동물원을 폐쇄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5. [출제의도] 반응의 적절성 평가하기

3문단에서 연설자는 예상되는 반론으로 멸종 보호종의 보호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멸종 보호종의 보호에 대해 동물 보호 센터 운영을 들어 반박하고 있으나, 지역 경제 활성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근거를 들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동물원 폐쇄에 반대하는 청중의 입장에서 설득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반박하는 것은 적절하다.

\*\* 작문 \*\*

#### 6.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 파악하기

2문단에서는 일반인들이 심폐 소생술을 꺼리는 원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3문단에서는 문제의 원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글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였다.

② 설문 조사의 내용을 제시하였으나, '나'가 직접 조사한 것은 아니다.

#### 7. [출제의도]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둘째 단락에서 심폐 소생술 시행을 꺼리는 가장 큰 원인은 심폐 소생술 교육 기회가 적어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이론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심폐 소생술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나)-3에서도 심폐 소생술을 꺼리는 가장 큰 원인은 심폐 소생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서이다. 따라서 (나)-3을 활용하여, 재교육이 부족해 심폐 소생술 시행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심폐 소생술을 꺼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부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다)의 미국의 사례에 따르면 심폐 소생술의 재교육이 심폐 소생술의 시행률을 높이고 있다. 이를 셋째 단락에서 언급한 심폐 소생술 교육 경험자에 대한 재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나)-1과 (나)-2에는 각각 국내 심정지 환자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현황과 우리나라의 심폐 소생술 시행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통계 자료가 나타나 있다. 따라서 이를 첫째 단락에서 언급한 내용의 구체적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 8. [출제의도] 고쳐 쓰기의 적절성 파악하기

⑥의 '그래서'는 두 문장의 의미 관계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로 수정하더라도 적절하지 않다. 문장의 연결 관계를 고려했을 때 '그리고' 정도로 고쳐야 한다.

① '아름다운 미담'은 '아름답다'는 의미가 중복되므로 '아름다운'을 삭제해야 한다.

#### 9. [출제의도] 글쓰기 방법 파악하기

학생이 쓴 글에는 학생이 우연히 보게 된 꽃을 통해 느낀 감동이 문학 작품으로 이어지는, 문학과 외부 세계와의 상호 작용을 통한 정서적 체험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동아리 발표 대회라는 학생의 경험과 이를 통해 학생이 얻은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① 협력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협력의 단점을 제시하지 않았다. ④ 일반적인 협력의 진행 과정을 순차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 10. [출제의도] 조건에 따른 글쓰기

첫 번째 문장에는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를 직접 인용하면서 보도블록 사이에 꽃들이 서로의 줄기를 지탱하듯 자란 모습과 연관 지어 시련을

이겨 냈음을 썼으며, 두 번째 문장은 협력에 대해 '홀어지면 약하지만 뭉치면 단단해지는 눈 같은'이라는 직유법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② ㉔의 일부를 직접 인용하며 꽃들의 상황과 연관을 지었지만, 협력에 대해 직유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⑤ 첫 번째 문장에 직접 인용이 없으며, 두 번째 문장에 직유법을 사용하였지만 협력에 대한 것이 아니다.

\*\* 문법 \*\*

#### 11. [출제의도] 음운의 변동 이해하기

㉔의 '입문하여[입문하여]'에서 '입문'이 [입문]으로 발음되는 것은 비음화에 의한 것인데, '집문서'가 [집문서]로, '만누이'가 [만누이]로 발음되는 것 역시 비음화에 의한 것이다.

① ㉔은 자음군 단순화에 의한 것인데 '급하다'가 [그파다]로 발음되는 것은 거센소리되기에 해당한다. ② ㉔은 구개음화에 의한 것인데 '뻘대다'가 [뻘뻘대다]로 발음되는 것은 된소리되기에 해당한다. ④ ㉔은 된소리되기에 의한 것인데 '꿈같이'가 [꿈가치]로 발음되는 것은 구개음화에 해당한다. ⑤ ㉔은 거센소리되기에 의한 것인데 '한여름'이 [한너름]으로 발음되는 것은 'ㄴ' 첨가 현상에 해당한다.

#### 12. [출제의도] 조사의 쓰임 파악하기

⑤의 '처럼'은 체언에 결합하여 모양이 비슷하거나 같음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①의 '라도'는 체언에 결합하여 '썩 좋은 것은 아니나 그런대로 괜찮음'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이고, ②의 '야'는 체언에 결합하여 '강조'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이고, ③의 '는'은 어미에 결합하여 '대조'나 '강조'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이고, ④의 '만'은 부사에 결합하여 '강조'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이다.

#### 13. [출제의도] 높임 표현 파악하기

'선생님'은 주체가 아니라 상대이다. 이 문장의 주체는 '제(나)'이다.

② 행위의 대상이 되는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 '주다'의 의미를 지닌 특수 어휘 '드리다'를 사용하여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에게'의 의미를 지닌 격 조사 '께'를 사용하여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⑤ ㉔에서 청자는 '아버지'이므로 상대는 '아버지'이고 높임의 대상인 '아버지'를 종결 어미 '-습니다'를 사용하여 높이고 있다.

#### 14.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사전의 활용 정보를 보면, '이르다'는 '이르러, 이르니'와 같이 활용되며, '이르다<sup>2</sup>'와 '이르다<sup>3</sup>'은 '일러, 이르니'와 같이 활용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르다'는 어미의 기본 형태가 달라지는 불규칙 용언임을 알 수 있고, '이르다<sup>2</sup>'와 '이르다<sup>3</sup>'은 어간의 기본 형태가 달라지는 불규칙 용언임을 알 수 있다.

#### 15. [출제의도] 정확한 문장 표현의 적절성 평가하기

'나이가 작다'는 잘못된 표현이다. '나이'는 크기의 개념이 아닌 수량이나 정도의 개념이기에 '크고 작음'이 아니라 '많고 적음'으로 고쳐, '나이가 많고 적음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고쳐 써야 한다.

#### 16.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특징 파악하기

'보미'는 받침이 있는 체언(뫼)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익)가 붙을 때 받침에 쓰인 종성을 다음 자의 초성으로 내려 썼다. 따라서 기본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은 이어 적기에 해당한다.

③ ‘썩.리계’에서 볼 수 있듯이 단어의 첫머리에서 다른 자음인 ‘ㄱ’과 ‘ㄴ’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

**\*\* 인문 \*\***

□ 출전: 임부연, <실학에 길을 묻다>

**17. [출제의도] 세부 내용 추론하기**

2문단에서 성리학에서는 기가 악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① 5문단을 통해 성리학은 형이상학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4문단에서 실학자 최한기는 본성을 끊임없이 활동하고 변화하는 기로 파악했다. ⑤ 2문단에서 성리학은 개개인의 도덕성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기에 있다고 하였다.

**18. [출제의도] 관점에 따른 적절성 파악하기**

<보기>는 선과 의로움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도덕성을 갖추게 된다는 정약용의 관점을 보여 주고 있다. 3문단에서 정약용은 선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할 때 도덕성을 갖추게 된다고 보았다.

② 3문단에서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을 선과 악을 구분하여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할 줄 아는 분별 능력을 갖춘 윤리적 욕구로 보았다. ⑤ 4문단에서 외부의 사물이나 사태에 대한 올바른 추측과 부단한 소통으로 도덕성이 실현된다고 보는 것은 최한기의 관점이다.

**19.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보기>는 조선 후기 사회의 도덕적 혼란과 백성의 고통을 보여 주고 있다. 4문단에서 최한기는 기 자체에 선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올바른 추측을 통해 외부 세계와 소통하지 못할 때 악이 생긴다고 보았다.

① 3문단에서 정약용은 선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는 것을 선에 대한 주체적 선택과 지속적인 실천을 할 때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은 본성인 선에 대한 욕구가 충족된 것이 될 수 없다. ② 3문단에서 정약용은 선의 실천이 타인과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선의 실천을 통해 도덕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④ 4문단에서 최한기는 인간의 윤리가 기의 운동과 변화에 합치되어야 선하고 도덕적인 것으로 보았다.

**20.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①은 ㉠의 경우처럼, ‘모르는 것을 알아내고 밝혀내려고 애쓰다. 또는 그것을 알아내고 밝혀내다.’의 뜻으로 쓰였다.

②는 ‘어떤 사람이나 기관 따위에 도움을 요청하다.’ ③은 ‘맡겼던 것을 돌려받아 가지게 되다.’ ④는 ‘어떤 것을 구하다.’ ⑤는 ‘현재 주변에 없는 것을 얻으려고 여기저기를 뒤지거나 살피다. 또는 그것을 얻다.’의 뜻으로 쓰였다.

**\*\* 과학 \*\***

□ 출전: 모집 라티프, <기후의 역습>

**21. [출제의도] 글의 서술 방식 파악하기**

이 글은 적도 부근 태평양에 나타나는 현상을 평상시, 엘니뇨 시기, 라니냐 시기로 나누어 제시하면서 각각 해양과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22. [출제의도] 세부 정보 확인하기**

2문단과 3문단에서 용승이 일어나면 동태평양

페루 연안의 해수면 온도가 같은 위도의 다른 해역보다 낮아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① 3문단에서 표층 해수의 온도가 높아지면 따뜻한 해수가 공기를 데워 상승 기류를 발생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② 2문단에서 평상시 무역풍이 동쪽의 따뜻한 표층수를 서쪽으로 운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⑤ 2문단에서 무역풍이 따뜻한 표층수를 서쪽 방향으로 이동시켜 동쪽에서는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얇아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23. [출제의도] 세부 정보 추론하기**

이 글을 통해, 라니냐일 때 B 해역의 따뜻한 표층수가 평상시보다 더 많이 A 해역으로 이동하므로 B 해역의 따뜻한 해수층은 얇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엘니뇨의 영향으로 A 해역의 표층 해수의 온도는 평상시보다 낮아진다.(4문단)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강해지면 A 해역으로 따뜻한 표층수가 평상시보다 더 많이 이동하므로 A 해역의 표층 해수의 온도는 평상시보다 더 높아진다.(5문단) ④ 엘니뇨일 때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고 평상시에 비해 강수량이 감소하여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는 가뭄, 산불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4문단)

**\*\* 사회 \*\***

□ 출전: 김화진, 송옥렬, <기업인수합병>

**24. [출제의도]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이 글은 기업인수합병의 개념을 살펴본 후, 수평적, 수직적, 다각적 인수합병으로 나누어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① 기업인수합병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비판한 부분은 없다.

**25.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3문단에서 수직적 인수합병은 동일한 분야에 있으나 생산 활동 단계가 다른 업종 간에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26.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보기>에서 B자동차 회사는 A자동차 회사와 수평적 인수합병을 한 것이다.

② 2문단에서 수평적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면 가격 경쟁력이 증가한다고 하였고, 1문단에서 기업들이 이익 극대화를 위해 인수합병의 경쟁 전략을 취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③ <보기>를 통해 B자동차 회사가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철강 회사를 인수합병했음을 알 수 있으며, 3문단을 통해 이는 생산 활동 단계가 다른 업종 간에 이루어진 수직적 인수합병이고 후방 통합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27. [출제의도] 어휘 선택의 적절성 판단하기**

㉠의 ‘나누다’는 ‘여러 가지가 섞인 것을 구분하여 분류하다.’라는 뜻이며, ‘구분하다’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몇 개로 갈라 나누다’라는 뜻이므로 문맥상 ‘구분할’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예술 \*\***

□ 출전: 데이비드 A.라우어, 스티븐 펜탁, <조형의 원리>

**28. [출제의도] 개괄적인 내용 파악하기**

회화에서 통일성을 잘 구현한 작가들의 작품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①은 1문단, ②는 2문단, ③은 3문단, ⑤는 4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29. [출제의도] 세부 내용 확인하기**

1문단에서 회화의 통일성은 화면의 여러 조형 요소들에 일관성을 부여하여 질서를 갖추게 하는 조형 원리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회화의 통일성은 조형 요소가 아니다. 또한 작품에 다양성을 부여한다고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①은 2문단, ③은 1문단, ④는 3문단, ⑤는 4문단에서 알 수 있다.

**30.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반복은 부분적인 것들을 반복시켜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클립트의 「너도밤나무 숲」은 끈적 끈적한 나무의 수직적인 형태를 반복하는 반복의 방법을 사용해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구현하고 있다.

**\*\* 현대시 \*\***

□ 출전: 서정주, <추천사>

나희덕, <땅끝>

**31.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 파악하기**

(가)의 ‘그넷줄’은 화자가 소망하는 이상 세계에 가기 위해, (나)의 ‘그네’는 노을을 보고 싶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32.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서(西)으로 가는 달’은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의 ‘나’와 대비되는 대상으로, 현실적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와 달리 자유로운 존재로 볼 수 있다.

① ‘수양버들나무’, ‘풀꽃더미’, ‘나비 새끼 꼬꼬리들’은 화자가 이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고뇌를 일으키는 것들로, 결별해야 할 대상이다. ⑤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다오’에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운명적 좌절을 인식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을 계속 지향하며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난다.

**33.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 파악하기**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는 화자가 계속 겪게 되는 삶의 고통 속에서도 삶의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는 역설적 인식을 표현한 것이다.

②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는 화자가 살면서 힘든 시련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한 표현이다.

**\*\* 현대 소설 \*\***

□ 출전: 이문구, <유자소전(兪子小傳)>

**34.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파악하기**

‘말 가운데 어디가 어떻게 듣기 싫었는지 자기 성질을 못 이기며 돌아섰다’는 서술자의 진술을 통해 총수가 유자를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마지막 문단에서 노파가 유자의 자상함에 눈시울을 적시며 고마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유자에게 반찬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도움을 청했다는 것은 알 수 없다.

**35.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B]는 작품 밖의 서술자가 전지적 시점으로 ‘유자’의 행위를 설명하고, ‘늘 무엇인가를 빠뜨리고 오는 것처럼 개운치가 않았다’와 같은 구절을 통해 힘든 사람들을 가엽게 여기는 유자의 심리를 서술자가 제시하고 있다.

**36.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평면적 인물이란 작품 내에서 성격이 일관되게

유지되는 인물의 유형을 말한다. 상황에 따라 인간성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자는 평면적 인물로 볼 수 있다. 유자가 충수의 운전수일 때 인간성을 상실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유자가 처지가 바뀌고 나서야 인간성을 회복한다고 감상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 고전 시가 \*\***

□ 출전: 조찬한, <빈천(貧賤)을 팔려고~>  
박인로, <누항사(陋巷詞)>

**37.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가)에서는 '누가 먼저 하자고 하겠는가'를 통해 이혜타산에 밝은 세태를, (나)에서는 '장부 뜻을 바꿀런가', '일단심을 잊을런가' 등에서 화자의 의지적인 태도를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강조하고 있다.

②(가)에서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를 찾아 볼 수 없다. ④(가)와 (나) 모두 감정 이입이 쓰이지 않았다.

**38.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 파악하기**

㉠은 '화자 자신의 분수'를 뜻하는 표현으로, '내 분인 줄 알리도다'라는 대목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받아들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② 화자는 '설 데운 승냥'으로 허기를 채울 정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장부 뜻'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39.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가)의 화자는 '강산과 풍월'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을, (나)의 화자는 '안빈 일념'을 품고 '일단심'을 잊지 않겠다는 모습을 각각 보인다. 특히 (나)에서 화자가 과거에 현실과 타협하려고 했던 모습을 찾기는 어렵다.

④ '일단심'은 일편단심을 의미하므로, (나)의 화자가 '빈곤한 인생' 속에서도 이를 잊지 않겠다는 모습에서 선비로서의 지조와 신념을 지키며 살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 고전 소설 \*\***

□ 출전: 작자 미상, <채봉감별곡(彩鳳感別曲)>

**40.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파악하기**

채봉은 평양으로 돌아온 이 부인과 만나, '지난 날 만리교 주막에서 취향과 약속하고 밤중에 도망하여 온 말을 대강하여 말'을 하였다는 것을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채봉은 평양으로 도망친 후, 취향의 집에서 부친의 기별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부모와 연을 끊으려고 한 것은 아니다.

**41. [출제의도] 구절의 표현 및 의미 파악하기**

㉠은 '채봉'의 내적 독백으로, '채봉'의 행위에 대해 서술자의 견해를 제시하는 편집자적 논평은 아니다.

②㉠은 오랜 시간 변함이 없는 자연의 모습과 한 달 동안에 행색이 초췌해진 '이 부인'의 상황을 대비하면서, '이 부인'의 암담한 처지를 보여 주고 있다. ④㉡은 도적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김 진사가 허 판서에게 붙잡혀 있는 등 채봉의 '부모'가 직면한 절박한 상황을 '범의 야구리에 들었으며'라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42.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채봉은 이 부인이 잠든 틈을 타 도망을 친 후, 평양에서 다시 만난 이 부인으로부터 부모가 만리교에서 도적을 만난 일과 김 진사가 갇힌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채봉이 도적을 만날 것을 예측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채봉은 종노릇이나 기생 노릇도 감수하고서라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므로 능동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④ 김 진사는 딸을 허 판서의 첩으로 보내면서까지 출세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 시나리오 \*\***

□ 출전: 이범선 원작, 나소운·이종기 각색,  
<오발탄>

**43. [출제의도] 장면의 의미 파악하기**

S# 120에서 택시를 탄 철호는 자신이 가야 할 곳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철호는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일이 많음에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자신을 오발탄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삶의 방향을 상실한 철호의 괴로움이 드러나고 있다.

**44. [출제의도] 다른 갈래로 변용하기**

<보기>에는 치통을 앓는 철호의 괴로운 심리가 드러나 있다. 이를 S# 110에서는 <보기>에 나타나 있지 않은 '철호의 얼굴이 점점 찌푸러지며 손으로 볼을 움켜쥐다'는 표정과 행동으로 드러내고 있다.

**45. [출제의도] 영화 기법의 효과 파악하기**

ㄴ. ㉠의 전후 장면에서 '한참 생각하다 들어가'고 '양쪽 볼을 손으로 누르며 나오'는 철호의 행동을 통해 철호가 치과에서 이를 뽑았을 것이라는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ㄷ. ㉡는 철호의 소리를 화면에 덧붙이는 기법을 사용하여 절망적 상황에 처한 철호의 비참한 심리를 집약하여 보여 준다.